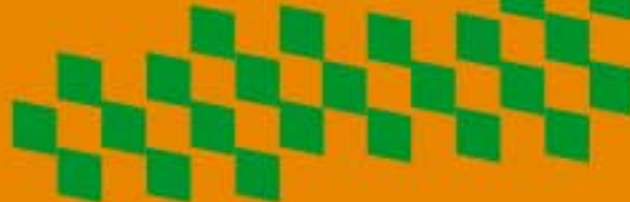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2012 하계 해외봉사대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김상래
총장(사회봉사단 단장)

“

‘봉사’는 우리 대학이 교훈(진리, 사랑, 봉사)으로 삼은 덕목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교육목표로 삼은 인재상 역시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입니다. 그만큼 ‘봉사’에 대한 우리 대학의 교육의지는 남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지를 따라 개교 이래 수많은 학생들이 전국 각지의 낙후지역에 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근래에는 봉사의 영역을 해외로 확장하여 대규모의 봉사팀을 해외 각지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인류애를 실천할 뿐 개 나라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행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고, 삼육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소기의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외봉사활동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봉사활동에서 거시적이고 집약적인 봉사활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것입니다. 가능하면 해외 원조가 필요한 한 나라에 우리의 노하우와 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국가에 보다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삼육대학교 봉사단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에 개인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기꺼이 헌신한 삼육대학교 해외봉사대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헌신과 수고로 온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양각색의 활약상이 “2012 해외봉사 보고서”에 수록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기록들이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



김원곤
사회봉사단 부단장

“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의 구호는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삼육 세계로!”이다. 삼육대학은 지구촌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대학이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마을의 평화와 행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봉사운동을 펴고 있다.

대학의 3대 기능(교육?연구?봉사) 중 하나인 봉사교육(Service Learning)은 삼육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지?덕?체 전인교육도 사회 속에서 봉사라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바뀐 대한민국은 지난달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하기 위한 정부/시민사회단체/기업/학계/경제계를 폭넓게 개우르는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시켰다. 우리 대학도 학계를 대표한 회원으로서 출범식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한 더욱 질 높은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올 여름방학에도 17개 팀 410명(교수 43명, 학생 367명)이 해외 10개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무사히 돌개오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한 이번 해외단기봉사 프로그램(SGS500)에 참여하신 교수님과 학생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저희 봉사단에서는 이들의 수고와 사랑이 담긴 사진과 글들을 모개 책자로 펴내게 되었다. 우리대학의 봉사운동이 교내외적으로 더 크게 확산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1. 개요

- 1) 사업 명: 삼육대학교 해외 단기봉사 프로젝트 『SU Global Service 500(SGS500)』
- 2) 비 전: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삼육 세계로!
- 3) 내 용: 500명의 해외단기봉사자들을 선발, 교육시켜 세계 각 곳에 파견
- 4) 목 적: 세상을 변화시킬 500명의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양성
- 5) 활동시기: 하계(6~8월), 동계(12~2월) 방학 중 7일 이상
- 6) 팀 인 원: 팀 지도교수 외 학생15명 이상
- 7) 주 관: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2. 기대효과

- 1) 개인 :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사회, 도덕성 개발 및 글로벌 리더십 향상
- 2) 학과 : 학과의 교육역량 강화, 학과의 연합 봉사활동을 통한 학과 단결력 강화
- 3) 대학 : 봉사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정체성과 대외 이미지 강화, 사회봉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 글로벌 리더십교육을 통한 봉사 엘리트 육성, 대학 브랜드 가치 향상

▶ 2012 하계 해외봉사대 팀 리스트

구분	No	팀명	봉사국가	봉사기간	봉사내용	지도교수	대원구성		협력 및 후원기관
							교수	학생	
학 과 팀	1	경영정보학과 (MISO)	필리핀	6.15-6.26	교육, 의료봉사, IT교육	신종성, 마이클리	2	15	1000MM Center
	2	상담심리학과A	필리핀	6.16-6.24	구호, 교육봉사	정구철, 김신섭	2	19	상담심리, 신학과 학회
	3	물리치료학과	괌	6.16-6.28	의료봉사	이승원, 유재현	2	16	괌SDA
	4	경영+기초+음악	캄보디아	6.17-6.26	교육, 노력봉사	조광현, 임봉순, 이상엽	3	38	Kteing Primary School
	5	사회복지학과 (G. S. C)	캄보디아	6.17-6.26	교육, 노력, 의료 봉사, 문화교류	윤재영	1	14	동문장애인복지관
	6	사복+물치+생체	베트남	6.17-6.27	교육, 의료, 노력봉사	정중화, 이재구, 이완희	3	28	베트남 민프고등 학교, IOGT
	7	원예+일본어+ 신학	일본	6.18-6.27	교육, 원예봉사, 문화공연	이창섭, 김원곤, 이상복, 윤주연	4	32	코마자와대학교, 토마코마이교회
	8	보건관리학과	필리핀	6.23-7.01	교육봉사	최윤희	1	22	보라카이 국제고
	9	미술디자인학부, 생활체육	중국	6.24-7.05	교육, 문화봉사	고태영, 박승순, 박유선, 김용선	4	32	옥계 SDA문화원
	10	중국어과 (카이신구어)	중국	6.24-7.08	교육봉사	박민수, 박희문	2	17	중국 상해 청솔학원 및 상해복단대학교, 상해 백제한국어학원
	11	말레이시아 고센, 탐파롤리	말레이시아	6.24-7.09	교육, 노력봉사	조양현, 박희만 저해중, 야마시다	4	25	말레이시아 사바 협회, GASS(고센 삼육 초, 중, 고)
	12	식품영양학과 (ICC)	필리핀	7.02-7.11	교육, 의료봉사	이상엽, 장병호	2	21	ICC KOREA
	13	경영학과	몽골	7.03-7.12	한글학교, 문화, 태권도교실, 교육봉사	강정수, 조광현	2	26	몽골미션청소년 부, 1000MM
	14	상담심리학과B	홍콩	7.22-7.30	교육봉사, 문화교류	김신섭, 정성진	2	15	홍콩삼육대학교
통 합 팀	15	자치기구 연합팀	캄보디아	7.15-7.25	교육, 노력봉사	이석민, 김현호, 류재권	3	15	ADRA 캄보디아
	16	인도 통합팀	인도	7.15-7.27	교육, 의료봉사, 망고나무심기	이병희, 김원곤, 이태은, 양종호, 김은배, Ballenger	6	32	Southern Asia Division, 1000MMcenter
합 계							43	367	
								410	

상담심리학과

필리핀 민도르 섬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캄봉팜



물리치료학과

관

2017년 물리치료학과 졸업생 사진



식영 + ICC

필리핀 나익 까비테



미술디자인학부

중국 옥계시



생활체육학과

중국 옥계시



중국어과

중국 상해



컴퓨터학부

말레이시아 탐파룰리



말레이시아 고센



보건관리학과

필리핀 보라카이



사복+물치+생체
Friendly

베트남 하노이,
썩선현 민프지역



경영정보학과

필리핀 탈락시티



경영학과

몽골 울란바타르
아알막 지역



일본, 원예,
신학 봉사대

일본, 홋카이도



인도통합A팀 (GATE)

인도 벵갈로르



인도통합B팀

인도, 첸나이



상담심리학과B

홍콩



학생자치기구 연합팀

캄보디아 푸샛



경영+기초
+음악

캄보디아 씨엠립





환영사	002
발간사	003
SGS5 00소개	004
상담심리학과A	026
사회복지학과(G.S.C)	052
물리치료학과	072
식품영양학과(IOC)	092
미술디자인학부	111
생활체육학과	128
중국어과(카이신구어)	140
컴퓨터학부(삼육엔젤)	152
말레이시아 고센	174
보건관리학과	192
사복+물치+생체(Friendly)	216
경영정보학과(MISO)	232
경영학과	258
일본+원예+신학봉사대	280
인도통합A팀(GATE)	302
인도통합B팀	330
상담심리학과B	350
학생자치기구연합팀	370
경영+기초+음악	382

상담심리학과

팀 명	상담심리학과A	주최학과/부서	상담심리학과
지도교수	김신섭, 정구철 교수님	학생대표	맹진선
봉사국가 (지역, 기관)	Philippine Mindoro Islands	활동기간	2012.6.16 ~ 6.24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8명		
협력및 후원기관	상담심리, 신학과 학회	주소/연락처	
봉사영역	구호봉사, 교육봉사	봉사대상자	원주민, 어린이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김신섭	상담심리		인성교육, 지도	지도교수	정구철	상담심리		대원교육, 지도
학생대표	맹진선	상담심리	3	총괄, 촬영	대원1	오자연	상담심리	3	총무
대원2	김화정	상담심리	4	미술	대원2	윤향기	상담심리	3	체육
대원3	노고경	상담심리	3	미술	대원3	신자영	상담심리	2	체육팀장
대원4	문자영	상담심리	4	페이스페인팅	대원4	정다정	상담심리	2	미술
대원5	박은희	상담심리	4	미술	대원5	채해선	상담심리	2	체육
대원6	육현주	상담심리	4	네일아트팀장	대원6	조사랑	상담심리	2	페이스페인팅팀장
대원7	이아름	상담심리	4	미술팀장	대원7	김형철	상담심리	1	체육
대원8	조주연	상담심리	4	네일아트	대원8	이지영	상담심리	1	미술
대원9	한상진	상담심리	2	체육	대원9	최미리	상담심리	1	체육
대원10	박홍룡	상담심리	3	미술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구호봉사	원주민 마을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면서 원주민과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함	기부 받은 옷이 부족했고 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가구가 많았다.	대원 : 19명 원주민 20가구
2	미술 놀이치료 - BGT검사	학교	BGT검사: 특정도형을 보여주고 외워서 그리도록 하는 그림검사로 아동의 시·자각 능력과 운동능력을 파악	아이들이 공통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문화적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대원 : 6명 저학년 : 80명
3	미술 놀이치료 - 종이접기	학교	색종이와 가위, 풀을 이용하여 만드는 창작 활동	아이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만족했던 활동	대원 : 9명 전학년 : 260명
4	미술 놀이치료 - 창의성검사	학교	제시된 도형을 보고 따라서 그린 후, 아동의 창의성을 유도	아이들의 상상력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통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아 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대원 : 9명 어린이 : 60명
5	미술 놀이치료 - 인생나무	학교	나무그림을 통해 아이의 내재된 꿈과 바람을 탐색	인생나무를 그리면서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작업이니 만큼 아이들에게 진로탐색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	대원 : 9명 고학년 : 60명
6	체육봉사- 울동	학교	영어울동과 한글울동	저학년의 경우 영어로 진행하기 어려웠으므로 간단한 Tagalog 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	대원 : 10명 전학년 : 260명
7	체육봉사- 레크레이션	학교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킴	아이들과의 교감이 증대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대원 : 7명 전학년 : 260명
8	ART팀	학교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활동이 우수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게 상으로 시행된 활동임으로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대원 : 4명 어린이 : 3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중음	매우중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1	2	3	4	5			
1	2	3	4	5	짐없이준비됐는가?								
계획된 활동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1	2	3	4	5
모두 실행했는가?							마무리했는가?						
활동 목표는		1	2	3	4	5	대원들간에 문제없이		1	2	3	4	5
달성했는가?							생활했는가?						

▶ 총평가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봉사대원들에게 봉사에 임하는 태도 및 가치소양을 지도하여 올바른 인성 교양을 이끌어냈다.	학생대표 역할	현지에서 대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게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
학생대원 소양	각 부서별로 나눠 자신의 재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었고, 전공지식을 발휘할 기본자세를 갖추었다.	현지반응	활동에 필요한 봉사물품을 준비했으나 예상된 인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학년별로 활동내용을 변경하였다. 소외아는 아이들이 없이 다 일일이 챙겨주고자 노력했고 페이스 페인팅과 네일아트 활동을 통해 서로 교감하면서 현지 담임선생님과 학교장 선생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숙식 및 생활여건	대원들이 불편함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곳이었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한창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하기에 맑은 날씨가 이어졌으며 태풍이 지나간 다음이라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었다. 다만 해수면이 높아서 파도가 잦으므로 민도로섬에 들어가가기까지 배말미를 조심해야 했다
잘된점	상담심리학과로서 전공을 연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이나 정서상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검사결과지를 각 학년 담임교사에게 안내/지도하였으므로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봉사대에게도 필리핀 현지사람들의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 면도 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현지에서는 스케치북이나 색연필, 가위, 풀과 같은 문구류가 귀하기 때문에 사전에 200명을 예상하여서 물자가 부족했다. 그렇지만 학년별로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원주민 마을 구호봉사팀과 학교담당 봉사팀을 나눠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될 필요가 있다. 19명의 대원이 학교와 원주민 마을 구호를 동시에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따르고 구호물품이 매우 부족했다.
개선(보완) 사항	일회적인 봉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꾸준한 후원이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쌀, 의자, 중고컴퓨터, 영어책 등 각 지역교회나 단체에서 일 년 내내 기부 받는 것이 좋다. 비누방울 만들기나 풍선아트와 같은 더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문화교류를 위해 한글교실이 만들어 풍물놀이, 제기차기, 부채춤 등 여러 활동을 이끌어 내는 문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총평	각 대원, 지도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였고, 구호물품은 부족했으나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환상적인 팀워크를 나타내었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16	오전	봉사대 최종준비	6/21	오전	미술·놀이치료 교실
	오후	20시 인천공항 탑승 12시 마닐라공항 도착 숙소이동/취침		오후	윽동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6/17	오전	현지문화체험	6/22	오전	봉사활동 결산
	오후	봉사활동 점검/준비		오후	현지문화체험
6/18	오전	휴식	6/23	오전	인성교육
	오후	인성교육		오후	휴식
6/19	오전	원주민 마을 구호물자 배포	6/24	오전	10시 마닐라공항 이동
	오후	봉사활동 점검/준비		오후	19시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6/20	오전	미술·놀이치료 교실			
	오후	윽동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상담심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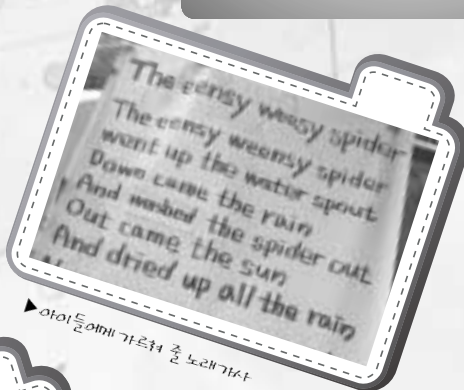
▶ 아이들 앞에서 물동글 가르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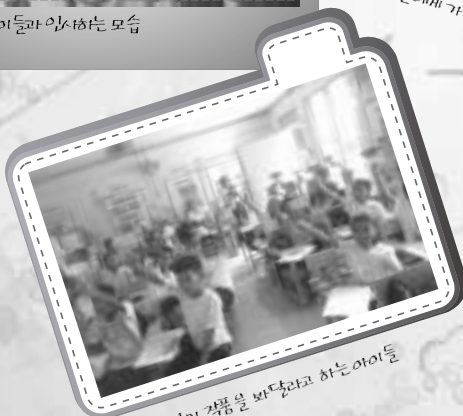
▶ 미술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시간



▶ 집에 가는 아이들과 인사하는 모습



▶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노래가사



▶ 자신의 작품을 보달라고 하는 아이들



▶ 숙소에서 물동글 연습



▶수업 컨팅왕들에게 퍼이 스텝이 칭찬을 하였다.



▶아이들에게 BGT협사의 그림을 보여준다.



▶상한 아이 머리에서 독약을 빨라주는 모습



▶전교생 아이들과 담배길



▶원주민에게 웃을 드렸다



▶수업중 너도나도 손드는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담배길

상담심리학과



▶ 아이들과 첫 만남



▶ 아이들과 소개하는 모습



▶ 나에게도 모야 있는 아이들



▶ 아이들과 함께



▶ 국호물품을 이웃마을로 이동하는 중



▶ 충청남도 함께



▶ 비록개비 놀이



▶ 전교생아이들과 다같이안경



▶ 봉사대 물품 점검 중



▶ 육소에서 월동팀악무 연습 중



▶ 학교 사설관상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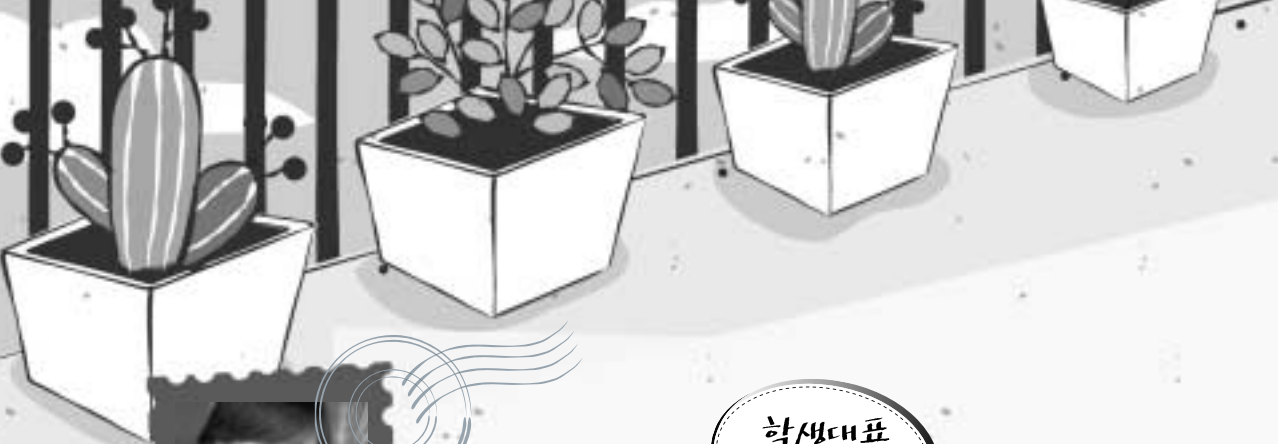
▶ 원주만마을로 출발미팅



▶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 봉사대 물품



학생대표
소감문



맹진선 | 상담심리학과 3학년
학생대표, 촬영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곳에서”

지난 2011년 12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해외봉사를 하였다. 그때의 감동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자 새로운 팀, 새로운 목적지, 새로운 대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필리핀을 향했다. 두 번째 해외봉사이지만 역시 모르는 것, 낯선 것 투성이었다. 처음 대장으로서, 봉사대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힘으로만 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걱정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필리핀의 아이들을 보면서 봄바람에 눈 녹듯 싹 사라졌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MINDORO ISLANDS 안에 있는 한 학교였다. 필리핀 아이들의 눈에는 낯선 외국인이었을 텐데도 반갑게 맞아해주었다. 더운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이 한 대, 형광등 하나도 없는 교실, 낡은 책걸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따름이었다.

학교에 가기에 앞서 먼저 원주민 마을을 둘러보았다. 90도가 넘어가는 산기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봉사대가 출발하기 전, 신학과와 상담학과 학회에서 옷을 기부 받았다. 총 18개의 박스가 학과 사무실에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턱없이 부족했

다. 구호물품이 금세 바닥이 났고 산 능선 너머에 있는 집까지 갈 수 없어서 아쉬움을 더했다. 구호물품 중에는 가축과 함께는 현지인들 중 혹시 아픈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피부약과 소독약도 준비했다. 한 집에 들어가 보니 생후 2개월 정도로 보이는 아기의 머리에 피 고름으로 염증이 심하게 나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솜으로 소독해주는 일 뿐이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평생 병으로 안고 가야만 하였다. 600원 정도의 피부 연고약이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마저 치료하지 못한다는 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아려왔다. 원주민 마을을 내려오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번의 일회성 기부라면 텅빈다는 것. 일회성 기부가 아닌 연중 내내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봉사대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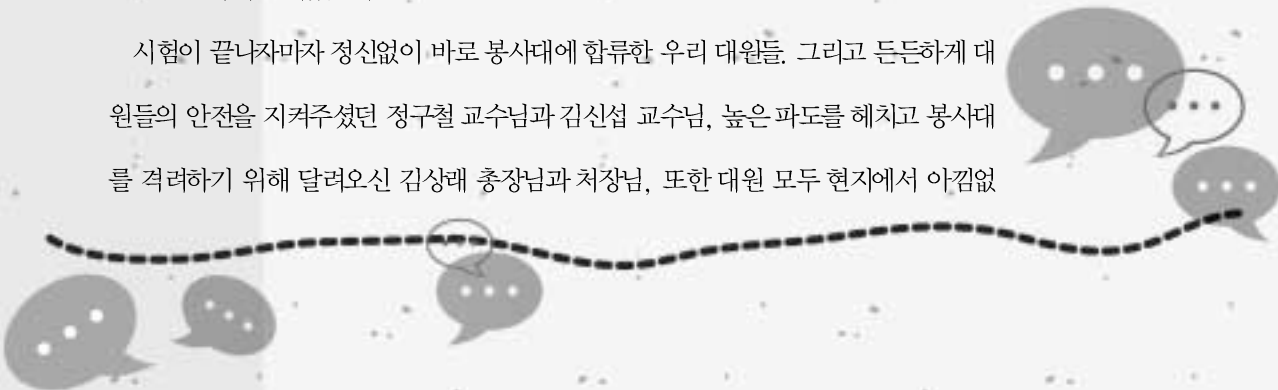
봉사대는 크게 두 팀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나는 미술놀이 치료 팀이고 다른 하나는 체육팀이었다. 미술놀이치료팀에서는 BGT검사, 창의성 검사, 인생나무 그리기 등을 실시하였고, 체육팀에서는 율동과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교감하고자 노력했다.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최대한 아이들과 교감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노력한 것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아이들은 수줍음을 뒤로 한 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수업 한 시간, 활동 하나씩 끝날 때마다 환호했고, 열심히 활동한 친구에게는 상으로 ART팀에서 네일아트와 페이스페인팅을 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1, 2학년의 경우 영어를 전혀 못하고 오직 Tagalog만 쓴다. 당연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체육팀에서 아이들과 손을 잡으면서 교감하자 아이들의 경계어린 눈망울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렇다. 아무리 의사소통이 힘든 나라라도

그들의 마음이 통한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우리 대원들 역시 큰 미소로 화답했다.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 짧은 시간에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나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찾아왔다.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에 감춰졌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을 보고 다시 다짐했다. 일회적인 만남이 아닌 꾸준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겠노라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바로 봉사대에 합류한 우리 대원들. 그리고 든든하게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정구철 교수님과 김신섭 교수님, 높은 파도를 헤치고 봉사대를 격려하기 위해 달려오신 김상래 총장님과 처장님, 또한 대원 모두 현지에서 아낌없



는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정해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노고경 | 상담심리학과 3학년
미술놀이치료팀



“필리핀에서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이번 봉사대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이 될 것 같다. 나에겐 해외로 나가보는 경험도 처음이었고, 봉사도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신기한 감정이 들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식물들 환경, 날씨 등등 나에겐 모든 것이 신기한 일 뿐이었다. 도착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덥고 습한 날씨와, 음식이었다. 망고 알레르기가 있어 일주일 내내 입 주변에 알레르기가 난 채로 생활했고, 더불어 덥고 습한 날씨가 지치게 만들기도 했다.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그림치료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졌다. 심리학과인 만큼 심리학을 접목 시킨 전문적인 그림치료 수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열심히 회의한 끝에 다양한 심리검사와 색종이 접기를 합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 날, 우리는 열심히 밤새도록 가위질을 하고,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만진 적 없던 색종이 접기 책을 꺼내 열심히 색종이 접기를 익혔다. 아이들이 기뻐할까 걱정되는 마음과 동시에 기대되는 마음으로 전날을 보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다. 차를 타고 교문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낯선 우리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 주었다. 다들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고 인사도 해주었다. 난 이때 보았던 아이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살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눈동자였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과 깨끗하고 순수한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난 정말 충격을 경험했다. 도착해서 우리들이 준비한 울동을 보여주었는데, 다들 별 것 아닌 것에도 웃어주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뿐이었다.

이제 각자 준비한 수업자료를 들고 각자 수업할 반으로 들어갔다. 첫 수업은 2학년 반이었다. 우리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며 반겨 주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소개했고,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필리핀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첫날은 BGT검사를 진행했다. 지남력장애를 판단하는 검사였다. 비록 의사소통은 서로 되

지 않았지만, 우리의 서투른 영어실력에도 아이들은 잘 이해하고 따라 와줬고, 또한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매끄럽게 진행 되었다.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 와주는 모습이 너무 흐뭇했고, 귀엽게 느껴졌다.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5학년 반으로 들어갔다. 난 이때 한 소녀의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우리에게 큰 호감과 집중의 눈빛을 보냈던 한 소녀, 그 소녀는 수업시간 내내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



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진심으로 느껴져서 아직도 그 소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첫 날 봉사대를 마치고 내일 또 만나자고 손을 흔들며 전교생들과 인사를 했다. 같이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벌써 정이 들어 버렸다.

다음날은 색종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확실히 집중도가 훨씬 올라간 느낌이었다. 바람개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국어로 바람개비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참 눈빛으로 온 교실을 휘젓고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나 또한 너무 흐뭇했다. 정말 뿌듯한 감정이 들었다. 또한 색종이로 목걸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다 완성한 사람은 우리가 박수를 치며 걸어주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기쁜 눈으로 완성품을 들고 우리에게 오는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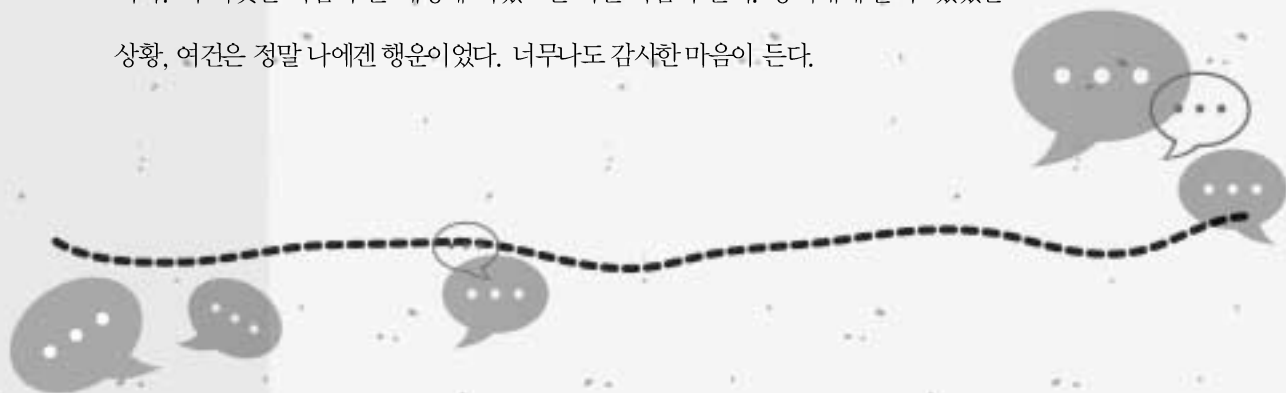
모든 수업이 마무리 되고,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다. 불과 며칠 본 아이들이

였지만, 우리 모두 그새 정이 들었던지, 한 명이 울음을 터트리자, 전염병처럼 퍼져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울고 있었다. 난 이 순수한 눈망울들을, 이 아이들을 내 삶에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낯선 이방인들 이었던 우리를 선택하고 착한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아이들과의 작별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한편으로 내가 살고 있던 각박하고 계산적이었던 세상, 현실과 너무 대조되는 이곳과의 작별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도 우리의 진심을 읽은 건지 모두 같이 울어주었다. 이 착한 아이들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 마지막에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비록 이름은 한명 한명은 모르지만, 지금 필리핀에 다녀 온지 일주일이나 되는 시점에도 그 아이들 한명 한명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른다. 나는 역사나 지금 각박한 현실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

다. 그래서 신비롭다는 느낌까지 든다.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진다.

비록 봉사대 기간이 일주일이었지만 난 이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으리라 믿는다. 아직도 거기서 있었던 순간순간들이 잊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순간들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내가 배워오는 것이 많았던 시간들이었다. 주변 친구들에게 봉사대를 적극 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다. 그곳에 다녀온 이후 내 마음이 조금은 더 따뜻해진 느낌이다. 이 따뜻한 마음이 온 세상에 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봉사대에 갈 수 있었던 상황, 여건은 정말 나에게겐 행운이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조시영 | 상담심리학과 2학년
미술치료교실 보조&페이스 페인팅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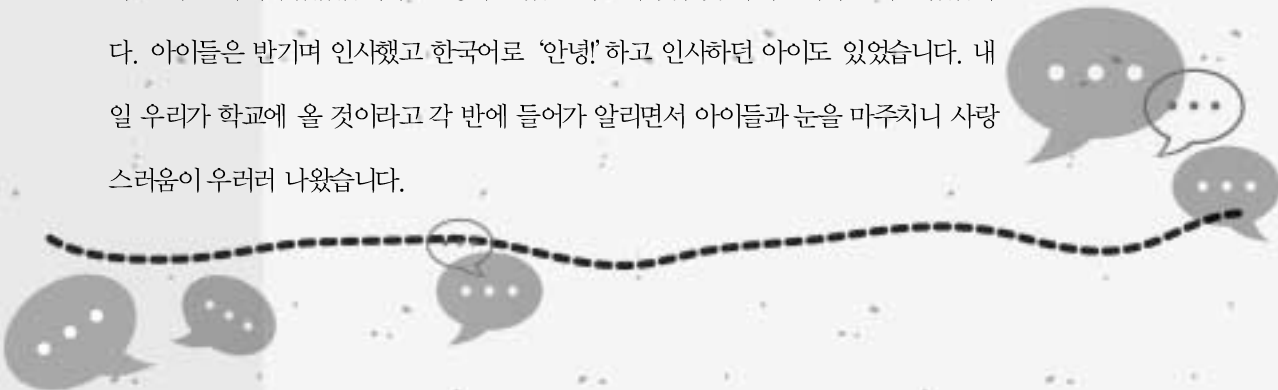
“필리핀 민도르 섬에서”

첫 해외봉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시험기간인 일주일 전부터 어떤 경험이 될까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해외로 가게된 것이 봉사가 계기가 되어 뜻 깊기도 하였습니다. 여권발급과 사전모임 등을 준비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생겼던 우여곡절을 잘 넘기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기대로 들떠있었습니다. 저녁비행기로 야경을 보며 한국을 떠나 필리핀의 숙소(칼람바)에 도착했을 땐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 다양한 벌레울음소리와 도마뱀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율동연습을 하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민도르 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기니 금방 섬으로 떠나야 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칼람바에 있는 동안 주변의 문화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본 필리핀의 자연 광경은 경이롭고 또 그 곳에서 만난 현지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필리핀을 도와줘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한 저에게 필리핀은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봉사를 온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사람들을 마냥 불쌍하게 보거나 깔보는 시선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여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섬에 들어가기 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도르 섬으로 떠나는 아침, 다행히 태풍이 먼저 지나가서 햇볕이 쨍쨍한 날씨에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 다들 멀미로 고생했지만 청명하고 푸른 바다를 보자니 멀미로 눈을 감고 있기조차 아까웠습니다. 민도르 섬의 숙소에 도착하여 우리는 둘로 나누어 한 팀은 우리가 가르칠 학교에 방문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원주민 분들께 드릴 옷들을 정리하고 먼저 준비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로 가게 된 저는 아이들과 인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저는 쭉뚝쭉뚝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반기며 인사했고 한국어로 '안녕!' 하고 인사하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학교에 올 것이라고 각 반에 들어가 알리면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니 사랑스러움이 우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교수님과 다 같이 모여 피드백과 회의를 하고 따로 팀별로 모여 준비를 하니 매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자정이 한참 넘기게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아이들을 보면 피곤 따위 기억도 나지 않았고 특히나 피드백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아이디어들과 다음 봉사대에선 개선할만한 점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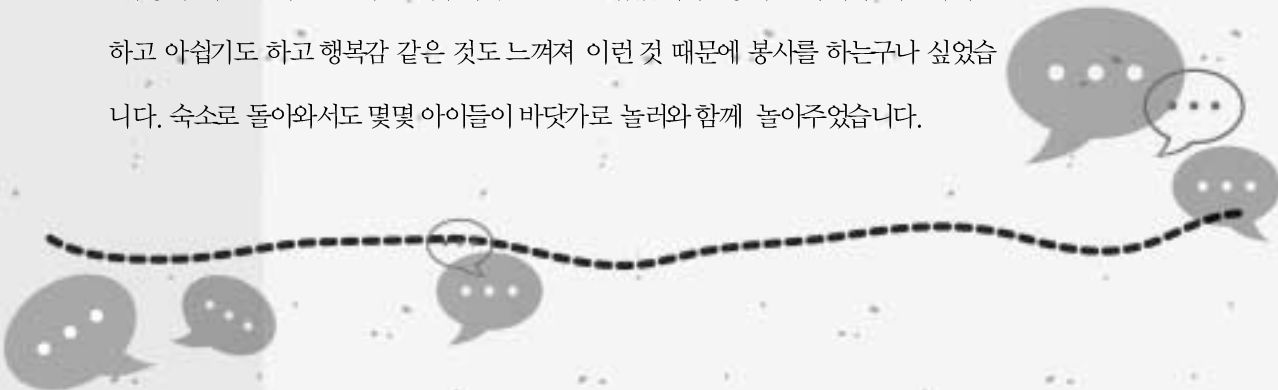
저는 페이스페인팅 팀으로서 수업 전에는 팀원들에게 아이들의 흥미가 유발되도록 페인팅을 그려주고 팔에는 영어 닉네임을 써주고 첫 교시에는 미술 치료 팀을 도와주다가 두 번 째 시간부터 레크리에이션 및 율동 팀에서 각반에서 참여를 잘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앞에 서 그림을 고르고 있으면 아이에게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져 뿌듯함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 하나하나에 우리가 보았던 맑고 푸른 바다와 밤하늘에 쏟아질 듯 반

작이던 별들이 들어있는 듯했습니다.

하루는 오전에 가져갔던 옷가지와 현지의 라면을 나누어 주고 가벼운 상처치료를 위해 약품들을 챙기고 원주민 마을로 향했습니다. 원주민 마을은 우리가 수업하던 초등학교 뒤편에 있었는데 가서보니 해변에 사람들과 사는 처지가 너무 달라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간 터라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큰 빈부격차에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무로 대충 또닥또닥 만든 것 같은 집에 5명이상 씩 살고 안에 닭과 개들이 아이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길은 산으로 나있어 몹시 가파르고 더운 날씨도 더해지니 이곳에서 사는 원주민들은 이 걸 매일격고 있을 거란 생각이 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산꼭대기까지 다녀왔는데 내려오니 그 산 너머에 더 많은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부족해구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아이들은 마냥 순수하고 밝은 초등학교아이들과는 달리 외부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간 따갈로그어로 원주민들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라면을 나눠주며 다친 사람을 확인하였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귀가 다쳐있던 것을 언니들이 보고 아이의 엄마에게 같이 내려가서 치료받자고 하니 부모가 경계하여 내려오지 않아서 직접 약을 가지고 올라가 치료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다가 넘겨주셔서 아이의 상처를 보자니 가볍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심하게 골아있었습니다. 귀 뿐만 아니라 머리 또한 그러하여 소독약으로 고름을 닦아내도 안쪽으로 생긴 고름은 병원에 가야할 것 같았습니다. 앞서 주민들의 생활을 보고 그 모습을 보자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것들이 숙소로 돌아와서 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날이 봉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학교로 와서는 잘 따라주는 아이들 덕분에 심각해졌던 마음이 한결 편해 졌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들었는지 와서 내일 돌아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고 하지만 내년에 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여서 하마터면 같이 울 뻔 했습니다. 같이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정이 들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집에 줄지어가는 길에 수업 중에 잠깐 배운 한국말로 '사랑해' 라고 모두들 인사를 해주어 팀원들을 울렸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행복감 같은 것도 느껴져 이런 것 때문에 봉사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몇몇 아이들이 바닷가로 놀러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봉사일도 마치고 하니 주변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며 노을이며 아름답지 않은 게 없었고 그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빠지거나 불쌍해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겁니다. 분명 도와야 할 것은 맞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행복해보여서 내가 오히려 부족한 삶을 사는게 아닐까 의문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힘든 일이나 나태해지는 일이 생기면 이곳에서의 일들을 떠올리며 힘내야겠습니다.



최미리 | 상담심리학과 1학년
율동팀

대원
소감문

“민도르섬에 바람개비가 날아들다”

나는 이번 봉사에서 율동팀원을 맡아, 한국에서 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율동과 노래를 연습했다. 특히 하루 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함께 먹어가며 연습했는데, 율동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일곱 명의 동작을 하나로 맞추기는 정말로 어려웠다. 필리핀에 와서 학교를 가기 전 날, 각 팀의 리더들과 교수님이 사전 답사를 하고 왔는데 학교 실정이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달라서 거둬해서 회의를 했다. 가장 변경이 필요했던 종이접기 팀을 위해 모두가 밤까지 색종이 접는 일에 참여했는데 단 2시간의 봉사를 위해 열아홉 명이 몇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단체생활에서 팀워크는 참 중요하다. 학교에 도착해서 우리는 환영의 인사로 윈터걸스의 텔미를 선보였는데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나서 각각 팀원들이 리더가 되어 아이들을 둥그렇게 모이게 해 도레미 송과 호키포키송을 가르쳐주었다. 다음 교시에는 2학년 교실로 들어가서 행맨 게임을 했는데 너도 나도 칠판 앞으로 나와서 손을 들고 알파벳을 외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다음날에는 원주민 마을에 다녀왔다. 험소한 길을 따라 산을 올라가다 보면 헛간 같은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족과 사람이 공존하여 살고 있었다. 살림살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 집에 엄마와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모았던 헌옷과 현지 라면을 드리니 수줍은 미소로 보답해주셨다. 큰돈이 든 것도 아닌 우리의 나눔을 고마워해주는 걸 보니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척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에 가면 아름다운 가게에 안 쓰는 물건들을 기증할 것이다. 학교 봉사에서는 어제와 같이 놀아준 뒤 쉬는 시간이 되어 무더운 날씨에 지쳤던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있었는데 교실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다. 놀아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고작 율동하는 아마추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받아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다음 교시에는 5학년 교실로 들어가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주었는데 율동을 배울 때도 어찌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던지! 모든 아이들이 신나게 즐겁게 우리의 동작들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우

리도 두달아 신이 났다. 율동하기에 바빠 사진 찍을 틈이 없어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지 못한 게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기억 속에 계속해서 저장될 테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제 스무 살이 되어 어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나는 이곳에서 노래와 춤만으로 웃을 수 있는 동심의 세계를 찾았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자주 자주 놀러가고 싶은 세계이다.

봉사가 끝나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이 날 배웠던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두달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운동장에는 이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울려 퍼졌다. 또한 아이들이 그날 색종이로 만든 바람개비와 목걸이를 어찌나 애지중지하며 가지고 가던지! 한국에서는 몇 백 원하는 색종이가 필리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진 것

이다. 이 아이들의 꿈들은 저 색종이 색깔보다도 다양하겠지?

나는 아이들에게 바람개비 같은 봉사대원이었기를... 꿈이라는 색종이를 접어 희망이라는 바람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람개비 말이다.





윤형기 | 상담심리학과 3학년
윙둥 및 레크레이션

대원 소감문

“몸은 덥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필리핀”

대학생이 되고 3년째 여름, 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학교생활과 그냥 그저 그런 방학, 해외봉사에 관심과 욕심은 있었지만 웬지 모르는 세계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으로 다음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하지만 웬지 이번은 꼭 가야 할 것만 같았다. 떠나기 전날까지도 나는 실감도 나지 않았다. 도착하여 필리핀의 정치에 놀라고 감동하며 많은 것을 보았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날 마지막 회의를 끝내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내 걱정은 사라지고 기대 그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내 입기엔 함박웃음만이 있었고, 더위도 햇빛도 잊은 채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see you tomorrow!” 우린 하루 종일 아이들의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고, 이튿날 서둘러 아이들을 보러갔고, 기다렸던 듯이 우린 맞이주는 아이들을 보며 그 순수한 마음에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 모두 그 아이들에게 빠져버린 것 같았다.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주고 같이 웃다 뛰놀다 모든 시간이 지났다. 모두 일렬로 서 모든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서운함에 인사를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see you tomorrow” 라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옆 아이는 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울고 있었다. 그 주변 아이들은 그저 웃으며 놀아달라 하고 있다. 순간 여태 느낀 그 순수한 마음 이상 뭔지 모를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해가며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준 건가 하는 죄책감과 많은 생각들이 스치며 가장 크게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짧은 시간에 누군가와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아직 눈에 밝힌다. 작고 조용하던 아이들의 수줍은 미소도 눈에 선하다. 짧지만 깊이 다가온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있을까? 서로의 마음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상대의 마음에 확신에 서야만 내 마음을 조심스레 열었던 내가 알고 살던 그런 세계는 이 곳 어디에도 없었다. 첫 만남에 집중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먼저 웃어주고 다가와주던, 진짜 동심을 배웠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모두 통했다. 우리 모두 울고 있었다. 울면서도 내 마음이 신기했다. 오랜 시간을 만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은 한명한명 나에게 너무 특별한 아이들이다.

날 좋아해주던 아이들 모두 나에게 와서 이야기 해주었다.

'don't cry', 'see you next year', 'i miss you', 'I remember you'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다.

나또한 아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보고 싶을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또 만날 것이다. 우리 팀은 그 후 원주민 마을



에도 방문하였다. 넉넉하지 않지만 라면과 옷가지들을 들고 산에 올랐다.

나무로 지은 헐거운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티비에서만 보던 그 곳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는지 궁금해지는 집. 라면 한 봉지 한국 돈 몇 백 원. 그들은 그 돈이 없어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준 라면 몇 봉지로 몇 끼니 반찬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 중엔 고맙다며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경계의 눈빛을 하고 옷가지를 받은 다음 우리가 모두 뒤돌아 가셔야 옷을 펴 보고, 라면을 챙기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무슨 상처를 받았기에 우리를 경계할까. 한 블럭 차이로 문명과 단절된 곳 이곳에서는 다른 것들을 느꼈다. 항상 검소하고, 욕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늘만 보다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같이 돕고 살아가야 내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느끼는 배우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와 닿았다. 가족들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주일이상 삼시세끼 같이 먹고 자다보니 우리 대원들과도 너무 많은 정이 들었다. 처음엔 수고했다며 웃으며 보냈다. 그리고 왜 아이들과는 그토록 슬펐는데, 왜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우리 대원들과는 슬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허전한 빈 방에서 눈을 뜨고 알았다. 그저 우리는 한국에서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정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 천사같은 대원들과 교수님들, 도와주신 장로님, 또 우리 민도르 섬 아이들, 원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또 잊지 않을 것이다. 과 단절된 곳 이곳에서는 다른 것들을 느꼈다. 항상 검소하고, 욕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늘만 보다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같이 돕고 살아야 내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느끼는 배우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와 닿았다. 가족들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주일이상 삼시세끼 같이 먹고 자다보니 우리 대원들과도 너무 많은 정이 들었다. 처음엔 수고했다며 웃으며 보냈다. 그리고 왜 아이들과는 그토록 슬펐는데, 왜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우리 대원들과는 슬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허전한 빈 방에서 눈을 뜨고 알았다. 그저 우리는 한국에서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정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 천사같은 대원들과 교수님들, 도와주신 장로님, 또 우리 민도르 섬 아이들, 원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또 잊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학과(G.S.C)

팀 명	G.S.C	주최학과/부서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윤재영	학생대표	신혜진
봉사국가 (지역, 기관)	캄보디아 캄봉잠	활동기간	2012.6.17 ~ 6.26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3명, 기타 : 5명		
협력및 후원기관	동문장애인복지관	주소/연락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49-39 뉴비전빌딩
봉사영역	교육, 노력, 의료봉사, 문화교류	봉사대상자	현지 아동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윤재영	사회복지			대원8	안덕환	물리치료	1	체육봉사
학생대표	신혜진	사회복지	4	교육봉사	대원9	홍윤기	물리치료	1	사진
대원2	엄태원	사회복지	4	총무	대원10	강지연	경영	3	교육봉사
대원3	이은진	사회복지	4	교육봉사	대원11	김서연	미술컨텐츠	3	문화교류
대원4	정다은	사회복지	4	총무	대원12	김예진	화학	2	문화교류
대원5	김진기	사회복지	3	체육봉사	대원13	최선희	중국어	3	문화교류
대원6	장범희	사회복지	3	노력봉사	대원14	홍제표	사회복지	4	문화교류
대원7	김종민	물리치료	1	체육봉사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 좋음	안 좋음	보통	중음	매우 좋음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교육봉사	6.17~6.22	현지 도서관	색칠공부, 율동, 한글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	융통성있게 적절히 시간 배분하여 진행	대원14명 기타:2명 어린이: 150명
2	노력봉사	6.17~6.22	마을 부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자를 현지 청년들과 건축	봉사대가 떠난 후에 정자를 성과로 남겨 놓을 수 있음	대원14명 기타:2명 현지청년:10명
3	의료봉사	6.17~6.22	마을	약을 소지하며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	마을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간도 적게 걸림	대원 14명 기타: 2명
4	문화교류	6.17~6.22	마을	현지인 홈스테이로 숙박, 마을사람들과 파티 진행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진행되었음	대원 14명 기타: 2명

▶ 총평가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전반적으로 상황을 조정해주는데 중점을 두셨음	학생대표 역할	전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 확인 후 학생들과 조정하고 공자하고, 학생들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학생대원 소양	일정을 진행하면서 현지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하였고, 모두 성실했음	현지반응	한국에서 준비한 일정들이 만족했고 현지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어지기를 원했음
숙식 및 생활여건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몇 명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숙식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함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마을사람들이 대부분 친척관계로 이루어져 있거나 안면이 있어서 대원들의 안전에 문제 없었음
개선보완 사항	일정이 촉박하여 준비 시간이 부족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대원들이 모여서 봉사대를 준비할 곳이 학교 밖에 없는데 학교에 마땅한 장소가 없음
잘된점	서로 다른 과에서 모였기 때문에 각 과의 특성을 현지에서 진행되는 일정에 잘 녹여서 진행함	총평	한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만족스럽게 진행하였고, 학생들 간의 갈등 없이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고, 모두 건강하게 귀국하였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시간	출국	지역탐방	마을 1일	마을 2일	마을 3일	마을 4일
	17일(일)	18일(월)	19일(화)	20일(수)	21일(목)	22일(금)
5: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6:00				6:30 본부동 집합	6:30 본부동 집합	6:30 본부동 집합
7:00		아침	아침	아침(본부동)	아침(본부동)	아침(본부동)
8:00				아침회의(08:30분)	아침회의(08:30분)	아침회의(08:30분)
9:00		반디 뿌리음 견학		의료봉사	노력봉사	의료봉사
10:00						
11:00						
12:00		점심		점심(홈2)휴식	점심(홈4)휴식	점심(홈6)휴식
13:00						
14:00			교육봉사 및 체육활동	교육봉사 및 체육활동	교육봉사 및 체육활동	
15:00						
16:00						
17:00						
18:00	출국 18:30)				저녁(홈5) 휴식	저녁(홈7) 휴식
19:00	비행중		저녁(홈1) 휴식			
20:00	회의	전체회의	전체회의	전체회의	전체회의	
21: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22:00	프롬펜입국					
23:00	인사및아동	취침				
0:00	취침					

시간	마을 5일 23일(토)	싸애티 아동 양코르앗 관광 24일(일)	양코르앗 관광 25일(월)	귀국 26일(화)
5:00	취침	취침	취침	비행중
6:00	6:30 본부동 집합	6:30 본부동 집합		6:30분 인천도착
7:00	아침(본부동)	아침(본부동)		
8:00	아침회의(08:30분)	아침회의(08:30분)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사회복지학과



▶ 인천공항에서 출국전



▶ 축구를 하는 봉사대원과 아이들



▶ 봉사대원들과



▶ 강의를 기다리는 아이들



▶ 참가와함 작업의 모습



▶ 색칠공부 하는 아이들



▶ 아이들 씻기 후 소독하는 모습



▶ 레인트칠 후 마무리된 행사 모습



▶ 단체사진



▶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알려주는 모습



▶ 완성된 행사 모습, 봉사단원과 현지아들



▶ 강기차량



▶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시작을 기다리는 아이들



▶ 상해약을 받아주는 모습



▶ 본부동에 모임마을 사람들



▶ 프로그램 마무리 인사 중인 아이들



▶ 본부동에서 회의 중인 대원들



▶ 비눗방울에 참가하는 아이들



▶ 활동을 배우는 모습



▶ 게임을 하는 모습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지도교수
소감문

“지속적인 단기봉사활동을 통한 캄보디아 시골마을과 신뢰 쌓기”

대학생들을 데리고 세 번째 캄보디아 행이다. 작년 여름 처음으로 봉사대를 이끌고 캄보디아 깐뽕짬주 뿌라옥 마을에 갔을 때에는 지도교수가 없어 구색으로 따라 갔었다. 프놈펜에서 2시간 30분 거리 그 시골마을에서 코이가 봉사대원 한 사람이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개발을 2년 동안 추진하는 모습에 감동해서, 동문복지관과 함께 1월에 두 번째로 그곳을 찾게 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 단기봉사이다.

현지 코이가 봉사단원과 마을 코이가 NGO에 의존적이기만 했던 지난번 우리의 일정과 사업이 이번에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프놈펜 공항에 대기되어 있던 승합차도, 프놈펜에서 묵었던 호텔도, 견학했던 고엘공동체도 모두 우리가 직접 섭외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NGO 리더 찬타(Baeun Chantha)와의 일대일의 소통에서 벗어나 마을 내 네트워크의 다각화도 꽤 했다. 마을 면장님도, 마을의 유지인 수의사님도,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도 현지 통역을 통해 주체적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이번 단기봉사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도 학생들의 이동교육활동과 노력봉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물론 학생들이 하루 200여명의 마을 아동을 교육하고 앞으로 현지 거

점이 될 Sahmyook Hut을 짓는 일은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마을에 도착한 때부터 마지막 밤 주민 300여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까지, 활동 기간 내내 마을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들을 또한 불별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방문을 통해 프로파일링 해두었던 장애인 10여 명 중 5명에 대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놈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서비스 연계를 이루었고 이 일에 마을 면장님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 현재 캄보디아는 상의 군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야심차게 소액신용대출(micro credit)사업을 띄웠다.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

어져 왼쪽 팔을 절단한 청년 Seoumd이 축산을 하고 싶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물어왔고, 우리는 마을의 덕망 있는 의사 Mr. San을 보증인으로 하고 8개월 후 매월 10%씩의 원금상환을 조건으로 Seoumd에게 350\$(현지 임금은 1일 3.5\$)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마을의 의사인 Mr. San은 우리들의 사업 계획을 듣고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

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우리도 이번

사업이 성공한다면 지속적으로 뜰놈마을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금을 키워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아마 학생들도 이 사업을 위해 모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한 시골마을과 신뢰가 쌓여



가고 있다. 매번 참여해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을에서 민박을 하며 불편한 화장실과 빗물 샤워를 감당해내고 매일 밤 모기와와의 전쟁을 치르고도 마을에 다시 가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활동이 다양한 사업들로 열매 맺고 있다. 지난 학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학기 봉사단을 위해 스스로 모금하여 사업자금을 보태주었다. 이번
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벌써부터 겨울방학에 다시 방문하기 위해 이런 저런 모의를 하고 있다. 함께 해주었던, 참 착한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신혜진 |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대표, 교육봉사

학생대표
소감문

“행복의 조건”

시험 기간이 끝나고 바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서 봉사대를 준비할수록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보다는 빨리 다녀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반 정도였고 타과 학생들도 많아서 준비를 하는 동안 많이 친해지지도 못했고, 준비를 하는 동안 봉사단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학생대표로 봉사단을 꾸리긴 했는데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 출국하는 날까지 고민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습한 날씨에 다들 놀란 것 같았지만, 도착하고 나니 다들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천연 염색하는 곳을 견학하고 마을로 가는 동안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동네일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집은 어떻게 화장실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쉬려고 주유소에 들렀다. 차가 정차하려고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열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우리 차에 가까이 붙었다. 아이들에 손에는 과일 같은 것이 들려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이 문 앞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과일을 살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 한국 노래를 불렀다. 그 날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와 상대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다시 한참 동안 이동을 하다가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도 않은 산으로 들어갔다. 산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니까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서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먼저 되기 시작했다. 환영사를 마치고 본부동에 짐을 풀고 각자 홈스테이를 하는 집으로 갔다. 한국에선 생각도 못해본 환경이 펼쳐졌다. 길에는 소와 돼지가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나무로 된 집은 위태위태하게 보이기만 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마자 ‘저 집이 과연 안전할까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하면서 혼자 걱정을 했다. 집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면서 화려한 조명도 없고 높은 건물도 없지만 눈앞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매일 이런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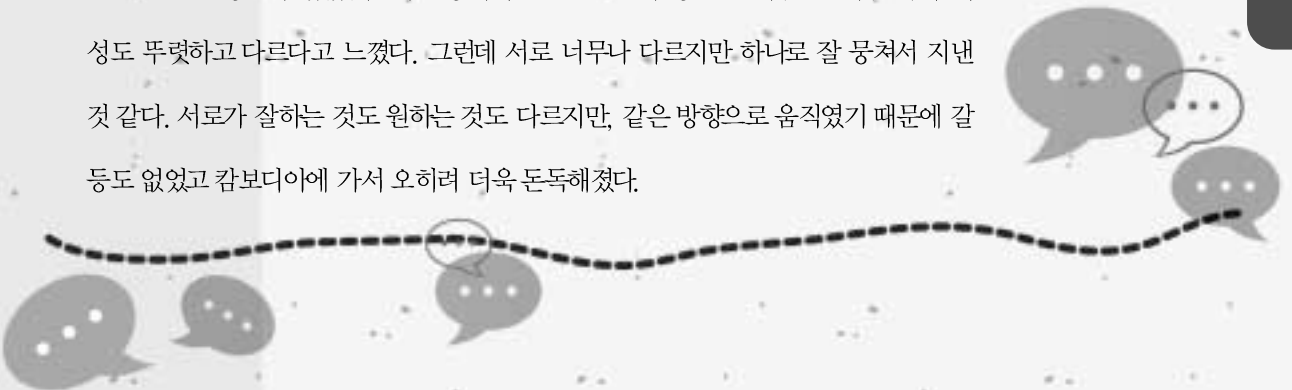
이 들었다. 우리를 환영해주는 파티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냥 흠으로 된 운동장 한 가운데에는 웅두이가 파여 있고 그 곳에 앰프와 천막을 설치한 곳이 우리의 파티 장소였다. 처음에는 다들 장소와 사람들을 어색해했지만 마을 아이들이나 청년들과 어우러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본격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면서 오전에는 정자를 짓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 교육을 했다. 첫날 정자를 만드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방식으로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할 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 동안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 때 교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묻고 요구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아직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막막해서 그냥 일을 시작한 것 같다.

그 날 저녁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원중에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오빠가 계셔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잡아주시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건물을 잘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대원들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성도 뚜렷하고 다르다고 느꼈다. 그런데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로 잘 뭉쳐서 지낸 것 같다. 서로가 잘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갈등도 없었고 캄보디아에 가서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마을에 있는 6일이 하루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물감, 크레파스, 스티커, 유행이 지나서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문구용품들을 가져갔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쿤' 이라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스티커 하나가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 우리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웃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예뻐했다.

마을을 떠나는 마지막 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곳에 살고, 다른 피부색을 가졌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항상 같은 단어로 같은 말만 반복했지만 나중엔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았고, 말로 하지 않아도 느끼게 되었다. 우리 봉사대 학생들 외에도 조창길 회장님이라는 분이 함께 가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고 집 밖에 나와서 사회를 접한 게 1년이 조금 넘으셨다고 했다. 조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하는 것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내 모습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일을 걱정하고 한참 뒤를 걱정했다. 캄보디아에 다녀오고 나는 그들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다. 우리가 물질적이나 환경적으로는 그들보다 더 풍족할지라도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행복을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할 것 같다





김여진 | 화학과 2학년
문화교류

대원
소감문

“그립고 그리운, 아련한 캄보디아”

한국에서는 국내 봉사를 많이 했었고 해외봉사 경험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7월부터 시작하는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는 봉사가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해외 봉사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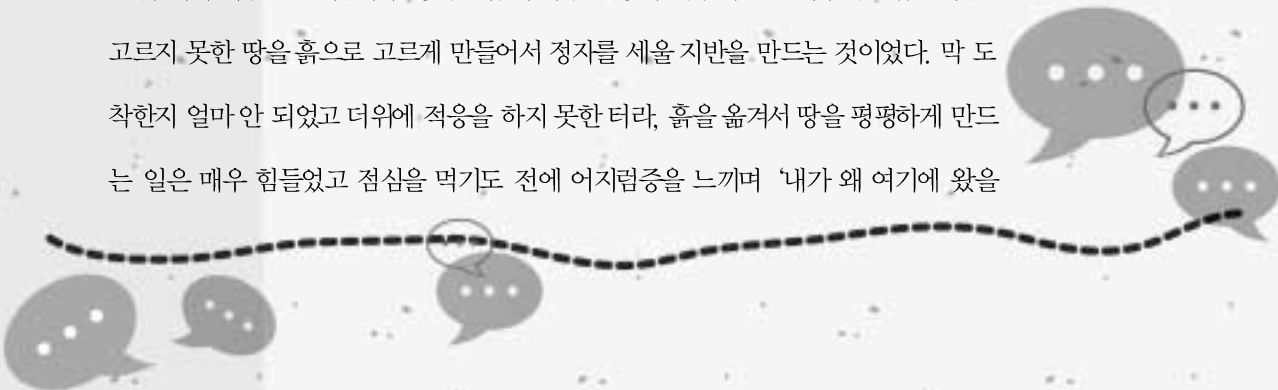
함께 할 친구도 없고, 다른 과에 같이 가는 것이라 부담이 컸다. 어떻게 친해져야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만나서 급박하게 가야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빨리 많은 정보를 나뉘어야하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힘들었던 것은 습함이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습함을 공항을 나오자마자 알게 되었고 ‘이곳의 더위가 서울과 다르구나’ 느꼈다.

마을에 도착해서 내가 느낀 점은, 마을 주민들이 너무 해맑게 우리들을 반겨주었다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과 어르신 분들이 나와 우리를 반기고 우리는 바로 우리가 지정받은 홈스테이 집으로 향했다. 가기 전에 집이 어떤지 교육을 받았던 지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내가 놀랐던 것은 홈스테이 집에서 바깥을 보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놀랐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 내에서 우리 집은 풍

경이 좋은 카페테리아로 불렸다. 첫 날의 일정은 다음 날의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모두 같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환영회를 즐기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문드문 들렸던 한국 가요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마을에서 보내는 첫 봉사활동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티셔츠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정자를 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정자라고 해봐야 작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 클 것이라 생각을 했다. 첫 날 봉사 작업치고는 매우 힘들었던 것은 고르지 못한 땅을 흙으로 고르게 만들어서 정자를 세울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막 도착한지 얼마 안 되었고 더위에 적응을 하지 못한 터라, 흙을 옮겨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들었고 점심을 먹기도 전에 어지럼증을 느끼며 '내가 왜 여기에 왔을



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교육 봉사 첫 날로, 다른언니와 함께 수수를 가지고 응원도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첫 날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 예상이 안 갔기 때문에 다른 언니와 나는 긴장을 했다. 하지만 NGO 친구들에게 캄보디아어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응원도구를 만드는 것을 쉽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봉사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끝났다.

둘째 날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땅을 고르게 만들고 정자의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 첫날 보다는 어렵지도 않았고 더위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터라, 힘들어도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다. 오후봉사에서는 윤기오빠와 같이 아이들에게 비눗방울 봉을 나누어주고 비눗방울 대화를 여는 것이었다. 비눗방울 봉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아이들은 많았던 터라, 힘 있는 아이들만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이 아쉬웠다.

비눗방울 붕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손에 매니큐어를 칠해주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각자 집에서 2개씩의 매니큐어를 가지고 왔던 우리들은 첫날부터 아이들의 손을 닦게 하고 손톱을 깎게 해준 다음에 매니큐어를 칠해주었다. 아이들의 상처가 많은 것을 보고 이곳은 위생관리가 안 되는 것을 느꼈다.

셋째 날은 정자의 기둥과 벽이 만들어지고 나서 못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무판자를 자르는 일은 여자로서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들어서 못질을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못질이 쉽지 않고 기술을 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후 봉사에서는 내가 한 일은 선희언니와 짝을 지어서 꼬리잡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 날은 우리가 왔던 캄보디아 날씨 중에 가장 더운 날이었기에 꼬리잡기는 해가 조금 진 뒤에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알려준 뒤에 꼬리잡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이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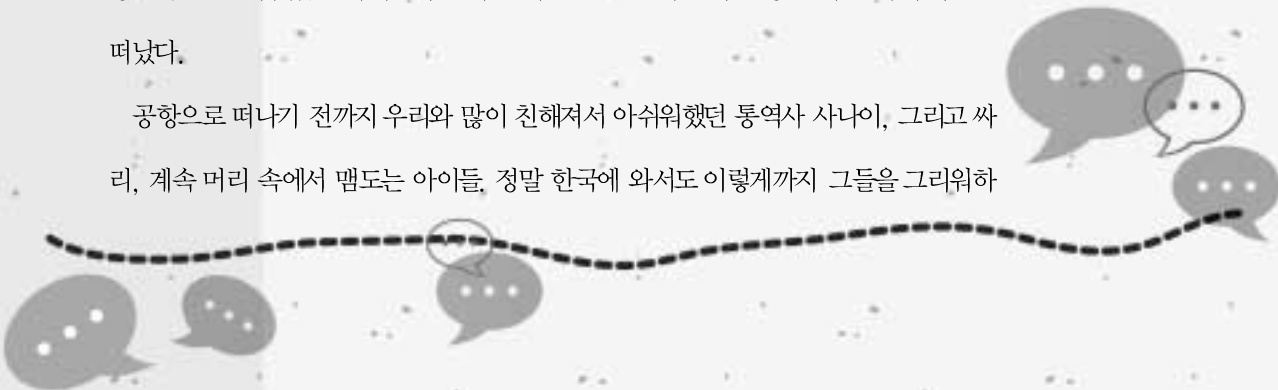
이의 규칙을 어떻게 이해할까 걱정했는데 한 번 예시를 보여주었더니 너무 즐거워하며 이 게임을 즐겨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맡은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이때 많이 느꼈다.

넷째 날은 정자에 페인트칠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었다. 페인트칠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너무 즐거웠고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내가 그림을 조금이라도 잘 그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넷째 날의 오후봉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봉사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래서 뭔가 교육봉사를 시작할 때에서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고 몸이 느려지고 있었다. 이 날은 선희언니와 2인 3각을 보여주고 나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 동안 우리가 아껴왔던 스티커들을 선물로 주었다. 아이들이 모두에게 주는 것임에도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 놀랐고 고마웠다. 마치

막으로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물품을 정리하고 차에 오르는데, 뭔가 마음이 뭉클했다. 정말 더웠고 순간순간 더위에 힘들어서 지쳐버릴 때도 있었지만, 정말 많이 즐거웠고 좋았고 이렇게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즐겼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마지막을 즐기는 무대가 있었고 우리는 몇 시간이지만 치어리딩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아쉬움에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했고 홈스테이 집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우리들에게 항상 호감을 보여주었던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NGO 친구들과 포옹을 하고 나서 마을을 떠났다.

공향으로 떠나기 전까지 우리와 많이 친해져서 아쉬워했던 통역사 사나이, 그리고 쌍리, 계속 머리 속에서 맴도는 아이들, 정말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까지 그들을 그리워하



고 아쉬워할 줄 몰랐는데, 피곤하면서도 그들이 그립고 함께한 팀원들이 너무 보고 싶고 꼭 다시 만나서 캄보디아 같이 가고 싶다.

왜 사람들이 봉사를 즐길까? 에 대한 질문에 항상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해외봉사를 갔다 오면서 봉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좀 더 사람을 깊게 알게 되고 얻어지는 뿌듯함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해외 봉사를 갔다 온 사람은 계속 해외 봉사를 가게 된다는데, 이 말을 내가 지킬 것 같다.

그립다, 캄보디아.



정다은 | 사회복지학과 4학년
총무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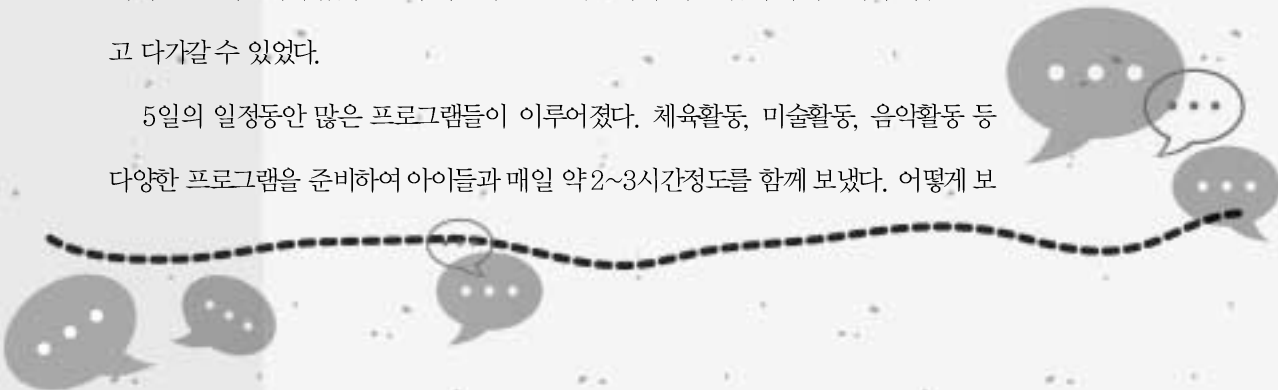
“아쿤찌란! 고마워요!”

대학생으로써 3년 이상을 다니면서 역동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젊은 청춘을 그저 조용히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을 때, 4학년 1학기를 남기고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외봉사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 제안이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봉사를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보았지만 항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시험기간과 겹쳐지면서 완벽하지 못한 준비상태로 우리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17일 밤. 프놈펜 공항에서 맞닥뜨린 캄보디아의 공기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적요인, 부족한 준비로 인한 걱정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을 공존케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캄보디아에서의 9박10일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프라옥 마을에 들어가기 전 방문한 킬링필드에서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아픈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는 캄뽕썸의 프라옥 마을에 들어갔다. 마을에 입성하던 첫날은 마치 우리 모

두가 연예인이 된 느낌이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나와 환영해주는 모습은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렇게 모든 마을주민들과 아이들을 우리들을 반겨주었고, 마을에서의 일정들이 시작되었다. 우리들과 함께하는 주 대상들은 아이들이었다. 한국의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다. 어린나이부터 시작된 교육들로 인해 친구, 가족들과의 시간이 부족하고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과 달리 뿌라옥 마을의 아이들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도 없었으며,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먼저 내밀어 준 손 덕분에 우리도 쉽게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다.

5일의 일정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다. 체육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매일 약 2~3시간정도를 함께 보냈다. 어떻게 보



면 매우 부족한 준비였다. 그럼에도 즐거워해주고 흥미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미흡한 준비에도 힘을 합쳐 고민한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 덕분에 프로그램 중에는 단 한 번도 지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일정 중에 항상 우리의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NGO친구들도 잊을 수가 없다. 높고도 높은 언어의 장벽 앞에서 우리의 통역사가 되어 주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모든 일정을 임해주었다. 그들의 무한한 체력은 정말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첫날부터 기초공사부터 시작한 정자를 짓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처음 해 보는 곡괭이질과 삽질 그리고 못질 등은 더운 날씨 속에서 매우 지치게 만들었지만 완성되는 마지막 그 안에 빼곡히 모여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간의 힘두이 씻은 듯이 사라져만 갔다. 이렇게 5일 동안의 봉사를 마쳐가면서 우리는 마

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정이 들고 말았다. 어찌고 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홈스테이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계속 눈물이 나오고 말았다. “크눔냏(그리울거예요)”를 외치며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약속하였다. “다니, I miss you” 나는 “I’ll be back”를 남기고 왔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짧으면 짧은 9박 10일 동안 함께한 봉사대원들과, 교수님, 팀장님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모두모두 아쿤찌란! 고마워요!



물리치료학과

팀 명	물리치료학과 의료봉사대	주최학과/부서	물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이승원, 유재현	학생대표	김동준
봉사국가 (지역, 기관)	괌(Guam)	활동기간	2012. 6. 16 ~ 6. 28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5명		
협력및 후원기관	괌 SDA	주소/연락처	220 Iglesia Circle Dededo GU 96929 (1-671-689-7840)
봉사영역	의료봉사	봉사대상자	교민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승원	물리치료		물리치료/지도	지도교수	유재현	보건관리		건강교육/지도
학생대표	김동준	물리치료	4	총괄/테이핑	대원9	정하라	물리치료	3	마사지
대원2	윤미연	물리치료	4	뜸	대원10	조보경	물리치료	3	전기치료/식사
대원3	이주현	물리치료	4	부대표/테이핑	대원11	조한준	물리치료	3	총무
대원4	서승희	물리치료	3	마사지	대원12	유영현	물리치료	3	마사지
대원5	양영렬	물리치료	3	뜸	대원13	김규한	물리치료	3	사진/뜸
대원6	이남준	물리치료	3	마사지	대원14	오혜진	물리치료	2	뜸/음악
대원7	정수지	물리치료	3	전기치료	대원15	조혜정	물리치료	2	뜸
대원8	정하림	물리치료	3	마사지	대원16	이승준	대학원 물리치료		치료총괄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의료봉사	6.18~24	괌 SDA 클리닉	1. 물리치료 : 마사지, 뜸, 전기치료, 테이핑, 공기압 치료 등 2. 건강체크 및 교육 : 콜레스테롤, 당 검사, 체지방률 검사, 기초체력 검사 등	1.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민에게 치료기회 제공 2. 전공연계 봉사를 통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제고 3. 작년 프로그램에 추가된 건강체크 및 교육을 통해 양질의 봉사 제공	대원:18명 교민:일평 균 60명
2	문화교류	6.19~20	GCC, UOG	Guam community college 와 University of Guam을 방문하여 현지 대학 교육의 장 경험 및 현지 학생과의 교류	대학견학을 통한 학생들의 비전 제시	대원:18명
3	전공교육	6.21	SDA clinic, PT clinic	SDA clinic을 방문하여 현지 의료시설 및 의료시스템 견학, PT clinic을 방문하여 Guam 물리치료 현실과 해당 clinic 장비교육을 통한 전공교육	병원방문을 통한 국제화에 대응 외국물리치료사로서의 진로 가능성 타진	대원:18명
4	문화활동	6.22~23	괌 SDA	음악회 : 플롯 합창, 수화, 연극 등	음악회를 통한 현지 교민과의 교감 형성	대원:18명 교민:40명
5	문화활동	6.23	괌 SDA	레크리에이션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감 형성	대원:18명 청소년:20명
6	문화체험	6.25~27		괌 역사와 전쟁 관련 유적지 방문 및 문화체험		대원 18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1	인종음 2	보통 3	종음 4	매우종음 5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계획, 준비, 시행 단계에 전반적인 지도가 이루어짐	학생대표 역할	전반적인 봉사활동 총괄, 교수와 학생간의 가교역할
학생대원 소양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전공소양은 갖추어졌으며 서로 미루지 않는 숭선수범의 정신을 봉사기간 내 내 보여줌	현지반응	물리치료 봉사에 대해 만족하였고 향후 봉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숙식 및 생활여건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었으나 단체 생활하기에는 약간 좁은 경향이 있으며 화장실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숙소 및 봉사장소 주변이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 밤늦은 시간 까지 현지인들이 주변을 배회하여 문단속을 철저히 함으로 안전을 확보함
잘된점	학생 봉사가 되닌 전문인력 봉사로 느껴질 만큼 자신의 세부 봉사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함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학생봉사이지만 의료봉사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기에 충분한 교육시간이 필요
개선(보완) 사항	봉사 전 교수와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사지, 수화 등 교육	총평	전공연계 봉사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봉사 수여자에게는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16	오전	봉사대 집결	6/23	오전	문화 활동
	오후	출국 인천→괌		오후	레크리에이션, 의료 봉사
6/17	오전	괌 도착, 짐정리, 조 배정	6/24	오전	의료 봉사
	오후	봉사 준비		오후	의료 봉사, 봉사 피드백
6/18	오전	의료 봉사	6/25	오전	문화 체험
	오후	의료 봉사		오후	문화 체험
6/19	오전	의료 봉사	6/26	오전	문화 체험
	오후	SDA clinic 방문, 의료 봉사		오후	문화 체험
6/20	오전	의료 봉사	6/27	오전	문화 체험
	오후	GCC 방문, 의료 봉사		오후	귀국(괌→인천)
6/21	오전	의료 봉사	6/28	오전	봉사대 해산
	오후	UOG 방문, 의료 봉사		오후	
6/22	오전	의료 봉사			
	오후	음악회			

물리치료학과



▶ 뜸 치료를 위해 뜸에 불을 붙이는 중



▶ 마사지 첫날



▶ 마사지 수업



▶ 음악회 진행 봉사



▶ 상지 마사지



▶ 마사지 연습



▶ 출발



▶ 환자 상담 중



▶ 공기압 치료기



▶ 치료 중광



▶ 교민대상으로 학근력 및 유연성 검사



▶ 처음 물을 붙여



▶ 다쳐서 치료 방법 경험



▶ 광복절을 기념하여



▶ 요가이나 연습 중



▶ 람SDA 클리닉 앞에서 단체사진



▶ 교수, 학생이 직접 준비한 식사



▶ 람SDA 클리닉 물리치료실 앞에서 기념촬영



▶ 뜸 치료



▶ 마사지 치료 장면



▶ 공기압 마사지 장면



▶ 한겨레대학 문경교과대학 이상강사

물리치료학과



▶ 테이퍼하는 모습



▶ 교민친구들, 형제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 음악 공연



▶ 봄사가 끝나고 가정방문



▶ 전기선택과 러주파치로 강연



▶ 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물리치료학과 | 이승원

지도교수
소감문

작년에 이은 두 번째 꿈 의료봉사대였다. 작년 봉사대는 설렘이 컸다면 이번 봉사대는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이미 물리치료 봉사를 시행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잘 해야겠다는 부담감과 봉사대 기획단계에서 같이 가기로 했던 동료 교수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봉사대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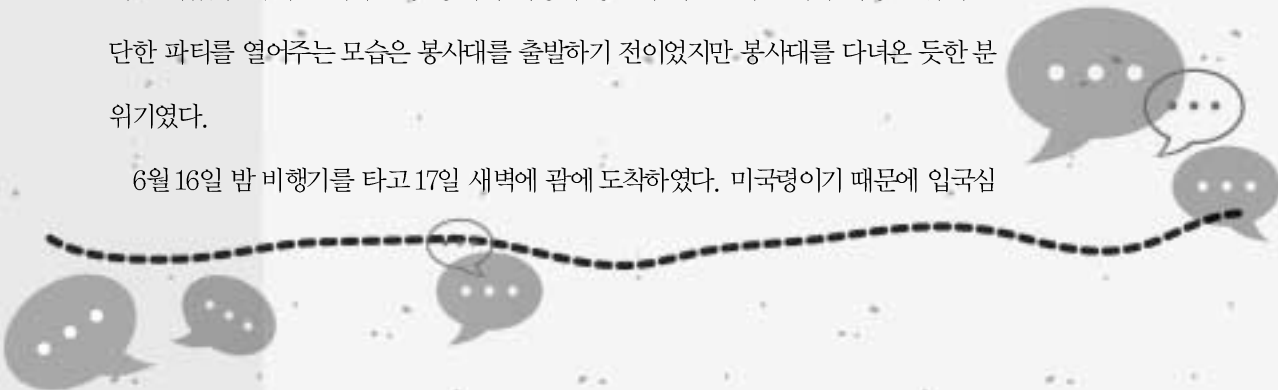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할 만한 4학년 학생을 대장으로 선발하고 대장을 지원해 줄 만한 친구들 몇 명을 초기 구성원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구성원들이 나머지 대원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작년과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10일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동거동락(同거同樂)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봉사대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간의 화합이다. 봉사대 구성원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 15명이 선발되었다. 작년 봉사대를 다녀 온 직후 같은 직장 동료면서 같은 대학원생인 한 원생이 봉사대를 다녀온 것을 보고 내년에는 꼭 동참하고 싶었던 대학원생 1명이 추가로 선발되어 16명의 대원들로 봉사대를 확정지었다.

봉사대원은 확정되었지만 혼자서 16명의 대원을 이끌고 해외봉사대를 다녀온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임용동기 교수인 유재현 교수에게 봉사대 합류를 권유했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흔쾌히 봉사대에 합류하게 되어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4학년 학생들의 실습과 학생들의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고려하여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봉사대가 출발하는 것으로 정하고 봉사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봉사대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물리치료봉사와 문화 활동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학생들 자체적으로 각각 팀을 나누고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은 지도교수로서 흐뭇하게 하였다. 각각 팀은 봉사대 사전준비 기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였으며 각각의 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 이름만 알던 사이 또는 정말 친한 사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서로를 챙기며 봉사대 준비를 하였다. 특히 준비기간 중 봉사대 대장의 생일에 대원들이 모여서 대장을 위해 간단한 파티를 열어주는 모습은 봉사대를 출발하기 전이었지만 봉사대를 다녀온 듯한 분위기였다.

6월 16일 밤 비행기를 타고 17일 새벽에 고향에 도착하였다. 미국령이기 때문에 입국심



사가 까다롭지만 아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고 세관 또한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작년에 있었던 입국심사와 세관에서의 문제를 교훈삼아 미리 준비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경험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른 새벽시간이었기에 봉사 장소 도착 후 짐을 풀고 잠을 청하며 고향에서의 봉사대 첫날을 시작하였다. 오전에 기상하여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한 후 팀별 봉사 준비를 시작하였다.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봉사 장소가 2곳으로 나뉘어 있어 각 팀을 반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봉사 장소에 물리치료 봉사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봉사 항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봉사대 첫날을 마감하였다.

본격적인 봉사가 시작된 월요일 오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된 물리치료 봉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2곳으로 봉사대 인원이 분산됨으로 인해 봉사 수여자들이 기다

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인원 분산으로 인해 봉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물리치료 봉사가 시작된 첫날의 상황을 분석하여 2곳의 봉사 장소를 1곳으로 합쳐 운영하기로 결정한 후 시행하였다. 유재현 교수님이 주관하는 당, 콜레스테롤, 체지방, 운동능력 검사를 포함하는 건강검진은 다른 장소에서 운영함으로 비좁은 장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툰 모습을 보이던 봉사대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였고 봉사를 거듭할수록 익숙해지면서 각자 맡은 치료 분야를 숙련시켜갔다. 치료를 받는 교민들은 치료해 준 대원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학생들은 본인의 봉사로 인해 기뻐하는 교민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1년 또는 2년에 한 번 고국인

한국을 방문해서 치료받는 것이 전부인 교민들은 어설픈 학생들의 봉사였지만 만족해 했다. 대부분의 수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허리, 팔꿈치, 발목, 무릎, 어깨 등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 중 봉사기간 내내 참석하신 한 남성분은 팔꿈치가 많이 부드러워졌으며 좋아하셨고 어떤 부부는 무릎이 가벼워져 움직이기가 수월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내셨다. 짧은 기간의 물리치료 봉사이지만 치료받은 교민들의 통증이 개선되고 기능이 좋아지는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물리치료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물리치료 봉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급성기 환자들이 왔을 때 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간단한 치료와 상담으로만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 봉사 때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치료 항목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봉사대는 보건관리학과 유재현 교수님의 합류로 새로운 봉사 항목인 건강검진을 추가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휴대용 검사장비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 등을 검사하고, 운동상담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방의학 차원의 건강검진, 운동상담 봉사와 재활의학의 물리치료 봉사를 병행함으로써 전인적인 건강 돌봄이 된 봉사였다고 사료된다.

봉사를 통해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하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혹자는 말했지만 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었을 때 봉사자가 얻는 사랑은 준 것 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은 봉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봉사기간 동안 우리 봉사대가 교민들에게 나누어 준 작은 사랑은 학생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이와 학생들은 봉사의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 진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캄에서의 봉사는 부담감으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같이 해주신 유재현 교수님의 지지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봉사대 기간 동안 피곤한 몸이지만 서로를 독려하며 약속된 시간에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던 봉사대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감동을 느꼈으며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 봉사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봉사대 기간 내내 시어머니처럼 잔소리 한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준 대장 이하 모든 봉사 대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이 봉사대 그대로 다시 봉사대를 떠났으면 좋겠다.



보건관리학과 유재현

대원
소감문

꿈

미국령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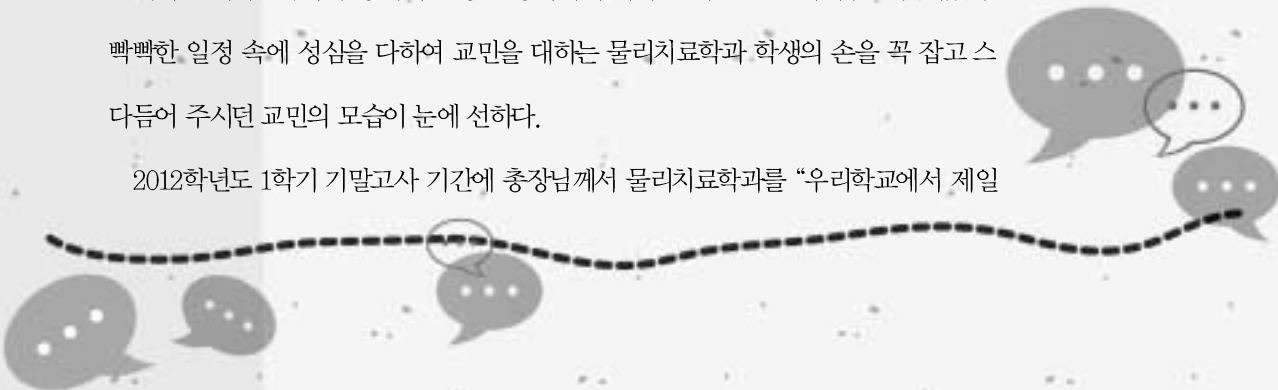
학생들이 봉사대를 다녀간 곳을 살펴보면 저개발국도 아니요, 그럭저럭 살만한 나라에도 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지?”라고 생각했었다. 봉사라 함은 어려운 사람이나 지역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신보다 나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할까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료교수인 이승원교수께서 같이 봉사대를 다녀오자고 했을 때도 많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봉사대를 가기로 결정한 계기는 항상 성실히 묵묵히 꼼꼼히 일을 하시는 이승원교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봉사대를 계획하고 이끄는지 제대로 보고 배워보고자 동행하기로 했다.

북위 13° 27', 동경 144° 47'에 위치한 길이 48km, 폭 6~14km의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의 섬으로 면적은 546km²로 우리나라 거제도과 크기가 비슷한 꿈. 인구는 16만여명이며 그 중에 한인은 3%내외로 약 6천여명 이라고 한다. 꿈은 미국령 관광지로 “American dream”의 포부를 갖고 이민 온 한인들도 많이 살고있었다.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각종 물리치료와 마사지로 봉사활동을 하고 동행한 이승원교수님은 환자배분 등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코디네이터하고 있는데, 그냥 밥만 축낼 수 없어 조심스럽게 챙겨간 장비로 이들에게 건강체력과 혈중지질수준을 분석하여 건

강운동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로서 멋지게 금의환향할 정도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에 그 곳이 힘들어도 고국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그들의 감춰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딱히 아프지도 않은데 한 달에 우리 돈으로 50-70만원 정도의 의료보험비용을 내기가 부담스러워 보험가입을 하지 않다보니 어쩌다 아파 병원에 가면 1-2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의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들에게 물리치료학과와 봉사대 활동은 광야의 두나와 같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다. 땀땀한 일정 속에 성심을 다하여 교민을 대하는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손을 꼭 잡고 스다듬어 주시던 교민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201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총장님께서 물리치료학과를 “우리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과”라고 칭찬을 하실 때, 보건관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로서는 솔직히 조금 듣기가 거북했었다. 우리 보건관리학과학생들은 앞으로 더 잘 나갈건데.. 그런데 물리치료학과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철저한 시간관리와 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학교에서만 잘 나가는 학과가 아니라 우리나라 물리치료학분야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봉사의 참 모습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준 2012년 하계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꿈봉사대 대원들과 이승원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또한 우리학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beach 기도회를 마련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꿈한인SDA교회 한영선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김동준 | 물리치료학과 4학년
봉사대장

학생대표
소감문

“꿈,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들”

먼저 안전하게 한국에 무사히 와서 꿈에서의 추억을 감상하면서 소감문을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쓰겠다. 지금까지 대학생활을 하면서 봉사대를 4번 참석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 각각 봉사대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대장을 맡아서 봉사대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긴장되고 내가 이 14명의 학생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다.

처음 준비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갑작스레 결정된 봉사대, 학업과 알바에 지친 대원들,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대장으로서 직면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때로는 모든 일을 놔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대장을 이끌어 준 것은 대원들이었다. 서로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기도 하며, 의견도 제시하면서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때부터 난 동기부여를 얻었고 반드시 이 친구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그 동안 봉사를 통해 느꼈던 수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었다.

사실 꿈이라고 하면 신혼여행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물론 그렇다. 관광이 나라 수입의 대부분이고 곳곳에 있는 군사기지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그곳의 주민의 생활을 달랐다. 물론 미

국 시민이라는 특혜가 존재했지만, 복지혜택이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특히 의료보험은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었다. 봉사를 하면서 교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감사해라, 여기선 아파도 참고 산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사연이 있어 오신 교민들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때로는 온갖 굴욕을 겪어가며 팜 사회에서 정착하신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 물리치료 봉사대팀의 치료는 교민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치료받은 지 사흘이 채 되지도 않아 허리, 무릎통증이 감소하신 분들과 매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다. 나와 우리 대원들, 그리고 교수님들은 정성스럽게 각자 맡은 파트에서 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실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거의 6월에 봉사기간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전공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라는 생각이었다. 마사지, 전기치료, 테이핑 등등 실제로 수확하고 있는 과목을 봉사에 응용하는 사실이야 말로 이번 봉사대에서 가장 큰 감동과 뿌듯함이었다. 우리 대원들 역시 부족하지만 자신이 갖고 닦은 능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은 이전의 여타 봉사와는 다르다고 느꼈을 것이다.

팜 봉사대를 통하여 느낀 것들을 한국에서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나눔을 실천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길 기원한다.



양명열 | 물리치료학과 3학년
의료봉사팀 치료

대원
소감문

“꿈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저는 2012년 6월 16일부터 2012년 6월 28일까지 꿈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꿈은 시차가 1시간정도 났습니다. 꿈에 새벽에 도착하여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바로 취침을 하고 일요일엔 봉사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월요일부터 있을 의료봉사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팀별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뜬치료 소속이었으며 뜬에 불을 붙이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서 토치를 이용해 뜬에 불을 잘 붙여서 열이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뜬치료 부원끼리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많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을 보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A조와 B조로 나뉘어 더 많은 대상에게 치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월요일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전에는 같은 봉사대원끼리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후부터는 손발이 점점 맞아 들어가며 효율적이고 보다 프로 같은 모습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금방 적응을 하여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의 고충을 듣고 더욱 세심하게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를 하면서 마사지부원들이나 전기치

료 부원들과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항상 톰이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여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을 적응기간이라고 하였다면 화요일부터는 치료를 하는데도 여유가 생기고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A조와 B조가 모두 합쳐져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A조와 B조가 합쳐져서 처음으로 하는 봉사였지만 각자의 임무에 익숙해져 단합된 모습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며 지친 동료들을 좀 더 쉬게 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정신적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기분이 매우 좋고 치료에 대해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봉사를 마치고 오후엔 저녁에 있을 음악회 연습을 최종 마무리 하였

습니다. 오전에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저녁에 있을 음악회에 대해 알려드리
서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저희를 기다
리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힘이 났습니다. 환자분들이 금요일에 있었던 음악회를 잘
보았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더욱 힘을 내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치료마지
막인 일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일주일간 치료를 받으시면서 기뻐하
시고 건강을 회복해가시던 일주일간의 봉사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비싼 의료보험료로 인해 의료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만약 우리가 이곳
으로 봉사를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외봉사가 이번이 처
음이었지만 매우 뜻 깊고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봉사기회 중에 너무 늦게 시
작한 것 같아 아쉬웠지만 앞으로 꾸준히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같이 봉사하며
서로 힘이 된 우리 봉사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승준 |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치료총괄

대원
소감문

“꿈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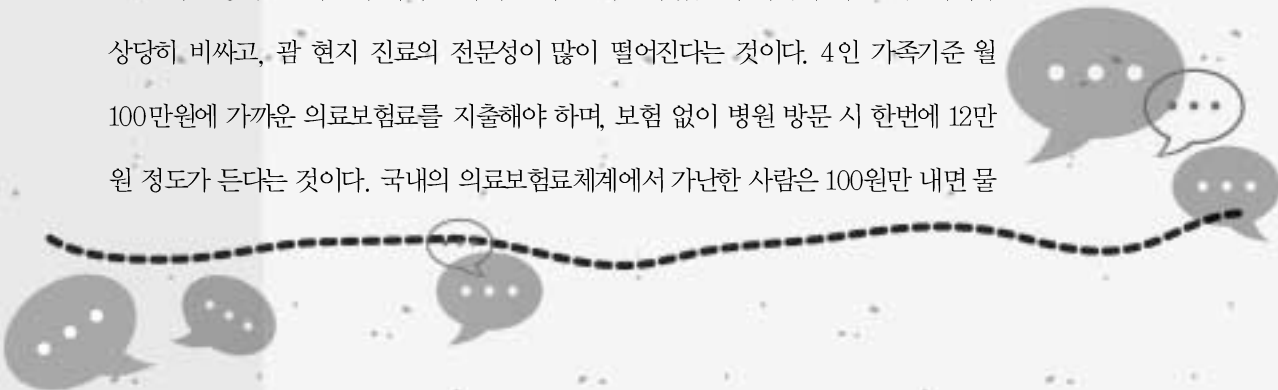
국내에서 여러 봉사를 해봤지만 해외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고 지도 교수님 외에 대학생인 대원들과는 모두 초면이어서 13일 동안 같이 지낼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난 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스마트폰을 쓰며 지내지만 훨씬 인터넷과 친할 거라 생각했던 아이들이 작은 돌맹이를 들더니 내가 어릴 적에 하던 ‘땅 따먹기’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팀의 단결력은 최고였고 관광 휴양지인 꿈에 무슨 봉사를 하나며 오해가 많았지만 일단 꿈에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한 결과로 보여 주면 될 일이었다.

새벽에 도착한 비행기 때문에 장비들과 물품만 확인하고 잠을 청했다. 첫날 아침부터 시원하게 비가 내린 뒤 예쁜 무지개를 보여 주며 꿈의 하늘도 우리 봉사대를 반겨주는 듯 했다. 처음에는 두 곳의 장소에서 2개조로 나뉘어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각 장소의 위치를 정비하면서 봉사대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B조의 봉사 팀은 내가 책임을 저야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만 정성껏 치료해 드리자며 마음을 다잡고 치료봉사를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연구를 위해 무료치료를 제공하여도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미 경험

을 한지라 환자분들이 적게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기 시작했다. 치료를 위해 방문하신 분들은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 하였고, 치료는 순조로웠다. 한국에서 환자를 볼 때에는 시간이나 수가적인 제한으로 환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아픈지? 어떤 동작을 할 때 더 아프지 않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통증 예방을 위해 어떤 동작은 피하고 주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또 치료 중 남은 시간에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상당히 비싸고, 광 현지 진료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인 가족기준 월 100만원에 가까운 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며, 보험 없이 병원 방문 시 한번에 12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다. 국내의 의료보험료체계에서 가난한 사람은 100원만 내면 물



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의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아파도 치료를 잘 못 받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 봉사대의 존재의 이유였다.

하루하루 봉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픈데 없다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몇몇 교정을 봐드리고 다음날 훨씬 편해 졌다며 또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난 저 학생한테 마시지 받고 싶다고 지정을 받는 학생을 보기도 하고 하루하루 뿌듯함을 느끼며 치료봉사를 했다. 봉사일정은 순조롭게 이어져 갔고 곧 마지막 날이 왔다. 마지막 날 새벽에도 시원하게 비가 내렸다. 첫날 아침에도 커다란 무지개가 우릴 반겨주더니 뜨거운 햇살을 받아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커다란 무지개가 생기더니 잠시 후 하나가 더 생기면서 쌍무지개가 우리 봉사대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주었다.

나는 그 동안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쳐

할 수 없었던 치료를 이번 봉사대를 통해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음에 너무 좋았다. 나의 대학원 생활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잊지 못할 추억을 경험하였다. 삼육대학교 봉사대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 싶다.



식품영양학과(ICC)

팀 명	식영 + ICC 필리핀 봉사대	주최학과/부서	식품영양학과/ICC
지도교수	이상엽 / 장병호	학생대표	고선우
봉사국가 (지역, 기관)	필리핀 나익 까비테	활동기간	2012.7.2. ~ 7.11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20명, 기타 : 2명		
협력및 후원기관	ICC KOREA	주소/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8-114
봉사영역	교육, 의료	봉사대상자	현지 주민 / 초, 중학생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상엽	식품영양			지도교수	장병호	신학		
지도교수	조병일	ICC			지도사모	유영환	사모		
학생대표	고선우	식품영양	3	학생대표/체육교육	학생1	장소연	식품영양	2	한글교육
학생1	추현지	식품영양	1	총무서기/체육교육	학생2	정지수	식품영양	2	음악교육
학생2	김자수	식품영양	2	음악교육	학생3	조수영	식품영양	2	한글교육
학생3	강승진	식품영양	2	사진촬영	학생4	고지현	식품영양	1	체육교육
학생4	구광윤	식품영양	2	음악교육	학생5	이경훈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미술교육
학생5	김민경	식품영양	2	음악교육	학생6	권은경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	미술교육
학생6	서지현	식품영양	2	한글교육	학생7	송미진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	미술교육
학생7	신미나	식품영양	2	음악교육	학생8	이수연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	미술교육
학생8	안효진	식품영양	2	체육교육	학생9	김현정	원예	1	미술교육
학생9	유지윤	식품영양	2	한글교육	학생20	최민진	원예	1	미술교육
학생10	이정은	식품영양	2	음악교육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결과(참여인원)
1	음악교실	7.03~06	Naic cavite	음악교실 : 울동과 가사를 알려주며 함께 노래하고 가르침	대원:5명 어린이:40명
2	한글교실	7.03~06	Naic cavite	한글교실 : 가져간 교재를 활용하여 한글교육	대원:4명 어린이:40명
3	체육교실	7.03~06	Naic cavite	체육교실 : 배구공, 배드민턴, 제기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체육활동	대원:4명 어린이:40명
4	미술교실	7.03~06	Naic cavite	미술교실 : 지점토,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여 미술활동	대원:6명 어린이:40명
5	의료봉사	7.05~06	Naic cavite	의료봉사 : 현지 의료팀을 도와 도우미 활동 실시	대원:5명 어린이:5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중음	매우중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 총평가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학생들이 잘 협력하여 매우 만족	학생대표 역할	프로그램이 잘 운영아게 노력함
학생대원 소양	성실하고 즐겁게 활동에 임함	현지반응	아주 우호적이고 환영하였음
숙식 및 생활여건	현지 숙소에서 원활하게 지냄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안전한 현지 마을이었음
잘된점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였음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원활하고 즐겁게 잘 진행하였다. 금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함
개선(보완) 사항	좀 더 다양한 재능의 학생들이 구성이었으면 함	총평	보람 있는 하계봉사 기간이었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02	오전	인천공항 출발	7/07	오전	안식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도착		오후	필리핀 교육기관 탐방
7/03	오전	교육활동	7/08	오전	필리핀 문화체험
	오후	문화활동		오후	필리핀 문화체험
7/04	오전	교육활동	7/09	오전	필리핀 - 심천 이동
	오후	문화활동		오후	심천 문화체험
7/05	오전	교육활동	7/10	오전	심천 - 홍콩 이동
	오후	문화활동		오후	홍콩 문화체험
7/06	오전	교육활동	7/11	오전	홍콩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오후	안식일		오후	-

식품영양학과 (ICC)



▶ 나인아카데미 방문교수 강연



▶ Dr. Osorio의 기념품 증정



▶ AUP 대학방문



▶ 홍콩 해변에서 단체사진



▶ 아이리스 대학방문에서 단체사진



▶ 나익초등학교 미술반교육



▶ 나익아카데미 수업사진



▶ 나익초등학교 미술반교육



▶ 숙소 앞에서 아이들과



▶ 나익초등학교 음악교실



▶ 나익 초등학교 봉사대 소개



▶ 나익 아카데미 답례사진



▶ 벌판초의류 나눠주기 행사후



▶ 초등학생들과 함께



▶ Like this 춤을 추는 친구들



▶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과 사진찍으며 보냈다



▶ 음악반 수업



▶ 태권도 실습



▶ Naic Academy 태권도 교육



▶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 활동



▶ Naic Academy 태권도 하는 아이들



▶ Munting Marino 연만들기 중 아이들



▶ 연 만들기 연습



▶ 답배경



▶ 쉬는 시간



식품영양학과 이상엽

지도 교수
소감문

“필리핀 나의 봉사대를 다녀와서”

2012년 여름방학을 끝으로 36년간의 정든 교정을 뒤로하고 정년퇴임으로 떠나야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즐거웠던 추억과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교차하는 순간들이다. 나는 1964년 삼육대학 같은 교정에 있는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지금은 헤어버린 장미사(여 기숙사)에서 삼육동 생활을 시작한지 48년 만에 삼육동을 등지게 된 것이다. 48년 중 36년을 대학에서 있었으니 하나님의 가호하심과 돌보심이 어찌나 큰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어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바이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외 봉사에 전념했던 지난 8년간은 남을 열심히 돕고 돕는 법을 배우게 하였다. 나의 카버테에 2012년 7월 02일 21명의 학생대원들과 장병호 목사님, 유영환 사모와 매일 저녁 건강강의 강사로 조병일 목사님과 같이 가게 된 것이다. 우리 팀은 ICC 팀으로 ICC KOREA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았기에 미리 우리의 봉사에 배편으로 1개월 먼저 짐을 보내고 가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홍콩 경유 필리핀행을 택하였다. 봉사도 하고 문화 탐방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한 교육은 그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나를 나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동양의학봉사자들(조춘호 외 10여명)이 나

익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첫 날보다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료(침/ 뜸 요법)를 받고 효험이 있어 좋아하는 모습은 우리를 흐뭇하게 하여 주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 봉사 현장에서 어찌나 성숙히 잘 하는지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고 마을 곳곳의 쓰레기 청소와 빈촌에 옷가지를 나누는 일은 서로에게 흐뭇하였다. 나는 해외봉사때 마다 대원들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밥 대장으로 일한다. 매일 시장에 가서 과일을 충분히 사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대원들을 위한 음식 만들기에 정말 바빴지만 피곤해도 기분이 좋았고 이번에는 유영환 사모가 함께 도와주니 힘이 되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모두가 감사한 일들이다. DR. Osorio (마닐라 위생병원 간호대 학장)의 헌신적인 경험들과 흔적들을 현지에서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학생들도 잘 협력해주어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감사할 뿐이다.





고선우 | 식품영양학과 3학년
체육활동/ 봉사대 학생대표

학생대표
소감문

“봉사대 소감문”

저는 지난 2011년 동계 해외 봉사대 캄보디아 팀 학생 대장으로 참여한 이후 이번 2012 하계 봉사대 까지 학생 대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이신 이상엽 교수님과 함께 하는 마지막 봉사대이기에 기쁘고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봉사대는 식품영양학과 15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4명, 원예학과 2명 총 21명의 학생들과 교수님 두 분,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한 분씩 총 25명의 봉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발은 인천공항에서 8시 50분 비행기로 인천출발 - 홍콩경유 - 마닐라가 되었습니다. 아침 비행기이다 보니 새벽부터 준비하여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봉사대에 필요한 물자를 담은 수 십개의 박스를 부라부라 등록하고 나니 탑승시간이 되어 바로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홍콩을 경유하여 마닐라에 도착해 수하물을 들고 세관을 통과하려 하는데 물품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가 없어 그것을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 상비약과 소화제 등의 약품이 영문으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장병호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통과는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다른 봉사대에서도 주의해야하

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의 숙소는 현지 대학 간호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Dr. of M.Osorio 가 마련해준 병동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봉사대는 교육봉사를 주된 활동으로 정하여 Naic Academy 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음악교실, 미술교실, 체육교실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현지 교회를 임시 병원으로 활용하여 필리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조병일 목사님께서 건강 강연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국에서 기부 받은 옷을 현지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숙소에서 떠나지 않던 어린아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저는 3학년으로 취업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학에

는 봉사대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역시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학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큰 기억으로 남은 봉사대 활동이었습니다.





구광윤 | 식품영양학과 2학년
음악반/노래춤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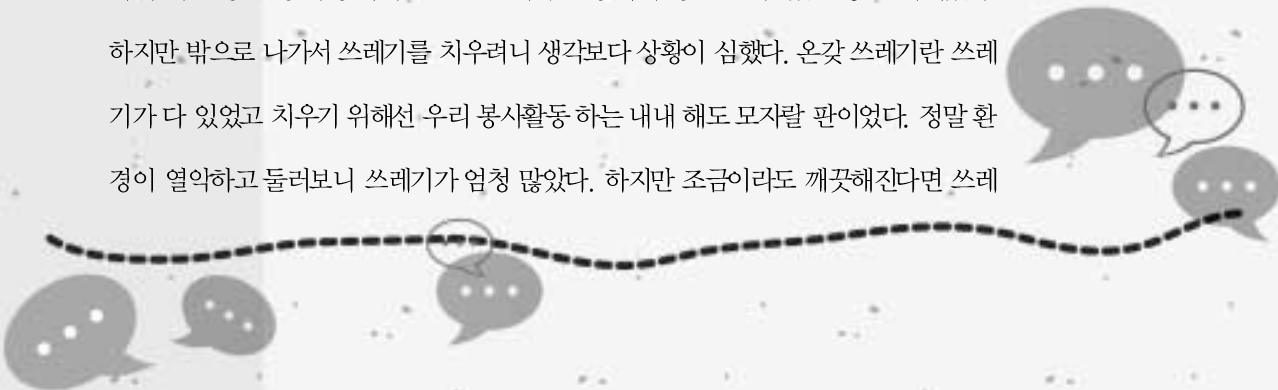
“나와 같이 Like this”

7월 2일 봉사활동의 시작이었다. 반나절이라는 긴 시간동안의 힘든 비행을 마치고 우리가 활동할 지역으로 갔다. 가는 내내 주변은 숲과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흙길을 지나며 우리의 고생길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필리핀에서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주시고 돌봐주시는 필리핀 선생님 덕에 우리는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숙소를 구경했을 때 허름한 뼈거덕 거리는 침대와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수압 차로 변기 물을 내려야 하는 수동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기에 급작스럽게 오는 폭우와 남자 숙소 방에는 빗물이 천장에서 똑똑 떨어졌다. 그렇게 순탄치 못한 첫 날을 보냈다.

둘째 날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했다.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6년이라는 교육과정 하에 우리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처음 아이들과 마주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였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 반짝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라는 기대감에 찬 얼굴이었다. 그 기대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먼저 내가 준비한 원더걸스 "Like this"의 개다리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사실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같이 춤춰주는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할 수

있었다. 같이 춤을 추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고 그 덕에 우리의 수업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춤을 추고 난 뒤 아이들의 집중은 우리에게 맞춰졌다. 우리는 한국의 노래 아리랑을 알려주고, 싹트네와 같은 노래와 율동을 알려주면서 한결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봉사의 첫날을 뿌듯하게 보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 봉사활동 일정을 보냈다. 우리가 머무는 동네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쓰레기 치우기 활동이었다. 사실 처음 온 지역이어서 낯설었기에 이 활동을 통해 동네 주민들도 알아가고 동네 구경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를 치우려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했다. 온갖 쓰레기란 쓰레기가 다 있었고 치우기 위해선 우리 봉사활동 하는 내내 해도 모자랄 판이었다.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둘러보니 쓰레기가 엄청 많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해진다면 쓰레



기를 줍고 또 주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주민들께서 쓰레기를 같이 주워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통해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구나... 몸소 느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음악반을 맡은 나를 포함한 친구들이 앞에 나와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활동도 하였다. 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정말 필리핀 사람들은 개방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는 친화력이 대단했다. 셋째 날부터는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사실 그 전부터 우리 숙소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러 와서 함께 놀아주고 벌써 친해져 있었다. 그중에 Rude cen이라는 친구와 함께 놀면서 정말 내 동생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하고 귀엽고 예뻐다. 그래서 나는 Rude cen이라는 친구를 내 동생으로 삼았다. “너 내 동생 할래?” 했더니 그 뒤로부터 나를 “brother, brother”하면서 나를 따르

고 좋아해줬다. 몇 친구들은 그 광경을 보고 질투를 하는 모습도 보고 나도 동생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생겼다. 정말 아이들은 착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히고 따뜻해지고 다시 보고 싶어 진다. 아직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선부르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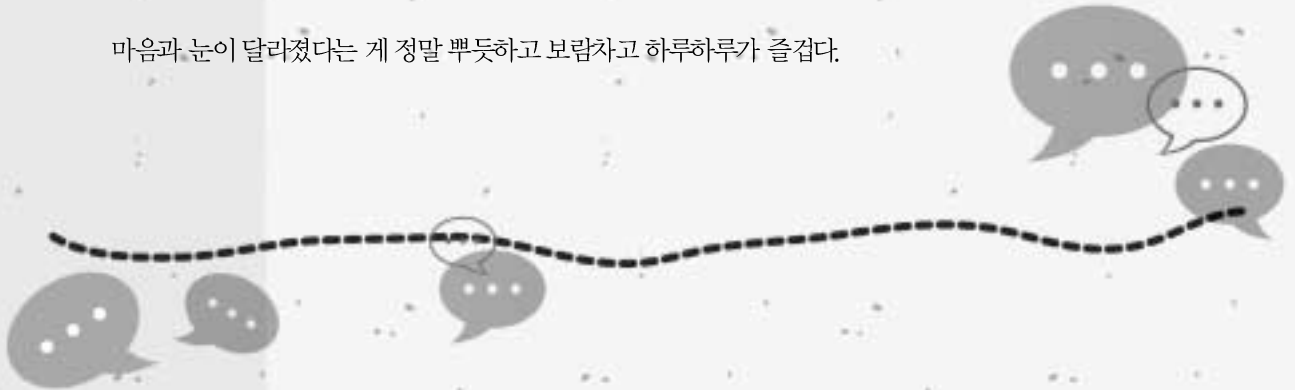


그렇게 하루하루 학교를 찾아가 봉사하고 숙소 앞에 놀러오는 친구들과 놀이주고 동네를 거닐며 쓰레기를 줍고 하나씩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 정도 많이 들었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에게 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게 한국 돌아가나 생각도 해보았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볼펜이나 지우개를 나눠주고 편지도 써주며 조언도 해줬다. 필리핀 학생들은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아예 안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매일같이 공부를 하여 성공하라고 하였고, Rude cen 이라는 친구는 내 덕에 포토그래퍼라는 꿈이 생겼다. 그 친구가 나한테 나 포토그래퍼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이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슬펐지만 떠나기 전까지도 우리는 스마일, 스마일 웃으라고 하였고, 그 친

구들도 웃으면서 서로 편하게 보내 줄 수 있었다. 사실 내가 괜히 아이들에게 정주고 나
도 정이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해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 어린 친
구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봉사활동의 참 뜻을 알게 된 기분이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에 이것은 정말 봉사활동을 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일
것 같다. 또 봉사활동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고민 없이 바로 참여할 것이다. 이번 봉사활
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도 많았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눈이 달라졌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보람차고 하루하루가 즐겁다.





추현지 | 식품영양학과 1학년
체육활동

대원
소감문

“마할기따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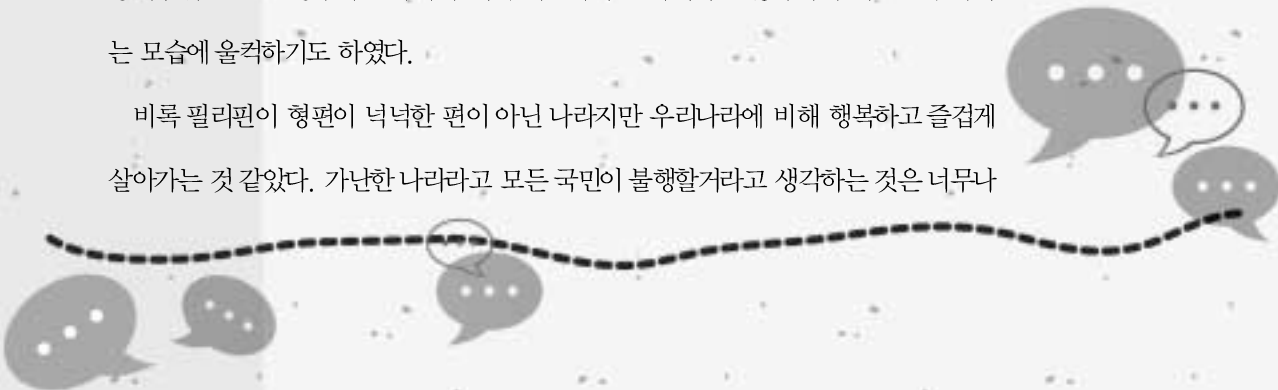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경험해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토대로 필리핀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타지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걱정이 많았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필리핀에 도착하기 까지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을 갖고 봉사를 시작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즐거웠고, 힘들지 않았다. 물론 우리 봉사단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힘들지 않고 즐겁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 아이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필리핀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말도 걸어주었다. 또 수업이 끝나고도 우리를 위해 근처 바닷가를 데려가주기도 하였고, 태권도나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많이 들었고, 도리어 내가 필리핀 아이들에게 배움을 받은 것 같았다. 비록 어설픈 봉사였지만 필리핀 아이들이 좋아해주어서 나도 정말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8세 아이들까지만 해도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더 어린아이들은 오로지 필

리핀어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좀 더 준비하지 못한 마음에 미안하였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은 영어로 대화를 한 아이들 보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지만 우리 봉사단을 잘 따라주고 이해해주었던 아이들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의료봉사를 할 때, 아프지만 병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끙끙 앓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다. 아이들도 장난치다가 손에 상처가 났는데 치료는 커녕 상처부위를 물로 헹구기만 하기에 계속 치료하자고 하니깐 괜찮다며 우리를 안심시키는 모습에 울컥하기도 하였다.

비록 필리핀이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닌 나라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았다. 가난한 나라라고 모든 국민이 불행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도 편협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필리핀 봉사를 통해 세상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치와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사고의 폭을 넓혀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마음가짐 보다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봉사를 하러 갔지만 배우고 얻어 온 것이 더 많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다.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안효진 | 식품영양학과 2학년
체육담당



“필리핀에서 날아오른 연”

대학생이면 해외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 하는 주위의 분위기에 이끌려 필리핀 봉사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된 선택이지만 친한 친구 하나 없이 홀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올 때 보람찬 마음으로 오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해외봉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평소에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담당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학교인 Naic Academy 에 도착했을 때 낯선 우리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환영해 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원들이 준비한 체육활동을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팀원이 앞에서 가르치면 나머지 팀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지도하며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팀원들과의 실전에서의 첫 호흡이었지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Naic Academy 학생들의 에너지 덕분이었습니다. 봉사의 스타트를 잘 끊은 덕분에 그 다음날 의료봉사에서도 아픈 환자들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라도 더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 봉사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봉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더 많은 봉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도움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봉사대가 묵고 있는 숙소와 아주 가까운 Munting Mapino라는 학교에 갔습니다. Naic Academy 친구들 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2틀 간의 일정이 잡혀 있어 첫날은 연을 같이 만들어서 날리는 것과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은 제기차기와 배구수업이었습니다. 연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가르치는 저 스스로를 매우 힘이 나게 했으며 더운 날에도 인상한번 쩡그리지 않고 밖에서 배구, 배드민턴, 제기차기 등등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절로 흐뭇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더울까봐 얼음물을 주고 부채질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렇게 하루하루 보람차고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봉사를 잘 마친 것은, 매일 밤 그 전날 부족했던 점을 서로서로 칭찬과 충고를 통해 잘 조율해서 다음날 프로그램을 더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에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반짝이는 눈을 하고 봉사대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우리에게 정을 많이 준 아이들이 아직도 그림고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미술디자인학부

팀 명	미디학부 중국봉사대	주최학과/부서	미술디자인학부
지도교수	고태영, 박유선, 김용선	학생대표	박경미
봉사국가 (지역, 기관)	중국 옥계시(옥계제 1소학교 외)	활동기간	2012.6.25 ~ 7.5
파견인원	지도교수 : 3명, 대장 : 1명, 대원 : 16명		
협력 및 후원기관	玉溪師範學院, SDA文化院	주소/연락처	玉溪市 紅塔區 鳳凰路 134
봉사영역	교육, 문화	봉사대상자	어린이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고태영	미컨		봉사단장	지도교수	박유선	커디		학생지도
학생대표	박경미	미컨		봉사대장	지도교수	김용선	미컨	1	미술지도
대원2	오사정	미컨	2	미술교사	대원10	임벼리	미컨	1	미술교사
대원3	임진주	미컨	2	미술교사	대원11	박종진	미컨	1	미술교사
대원4	김보금	미컨	1	미술교사	대원12	최만규	미컨	1	미술교사
대원5	김수지	미컨	1	미술교사	대원13	임성경	커디	2	미술교사
대원6	박보나	미컨	1	미술교사	대원14	신서우	커디	1	미술교사
대원7	박화성	미컨	1	미술교사	대원15	이송희	커디	1	미술교사
대원8	서정은	미컨	1	미술교사	대원16	이지현	커디	1	미술교사
대원9	원효연	미컨	1	미술교사					



미술 수업
준비중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교육활동	6.26~27	옥계소학교	미술특활수업지도 (연 8학급)	양호	대원 : 19명 어린이 : 560명
2	문화활동	6.28~7.1	옥계대학	교수합동 미술작품전시회	양호	교수작품 : 22점 관람자 : 연 500명
3	문화활동	6.26~29	SDA문화원	대원 미술작품 제작	양호	대원작품: 30점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⑤			
1	2	3	4	⑤									
계획된활동은 모두실행했는가?		1	2	3	④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⑤
활동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⑤	대원들 간에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⑤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양호				학생대표 역할	양호							
학생대원 소양	양호				현지반응	만족							
숙식 및 생활여건	양호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양호							
잘된점	봉사 프로그램 대원 단합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현지 상황으로 계획 일부 조정							
개선(보완) 사항	매해 지속적인 봉사를 요청				총평	SDA문화원 지원에 만족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25	오전		7/1	오전	개별 자유시간
	오후	출국, 쿤밍 도착 숙소 이동		오후	개별 자유시간
6/26	오전	휴식	7/2	오전	문화체험 청동기박물관
	오후	옥계 제 소학교 미술지도		오후	문화체험: 후시안 호수
6/27	오전	옥계대학 중국화 특강 참여	7/3	오전	문화체험: 석림
	오후	옥계 제 소학교 미술지도		오후	문화체험 구향동굴
6/28	오전	교수미술작품전 오프닝행사	7/4	오전	문화체험: 꽃시장
	오후	기증용 미술작품제작		오후	문화체험 민족촌 / 귀국
6/29	오전	기증용 미술작품제작	7/5	오전	인천공항 도착, 해산 귀가
	오후	기증용 미술작품제작		오후	
6/30	오전	안식일			
	오후	옥계 시립박물관 관람			



미술디자인학부



▶ 석사 준비도움미역학



▶ 육계 소학교 미술 수업



▶ 육계 소학교 미술 수업



▶ 육계 소학교 미술 수업



▶ 육계 소학교 미술 수업





▶ 교수협동 미술작품 전시회와 TV방송 인터뷰



▶ 문화재청



▶ 봉산협동 오리엔테이션



▶ 목계초등학교 미술 특강 수업지도



▶ 목계초등학교 미술 특강 수업지도



▶ 목계대학에서 본교현황과 공연을 마치고



▶ 목계초학교 어린이들



미술컨텐츠학과 고태영

지도교수
소감문

“봉사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하며...”

한 때, 농촌봉사활동(농활)이 대학생들의 로망이던 시절이 있었다.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적 권장사항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학창시절에 한번쯤은 다녀와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농번기 농부들의 일손 돕기라는 본의와는 달리 대부분 이념교육을 겸한 선후배의 단합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찌되었던 당시의 봉사활동 붐이 애교심과, 동문 학우들의 끈끈한 단합정신을 고양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요즘의 대학가는 어떤가? 핵가족에, 개인 공간에만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심지어 같은 학과 동급생들조차도 서먹한 관계가 다반사라고 한다. 예절, 양보, 배려, 협력 같은 사회생활의 필수 용어들마저 그 의미가 오히려 낮설게 여겨진다. 이에 편승하여 이기적 생존전략이 마치 성공의 지침인양 오도 되어,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어떻게 “행복은 소유함이 아니요, 베풀에서 오는 것”임을 주지시켜 줄 수 있겠는가? 이웃을 향한 순수한 애정의 불길을 누가 지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교육자의 몫이다. 인성교육은 논리 정연한 이론적 학문이 아니요, 행함에서 오는

체험답이다. 이 교육은 삶의 의미를 체득한 선생이 그 발자취를 후학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동행할 때만 비로소 성취된다.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오는 보람을 맛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여하신 재능을 활용하여,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三育人의 像인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양성”은 예수님이 지나셨던 참된 교육이념이다.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은 본교의 이념 구현에 일조를 기하리라는 사명감에서이다. 그래서 매 해 방학이 되면 우리 제자들과 떠났다. 아프리카, 인도, 몽골, 중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중국 옥계시 봉사는 올해로 3년째이다. MOU체결대학인 玉瀾師範大學과의 학술교류 형식이지만, 현지 문화원과 연계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대원구성은 미술봉

사리는 특성상, 전원 미술디자인학부생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교수 세분을 포함하여 19명이 참여하였다.

봉사의 목표는 첫째 옥계시 제1소학교(분교) 어린이 대상 미술특활수업지도, 둘째는 옥계대학과 삼육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들과의 합동미술작품전시회 개최, 셋째로는 옥계 SDA문화센터에 대원들의 미술작품 제작이었다.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이었으므로 모든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기능과 효율성에서 일사불란하게 각자 최대의 기량을 발휘해 주었다. 교수전시회도 대성황이었다. 오프닝 행사에 당 고위급 간부와 옥계대학 총장을 비롯하여 관련 교수진이 전원 배석했음은 물론, TV 방송사의 취재와 인터뷰 내용 등이 뉴스로 방영되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봉사의 성격을 모집단계에서부터 전공

분야 활용방법으로 기획하여 특성화하자는 것이다. 전공생들로 편성하면 봉사 후 소위 관광위주의 문화체험도 전공 관련 테마투어로 효과를 더할 수 있고.. 또한 가급적 근로 봉사를 지양하고, 문화교류 관련 행사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권하고 싶다. 끝으로 일회성이 아닌 매해 특정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봉사활동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본교 이미지 증대효과는 물론,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효과적으로 현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많은 경비를 투자해서 파견한 대원들이 현지인들도 할 수 있는 육체노동이나 주력하다 온다면 너무 큰 낭비이지 않겠는가? 이제라도 본교만의 특성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 방법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봉사활동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준 자랑스러운 미술디자인학부 대원 모맛와, 생활지도를 잘 해 주신 맛 분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교수합동
미술작품전시회





박경미 | 미술컨텐츠학과 1학년
어린이 미술교사/봉사대장

학생대표
소감문

“나의 재능은 기부하라고 주어진 것”

6월 25일, 인천공항에 미술컨텐츠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그리고 생활체육학과 봉사대원들이 모였다. 오후 6시, 중국으로 출발한 비행기는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운남성 쿤밍공항에 도착하였다. 다시 옥계대학으로 맛 시간여를 이동,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떨어졌다. 짧은 휴식 후, 이어 교수님들과 대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계획을 짜고, 수업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협의했다. 그리고 조별로 샘플제작을 마치고 긴장된 마음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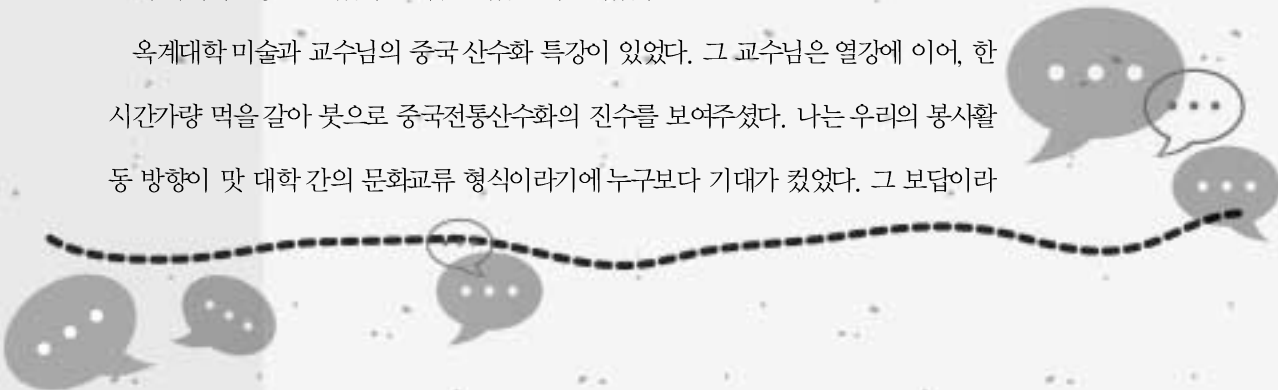
우리는 옥계시내에 있는 제일초등학교에 가게 되었다. 첫 수업으로 한국전통 탈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그 어린이들은 우리 대원들의 봉사태조끼에 수놓인 태극기에 관심이 많았다. 서로 본 따그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흐뭇하였다. 맛 번째 수업은 나무 조각 재료에 그림을 그려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었다. 완성작품 뒷면에 한글로 이름을 써 달라고들 졸라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얼마나 많이 써줬는지 수업시간이 끝난 것도 미처 몰랐을 정도였다. 의사 전달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과 미소로 그 아이들과 소통을 했다.

옥계 SDA 문화원에서 우리 대원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림 그리는 것

이라면 마다 할 이유가 없는 우리들은 이를 밤을 새워가며 개인당 맛 작품씩을 완성했다. 심목사님을 통해 증정식까지 하고 온 것이 크게 기억에 남는다.

옥계대학 강당에서 우리 생활체육학과 공연이 있었다. 그 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2시간 넘게 열연을 했다. 중국 측은 그들의 전통 춤과 노래 악기연주 등을, 우리는 고전과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였다. 이 시간을 위해 2개월 이상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노고에 더욱 힘찬 박수로 보답했다. 봉사활동에 와서 이런 추억을 만들어 가다니? 정말 잘 왔다고 새삼 느꼈던 시간이었다.

옥계대학 미술과 교수님의 중국 산수화 특강이 있었다. 그 교수님은 열강에 이어, 한 시간가량 먹을 갈아 붓으로 중국전통산수화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나는 우리의 봉사활동 방향이 맛 대학 간의 문화교류 형식이라기에 누구보다 기대가 컸었다. 그 보답이라



도 받듯, 보는 내내 감탄으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그림은 우리학과 교수님에게 선물되었다. 멋진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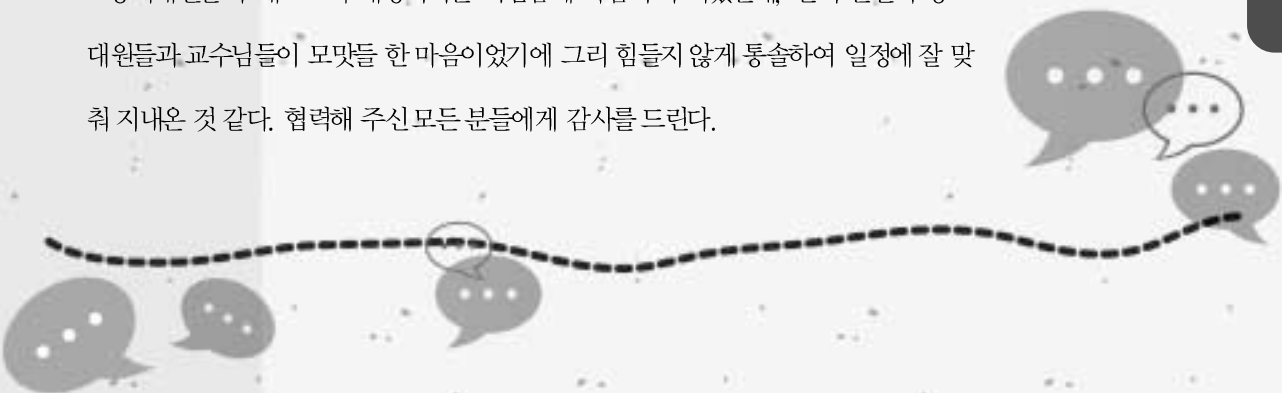
우리 대학과 옥계대학 미술과 교수님들의 합동미술작품전 오프닝 날이었다. 중국 TV 방송국에서까지 취재를 나온 것을 보면 보통 행사가 아니었음이 틀림없다. 개회식 때 수많은 내빈들 앞에서 우리 대학 대표로 고태영 교수님이 훈화를 하셨는데, 너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전시된 작품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인 정서와 느낌을 이해하려고 애매했다.

봉사활동기간 내내 느낀 것은 봉사가 어렵지 않다는 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나의 재능을 바라볼 때는 종종 변찮다고 여기거나 그냥 당연시하기 쉽지만, 남에게는 대단히 소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 재능은 이웃에게 기부하도록 하늘이 주셨다고 생각한다. 내가 미술의 재능을 받고 타고난 것에 감사하다.

중국에서의 열흘 남짓한 시간들...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그냥 흘러버리기 쉬운 길지 않은 날들이지만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기회만 된다면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봉사대원들의 대표로서 대장이라는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현지 분들과 동료 대원들과 교수님들이 모뎀들 한 마음이었기에 그리 힘들지 않게 통솔하여 일정에 잘 맞춰 지내온 것 같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지현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학년
어린이 미술교사

대원
소감문

“열린 마음으로 나눈 문화교류 봉사체험”

2012년 6월 25일, 처음으로 해외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봉사가 아닌 해외 자체를 처음으로 가보는 저로써 엄청난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지내던 부모님들과 20년간 살아왔던 한국을 뒤로하고, 중국 쿤밍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한동안 많이 낯설었습니다. 옥계대학교에서의 짧은 휴식의 밤을 보내고, 우리 조원들은 바로 중국의 제일초등학교에 미술선생님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첫날의 수업은 한국의 전통 탈을 자유색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날 나는 중국 아이들이나 한국의 아이들이 서로 다를 게 없는, 모맛 순수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발짓으로 뜻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느꼈는지 계속 해맑은 웃음을 건네주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첫날 수업을 그렇게 마치고 보니, 나도 중국어를 익혀서 아이들에게 보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조원들과 모여 손바닥과 손등에 필요한 중국어를 적어맞았습니다.

맛 번째 날의 수업은 수작업 목걸이 만들기와 율동이었습니다. 전날 밤 중국어를 조금이나마 익힌 김에, 아이들과 약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수업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이 끝나자 아이들 몇 명이 다가와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조그마한 선물들을 내
밀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움과 함께 울컥 진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그 아이들에
게 직접 만든 목걸이와 사진을 주었습니다. 다음 수업과정으로는 한국의 유명한(?) 동요
‘올챙이 송’을 율동과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말이라 따라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
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따라 부르고 금방 익혔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참여해준,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된 문화교류였습니다.

중국봉사에 가서 나눠주는 것만 아니라 배워 온 것도 많았습니다. 옥계대학 미술과
교수님의 중국미술 강의, 그분의 작품제작 시범, 옥계대학과 삼육대학교 교수작품전시
교류행사를 통한 맛 나라간의 문화의 차이 등도 저에겐 소중한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전시행사 중에 삼육대학교 학생대표로 TV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인



터뷰를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그동안 내가
보고 마음으로 느낀 차이점들을 차분히 얘기했습니다. 교
수님들과 통역해주신 선생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까
지 받고 보니 해외에서 우리학교를 빛낸 것 같아 뿌
듯하였습니다.

체육과의 공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
리가 미술작품을 통해 문화교류를 했다면, 체육
과는 온 몸과 마음으로 문화교류를 했다고 생각합
니다. 한국의 전통무용과 현대안무를 적절히 믹싱한 우
리학교의 공연은 중국학생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

분했습니다. 중국의 공연 내용은 모맛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다가다니 그들 고유의 문화가 보였습니다.

봉사활동기간 중에 우리 대원들의 작품을 그곳에 기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최선을 다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비록 수작은 아닐지라도 나의 작품, 나의 흔적을 중국이라는 먼 나라에 남길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옥계 시내는 길보기에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중국이라는 커다란 대륙의 문화는 내가 본받을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인정할 때, 현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알게 된 훈련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만 연다면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음을 안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삼육대학교에 들어옴으로, 참 봉사를 알게 된 것이 기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물질보다도 서로 진심을 전하는 작은 봉사, 마음 나눔의 봉사를 더욱 많이 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임진주 | 미술컨텐츠학과2학년
어린이 미술교사

대원
소감문

“언어가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교감한다.”

중국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흥미로웠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보는 이색적인 봉사가 큰 경험이 될 것 같기에 선뜻 지원을 하게 되었다.

늦은 시간에 중국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봉사에 들어갔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한동안 아이들이 말을 걸어올까 봐 matters워서 벌벌 떨었다. 겨우 통역해주는 분을 통해서만 기어 들어가듯 한 목소리로 의사를 전했다. 한참 후에 통역사가 미리 가르쳐준 중국어 몇 단어를 겨우 기억해내고,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열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변변히 답변도 못해 준 나의 무능함에 애꿎은 머리만 미울뿐이었다.

첫 날엔 화화탈, 둘째 날엔 나무목걸이를 만들기를 지도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내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왔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며, 짜여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이들의 사고력이 순수하게 느껴졌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면서도 난잡해 보이지 않게 색채를 잘 구사하는 색채감각에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목걸이에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그려, 뭔가 중국과 한국이 친하다는 이미지를 표현한 아이들도 몇몇 보였다. 비록 제

대로 표현하지는 못했으나 그리기 어려운 태극기 생각을 했다는 것이 기특했다. 작품을 다 완성하고 하회탈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목걸이엔 내 싸인을 해주었는데,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좋아서 모여드는 아이들이 어찌나 예뻐는지 모른다.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었는데, 문득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대 다수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상품은 고작 막대사탕 3개였는데, 옆 반에서 구경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눈 마주치기조차 힘들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친해지고 보니 “봉사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깊이 느끼게 되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네들만의 언어였지만 서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으로 알 수 있어, 언어가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학교에서 사전 봉사교육을 받을 때,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쁨을 받는

다.”는 말이 이런 것임을 깨달았다.

초등학교가 급작스럽게 휴교를 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둘째 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려, 아쉬움을 한탄하며 추억거리를 남기고 싶어 아이들과 단체사진을 찍었다. 모맛들 사진 찍을 때 뒷사람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을 번쩍 들어올린다. 손을 번쩍 들어 자신이 높아보

이게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이라고 들었다. 지금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넘치는 자신감이 오래 간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봉사활동 기간 중에 옥계대학생들과 우리 삼육대학교 생활체육과학생들의 공연이 있었다. 옥계대학생의 무용은 동물의 표정이나 몸놀림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삼육대생들은 에어로빅이나 전통춤으로 우아함과 활기찬 무대를 선 보였다.

한편, 옥계대학교와 삼육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님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합동전시회도 열렸다. 옥계대학교 측의 그림도 크고 멋있었으나, 작품의 질로 보았을 땐 역시 우리 교수님들의 작품이 훨씬 훌륭했다.

6일간의 옥계대학교 생활을 마무리 하고, 남은 기간은 문화탐방이었다. 석림에 이어, 구향동굴을 관람했다. 중국에는 아름다운 산과 절벽이 많다던데 동굴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들에 잠시도 눈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운남성 소수민족촌도 관람했다. 그들의 생활상을 그린 공연도 관람하였는데, 중국 특유의 음색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규모의 웅장함이 놀라웠다. 거기서 코끼리 쇼도 보았는데, 측은지심으로 인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고된 훈련동안 얼마나 학대를 받았을까. 하지만 자연

속의 코끼리들은 종종 상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고 하니, 이곳이 오히려 안전한 곳인가? 인간의 탐욕이 무섭다.

어디든 마찬가지로겠지만 중국은 자연 그대로 맞는 것이 더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다.

우리의 심성과 인간관계도, 가식 없는 진심으로 대할 때만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겠지...

생활체육학과(미리암&플라이)

팀 명	미리암 & 플라이 문화 예술봉사대	주최학과/부서	생활체육학과
지도교수	박승순	학생대표	안성경
봉사국가 (지역, 기관)	중국 옥계제일소학교, 옥계대학	활동기간	2012.6.25 ~ 7.5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5명, 기타 : 1명		
협력및 후원기관	옥계 SDA 문화원	주소/연락처	
봉사영역	교육	봉사대상자	소학교 어린이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박승순	생활체육학과		지도	지도교수	하혜석	생활체육학과		관리
학생대표	안성경	생활체육학과	4	점호	대원9	백종민	생활체육학과	1	안전관리
대원2	송지윤	생활체육학과	4	총무	대원10	안지훈	생활체육학과	1	교육관리
대원3	권세준	생활체육학과	4	영상작업	대원11	김택훈	생활체육학과	1	안전관리
대원4	오석준	생활체육학과	4	영상작업	대원12	정성규	생활체육학과	1	물품관리
대원5	윤희준	생활체육학과	1	식사준비	대원13	박가영	생활체육학과	1	사진
대원6	윤사현	생활체육학과	1	사진	대원14	이슬	생활체육학과	1	식사준비
대원7	여주선	생활체육학과	1	물품관리	대원15	배유정	대학원	4	사진
대원8	오서진	생활체육학과	1	교육관리	대원16	오선영	대학원	4	식사준비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결과(참여인원)
	교육봉사	6/26~28	초등학교	태권도, 육상, 농구, 에어로빅, 한국무용 등 실기교육	대원 : 16명 어린이 : 15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 가						
지도교수 역할	상					학생대표 역할	상						
학생대원 소양	상					현자반응	상						
숙식 및 생활여건	중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상						
잘된점	교육봉사 및 팀원의 공동체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현자에서의 변경 사항						
개선보완) 사항	현자에 대한 이해 및 준비					총평	전공연계를 살린 의미 있고 보람된 봉사임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25	오전	-	6/28	오전	교육봉사 3일차
	오후	중국으로 출발		오후	예술 공연
6/26	오전	옥계대학교 도착	6/29	오전	교육봉사 4일차
	오후	교육봉사 1일차		오후	문화봉사 1일차
6/27	오전	교육봉사 2일차	6/30	오전	교육봉사 5일차
	오후	예술 공연 준비		오후	문화봉사 2일차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박승순

지도 교수
소감문

“중국 문화예술 봉사의 감동”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중국 옥계 봉사였다. 이번 역시 해외, 중국 문화예술 봉사단의 모든 활동과 경험은 참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보고서에 기술한 모든 활동의 하나하나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경험으로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었다.

첫 중국 방문 때처럼 걱정스러움이 있었지만 중국 옥계의 평화로움과 적절한 기온이 다정하게 다가왔으며, 동행한 미술디자인 학부의 세 교수님과 현지의 목사님 내외분의 변함없는 친절하고 다정함이 큰 도움이 되었고,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이번 봉사의 성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최고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과 모교인 삼육대학교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순간들이었다. 다양한 봉사의 개념으로 대학봉사대로서 전공을 살려 학생들의 잠재적인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싶다.

다녀온 후 우연한 기회의 봉사단 리더 교수님들 모임에서 타국에서의 전공 연계 교육봉사를 통

해서 학교를 향한 애교심이 얼마나 학생들의 가슴 속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학기 내내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점, 마음 아팠던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은 것 같은 순간들이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10박11일 동안의 우리 학과 학생들의 모습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옥계의 제일 초등학생, 옥계대학생, 대학관계자들과의 화합, 또한 의미 있고 전공 연구의 장이 되었고, 봉사기간동안 우리대학 교수님과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현지 선 교사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의미를 담아볼 수 있었다.



끝으로 생활체육학과 제자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는 말은 전하고 싶다. 그리고 대학의 봉사 사업의 중요성과 지원에 열의를 다하시는 총장님과 사회봉사단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안성경 | 생활체육학과 4학년
학생대표

학생대표
소감문

“중국봉사를 다녀와서.....”

내게 해외봉사는 대학에 올라와 이번이 두 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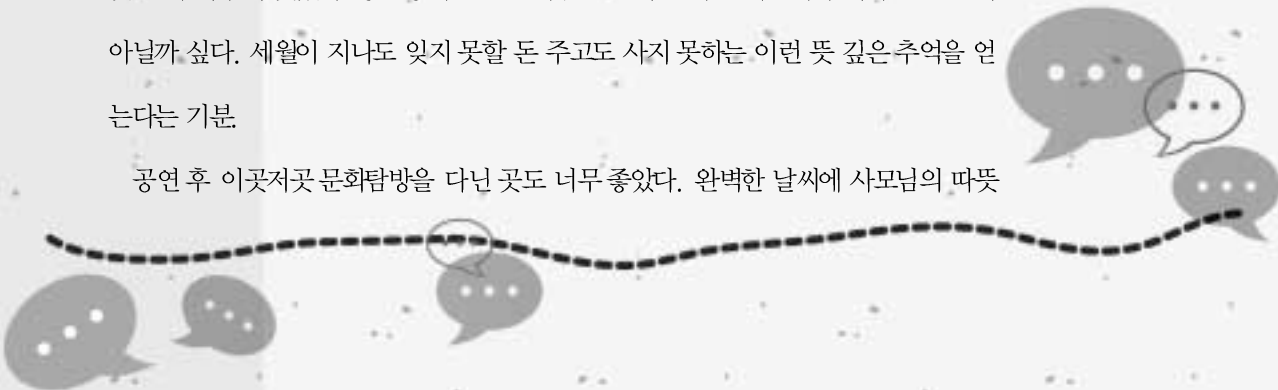
두 번 다 같은 곳인 이곳 옥계대학교로 오게 되었다. 처음 결심에 있어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같은 곳을 두 번 가는 것이라 망설였지만, 목사님 사모님의 정성과 잊지 못할 제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뜻 깊은 추억과 아름다운 사계절의 옥계날씨가 내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번 봉사 때보다 인원이 들어서 봉사대장으로써 더욱 더 신경도 두다. 중국에서 아침밥을 항상 다 같이 모여서 먹었기 때문에, 음식에 있어서나 식사당번을 정해서 하는 문제도 신경을 두다. 매일 아침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 따뜻했던 추억으로 남는 것 같다. 건강히 변하지 않은 목사님 사모님 얼굴을 보니 마음 한 구석에서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교육봉사와 공연을 하게 되었다.

교육봉사에서 제일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올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다. 가르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음과 제스처로 마음이 통하는걸 느꼈을 땐 감동의 순간이었다. 교육봉사 이후 나 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대원 입가에 미소가 흘러 넘쳤다. 아름다

왔다. 아이들도 봉사대원들도 다 같이 똑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공연에선 작년 공연 때 이곳 반응을 알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혈을 기울여 연습했다. 소품 하나하나 준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작품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작품을 위해 수고해주신 교수님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고맙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생각하며 옥계 대학에 와서도 아침엔 교육봉사 저녁엔 공연연습을 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옥계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환호 덕분에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 공연장에 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분에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닐까 싶다.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할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이런 뜻 깊은 추억을 얻는다는 기분

공연 후 이곳저곳 문화탐방을 다닌 곳도 너무 좋았다. 완벽한 날씨에 사모님의 따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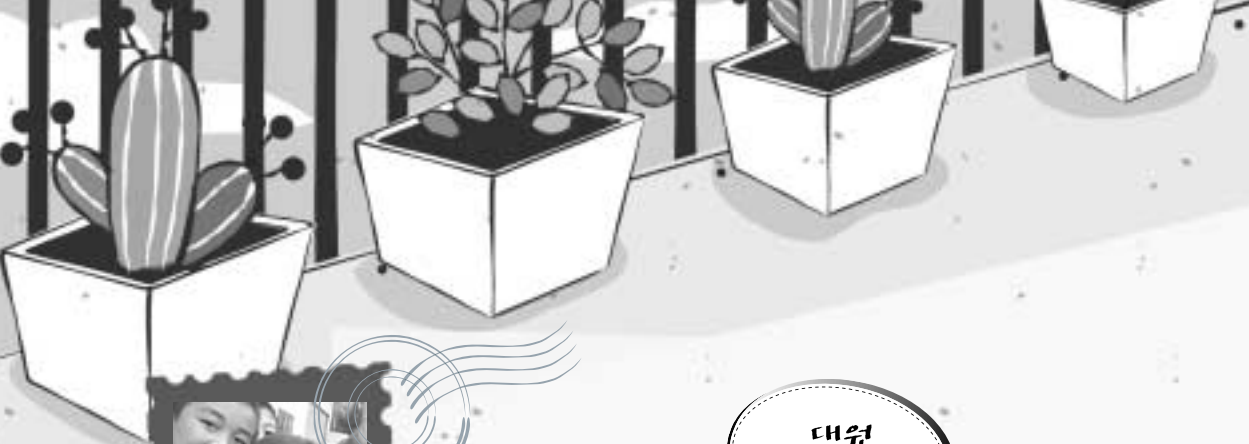


한 배려 친절한 가이드에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편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모든 봉사의 노고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공연을 준비하며 쌓였던 피로들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다. 깨끗한 숙박시설에도 감사했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4학년 아니면 1학년으로 나뉘어져있었는데 아이들이 불평불만 하지 않고 타지에 와서 건강히 무사히 봉사의 일정을 마쳐주어 너무 고맙고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우리들의 앞길과 뒷길을 항상 지켜주시고 신경써주신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하다. 잊지 못할 나의 4학년 어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봉사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



오서진 | 생활체육학과 1학년
교육관리

대원
소감문

“봉사대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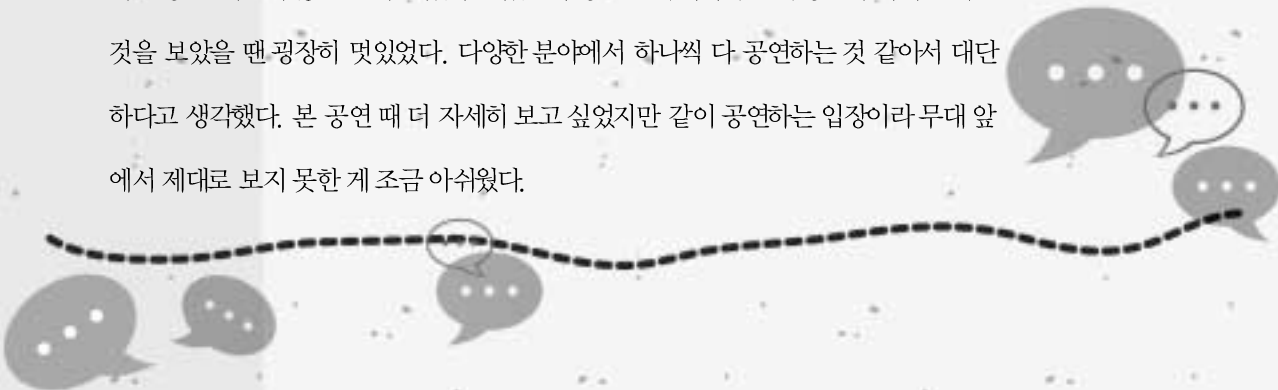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해외봉사였다. 그런데 마침 우리 학과에서 중국 옥계대학교에 문화교류로 해외봉사를 가게 될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던 해외봉사와는 조금 달라서 의아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해 오던 해외봉사는 아프리카나 아이티 같은 불우한 곳이나 재난피해가 큰 나라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고 지원물품을 전달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봉사뿐 아니라 문화를 교류함으로써도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흥미가 생겨서 굉장히 설레고 두근거렸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해외봉사를 신청했지만 방학하고 쉴 새 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 지치고 많이 힘들었다. 남들은 방학하고 다들 놀러 다닐텐데, 난 놀지도 못하고 연습하러 학교 나온다고 불평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니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불평불만들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선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 학기동안 매일 매일 연습하고 같이 대회에 올랐던 2012년 에어로빅 작품 ‘Summer Christmas’를 해외에 가서

다시 한 번 공연하고 멋있다고 최고였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다.

무용관련 특기자가 아닌 나는 이런 무용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서 다른 아이들과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남몰래 집에서 연습도 하고 어딜 가나 머릿속에서는 수 백 번도 더 이미지트레이닝을 했다. 그랬던 것에 비해 만족할만한 공연은 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더 멋지고 더 잘 해내리라 마음먹었다. 옥계대학교에서도 이번 공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옥계대학교 학생들이 리허설 하는 것을 보았을 땐 굉장히 멋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씩 다 공연하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본 공연 때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같이 공연하는 입장이라 무대 앞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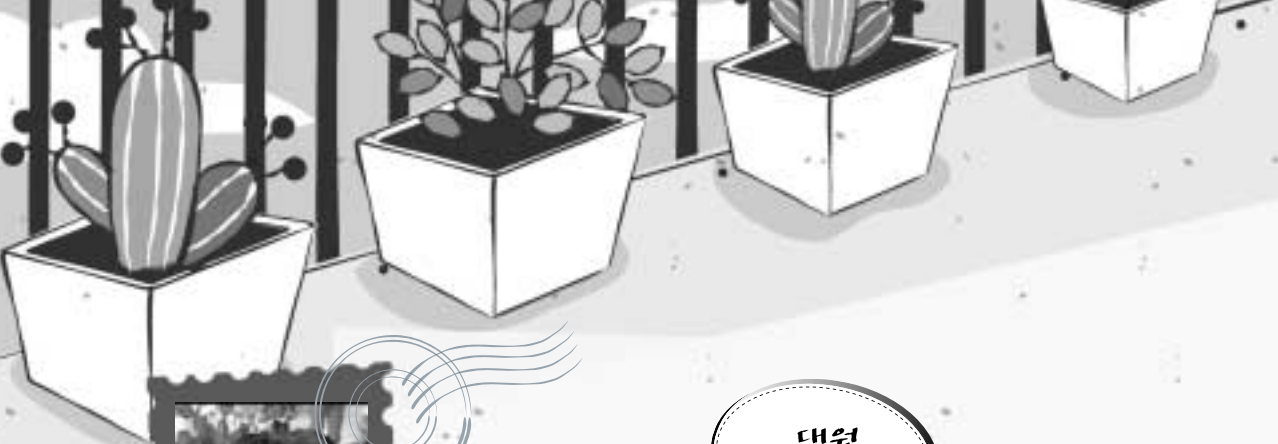
그리고 난생처음 초등학교를 교육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 굉장히 신이 났다. 나는 첫째 날에는 현대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둘째 날에는 농구를 가르쳤다. 아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전혀 없는 1학년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 했었는데 4학년 선배들은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과 어울려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함께 웃고 교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중에 학년이 차고 후배들과 함께 교육봉사를 오면 저렇게 능숙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더욱 선배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배우면서 나중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새겨놓았다.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현대무용, 에어로빅 등 많은 종목을 접해보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는 것에서 난 이번 해외봉사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나로서는 이번 해외봉사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고 새로 배우게 된 것이 많아서 기뻐다. 물론 처음 하는 것이라 아쉬운 점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았지만 이것을 경험삼아 다음에는 더 멋지고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박승순 교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시고 바쁘신 데도 매일 무도관에 오셔서 연습을 봐주시며 공연준비에 완벽을 추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다. 나도 훗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대원
소감문



송지윤 생활체육학과 4학년
충무

“중국 옥계 두 번째 이야기”

나는 2011 중국 하계 해외봉사를 다녀오고 2012년에도 작년 옥계가 그리워 또 다시 같은 곳을 가게 되었다. 두 번 가보는 옥계는 또 달랐다. 하지만 청명하고 아름답고 높은 하늘은 변함없었다. 두 번 가보는 곳이라 별다른 게 없겠지 ..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과 와서인지 다른 곳을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것은 여전했다^^ 작년에도 중국을 다녀와서 살이 많이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감량에 성공했다.

역시나 중국 봉사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공연이었다. 중국에 오자마자 소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두 번째 날은 공연 연습을 하고 셋째 날 바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옥계에 오기 전에 방학하자마자 쉬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인지 공연은 아주 성공리에 마쳤고 많은 중국 학생들과 현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는 한국무용을 가르쳤는데 강강술래를 함께하였다. 음악을 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진도아리랑을 아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알려 주었다. 내가 “아리아리랑”을 하면 아이들도 “아리아리랑”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부르면서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였

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노래도 잘 따라불러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서서 우리를 배웅해주는 아이들을 향해 “아리아리랑” 하고 외쳤더니 아이들도 두달아 “아리아리랑”을 외쳐주는데 정말 너무 뿌듯하고 타지에서 한국을 좀 더 가까이 알린 것 같아서 좋았다.

옥계대학교는 참 좋은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었고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그곳에 계신 심목사님과 사모님은 2년째 뵈었지만 변함없이 너무 잘해주셨다. 공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제 나는 4학년이고 졸업을 하면 옥계를 갈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공항에서 심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작별인사를 할 때도 너무 서운했고 슬펐지만 영영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박승순 교수님을 통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옥계를 오면서 얻는 것도 많았고

배워 가는 것도 너무 많아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대학시절의 행복한 봉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가장 뜻 깊었던 것은 박승순 교수님과 한 무대에 서서 함께 공연을 했던 것인데 교수님과 함께여서 너무 영광이었고 뜻 깊었다. 교수님이 함께 무대에 오르셔서 더욱더 멋지고 성공적인 공연이 되지않았나 싶다 ^^

너무나도 즐거운 봉사였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한 덕분인지 잊을 수 없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봉사를 마무리 하였다.

중국어과

팀 명	카이신구어	주최학과/부서	중국어과
지도교수	박민수, 박희문	학생대표	김수빈
봉사국가 (지역, 기관)	중국 상해 백제한국어학원	활동기간	2012.6.24 ~ 7.8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6명		
협력및 후원기관	중국 상해 청솔학원 및 상해복단대 학교, 상해 백제한국어학원	주소/연락처	중국 상해시 한단로 86) 130-2020-2330
봉사영역	교육봉사	봉사대상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학생들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박민수	중국어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박희문	중국어과		지도교수
학생대표	김수빈	중국어과		대장	대원0	김보희	중국어과	1	
대원2	이은빈	중국어과	2	조장	대원1	모찬울	중국어과	1	
대원3	윤정인	중국어과	2	조장	대원2	김혜리	중국어과	1	
대원4	임보라	중국어과	1	조장	대원3	이인령	중국어과	1	
대원5	이경아	중국어과	2		대원4	이창선	중국어과	1	
대원6	유지영	중국어과	1		대원5	전유진	중국어과	1	
대원7	한건규	중국어과	1		대원6	임찬식	중국어과	1	
대원8	김소연	중국어과	1		대원7	김양현	중국어과	1	
대원9	김미진	중국어과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교육봉사	6/24 ~ 6/29	상해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과 교류 - 테마회화 1:1 학습 진행	기존의일대 다수의 형식을 깨고 맨투맨 형식으로 진행한 교육봉사가 가르치고 배우는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게 만들었다.	대원17명 학습자 : 17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⑤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④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④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④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④	5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 가						
지도교수 역할	4					학생대표 역할	5						
학생대원 소양	5					현자반응	5						
숙식 및 생활여건	4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5						
잘된점	학생들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잘 따라준 점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지원금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						
개선보완) 사항	봉사 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					총평	4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6/25 ~ 6/29	오전	봉사준비
	오후	교육봉사(14 : 00 ~ 17 : 00)

중국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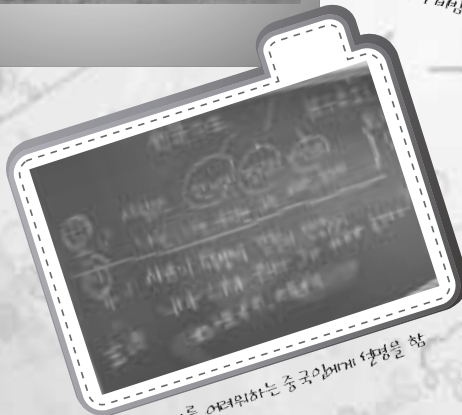
▶ 중국어들과 영어를 교환하는 모습



▶ 중국어들과 영어대화를 나눌 때 찍은 사진



▶ 한국 음식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 조사를 어려워하는 중국어에게 설명을 함



▶ 마지막 날 담화



▶ 중국 분께서 중국어에 대해 설명하시는 모습



▶ 중국인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



▶ 와이키키에 가서 중국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 컴퓨터에서 서로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었을 때



▶ 한국어 수업 후



▶ 학업 타문에서



중국어과 박민수

지도교수
소감문

“중국을 다녀와서”

중국 사천성으로의 봉사일정에서 현지의 사정으로 인해 중국 상해로 바뀌게 되고, 상해 현지의 교육 봉사 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 특히 교육봉사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 등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 하나로 우리 모든 대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와는 다른 문화색채를 가진 중국인들과 짧은 시간동안의 교육봉사를 통해 ‘교학상장’의 진정한 의미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봉사대를 떠나기 전 가진 여러 번의 팀 미팅을 가졌지만 대원들 대부분이 중국어과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짧은 시간은 시간동안 가족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상해 포동공항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 되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현지상황에 잘 적응하며 준비한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감사할 일이다.

크고 작은 일정들 중에 19가지의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대원 모두가 소통의 창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해가며 ‘카이신구어’, 말 그대로 기쁨의 열매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였다. 이 또한 감사할 일이다.



김수빈 | 중국어과2학년
봉사대 학생대표

학생대표 소감문

“세계의 중심 중국으로의 봉사대를 다녀오며”

대륙의 땅인 저 중국이란 타지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 봉사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떠난 이번 봉사대에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귀중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올 수 있었다. 중국의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뭇 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8월이 되어야 장마가 시작되고 습한 기후가 시작되는 반면 중국은 7월 중순이었지만 벌써부터 습기가 차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그래서 함께 떠난 우리 대원들도 날씨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이 더위를 참을 각오로 자원한 만큼 대원들은 자신들의 컨디션 조절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국봉사대에서 그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바로 중국의 음식이었다. 중국 상해의 기후는 비교적 남쪽에 있기 때문에 더운 기후가 길다고 한다. 음식이 기름지고, 짭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남방의 더운 기후 때문인데, 이렇게 먹어야 더위로 인해 빠져나가는 수분과 염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중국음식의 대표적인 재료라고 불리는 향채는 입두에 전혀 안 맞는 대원들이 매년 꼭 발생한다고 들었다.

중국의 기후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하는 만큼 모든 대원이 이 나라의 음식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역시 이 나라의 음식에 적응을 하지 못한 대원들이 속속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서 이런 대원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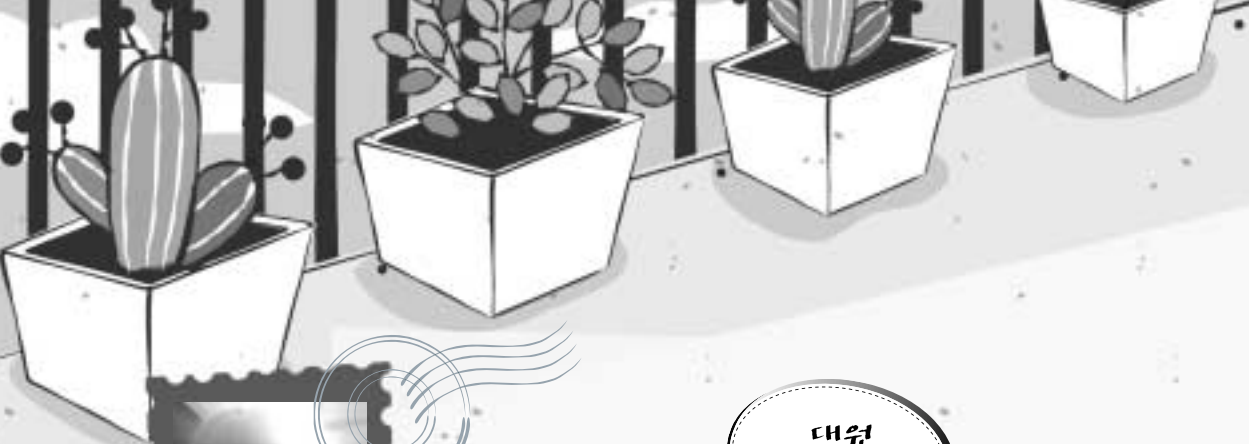
게 약을 전달해 주고, 건강을 체크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우리 봉사대가 중국에서 맡은 임무는 중국인들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 속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학과가 중국어과라고 하지만 아직 1학년이기에 말이 서툰 아이들도 있었고, 처음으로 중국에 온 친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과 교재를 나누는 시간은 그 시간 모인 사람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서 매우 힘이 나고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었다. 약 5일간 진행된 우리의 일정은 그들과 이렇게 우정을 쌓으며 완료가 되었다. 문화 교류 봉사를 마무리한 후 중국에 있으면서 둘러본 곳으로 만리장성, 용경협, 이화원, 고궁 등을 갔다.

이러한 곳곳에 먼저 도착해서 느낀 것은 과연 대륙의 크기를 자랑하는 중국의 자연환



경지체도 큼직큼직하게 되어있을 뿐 아니라 건물들의 크기도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형태를 보여주어 건물에 위축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그들의 옛 문화를 보면서 참 중국의 문화가 황하문명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14일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든 대원들이 별 탈 없이 서로 즐겁게 협력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나는 대장으로서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다. 또한 서로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과 더불어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여기 단체생활의 기본임과 동시에 앞으로 사회생활에 나아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임을 우리 모든 대원들도 자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끝으로 중국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과 교육을 해주신 박민수 교수님과 박희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김영현 | 중국어과1학년
봉사대원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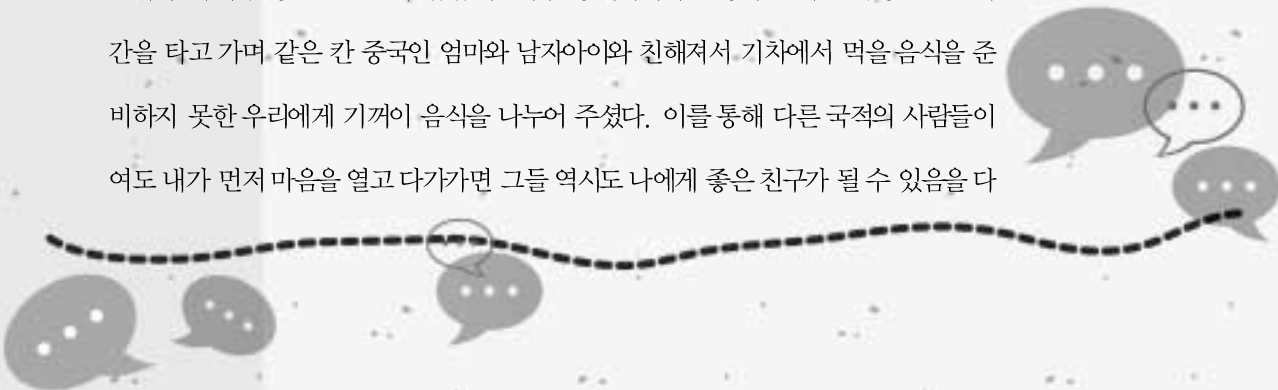
“上海和北京에서 心果를 맺다”

6월 24일에 출발하여 7월 8일에 돌아온다는 일정을 받았을 때는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중국어과인 만큼 한 학기동안 많이 미흡하지만 배운 회화를 사용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한국어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 상해에 도착했을 때 상해의 높은 습도로 인해 봉사대원들이 당황하였다. 예상보다 더 많이 습했고 서있기만 해도 땀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방 적응을 했고 4개의 조로 나뉘어져 조별로 활동을 했는데 내가 있던 조는 1조였다. 조별로 하는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루 동안의 조별 활동을 점호시간에 지도교수님들과 각 조의 대원들이 함께 모여 어떤 것을 가르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다. 반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친구들이 재미있어하며 잘 따라하더라 라는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꼭 막힌 교실에서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활동을 통해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나 젊은 층들의 관심사를 설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음식이 먹고 싶었던 중국 친구들을 위해 한인 타운으로 가서 한국음식인 닭갈비를 먹는

방법이 라든지 씹을 싸먹는 법을 알려주었다. 또 한국 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의 이름을 읽으며 이상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해 주고 설명을 듣고 나니 재미있어하는 친구들을 보며 봉사대라는 기회를 잡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문화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중국인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는 말을 들었는데 마지막 만남 때 중국인 친구가 헤어짐에 아쉬워 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부족한 중국어로 감정을 잘 전달 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포옹을 통해 가슴으로나마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후 상해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북경으로 15시간을 타고 가며 같은 칸 중국인 엄마와 남자아이와 친해져서 기차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에게 기꺼이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이를 통해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어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들 역시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다



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북경에서의 일정은 단체 활동이었기 때문에 단체생활에 있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중국의 유적지를 돌며 어떤 이는 쉬고 싶고 어떤 이는 더 관람하고 싶어 했지만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는 없기에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서로 조금만 양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13박 14일이라는 시간동안 봉사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많은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봉사대원들과의 돈독한 우정도 쌓이고 중국친구라는 좋은 친구들도 얻을 수 있어서 내 생애 있어서 가장 뜻 깊고 잊지 못할 13박 14일이었다. 봉사대 팀명과 같이 나는 카이친구어 기쁨의 열매를 상해와 북경에서 얻었다.

유지영
중국어과 1학년
한국어 교육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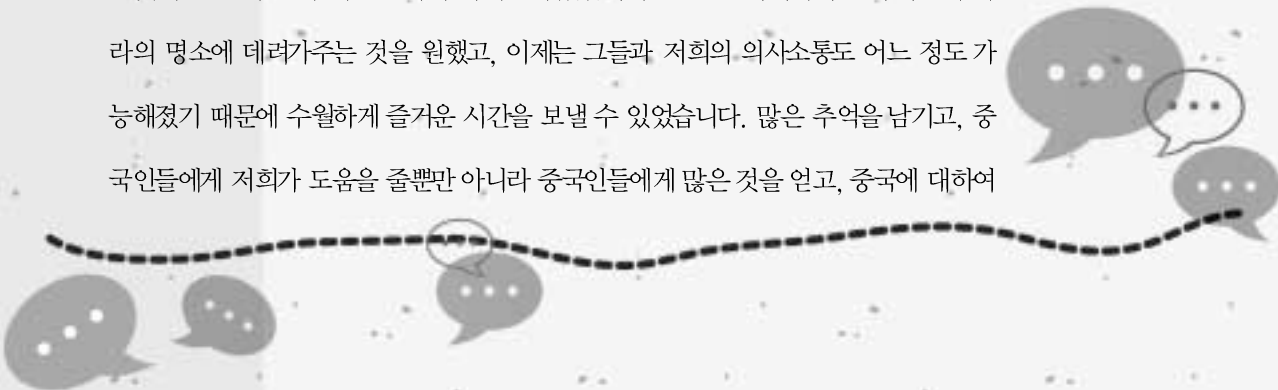
“중국을 다녀와서”

처음 해보는 해외봉사활동이라 부담감도 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주어야 될지 사전에 조원들과 모여서 회의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며, 중국인들과 서로의 문화를 함께 교류하며 서로에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날은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명함식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주고받으며 1대 1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학교, 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밖에도 종교, 취미생활 등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나라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면서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뢰와 관계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교류하고 봉사를 해나가기 위해 이번 봉사를 위해 미리 짜여있었던 조원들과 저는 밤마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 조언도 구하고 다른 조와 정보도 공유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369게임뿐만 아니라 서로의 나라의 대표 게임도 해보고, 지면 벌칙으로 자기나라의 특징,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둘째 날부터 중국인들은 저희의 성의와 노력을 알았는지 차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말을 먼저 걸지 않아도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저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그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셋째 날은 다 같이 예원을 거쳐 와이탄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먼저 자신의 나라의 명소에 데려가주는 것을 원했고, 이제는 그들과 저희의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월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추억을 남기고, 중국인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얻고, 중국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학교와 교수님과 부모님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한국의 대표음식 비빔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항상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고 그 결과 생각해 낸 것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비빔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설픈 중국어로 조원들과 함께 장을 보는 것도 매우 뿌듯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어떠한 주제가 없더라도 서로에게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알려주며 시간을 보내게 되니 서로에게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정말 아쉽지만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정이 들어 내일부터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먼저 흐를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며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고 뜻 깊은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값진 것을 얻

였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간 것이지만 끝나고 나니 도리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포옹을 하며 당신이 우리 집에서 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생각해준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울컥했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연락이 되는 것이 너무 값진 보물을 얻게 된 기분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있을 해외 봉사를 더 가볼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로 봉사의 참된 의미에 대해 알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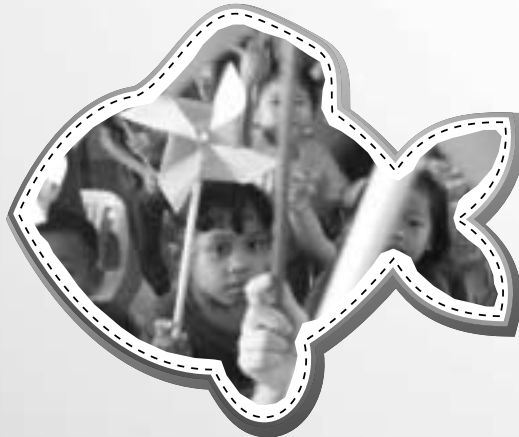


컴퓨터학부(삼육엔젤)

팀 명	삼육엔젤	주최학과/부서	컴퓨터학부
지도교수	조양현, 박희만	학생대표	방영기
봉사국가 (지역, 기관)	말레이시아 탐파롤리	활동기간	2012.6.24 ~ 7.9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1명		
협력및 후원기관	말레이시아 사바 협회	주소/연락처	사바 협회 Nasco Gabu 부장 (gabunasco@yahoo.com)
봉사영역	교육 및 노력 봉사	봉사대상자	말레이시아 사바주 탐파롤리 유치원, 초·중·고 학생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조양현	컴퓨터학부		지도교수	지도교수	박희만	컴퓨터학부		지도교수
학생대표	방영기	컴퓨터학부	3	봉사대장	대원7	구장우	컴퓨터학부	3	사진
대원2	지윤정	컴퓨터학부	3	부대장	대원8	김태구	컴퓨터학부	1	뒷장외
대원3	류현정	컴퓨터학부	3	총무	대원9	김철중	컴퓨터학부	3	영상
대원4	김소진	컴퓨터학부	3	서기	대원10	임하림	신학과	2	물품
대원5	정교윤	컴퓨터학부	3	이벤트	대원11	이창주	컴퓨터학부	1	소지품관리
대원6	이은아	사회복지	2	기획	대원12	양은지	컴퓨터학부	1	물품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노력 봉사	6/27~28	중등학교 컴퓨터실	기증 컴퓨터 설치 작업	매우 만족	봉사대원 5명
2	노력 봉사	6/28	중등학교 컴퓨터실	인터넷 구축 및 무선인터넷 설치	매우 만족	봉사대원 3명
3	노력 봉사	6/28~7/3	초등학교 교실외벽	초등학교 벽 페인트 작업 및 벽화 작업	매우 만족	봉사대원 12명 지도 교수 2명
4	교육 봉사	6/25~7/4	초·중· 고 교실	한글 교육 봉사 (한글이름쓰기, 한국어 편 지 쓰기 등)	대체로 만족	봉사대원 4명
5	교육 봉사	6/25~7/4	초등학교 교실	종이 접기 교육 봉사 (한복 종이접기, 예쁜 편지 만들어 한글로 편지쓰기 등)	대체로 만족	봉사대원 2명
6	교육 봉사	6/25~7/4	초·중· 고 컴퓨터실	컴퓨터 교육 봉사 (타자프로그램 활용법, 워드 및 파워포인트, 인터넷 활용법 등)	대체로 만족	봉사대원 3명
7	교육 봉사	6/25~7/4	유치부 교실	유치원 교육 봉사 (바람개비 만들기, 한국전 통놀이배우기 등)	대체로 만족	봉사대원 3명
8	문화 교류	6/29~7/1	바이블 캠프장	어린이 캠프 (말레이시아 전통음식 만들기, 정글 체력훈련)	대체로 만족	봉사대원 12명 지도 교수 2명
9	문화 교류	7/4	학교	문화회	매우 만족	봉사대원 12명 지도 교수 2명
10	문화 교류	7/6	Manu kan섬	탐파롤리/고센 2개팀 합동행사	매우 만족	봉사대원 26명 지도 교수 4명
11	문화 교류	7/7	지역 교회	탐파롤리/고센 2개팀 합동행사	대체로 만족	봉사대원 26명 지도 교수 4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1	인종음 2	보통 3	종음 4	매우종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 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 가							
지도교수 역할	봉사대원의 총괄적인 지도 및 현지 학교 당국과의 인터페이스				학생대표 역할	대원들의 원활한 봉사 활동을 지휘							
학생대원 소양	아침 저녁 예배 및 바이블 캠프 및 안식일 예배 적극 참여				현지반응	실제적인 도움에 매우 만족된 호응을 보임							
숙식 및 생활여건	현지식에 따른 학생들의 음식 섭취의 어려움 및 학생 숙박시설의 노후로 어려움이 많았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탐파룰리는 비 교적 치안이 안정적이었음.							
개선(보완) 사항	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성취감 및 현 지 학교의 만족감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초기 준비과정성에서 봉사대 학생들 의 모집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꼈 으며, 이로 인한 규정된 팀원 구성 미 비로 사회봉사단의 규정에 따른 경비 지원의 감소로 재정적인 운영에 난항 을 겪음.							
잘된점	철저한 초기 준비와 봉사대원 모집을 장기화하여 충분한 인원 확보가 필요 하며 좀 더 장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각성의 정립이 필요				총평	봉사대원 및 현지 학교 당국의 만족 감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된 봉사를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향후 봉사지역을 좀 더 소외된 지역 으로 확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24 (일)	오전	PC 등 공통화물 패킹 작업	7/2 (월)	오전	말레이시아 고등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및 수업 참여
	오후	18:50 OZ757 출발/ 현지시간 2305 도착		오후	해변휴식, 고선학생들과 체육활동 및 탐파롤리 복귀
6/25 (월)	오전	탐파롤리 학교 배정 및 대원소개	7/3 (화)	오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
	오후	고선팀원들 배웅 및 짐정리		오후	초등학교 벽 페인트 작업 및 벽화그 리기 마무리
6/26 (화)	오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	7/4 (수)	오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
	오후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체육활동		오후	한국음식 만들어 말레이시아 학생 및 선생님 점심식사 초대
6/27 (수)	오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	7/5 (목)	오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
	오후	컴퓨터실 구축 작업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체육활동		오후	Minpian 해안 도착
6/28 (목)	오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	7/6 (금)	오전	합동 행사
	오후	컴퓨터실 구축 작업 초등학교벽 페인트 작업		오후	문화탐방
6/29 (금)	오전	Dantai 어린이 캠프 참석	7/7 (토)	오전	말레이시아 현지 협력기관 방문
	오후	어린이 캠프 참석		오후	탐파롤리 학교 송별회 초대 방문
6/30 (토)	오전	어린이 캠프 참석	7/8 (일)	오전	코타 키나발루 문화탐방
	오후	어린이 캠프 참석		오후	12:10 OZ758편으로 귀국
7/1 (일)	오전	어린이 캠프 참석 종료	7/9 (월)	오전	06:25 인천공항 도착 및 안착 기도예배 후 각자 귀가
	오후	Hexan으로 이동, 개인별휴식		오후	

삼육 엔젤



▶ 방과 후 아이들



▶ 벽화 작업



▶ 자기열고 열고 열고 곡미 수업 후 점심 상황



▶ 동대원을 열려라 게임 후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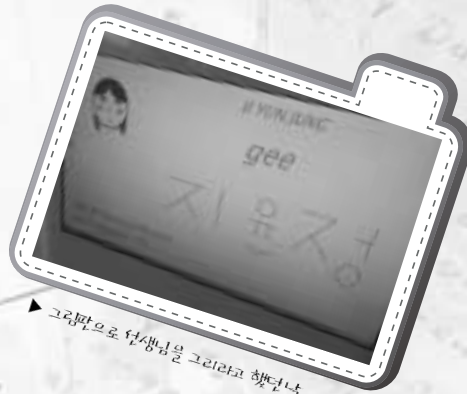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만들기



▶ 학교 담벼락 벽화 그려주기 노력봉사



▶ 캠프 말레이시아 팀원들과 회의 중



▶ 그림판으로 선생님들 그리라고 했더니



▶ 컴퓨터 수업을 가르친 날



▶ FORME 애들과 마지막 수업 날에 함꼐



▶ 캠프를 가서 아이들과 함꼐



▶ 아이들에게 첫 소개 시간!



▶ 컴퓨터실 컴퓨터 설치 중



▶ 입학광항 출국 시 사진

삼육 엔젤



▶ 벽화그리기 도중에



▶ 말레이시아 학생들과의 체육활동



▶ 초등학교 벽화 작업중



▶ 컴퓨터 설치 완료 사진



▶ 7월 7일 KIOSOM KOSUSU 방문



▶ Manukan섬에서 합동행사



▶ 매일 저녁 늦게마다 집지사에 진행될 평가회



▶ 탐파를리에서 마지막날



▶ 마닐라OKIA 고등학교 방문



▶ 캠프



▶ 중고등학교를방수업후



▶ 수업 끝난후쉬는시간



▶ Dental에서 캠프 참가한후



▶ 탐파를리를떠나는날아이들과



컴퓨터학부 | 조영현

“해외봉사대를 다녀와서”

금번 우리 컴퓨터학부가 중심이 되어 해외 봉사한 지역은 보루네오 섬 북단에 위치한 동 말레이시아 사비주 탐파롤리로, 코타 키나발루 시에서 자동차로 40여분 거리에 있는 삼육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한 캠퍼스로 되어있는 아름다운 학교로 갔다. 우리 봉사대가 금회 5번째 방문 봉사하는 곳이다.

이번 봉사대는 컴퓨터학부가 주축이 되어 금번 우리 학부의 컴퓨터 교체에 따른 중고 컴퓨터 25대를 탐파롤리에 12대, 고센에 13대씩 각각 기증 및 설치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에 IT 전공과 연계된 봉사 활동이라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컸다. 지도교수로는 탐파롤리팀에는 나와 박희만 학부 담임목사, 고센팀에는 제해중 목사와 일본어과 야마시다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고센팀에 여학생 지도를 위해 야마시다 교수 사모님이 함께 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탐파롤리팀에는 10명의 컴퓨터학부 학생과 신학과 1명, 사회복지학과 1명의 여학생 등, 총 12명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고센팀에는 7명의 우리 학부생과 신학과 2명, 동지과 2명, 일본어과 2명 등, 총 13명의 학생으로 봉사대 팀이 구성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기 초에는 많은 학생들이 해외 봉사 지원 신청을

하여 행복한 고민을 했지만, 막상 비행기를 티켓팅 해야 하는 즈음에 들어서서는 아무 책임 의식도 느끼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쉽게 해외 봉사를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과연 봉사대가 제대로 구성되어 떠날 수 있을까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했다.

앞으로는 학기 초부터 해외 봉사 갈 학생들에게 미리 얼마 정도의 비행기 표 값을 받아 놓고 마음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 과정으로, 봉사할 곳에 대한 철저한 정보 입수 및 대원들의 마음가짐, 봉사할 사항에 대한 준비 등이었다. 봉사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겨울에 이곳으로 봉사를 다녀 온 팀으로 부터의 사전 정보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고, 대원들의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전 대원을 소집하였으나, 미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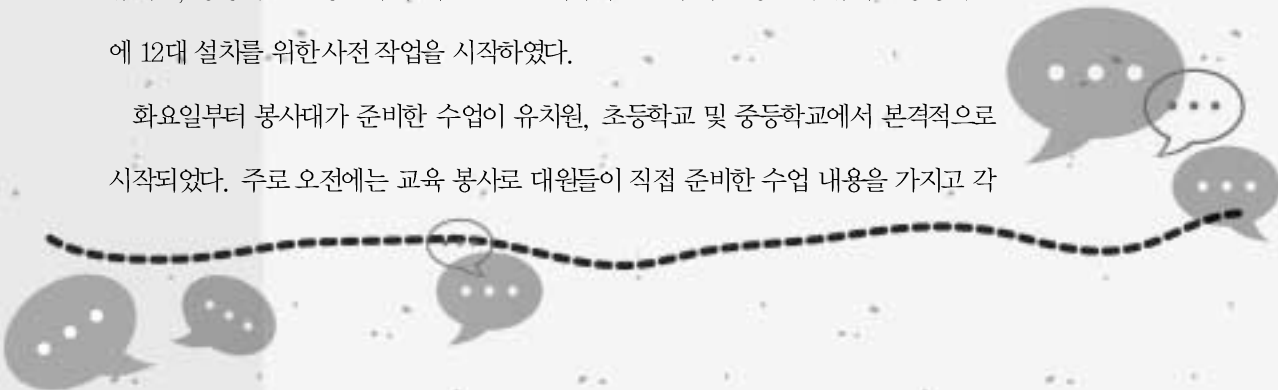
숫자밖에 모이지 않아 내심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이번 주요 봉사가 교육 봉사로 영어로 그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맡은 분야의 수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되었다. 이번에는 한국어반 외에도 컴퓨터반, 종이공예반, 그리고 유치원을 위해 미술 놀이반 등 4개의 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교육 준비 외에도 해당 학교에 기증할 중고 컴퓨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일도 미리 국내에서 완료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작업등도 병행하였다.

6월 24일 출발 당시 서울은 가뭄으로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무더운 날씨여서 봉사할 그곳 날씨가 무척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내린 코타 키나발루 공항의 체감 온도는 습한 사우나에 들어온 기분,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 중등학교장의 환대를 받으며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피로에 지친 하루의

움을 얻게 되었다.

다음날, 처음 접하는 열대의 아침 공기, 6시 반이 되자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한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집에서 오수를 취하고, 아침 일찍 학교 수업이 진행되어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12시 이전에 모든 수업이 끝나는 패턴이었다. 제일 먼저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대원들로 하여금 수업을 참관 하게하고, 여기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고센으로 떠나는 대원들을 배운 다음 유치원, 중등학교를 방문하여 대원들을 소개시키고 오후에는 중고 컴퓨터를 중등학교에 12대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였다.

화요일부터 봉사대가 준비한 수업이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오전에는 교육 봉사로 대원들이 직접 준비한 수업 내용을 가지고 각



학교에 가서 교육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기증한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작업 및 초등학교 교실 외벽에 하얀 페인트칠하기 및 초등학교 입구 교실 외벽에 벽화 그리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모두 다소 생소한 작업이었지만 모두들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대원들이 처음 접하는 외국인지라, 음식 및 기후에 다소 지칠 쯤, 6월 28일(목) 오후에는 모든 오후 활동을 잠시 멈추고, 이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키나발루 국립공원으로 가기로 하고 툄툄거리는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키나발루 산 정상 등정을 이곳에 오기 전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모든 등산 장비를 한 가방 가지고 왔는데, 막상 도착하여 등정 경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한국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2~3배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바람에 포기, 오늘 대원들과 바람도 쉴 겸, 가게 되었다. 산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길

인지라, 피부에 와 닿는 체감은 늦가을의 기분, 모든 것이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그 다음 날인 6월 29일(금)에는 학생들이 캠프를 떠나는 바람에 오전 교육 봉사가 없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페인트 칠 및 벽화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점심을 먹고 설 틈도 없이 이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Dentai 수련장으로 캠프 참여를 위해 출발하였다. 해변에 위치한 캠프장이었지만, 해변의 백사장과 해수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각 조별로 숙박을 하는 침실이었는데, 군대의 막사 구조와 흡사하고, 창문의 모기 방충망들이 마구 뜯겨있어 여기서 앞으로 2박3일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다. 우리 대원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을 때, 이것도 너희들에게는 참으로 경험하기 힘든 환경이니 잘 버티면 큰 보람이 있을 거라 타일렀다. 여기서 펼쳐지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낙천적

인 성격, 진지하게 펼쳐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물론, 전혀 이곳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큰 것을 보러갔다가 휴지를 준비 못해 물과 원손을 사용하여 뒷마무리를 해결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대원들이 이곳 학생들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구나 하는 소외를 느끼기도 했다. 2박 3일의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심심의 피로와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고센학교 방문에 앞서 Hexan의 호텔에 여장을 풀고 모처럼의 여건 밑에서 오후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날 고센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고센학교는 평자에 지은 학교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 탐파롤리 학교보다는 학생수의 규모가 약간 큰 학교였다. 공활동을 진행하며 고센 학생들이 탐파롤리 학생보다

더 순수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곳에서 봉사한 학생들이 하나같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요인이 탐파롤리는 이번 봉사가 5번째이고, 고센은 3번째라는 점과 고센이 탐파롤리보다 더 시골이라는 사실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그곳에서 오전에 잠깐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10시쯤 출발, 보르네오섬의 최북단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구름지를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남중국해의 파란 바다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 이었다. 학생들과 어울려 3~4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서로 편을 나누어 해변 백사장에서 릴레이 경기, 기마전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의 장벽을 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달콤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돌아와 고센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탐파롤리로 돌아와 보니,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고향에 돌아 온 기분이었다. 산마루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었

다.

우리가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음을 인지하고 대원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때가 되었다. 고갈된 에너지는 우리가 그 이후에 충분히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니 후회 없이 봉사하고 가자” 라고 역설하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초등학교의 벽화 그리기였다. 오후부터는 전 대원이 전력을 다해 벽화그리기에 몰입하면서 대원들을 독려하기 시작하여 다행스럽게도 그날, 즉 7월 3일(화)에 가뻔하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무엇보다 이 벽화그리기에 있어서 모든 기획과 진두지휘한 박희만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는 바이다. 7월 4일(수) 오전 수업은 전 대원들이 그동안 정들었던 각 반에서 들어가 수업 종강을 하는 마무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식당에 나타나

지 않아 웬일인가 싶었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워 그곳 학생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르라 늦은 점심을 우리가 준비하여 그곳 유치원선생님, 중등학교 학생들을 초빙하여 같이하는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으며, 이번 봉사의 주안점은 중등학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초빙하여 우리가 준비한 각종 선물(각종 구기 및 시계, 축구, 배구 네트 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후, 초등학교에 들려 준비한 벽시계를 선물하고, 기념촬영도 같이하게 되었는데,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벽화인 것 같았다. 우리가 떠나도 이 초등학교의 교실 외벽에는 우리의 흔적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기쁘기 한이 없었다.

올라오는 길에 유치원에 들려 역시 벽시계를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중등학교에 들려 그동안 땀에 젖은 유니폼을 그곳 학교장에게 선물하고, Mimpian으로 탐방을 떠나게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니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그간 말레이시아의 두 지역에서 하나의 정신으로 임했던 두 팀이 만났다. 저녁에는 탐파물리 학교에서 마련한 송별회 식사 초대를 받고, 여러 선물과 두있는 그곳 음식을 먹으며 석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7월 8일(일) 마지막 날에는 코타 키나발루 시내 투어를 한 다음, 밤늦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고국을 향해 출발, 5시간여 만에 동이 트는 고국의 태양 햇살을 받으며 무사히 고국 땅에 안착, 지금까지 우리 대원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대원들이 인천공항에서 함께 둘러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각자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향하였다.

봉사대 활동을 통해 각 대원들은 단순 여행이 아닌 독특한 형태의 현지 생활 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들의 활동범위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대원 모두가 삼육대학교를 대표하는 재학생으로 성실하게 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금요일 및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 특창 및 순서를 통하여 삼육대학교의 홍보 대사 역할을 잘 담당하였다.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우선 변하고 또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삼육대학교의 교육 목적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자부한다.

무엇보다도 지도교수로서 이번 봉사에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한 것은 단일 학부에서 2개 팀을 구성하여 봉사하면서, 그곳 학교에 가장 필요한 PC시스템을 구축해 줌으로 그곳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 넓은 세계를 바라 볼 수 있다는 점과 전 대원이 그야말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고국의 고마움,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삼육 대학생으로서의 자부심, 7명의 학생 대원이 영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다.

여러모로 이번 봉사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아!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우리 대원 30명이 주님의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영기 | 컴퓨터학부 3학년
봉사대장

학생대표
소감문

“말레이시아 탐파를리 봉사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의 팀원과 준비자세 마음가짐이 기억이 납니다. 준비를 위해 모이는 약속시간도 못 지키고 준비도 무척이나 부족하여 항상 걱정되고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는 반대로 우리 팀원들은 도착과 함께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부족한 준비과정들을 보충하며 서로 팀워크를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업도 너무나 잘해주고 대장으로써 대원들의 준비부족과 책임감을 나무랐던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너무나 잘해준 우리 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대장으로써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봉사활동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한 지금, 함께 모든 것을 헤쳐 나가준 대원들과 두 분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아이들 선생님들,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을 전혀 거리낌 없이 순수하고 밝은 웃음과 함께 맞이주고 잘 통하지 않는 언어이지만 손발 짓을 다해가며 소통하려고 먼저 다가와주고, 작은 음식도 함께 나누어주며 항상 웃어주고, 떠날 때 슬피 울어주던 그들은 우리가 봉사를 하러간 것이 아닌 사랑과 정을 얻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책임과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갔던 캠프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글 같은 곳에 내려서 아무것도 없이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시설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지내며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봤던 친구처럼 서로 도와주고,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된 노래들이지만 함께 부르며 마음을 나누었고, 힘든 체력훈련들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 돕고 다독여주며, 더욱 친밀해지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 전통음식들을 함께 만들며 느꼈던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과 우리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었던 기억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고 알찬 경험, 꼭 다시 봉사라는 것을 통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봉사대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내 자신과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윤정 | 응용컴퓨터전공 3학년
부대장

대원
소감문

“뜨거운 열기 뜨거운 가슴”

작년 편입 공부를 하면서 ‘내가 편입을 하게 되면 꼭 봉사활동을 해봐야지!’ 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삼육대학교에 편입을 하고 내가 전공하고 있는 컴퓨터학부에서 해외봉사를 모집하고 있기에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心봉사’라는 봉사동아리에 들어 3년 내내 봉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국내가 아닌 국외 봉사는 처음이었기에 책임감과 두려움, 설렘이 공존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4일~7월 9일까지 말레이시아에 탐파룰리라는 작은 시골학교에 가서 조양현 교수님, 박희만목사님을 비롯하여 컴퓨터학부친구들 신학과 친구들 사회복지와 친구와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탐파룰리에 도착하였을 땐 무더운 날씨와 벌레의 습격, 열악한 의식주로 과연 내가 봉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봉사는 컴퓨터수업으로 중1~고1까지 수업이었습니다. 처음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저를 향해 환호해주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열정만큼 저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다양한 컴퓨터수업(PPT 작성, 페이스

북, 타자치기, 메일쓰기)강좌를 하였습니다. 저는 신학과 친구(임하림군)와 컴퓨터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언어에 능통한 친구 덕분에 한결 수업하기에 편하였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AM8시~ PM1시까지의 풀 수업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대원들과 함께 초등학교 건물의 벽화도 그리며 하루하루 알찬 하루를 보냈고, 캠프라는 곳도 학생들과 2박3일의 일정으로 함께 가보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정전과 물 부족, 벌레 떼로 인해 제일 힘들었던 때였지만 제일 힘들었던 만큼 그룹별로 학생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자주 하던 말레이시아 어가 생각납니다.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였던 Apa Kabar(아파카파르), ‘사랑해’ Saya sayang kau(사야사양 카우) 등 그 나라언어를 배우고 저 또한 한국어

를 가르쳐 주며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밤에 같은 방을 쓰던 학생이 저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의 대화였지만 시시콜콜 떠들며 언어가 안 통해도 마음으로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탐파물리를 떠나는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틀 전부터 저에게 언제 한국에 올 거냐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떠나는 아침까지도 계속 아이들은 언제 떠나냐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이 헤어짐은 끝이 아닌 다시 또 볼 수 있는 헤어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원들이 봉사를 하는 내내 힘들었지만 다 끝나치고 난 후의 보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봉사를 끝내고 나니 봉사를 하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는 것 또한 마음이 불편한지는 몰랐습니다. 다시 탐파물리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싶고 마음도 더 주고 싶습니다. 몸이 편해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닌 그 곳에서 느끼는 행복이야말로 더 없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교윤 | 컴퓨터학부 3학년
한글반 이벤트

대원
소감문

“배움의 봉사”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에 국내에서 봉사는 여러 번 해왔지만 처음 해외에 나간다는 생각에 솔직히 봉사라는 생각보다 들떠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뻘질거리고 봉사 날이 코앞에 닥쳐서 준비를 빠듯하게 마쳤습니다.

비로소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실감이 나서 그제 서야 ‘아, 탐파롤리에 가서 아쉬운 마음이 절대 생기 않도록 모든 걸 쏟고 오자.’ 라고 다짐했고 그렇게 저의 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첫 날밤이 지나가고 아이들과 마주한 첫 번째 날,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저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과 많은걸 알려주겠다는 저의 불타는 의지 덕분에 가장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아이들과의 행복한 수업 시간이 지날수록 더위에 너무 약한 저는 지치고 힘이 달려 어느 순간부터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이거나 짜증내는 얼굴, 지쳐있는 얼굴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는구나.. 나의 손길을 한번이라도 더 타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더 밝아지고 한번이라도 더 웃어주려 노력해

야겠다.’라고 여러 가지 많고 복잡한 생각들이 일순간 머리를 스쳤습니다. 벽화 그리는 작업을 할 때 대충 그려놓은 스케치 그림인데도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칭찬해주던 아이들, 어제 수업시간에 배운 한글을 섞어가며 편지를 써준 아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가르쳤다 기 보단 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른스럽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간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맡은 수업 담당은 초등부였지만 캠프 때 며칠 같은 그룹으로 생활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첫날 함께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먼저 내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고 수줍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베풀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밥 먹으러 줄 설 때도 나부터 먹으라고 양보하고, 접시와 수저도구를 챙겨주는 아이들 모습, 의자가

없어 서서 먹고 있던 제게 선뜻 자신의 자리를 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가슴이 찡합니다. 왜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받기만 할까.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날, 제가 있던 곳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두들 달려와서 안아주고 아쉬워하는 모습에, 마지막까지도 저보다 아이들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에 몽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미안했습니다. 제가 미처 정을 많이 주지 못했던 아이까지도 저를 안아주고 아쉬워하며 우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업하는 동안 앞자리에서 열심히 따라와 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예뻐서 이 아이들을 더 챙겼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 했습니다. 왜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이 아이들의 사랑을 느꼈을까. 따뜻하게 많이 품어주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안아줄 걸 하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내가 다가와 주길 바

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앞장서서 따라오는 아이들보다 뒤에서 지켜주고
날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걸 왜 그제 서야 깨달았는지 내 자신이 너무 부끄
럽고 그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봉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
들에게 받은 사랑이 큰 만큼 그만큼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미안했습니다.

수업 마지막 날, 이곳에서 몸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감기가 걸려 아프다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내 일을 다른 대원들에게 넘기고 짜증도 많이 냈지만, 그 때마다 힘든 일
이어도 대신 처리해주고 작은 일까지도 꼼꼼히 챙겨주는 저보다 더 언니 같고 오빠 같
은 동생들과 멋진 오빠 언니들 덕분에 무사히 봉사를 끝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큰 만큼 우리 대원들에게 소중한 마음도 커
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는 따뜻한 봉사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고센

팀 명	말레이시아 고센	주최학과/부서	컴퓨터, 동자, 신학, 일어
지도교수	제해중, 야마시다	학생대표	최강민
봉사국가 (지역, 기관)	말레이시아 사바주 고센삼육초중고	활동기간	2012.6.24 ~ 7.9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2명, 기타 : 1명		
협력및 후원기관	GASS(고센 삼육초, 중, 고등학교)	주소/연락처	말레이시아 사바주 고센
봉사영역	교육, 노력봉사	봉사대상자	고센삼육초중고생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제해중	교양		전체지도	지도교수	야마시다	일본어		교육담당
학생대표	최강민	컴퓨터	3	대장총무		야마시다 구미	-	-	야마시다(교수사모)
대원2	이병대	컴퓨터	2	초등	대원9	채지민	동자	1	초등
대원3	윤준영	컴퓨터	2	중등	대원10	유다연	컴퓨터	1	초등
대원4	박예찬	신학	2	중등	대원11	김겨울	컴퓨터	1	중등
대원5	안우림	신학	2	초등	대원12	황주연	컴퓨터	2	초등
대원6	진유석	컴퓨터	1	초등	대원13	이정화	일어	1	중등
대원7	김겸선	동자	1	초등	대원14	어자영	일어	1	중등

음악 합창 끝나고
촬영~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학교수업	6/25~6/27 7/2~7/4	학교	한국어, 음악, 미술, 컴퓨터 수업	학생들과 교감	대원:8명(+5) 학생: 700명
2	노력봉사	6/27	학교	체육관 대청소	연합의 힘 경험	대원전원이 사명 완수함
3	노력봉사	6/28~29	곤또이	두순 부족이 거주하는 곤또이 지역 기반시설 페인트칠 등	연합의 힘 경험	대원전원이 페인트칠 완료
4	문화교류	7/4		지역 주민과 학생 초청 문 화회 (강사 제해중). 학년 별 한국 문화발표 준비 및 발표회	한국노래 부르기	대원전원이 발표회 참석
5	집회	7/7	라운부 아야	한국어 공연 및 집회 (제해중)	현지민과 소통함	대원전원 참석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 총평가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학생전체 생활 및 활동지도	학생대표 역할	학생 통솔 및 규율
학생대원 소양	처음엔 불안했으나 나중엔 만족할만 하게 변함	현지반응	한국어와 문화 이해 폭발적 반응
숙식 및 생활여건	숙식과 음식, 화장실 불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치안상의 문제 없음
잘된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현지인과 깊은 교감을 나눔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숙소, 음식, 화장실 불편
개선(보완) 사항	한국 전통 문화나 토산품 준비가 미비했음	총평	문화 이해와 인간적 성숙의 기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월 24일	오전		7월 2(월)	오전	수업
	오후	서울출발 및 말레이시아도착		오후	수업준비 학생들과 축구.
25(월)	오전	탐파물리 학교 수업 참관	3(화)	오전	수업
	오후	고센으로 이동 및 숙소도착		오후	수업준비 학생들과 축구.
26(화)	오전	수업 참관 및 수업	4(수)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준비 및 피드백		오후	수업준비, 발표회.
27(수)	오전	수업	5(목)	오전	탐파물리 팀과 민파안에서 합류
	오후	수업준비 체육관 청소		오후	자유시간
28(목)	오전	곤또이로 출발	6(금)	오전	마누칸 섬으로 이동
	오후	축대 쌓기 노력봉사		오후	문화활동
29(금)	오전	페인트 작업 실시	7(안)	오전	라운부아집회
	오후	고센으로 출발		오후	자유시간. 탐파물리 송별만찬
30(안)	오전	안식일	8(일)	오전	코타키나발루 문화탐방(자유시간)
	오후	결혼식 음식 준비 도우미		오후	코타키나발루 문화탐방(자유시간)
7월(일)	오전	결혼식 참석	9(월)	오전	자정에 출발해서 6:40에 인천도착
	오후	The Tip of Borneo 방문		오후	

말레이시아 -고선



▶ 기증 컴퓨터(교육사업)



▶ 컴퓨터기증식



▶ Task Force 콘도리 교회퍼미트 작업



▶ 연합의 힘(퍼미트청 완료)



▶ 조화대합



▶ 음악발표



▶ Secondly 수업



▶ Task Force 곤토리 교회 보수 작업



▶ 코타카나발루 시장 탐방



▶ 컴퓨터 수업



▶ Minpian 성방문



▶ Form 4 학생들



▶ 기증한 컴퓨터



▶ 페인트칠 마무리 열중



교양정책과 제하중

지도 교수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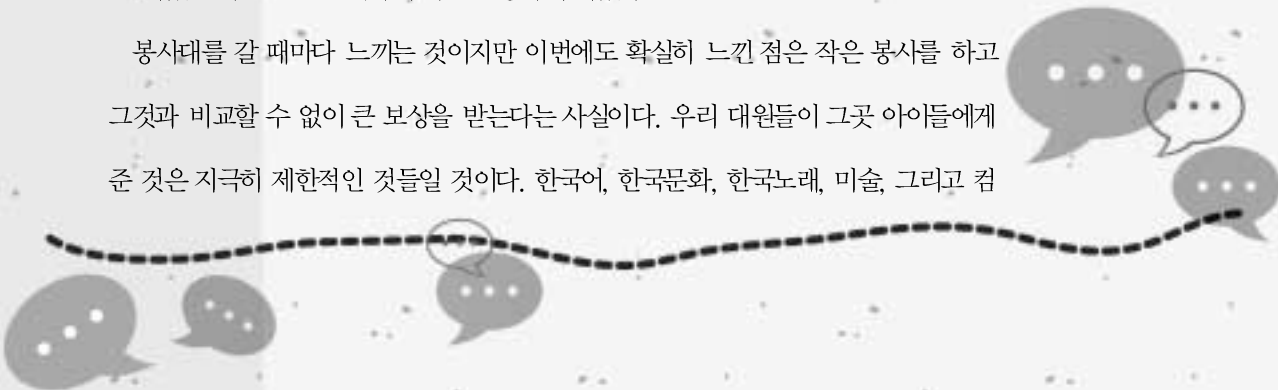
“해외봉사대를 다녀와서”

봉사대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준비 후반부에 참여하게 되어 시작부터 걱정이었다. 게다가 구성 인원마저 컴퓨터학부, 신학과, 동지과, 일본어과 등 연합팀이어서 서로 간에 전혀 공통점이 없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팀웍도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방학과 동시에 시작된 봉사대 준비에도 개인 사정상 하루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봉사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말레이시아 현지에 도착하니 그런 걱정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봉사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각자는 개성이 다르고 학과도 다르고 공통분모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개개인들이었으나 봉사대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서서히 한 팀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고센 봉사대는 2주에 걸쳐서 고센삼육학교에서 초, 중, 고 교사들로 봉사했다. 처음엔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철없던 대학생들이 모두 훌륭한 교사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하루하루가 흐름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줄까 고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매일 밤 피드백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것은 학생 대원들은 이제 이미 학생이 아니라 훌륭한 교사들로 변해 있었다.

봉사대를 떠나기 전 모두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의사소통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한 두 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대원들의 영어회화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사대를 통해 깨달은 사실은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말 보다는 오히려 가슴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다. 따뜻한 가슴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때 서로 간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모든 대원들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때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봉사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점은 작은 봉사를 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대원들이 그곳 아이들에게 준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들일 것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노래, 미술, 그리고 컴



퓨터 등을 가르쳤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대원들이 봉사대를 마치면서 한결같이 느낀 것은 자신들이 준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고 간다는 사실이다. 각 클래스마다 학생들이 준비한 송별만찬, 눈물의 작별, 그리고 떠나던 날 못내 아쉬워서 모든 학생들이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모든 대원들은 작은 나눔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깨닫고 앞으로도 봉사하며 살겠다는 작은 결심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더욱 행복했다.

이런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서 학생과 교수가 더 가까워지고 피차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대학 측에 감사드린다.



최강민 | 응용컴퓨터학과3학년
학생대표

학생대표
소감문

“순수함”

안녕하세요. 이번 말레이시아 봉사단의 고센팀 학생대표를 맡았던 최강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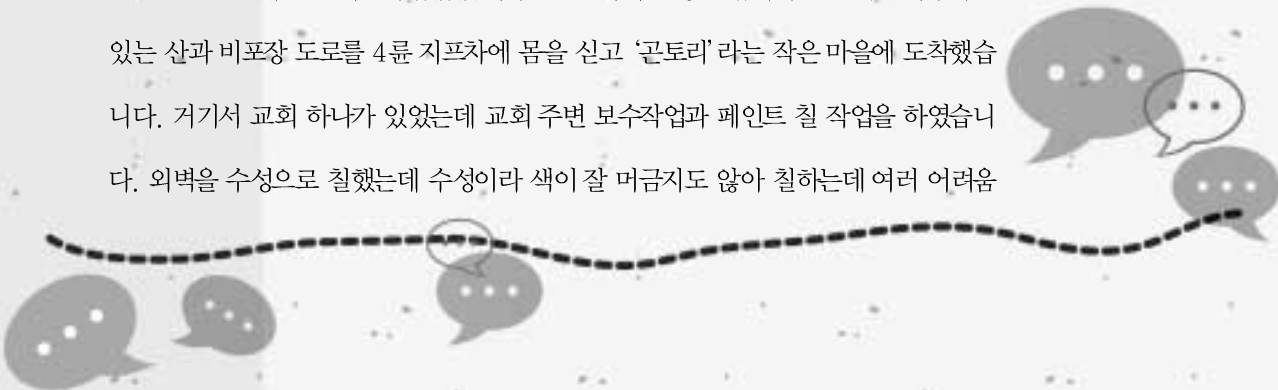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때 더운 기후와 입에 맞지 않는 말레이시아 음식으로 인해 몇몇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음식에 적응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항상 고온다습한 기후는 우리나라에 올 때 까지도 적응이 잘 안 되더군요.

저는 이번 봉사대 활동을 하러 간다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의에게 무엇이든 양보하려고 하며 미소를 잃지 않는 그들은 개인주의 사회에 찌들어버린 저 자신이 바보가 될 정도로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이 저희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한 말레이시아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조쥌’이며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저를 보며 웃으며 낮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 줬습니다. 아이 같지 않은 행동 하나하나와 순수함에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으며 헤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그 아이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헤어질 무렵 저에게 형은 한국에 있는 큰형이야, 날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아껴뒀던 풍선껌 하나를 저에게 줬습니

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전등을 주었는데 가치로 따지면 그 아이의 풍선껌이 저의 전등보다 훨씬 값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용돈을 많이 받지 않아 종종 형과 같이 과일만 먹으며 남에게 무엇을 받는 것 또한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저는 그 풍선껌을 받은 대신 전등을 주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젝은 풍선껌을 줄 때 부끄러운지 저에게 한국에 가서 선물을 확인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어리지만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 많은 곳이 고센이었습니다.

Task Force라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정말 깎아지는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산과 비포장 도로를 4륜 지프차에 몸을 싣고 ‘곤토리’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 주변 보수작업과 페인트 칠 작업을 하였습니다. 외벽을 수성으로 칠했는데 수성이라 색이 잘 머금지도 않아 칠하는데 여러 어려움



이 있어서 오늘 정말 다 끝낼 수 있을까란 불안감이 있었지만, 저희는 결국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마을 주민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었는데 원래 그 마을은 오지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집주인 아저씨는 저희에게 배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비싼 발전기까지 돌리며 불을 켜주셨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렸으며, 저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며 여러 기억 남는 일들이 많았으며, 며칠 지나지도 않았지만 꿈속에서도 아이들이 한번씩 Tony(제 영어이름입니다.)라고 부르며 웃으며 반겨줍니다. 제가 만약 해외봉사를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웠으며, 다음 학기가 4학년인 지금, 저는 그래도 기회가 닿으면 다시 갈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이병대 | 소프트웨어학과2학년
기획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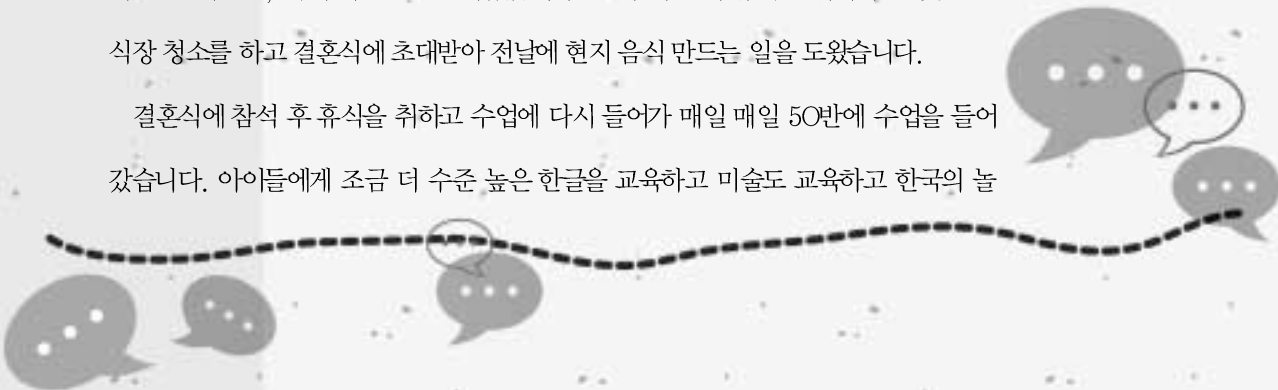
“마음을 전달하자”

안녕하세요, 컴퓨터학부 말레이시아 봉사대 키타팀의 기획을 담당한 이병대입니다. 저희 팀은 동 말레이시아 보루네오 섬의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밤 늦게 말레이시의 탐파룰리 학교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탐파룰리 학교의 수업방식을 잠깐 참관하고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고센지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고센지역에 도착한 후 수업을 참관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다음날부터 수업에 들어가 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여러 반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반은 초등학교의 5학년 5Ostrich반 이였습니다. 그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며 첫날 교육을 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아이들이 많은 한글을 알고 있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다른 반의 아이들이 몰려들어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물어보고 안기고 사진을 찍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엄청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며칠 뒤 밀림지역에 있는 건축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날은 너무 늦게 도착해 그곳을 견학하고 소수민족이 사는 집에 고센의 학교 아이들과 같이 신세를 졌습니다. 그날 제가 묵었던 집은 전기는 들어오지만 오래 못 틀어놓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아저씨가 말레이시아어로 말하면 고센의 아이들이 영어로 통역해 주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아저씨께서 먼저 주무시고 저희팀원 4명과 고센 아이들과 밤늦게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말하고 밤이 늦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다음 날 교회 건축현장에서 돌을 나르고, 벽에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그 후 주말에 휴식을 취하며 그 곳 결혼식장 청소를 하고 결혼식에 초대받아 전날에 현지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 후 휴식을 취하고 수업에 다시 들어가 매일 매일 50반에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수준 높은 한글을 교육하고 미술도 교육하고 한국의 놀



이도 알려주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그 쪽 학교의 축구 리그전에 저희 팀 학생들이 나누어 들어가서 축구 경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업 마지막 날 아이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파티를 하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이냐고 묻는 말에 “아니야, 내일 떠나는 날 아침에 꼭 들랄게” 라고 말하고 그날 저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송별회를 해주어 같이 전통 춤을 추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이들과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그 곳 학생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한국인의 이미지를 높여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어

를 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전달되는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 아이들의 잊지 못할 좋은 한국인 친구가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한국이 위기에 처한다면 그곳의 아이들은 한국의 저를 기억해줄거라 생각합니다. 그곳의 아이들과 페이스북으로 돌아와 지금 이 글을 적는 순간에도 그 아이들과 쪽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준 관심이 제가 봉사를 하러가서 해준 그것들보다 더 큰 것이고, 항상 봉사 활동하러 다녔을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주러가서 그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더 많은 것을 받아온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계속 삼육대에서 교육봉사를 간다면 또 참석하고 싶을 정도로 귀하고 값진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윤준영 | 컴퓨터학과 2학년
부학생대표

대원
소감문

“사랑”

대부분 시작은 스펙을 위한 해외봉사 활동이었다. 나 역시도 내가 무언가 깨닫고 성취한다는 만족보다는 그저 흔히 말하는 “이력서에 한줄 써 넣을 수 있으니”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준비하는 동안에도 대원들과 서로 마찰이 있기도 하였지만, 지금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최고의 팀워크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걸 깨달은 느낌이다. 그저 TV에서 해외봉사를 보며 “저거 누가 못해?” 라고 흔히들 생각했고, 나 역시도 그랬다. 하지만 생각과 실천은 하늘과 땅차이다.

나는 이번에 해외봉사를 나가면서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고 왔다. 흔히들 하는 말로 나 또한 도움을 주러갔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왔다. 내가 봉사한 지역은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동 말레이시아로 가난한 지역이다. 그 중에서 외곽지역인 고센지역으로 봉사를 갔다. 우리는 교육봉사 및 노동봉사로 이루어져있어 기초한국어, 음악, 미술, 컴퓨터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그곳에 전파하고 왔다. 그중에서 컴퓨터 기부는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일로 기억한다. 학교 전체에 컴퓨터 2대로 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열악하구나...’ 생각했다.

우리는 답임제로 애초의 계획은 1인 1반을 담당하기로 했었다. 선생님이 부족했던 초등학교 경

우에는 2~3반씩 들어가기도 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담임제로 확실히 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의 친밀도가 높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사람이 정말 대접 잘 받는 것 같다. 어디 가서나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있었다. 시골지역이라서 그런지 탐파룰리 지역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순수하고 여렸다. 한 예로 한국인 한명이 초등학교를 지나가면 아이들 수십 명이 달려와 사인해 달라고 하고 사진찍자고 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진은 수천 장 찍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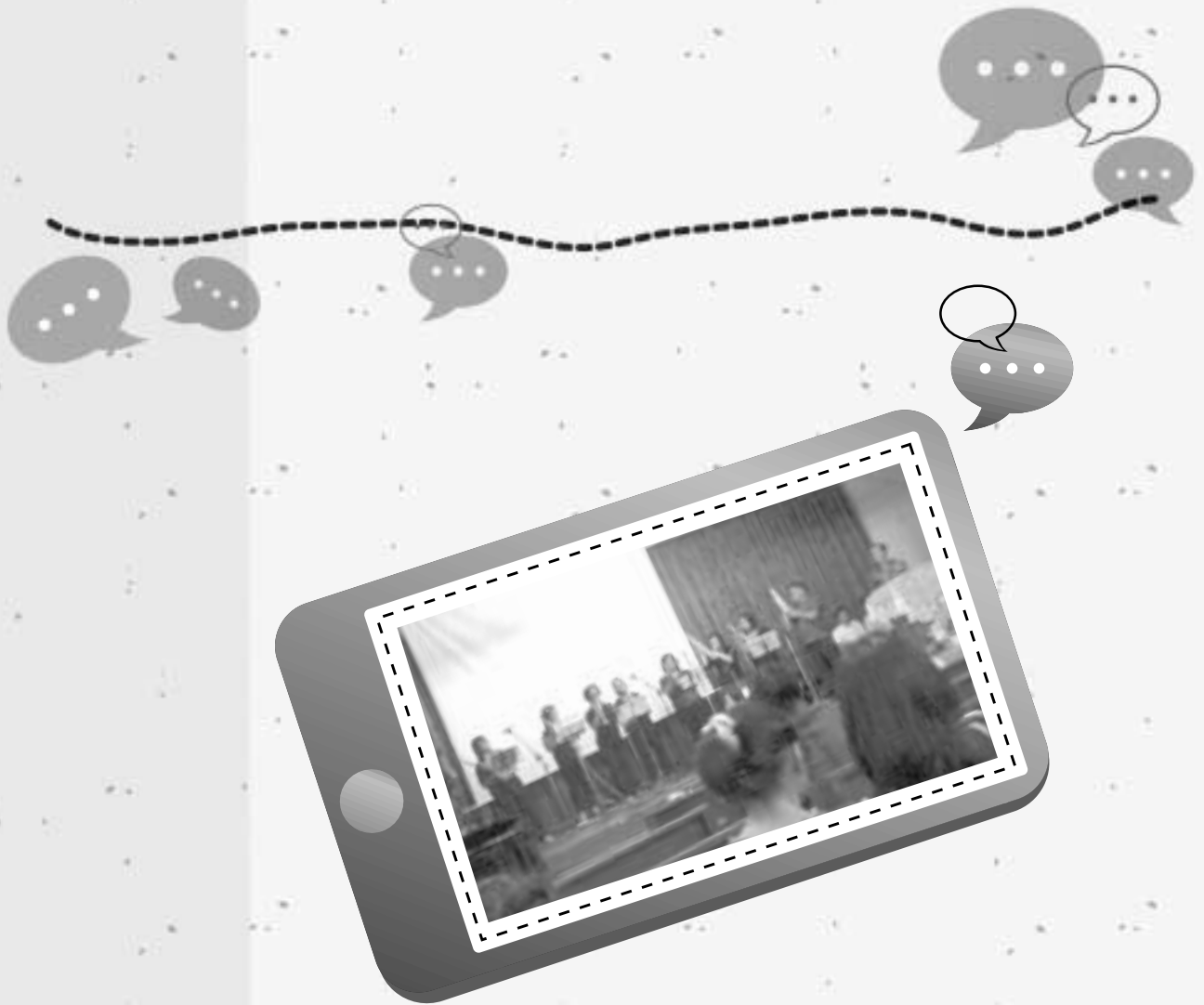
나는 이곳에 오기 전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엔 나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조건에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서울에서 온 젊은 우리들이 쓰기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적응하고 있었다. 나는 말레이시아 식단이 입에 잘 맞아 매끼 두있게 잘

먹었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고생했지만 현지 입두으로 점점 변해가고 모든 것이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내가 아이들과 짧은 시간동안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졌는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그곳 아이들과의 대화, 교류는 나를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매시간 들어가는 수업마다 항상 재밌었다. 우리끼리의 팀웍이 좋아서 잘됐다고도 생각하지만, 수업을 따라와 주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태도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떠나기 전 3일간 쉬는 시간을 가졌지만, 다시 아이들을 보러 가고 싶다는 애

기를 실 새 없이 했다. 그만큼 아쉽고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었다. 떠나기 전 우리는
이런 값진 봉사활동을 다음 겨울방학에도 오자고 진심으로 약속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



김겨울
컴퓨터학부 1학년
탐원(Secondary)

대원
소감문

“the true volunteers”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내봉사의 경험은 몇 번 있었지만, 해외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해외봉사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때는 해외봉사에 대해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그냥 ‘아~학교에서 해외봉사도 가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국내봉사대원 모집신청기간이 한참 지난 후 친구가 봉사대를 신청했었는데, 원래 같이 가려고 했던 친구들 몇 명이 봉사대 신청을 취소하여 봉사대원을 충원한다면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은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고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했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국내에서 하는 봉사도 깨닫는 점도 많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봉사도 국내봉사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들과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며 선뜻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희만 교수님을 통해 봉사대를 신청하게 되었고, 봉사를 가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다녀온 후에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며 드디어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고, 처음 탐파룰라에 도착해 열심히 수업을 듣는 탐파룰라 학생들을 보며 내가 봉사할

고센지역에서 정말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고 최선을 다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칠 반인 form 5에서 학생들 옆에 앉아 현지 선생님들의 수업방식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 고민도 하고 나 혼자만의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수업을 지켜보고 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간단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저에게 오늘부터 수업을 하라며 부탁을 하였고, 저를 교실에 혼자 두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내일이면 닥칠 일인데, 하루 빨리 하면 어때?’란 생각을 갖고 한글 수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수업태도 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신비로움과 작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 수업에 잘 따라와 주었고, 재밌게 첫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6일 동안 여러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졌고,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같이 사적인 이야기도하고, 운동장으로 나가 게임도 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데 저희 반 한 여학생이 수줍게 웃으며 다가와서는 저에게 "teacher!! for you!" 하면서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고맙다며 1링깃 지폐로 하트를 접어 준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이 제 수업을 이해를 못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제게 수업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며 선물을 주는 학생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시타 교수님께서 피드백시간에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영어

를 잘하건, 못하건, 영어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들은 그 진심을 이해할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느꼈고, 봉사기간 내내 힘들기보단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쉬움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온다면 저는 주저 없이 다시 봉사에 참여 할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고, 다시 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보건관리학과

팀 명	보건관리학과 필리핀봉사대	주최학과/부서	보건관리학과
지도교수	최 윤 호	학생대표	이 정 원
봉사국가 (지역, 기관)	필리핀 보라카이 /보라카이 하이스쿨	활동기간	2012.6.23.~ 7.1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21명		
협력및 후원기관	보라카이 International High school	주소/연락처	보라카이 International High school
봉사영역	교육봉사	봉사대상자	필리핀 중, 고등학생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최윤호	사회복지학부		지도교수	대원12	김은혜	보건관리학	1	대원
학생대표	이정원	보건관리학	1	학생대장	대원13	박석주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2	이후은	보건관리학	1	재무	대원14	유재홍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3	박혜인	보건관리학	1	서기	대원15	이동영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4	손윤수	신학	2	사진	대원16	이상기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5	강지예	보건관리학	1	식사	대원17	이현아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6	김태현	보건관리학	1	조장	대원18	장혜림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7	정재은	보건관리학	1	조장	대원19	조은혜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8	윤혁주	보건관리학	1	조장	대원20	조취인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9	이종무	보건관리학	1	조장	대원21	최동원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10	장욱태	보건관리학	1	조장	대원22	최봉수	보건관리학	1	대원
대원11	김민정	보건관리학	1	대원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교육봉사	06월 26일	학교	핸드벨 조 : 게이름별 팀 나누기, '도레미송' 노래 배우기 및 학생들과 토크	예상보다 학생인원이 많아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대원: 4명 학생: 70명
2	교육봉사	06월 26일	학교	한국노래 조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 및 율동 배우기, '동네한바퀴 노래 및 율동 배우기	교실이 비좁아 율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따라줌	대원: 5명 학생: 70명
3	교육봉사	06월 26일	학교	태권도 조 : 기본동작, 품새 및 미트차기, 송판 격파	태권도를 아는 학생들이 많아 많은 학생들이 좋아함	대원: 4명 학생: 100명
4	교육봉사	06월 26일	학교	종이접기 조 : 조별소개 및 바디스볼, 부채 만들기	예상 인원보다 학생이 많아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좋아함	대원: 4명 학생: 70명
5	교육봉사	06월 26일	학교	민속놀이 조 : 조별소개, 공기놀이 및 말뚝박기 놀이	학생 연령층이 맞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대원: 4명 학생: 70명
6	교육봉사	06월 27일	학교	핸드벨 조 : '도레미송', '첫가락 행진곡', '오버더레인보우' 마스터 한 필리핀 춤 배우기 및 댄스타임	핸드벨이라는 악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댄스타임 때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라함	대원: 4명 학생: 70명
7	교육봉사	06월 27일	학교	한국노래 조 : 체육대회(이인삼각 줄다리기, 밀가루 사탕 먹기, 줄넘기), '둥글게 둥글게', '씩트네 싹타요' 노래 및 율동 배우기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고, 많은 학생들이 좋아함	대원: 5명 학생: 70명
8	교육봉사	06월 27일	학교	태권도 조 : 품새 및 미트차기, 송판 격파	품새를 배우고 송판을 격파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좋아함	대원: 4명 학생: 100명
9	교육봉사	06월 27일	학교	종이접기 조 : 종이접기 놀이 및 클레이 아트	인원이 많아서 재료가 부족했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고 많은 호응이 있었음	대원: 4명 학생: 70명
10	교육봉사	06월 27일	학교	민속놀이 조 : 윷놀이, 닭싸움 및 발리볼	한국 민속 윷놀이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고, 닭싸움도 좋아함	대원: 5명 학생: 70명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1	교육봉사	06월 28일	학교	핸드벨 조: 미술나무심리 검사, 마인드트리, 그림 퀴 즈 및 한국 말 알려주기	언어의 장벽을 그림과 제스처, 여러 퀴즈와 게 임들을 통해 해결하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냄	대원: 4명 학생: 70명
12	교육봉사	06월 28일	학교	한국노래 조: 필리핀 노래, 춤, 게임 및 필리핀어 배 우기 및 줄줄이 말해요, 방과 방 사이, 한국어와 한글 배우기	한국의 노래와 춤만 가 르쳐 줄 것이 아니라 필 리핀 학생들이 직접 우 리에게 필리핀의 게임과 춤, 노래를 알려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음	대원: 5명 학생: 70명
13	교육봉사	06월 28일	학교	격파 및 태권무 배우기	학생들이 좋아하는 격파 와 함께 태권도를 통한 무용인 태권무를 가르쳐 줌	대원: 4명 학생: 100명
14	교육봉사	06월 28일	학교	풍선아트 및 롤링 페이퍼 만들기	풍선아트가 많은 인기가 있었음.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함	대원: 4명 학생: 70명
15	교육봉사	06월 28일	학교	윷놀이 복습, 한발 뛰기, 369 게임, 팔찌 만들기	여러 게임들을 통해 학 생들과 친해지고, 팔찌 만들기를 통해 기념물을 남기고 옴	대원: 5명 학생: 7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 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⑤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⑤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⑤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⑤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⑤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 가						
지도교수 역할	대원들이 어려워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항상 곁에서 함께하시면서 도 와주셨다					학생대표 역할	대원들을 잘 챙기고 봉사를 철저히 준비했고, 봉사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했다.						
학생대원 소양	덥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 고 지도교수님과 학생대표의 지시를 잘 따라졌다.					현지반응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고 언제 또 오 냐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았다. 헤 어질 때 다들 많이 아쉬워했다.						
숙식 및 생활여건	덥고 습한 날씨가 많이 힘들었지만 숙식과 생활여건은 좋았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현지인들도 친절하고 착하고 좋았음 안전관리도 잘 아었다.						
잘된점	준비해서 간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줬고 서로 간에 정도 많 이 들어서 모두 매우 만족한 봉사였 다고 생각한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원래 가려던 학교가 장마로 인해 침 수가 아아서 봉사를 못할 수도 있었 는데 다행히 자매학교 소개를 받아 그 곳에서 봉사 할 수 있었다.						
개선(보완) 사항	예상보다 학생 인원이 많아서 준비한 물품들이 많이 부족했지만 대원들의 여러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 문제점 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총평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봉사 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학생들도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라 줘서 정말 고마웠다. 또한 성공적으 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어서 모두 에게 정말 감사했다.						

▶ 전체 일정표

▶ 2012년 6월 23일(한국시간)

15:00 인천공항집합
17:30 수속
18:00 면세점쇼핑
19:30 비행기탑승
2330 비행기내림
2430 숙소도착 후 취침

▶ 2012년 6월 4일(필리핀시간)

10:00 숙소로비집합
10:30 아침식사
12:00 백화점가서 환전 및 쇼핑
14:00 쇼핑 후 집합
14:30 숙소에서 짐 챙긴 후 공항이동
15:00 공항도착
15:30 수속
16:00 점심식사
17:00 비행기탑승
18:30 비행기내림
20:30 차 타고 항구로 이동
2200 보라카이항구도착
2230 숙소도착 후 체크인
2330 짐 정리 후 저녁식사
2400 취침

▶ 2012년 6월 25일(필리핀시간)

08:30 아침식사
10:00 숙소로비집합 후 예배
12:00 학교사정으로 봉사일정 취소 후 점심식사
13:30 숙소로비집합
14:00 해양활동 하는 곳으로 이동
14:30 해양활동
19:00 해양활동 후 숙소도착
19:30 저녁식사
21:00 반성회
21:30 자유시간 후 취침

▶ 2012년 6월 26일(필리핀시간)

07:00 아침식사
07:30 학교로 출발
08:00 학교오전수업

핸드벨 조 - 게이름별 팀 나누기 및 도레미송배우기
한국노래 조 - '얼굴찌푸리지말아요' 율동배우기
태권도 조 - 품새 및 미트
종가접기 조 - 소개 및 바다심볼
민속놀이 조 - 소개

11:00 점심식사
12:30 학교로 출발
13:00 학교오후수업

핸드벨 조 - 도레미송배우기 및 토크
한국노래 조 - '동네한바퀴' 율동배우기
태권도 조 - 송판 및 미트
종가접기 조 - 부채
민속놀이 조 - 공기놀이 및 말뚝박기

15:30 숙소도착 후 휴식
18:30 저녁식사
19:30 반성회
20:00 팀별 회의 후 취침

▶ 2012년 6월 27일(필리핀시간)

07:00 아침식사
07:30 학교로 출발
08:00 학교오전수업

핸드벨 조 - 도레미송, 젓가락행진곡, 오버더레인보우 마스터
한국노래 조 - 체육대회(이안삼각 줄다리기, 밀가루 사탕 먹기, 줄넘기)
태권도 조 - 품새 및 미트
종가접기 조 - 종가접기
민속놀이 조 - 윷놀이

11:00 점심식사
13:00 학교오후수업

핸드벨 조 - 필리핀 춤 배우기, 댄스타임
한국노래 조 - 둥글게 둥글게, 싹트네 싹
터요
태권도 조 - 송판 및 미트
종가접기 조 - 클레이아트
민속놀이 조 - 닭싸움, 발리볼

15:30 숙소도착 후 휴식
18:30 저녁식사
19:30 반성회
20:00 팀별 회의 후 취침

▶ 2012년 6월 28일(필리핀시간)

07:00 아침식사 - 호텔조식
07:30 학교로 출발
08:00 학교오전수업

핸드벨 조 - 미술나무심리검
마인드트리
한국노래 조 - 필리핀 게임, 필리핀 노래,
필리핀 춤, 필리핀어 배우기
태권도 조 - 태권무
종가접기 조 - 풍선아트
민속놀이 조 - 옷놀이복습, 한발 뛰기

11:00 점심식사
13:00 학교오후수업

핸드벨 조 - 그림퀴즈, 한국말 알려주기
한국노래 조 - 한국 단어배우기, 줄줄이
말해요, 방과 방 사이, 한
글의 자음모음배우기
태권도 조 - 격파 및 태권무
종가접기 조 - 롤랑페이퍼
민속놀이 조 - 369, 팔찌 만들기

15:30 숙소도착 후 휴식
19:00 저녁식사

20:30 반성회
21:00 자유시간 후 취침

▶ 2012년 6월 29일(필리핀시간)

07:00 아침식사
08:30 숙소에서 출발
09:00 보라카이항구도착
09:30 공항으로 출발
11:00 수속
12:00 비행기탑승
14:00 비행기내림
15:00 숙소도착
16:00 점심식사
17:00 자유시간
22:00 취침

▶ 2012년 6월 30일(필리핀시간)

10:00 아침식사
11:00 자체예배
12:30 SM백화점으로 출발
13:00 점심식사
14:00 백화점쇼핑
19:30 백화점쇼핑 후 집합
20:00 공항으로 출발
21:00 공항도착
21:30 수속
22:00 면세점쇼핑
24:00 비행기탑승

▶ 2012년 7월 1일(한국시간)

05:00 비행기내림
05:30 해단

보건관리학과



▶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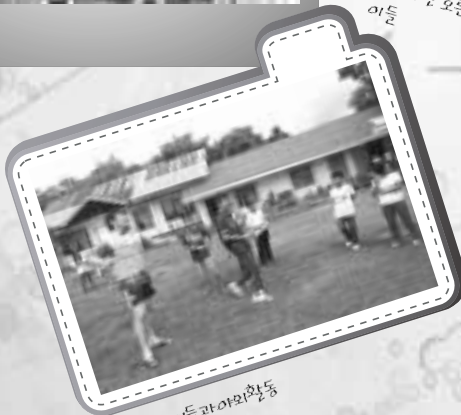
▶ 첫 수업



▶ 핸드벨 수업



▶ 답배진 오른쪽부터 세 명이 개두쟁이들



▶ 아이들과 야외활동



▶ 아이들과 개일밥소망



▶ 아이들에게 꽃놀이를 가르쳐 주면서



▶ 텃밭에서 아이들과 헤어지기까지



▶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인사할때



▶ 아이들에게 한국 노래와 춤을 가르쳐주는 모습



▶ 마지막날 아이들과 헤어지기 정말 슬퍼했어!



▶ 체육대회(이민식) 게임 준비 중 모습



▶ 브라자이하이스쿨에 들어서는 봉사단원들



▶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모습

보건관리학과



▶ 우리 학급 학생들과 한컷



▶ 태권도 품새시범을 보여주는 모습



▶ 종이접기를 배우는 모습



▶ 학생들과 함께 팔찌 만들기



▶ 핸드백연극을 알려주는 모습



▶ 노래에 맞춰 율동과 춤추는 모습



▶중이반어뎃말들기를 하는 모습



▶필리핀 학생들의 모습



▶읽는이를 하고 잇는 학생들



▶필리핀 춤을 배우는 모습과댄스타임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모습



▶책읽다원- 이일성박 놀이를 하는 모습



▶출국 전머글라 공랑에서 담배질



▶태권도를 배우고 떠리하는 모습



사회복지학부 | 최윤희

지도교수
소감문

이번 2012학년도 하계해외봉사대로 보건관리학과 1학년 학생들 22명(학과 코디네이터1명 포함)과 함께 6월 23일부터 7월1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지역에 있는 보라카이 인터네셔널 하이스쿨로 다녀왔다.

이미 재작년부터 사회복지학부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 동일지역으로 두 차례 다녀온 바 있었으며, 올해도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봉사대를 조직, 운영하였다.

원래 올해는 학기가 시작되면서까지 봉사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봉사대 일정 및 장소에 대한 계획 및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1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외봉사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미 20여명이 하계 해외봉사를 희망하고 신청하였다. 이미 대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봉사지역도 이미 두 차례 다녀온 곳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준비되었다

학기 초부터 대원들이 거의 매주 봉사대 준비로 모여며 나름대로 첫 봉사대이지만 열심히들 준비하고 드디어 23일 들뜬 마음으로 출국하였다. 모두가 다 후끈한 필리핀 현지 날씨에 힘든 첫날이었지만 다 잘 적응해주고 봉사대 지역으로 무사히 가게 되었다. 봉사대 당시 필리핀 지역이 우기여서 매일 비가 오는 날씨였으며, 도착하는 당일에도 비가와 약간의 걱정을 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름까 봉사당일 봉사대상 학교를 방문하니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 며칠간의 갑작스러운 비로 학교 운동장과 교실들이 침수되어 봉사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어 적잖이

당황하였다. 하지만 약간 떨어진 지역에 자매학교를 소개해주고 그 학교를 방문하였으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호의적인 협조로 그 학교에서 다음날부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이 봉사하게 될 학교는 약간의 외각 지역의 학교이었으며, 다섯 학급을 3일간 오전, 오후 전체 시간을 내어주었다. 한 학급당 평두 70-100명의 학생들을 갑작스럽게 맞게 되어 미리 준비해 간 프로그램과 물품들, 간식들이 턱 없이 부족하여 대원 모두 걱정하였지만, 오히려 현지 학교의 아이들이 서로 물품들과 프로그램에 스스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누어 큰 어려움 없이 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봉사를 마치는 날 대원들과 아이들 모두 큰 아쉬움의 작별을 나누며 가슴에 서로에 대한 기억을 담고 헤어졌다.

이번 봉사를 통하여 현지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많은 기억들을 주었지만, 그것보다도 대원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더 많은 봉사대가 아닌가 한다. 보건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경험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많은 변수를 만나게 되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현지 상황에 대처하며 그 현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들도 배웠으리라 생각된다.

아무튼 첫 해외봉사를 통하여 우리 대원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학교에 대한 자긍심,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삼육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정원 | 보건관리학과 1학년
해외봉사대장 / 한국노래조

학생대표
소감문

“봉사 속에서 배운 참된 삶”

지난 4월경 학과에서 해외봉사대를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해외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 더욱이 해외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 보았기에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서를 두다. 해외 봉사대에 관한 정확한 일정과 장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관리학과 1학년 동기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모집 정원인 20명은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꼭 같이 가고 싶어 하던 친구들까지 해서 22명의 대원이 모이게 되었다. 대원 모집이 마감된 후 봉사대 준비를 위해 모두 모였는데, 동기들보다 내가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해외봉사대 학생대장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대장이라는 지위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처음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거기다가 20명이 넘는 친구들을 통제하고 리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대장인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다른 대원들 모두 잘 따라줄 것이라고 믿고 차근차근 봉사대를 준비해가기 시작했다.

학기 초 봉사대원 모집이 마감된 후부터 우리 대원들은 봉사대 준비를 위해 매주 일주일에 한번

씩 강의실에 모두 모였다. 그리고 봉사 계획도 짜고 프로그램 별로 조도 나누고 총무, 서기 등의 임원과 각 조별 조장도 뽑았다. 그리하여 한국노래, 한국 민속놀이, 핸드벨, 태권도, 종이접기 수공예라는 5개의 프로그램별 조가 만들어졌다. 각 조별로 4~5명씩 조원을 짜고 조별로 모여서 각자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많은 의견들도 나눴다. 봉사대에 관한 모든 일들은 지도 교수님과 임원들과 함께 차차 준비해 나갔다. 모두들 처음 가는 해외봉사대이지만 마음만은 일심동체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내가 속해 있는 한국노래 조원들도 매주 2번씩 모여서 필리핀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노래와 춤을 연습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갔다.

드디어 봉사대 출발인 6월 23일이 되었고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첫 날 마닐라 공항에 내렸을 때에는 밤 11시 30분경 이었는데 공항을 빠져

저 나오자마자 한 밤 중인데도 덥고 습한 기운이 느껴졌다. 당시 필리핀 현지의 기후는 우기여서 한 여름 낮의 기분과 같은 찝찝한 느낌이 온 몸을 사로잡았다. 첫 날은 마닐라 숙소에서 지낸 뒤 다음 날 보라카이로 이동했다.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칼리보 공항까지 갔다. 칼리보에 도착해서는 보라카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공항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하여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20분가량 이동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가 보라카이섬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여 바다 위에서 30분 정도 계속 떠있었다. 항구에 정박 후 또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니 드디어 우리가 지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숙소에 도착한 우리들은 짐정리 후 다음 날 있을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두 모여 지금까지 준비해 온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 번 점검

했고 다음 날의 봉사를 기대하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들 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학교로 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여 있는데 비보가 전해졌다. 전 날 내린 큰 비로 인해 우리가 가려고 했던 학교가 침수되어 도저히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원들은 실망감과 함께 학교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봉사대 준비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하는 불안감도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려던 학교 측의 도움으로 인해 인근 자매학교를 소개 받았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도 우리의 봉사를 흔쾌히 허락하시어 그 학교로 그 다음날부터 봉사를 가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학교 측에서는 우리 봉사대에게 3일 동안 5개 학급의 오전 오후 전체 시간을 내주었다. 학교 측에서 3일 동안이나 수업 전체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만큼 필리핀 학생들에게 3일 간의 수업 시간보다

더 값진 선물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대원들 모두가 열의가 넘쳤다.

다음 날 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학교에 도착한 우리들은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모습에 깜짝 놀랐다.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연령대 별로 학급이 나뉘어 있었다. 한 반에는 작은 교실에 70~10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아주 좁은 책상에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좁게 앉아 있었다. 학교의 시설물들도 노후 되어 금이 간 건물도 많았고, 어떤 교실은 내부 인테리어도 없이 페인트도 안 바른 시멘트로만 만들어진 교실도 있었다. 또한 학교에는 길도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고, 운동장도 없어서 비가 오면 진흙 밟이 되어 신발과 옷이 쉽게 더럽혀 지곤 했다.

한국노래를 가르쳐 주기 위해 교실로 들어선 우리는 또 한 번 놀랐다. 우리가 말아야 할 학생이 70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원래 봉사하기로 했던 학교를 예상하여 최대 30명의 인

원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조만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조들 모두 20~30명의 학생들을 위한 물품과 재료, 간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대원들 모두 학생들의 인원수에 다들 놀랐다. 인원수가 많은 만큼 물품과 간식들도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필리핀 학생들은 불평하지 않고 물품과 재료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진행에 정말 잘 따라주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맡게 된 학급은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도 걱정이 많았다. 아이들이 우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싫어할까봐 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봐 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도 정말 친근하게 다가와주고 먼저 인사를 해주는 모습들이 정말 좋았다.

첫째 날 우리 조는 먼저 자기소개를 한 후 우리가 준비해 간 노래와 함께 춤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우리를 신기해하면서도 어색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 우리 대원들은 모두 모여서 오늘 하루 학생들과 지내면서 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서로 나누면서 다음 날 있을 학생들과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준비했고,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상보다 많았던 모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은 어제보다는 더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우리는 각 조별로 어제 저녁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우리 한국노래 조는 학생들과 더욱 친해지고 협동심을 가지



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체육대회를 준비했다. 학생들을 나누어 조를 만들고 조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이인삼각, 줄다리기, 밀가루 사탕 먹기, 긴 줄넘기 등을 했는데 학생들 모두 정말 재미있어하고 좋아했다.

학생들 모두 게임에 정말 열심히 임했고 잘 참여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체육대회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부터 준비물과 선물을 사서 챙겨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무겁고 귀찮게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주니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내가 부끄러웠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내가 맡게 된 2조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서로 간에 대화도 많이 했다. 오후 시간에는 ‘동네 한바퀴’와 ‘썩트네 썩터요’ 한국 노래를 알려 주었다. 우리말인 노래를 영어로 가사를 써가면서 읽어주고 따라하게 했는데, 학생들 모두 잘 따라했고 노래도 잘 불러 주었다. 또 댄스파티도 했다. 필리핀 학생들은 춤과 노래를 굉장히

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다. 춤추는 것도 정말 좋아했

고 잘 추기도 했다. 첫째 날은 2시간이 너무 길어

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어떻게 시간을 보내

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둘째 날에는 2시간이 10분처럼 정

말 확확 지나갔다. 즐거운 둘째 날 봉사를 마치고, 또 그 날 저녁에 모두 모

여 좋았던 점과 고쳐야 할 점을 나누는 반성회를 가졌다. 그리고 다음 날 있을 마지막 봉사

를 위해 조별로 모여서 계획을 했다.

마지막 봉사를 하러 가는 날 아침, 대원들은 모두 오늘이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날이라는 생각에 우울한 표정들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도착해서 학생들을 보

니 모두 밝아진 표정이었다. 우리 한국 노래 조는 마지막 봉사를 하러 교실에 들어선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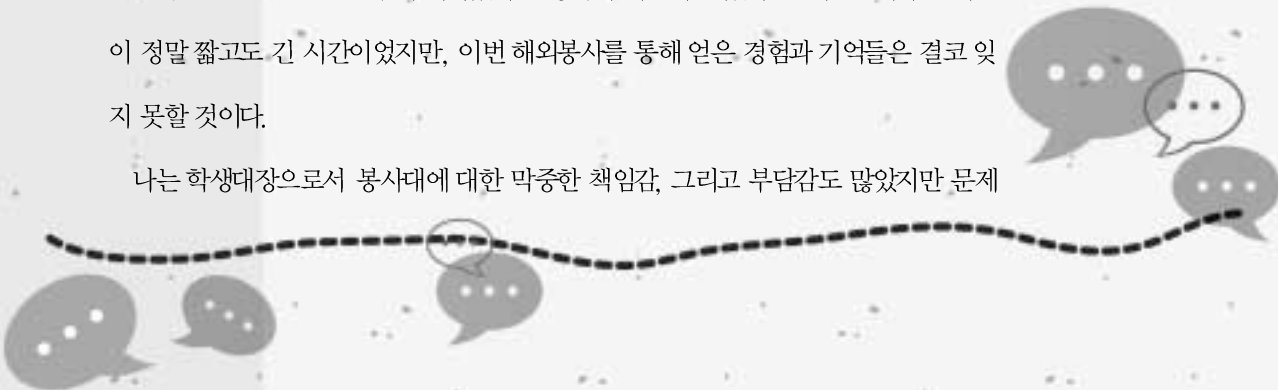
정말 깜짝 놀랐다.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게임을 준비하고 상품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를 위해 손수 게임을 준비하다니.. 필리핀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게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게임에서 이기는 조원에게 과자, 초콜릿 같은 상품도 주었다. 우리 조원들도 정말 재미있어 했고, 필리핀 학생들도 우리에게 게임을 가르쳐주면서 정말 좋아했다. 그 순간 우리가 봉사를 하러 이곳에 와서 우리가 봉사를 받고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게임을 마친 후에는 우리에게 필리핀 노래와 춤도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어제 한국 노래를 칠판에 쓰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학생들은 칠판에 필리핀 노래의 가사를 쓰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필리핀의 춤도 알려주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오후에는 한국어 수업을 했다. 한글을

알려주고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알려주었는데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였다. 내가 칠판에 써 준 한글과 발음을 공책에 메모하고 외우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주었다. 공책에 사인을 해달라는 학생들도 정말 많았다. 너무 아쉽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다. 어떤 한 학생은 우리에게 또 언제 오냐고 물었다. 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가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과 헤어지면서 정말 많이 아쉬웠지만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몇몇 학생들과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번 해외 봉사를 통해서 정말 배우고 느낀 것이 많다. 나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내가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얻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순수하고 맑은 얼굴과 정도 그립다. 또한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만 별거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부족한 나의 영어 실력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웠다. 봉사를 가기 전에 필리핀어를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운 날씨와 잦은 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되는 춤 연습과 춤 시범을 보이느라 몸이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있다면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다. 단지 3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고도 긴 시간이었지만,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억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학생대장으로서 봉사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도 많았지만 문제



점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한 층 더 성숙해지고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해외 봉사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번 해외봉사대가 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다. 무언가 하나를 해낸 것 같은 성취감도 생긴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번에 해외봉사를 또 가게 된다면 이번 보다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 해외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최윤희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또한 임원들, 조장들을 비롯하여 나의 통제와 리드에 잘 따라주고 응해 준 대원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동영 | 보건관리학과 1학년
교육



“웃음이 끊이질 않는 보라카이 사람들”

처음 보라카이를 가기 위해서 들린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 우리들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좋지지는 않았다. 모두가 찡그린 표정으로 20명 가까이 되는 아시아인 무리에게 적개심을 표현했던 게 나의 필리핀에 대한 첫 인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첫인상은 보라카이에서 무참히 부수어졌다. 벤을 타고 이동하는데 벤 주인 아저씨께선 계속 웃으시며 우리에게 대화를 걸기도 하고 농담도하며 지루할 수도 있었던 그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 환영한다며 주었던 주스를 받으며 필리핀어로 웨이터에게 ‘고마워(살라두)’라고하자 어찌나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지 나까지 저절로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그리고 대망의 봉사 첫날 나는 이게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집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대문 앞을 지나자마자 필리핀에 대한 첫 인상처럼 매우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바라본 아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하러 올 정도로 불임성도 좋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경계하며 겁을 먹은 것과는 정 반대의 첫 만남이었다.

학교에 들어와서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청천벽력파도 같은 말을 하셨다. 원래 20명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홍수피해로 인해 이 일정이 취소되고, 팀 하나당 70명에서 100명까지의 아이들을 맡게 된다는 말, 우리는 하나같이 황당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봤지만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반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이 반의 문으로 향할 때마다 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났다. 밝은 실외에서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자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쳐다보는 80명의 눈에는 경계심이 없고 모두가 웃고 있었다. 앞에 앉은 장난기 많은 셋은 나에게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뒷사람에게 물어봐서 대답해준 나의 정보를 이야기 해주는 일로 바꿨다.

그리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 음계가 있는 종으로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많아도 30명의 학생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을 준비했기 때문에 7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변경해 벨을 나눠준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서 벨을 연주하게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게 했다. 처음 우리가 배워야 할 곡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도레미송이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은 여기 보라카이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팝송도 잘 부르고 노래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지만 이 도레미송을 아는 아이가 80명중 한 명도 없었을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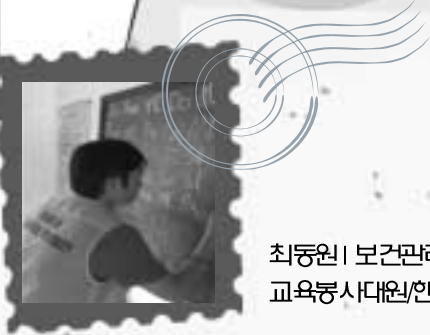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 불러 주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없는, 노래가사에 게이름이 있는 노랫말인 게 무색할 정도로 게이름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합창소리보다 크고 즐거운 아이들의

노래였다. 다음교시에도 80명의 아이들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었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합창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진짜 아이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이 돼서 우리는 아이들과 이야길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 있는 중, 고등학생이나 필리핀에 있는 중, 고등학생이나 이야기하는 주제와 노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노래를 틀고 춤을 추기도하고 댄스배틀을 신청하는 아이도 있어 춤도 같이 추면서 재미있게 쉬는 시간을 보냈다. 또 여자아이들은 자신들보다 흰 피부색을 가진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호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쉬는 시간에 농구와 피구를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에 경계심이 없는 착한아이들이 내가 보라카이에서 본 전부였다.

다른 교육활동도 많이 했지만 더 이상은 여기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3일 동안 보라카이의 학생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봤을 뿐이었다.

어쩌면 가르치러가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온 것 같은 기분이다. 보라카이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엔 안정적이지 못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고 모두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질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소비하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가난한 보라카이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돈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원
소감문

최동원 | 보건관리학과 1학년
교육봉사대원 핸드벨교육

“보건관리학과 필리핀 봉사대 최동원”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재학 중인 1학년 최동원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보라카이로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해외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첫날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해야하는지 또 무엇을 즐거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느라 팀원들도 고생을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 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우리팀원들은 아이들의 성향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서로서로 마음의 준비를 다시 다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진행된 나머지 3일의봉사역시 이처럼 하루하루 발전되어가고 성숙되어가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필리핀 봉사에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정말 많이 배우고 이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재미 하나 없는 일상이고 무료한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넓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좋은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말을 어떻게 말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알려주었고 나중에 우리가 봉사를 떠날 즈음에는 아이들이 가벼운 인사말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신스스로 뿌듯한 봉사였지만 조금 더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인원수 파악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물품을 적게 가져가서 조금은 불편하게 수업을 한 거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눠 쓰며 즐겁게 해줘서 한없이 고마웠지만 저희들의 준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봉사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항상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팀원들은 모두 같이 얻는 것이 많았던 해외봉사였습니다.

사복, 물치, 생체(Friendly)

팀 명	베트남봉사대 프렌들리(Friendly)	주최학과부서	사회복지, 물리치료, 생활체육
지도교수	정종화, 이원희, 이재구	학생대표	이 승 택
봉사국가 (지역, 기관)	베트남 하노이, 썩션현 민프지역, IOGT	활동기간	2012.6.17 ~ 6.27
파견인원	지도교수 : 3명, 대장 : 1명, 대원 : 27명		
협력및 후원기관	베트남 민프 고등학교, IOGT	주소/연락처	
봉사영역	교육, 의료, 노력봉사	봉사대상자	MINH PHU고등학교 학생 80명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정종화	사회복지		지도교수	지도교수	이원희	물리치료		지도교수
학생대표	이승택	생활체육	2	생체대표레크레이션	지도교수	이재구	생활체육		지도교수
대원2	한덕규	물리치료	2	물치대표	대원6	송정아	사회복지	2	
대원3	신명환	사회복지	2	사복대표	대원17	박은경	사회복지	2	
대원4	한유진	사회복지	3	사진	대원8	박민정	사회복지	2	
대원5	양혜진	사회복지	3	총무	대원9	송현정	물리치료	2	
대원6	이진화	물리치료	2	신덕부장	대원20	신유석	생활체육	2	
대원7	조경찬	생활체육	2	사진	대원21	이소라	사회복지	4	
대원8	박미희	생활체육	2	사진	대원22	고혜송	물리치료	3	
대원9	김상연	물리치료	2	관리팀장	대원23	이민영	물리치료	2	
대원10	박은비	물리치료	2	기록	대원24	도현주	물리치료	3	
대원11	서민정	물리치료	3		대원25	전원철	생활체육	3	
대원12	이희재	물리치료	3		대원26	임양원	생활체육	1	
대원13	김우현	물리치료	2		대원27	장수연	생활체육	1	
대원14	안상민	물리치료	2		대원28	황효정	생활체육	2	
대원15	김정은	사회복지	2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내용	결과(참여인원)
1	교육 활동	7.18	짐볼 - 물리치료운동을 알려줌	대원 : 12명 어린이 : 70명
2	문화 활동	7.18	이름표 만들기(한국어, 베트남어 교류)	대원 : 8명 어린이 : 70명
3	교육 활동	7.18	태권도 : 태극 1장 아래막기까지 교육, 발차기 연습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4	문화 활동	7.18	레크레이션 : 닭싸움, 종이컵뒤집기, 쌓기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5	교육 활동	7.19	짐볼 - 응용하여 게임하는 이을 알려줌	대원 : 12명 어린이 : 70명
6	문화 활동	7.19	페이스 페인팅 - 서로의 얼굴에 그려주어 문화 교류 형성	대원 : 8명 어린이 : 70명
7	교육 활동	7.19	태권도 : 태극 1장 중간까지 교육, 발차기 연습함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8	문화 활동	7.19	레크레이션 : 과자 따먹기, 풍선 터뜨리기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9	문화 활동	7.19(오후)	특수 아동 방문 (장기자랑 및 선물 증정)	대원 : 28명 어린이 : 50명
10	교육 활동	7.20	테이핑 요아 - 압박붕대 감는 이을 연습함	대원 : 12명 어린이 : 70명
11	교육 활동	7.20	태권도 : 태극1장, 일부 더 연습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12	문화 활동	7.20	레크레이션 : 2인 삼각 미션 달리기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13	교육 활동	7.21	마사지 - 상지 마사지 하는 이을 교육 및 실습함	대원 : 12명 어린이 : 70명
14	문화 활동	7.21	레크레이션-줄넘기,동글게 동글게	대원 : 4 명 어린이 : 70명
15	교육 활동	7.21	태권도-태극 1장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16	문화 활동	7.21(오후)	한국말배우기, 아리랑노래 배우기, 옷 만들기 (한글과 베트남어를 사용하여)	대원 : 8명 어린이 : 70명
17	문화 활동	7.22	고아원 방문 - 선물증정 및 학과 별 장기자랑,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갖었음	대원 : 28명 어린이 : 50명
18	교육 활동	7.22	마사지 - 하지 마사지 하는 이을 교육 및 실습함	대원 : 12명 어린이 : 70명
19	교육 활동	7.22	태권도 : 태극1장, 일부 더 연습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20	교육 활동	7.22	레크레이션 : 2인 삼각 미션 달리기	대원 : 4명 어린이 : 70명
21	문화 활동	7.22	부채 만들기 - 한글 낱말 쓰기, 아이들과의 문화 교류	대원 : 8명 어린이 : 70명
22	발표회	7.22	물리치료, 사회복지, 생활체육 학과별 장기자랑 발표회	대원 : 28명 어린이 : 50명
23	발표회	7.22	MINH PHU 고등학교 학생들의 장기자랑 발표회	대원 : 28명 어린이 : 50명
24	교육 활동	7.22	MINH PHU고등학교 방문	대원 : 28명 어린이 : 5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1	2	3	4	5			
1	2	3	4	5	짐없이준비됐는가?								
계획된활동은 모두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3명의 지도교수가 역할수행 OK				학생대표 역할		각 학과별 팀장이 충분한 역할수행					
학생대원 소양		사전교육과 현지 매일 미팅진행				현지반응		협력기관인 민프고와 IOGT의 큰 호 응을 얻었음					
숙식 및 생활여건		숙식은 열악했지만 현지사정을 감안 한다면 만족한 수준임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지정된 캠프장에서 수행된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안정에 문제없이 진행됨					
잘된점		2년 연속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 예산의 문제 - 현지 언어와 문화의 이해					
개선(보완) 사항		베트남어를 정확히 통역할 봉사자가 필요함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6.17 (일)	출국 및 입국	인천공항출발 10:05 ↔ 하노이공항도착 12:35	
6.18 (월)	1회 프로그램	베트남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시행	입학식 Am 8시
6.19 (화)	2회 프로그램	베트남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시행	-
6.20 (수)	3회 프로그램	베트남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시행	중간평가
6.21 (목)	4회 프로그램	대학생교류 프로그램(봉사대원+하노이 대학생)	-
6.22 (금)	5회 프로그램	대학생교류 프로그램(봉사대원+하노이 대학생)	수료식
6.23 (토)	비전프로그램진행	베트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션프로그램 진행	SDA 미션프로그램
6.24 (일)	베트남 역사탐방	베트남 역사 및 문화탐방체험(1)	역사탐방
6.25 (월)	베트남 문화체험	베트남 역사 및 문화탐방체험(2)	문화체험
6.26 (화)	현지출발	하노이공항출발 23:40 ↔ 인천공항도착(27일 05:50)	인천공항도착

▶ 봉사대 프로그램 시간표

시간	활동내용			
	A조(20명)	B조(20명)	C조(20명)	D조(20명)
준 비 08:00~08:30	전체 아침조회 및 준비운동			
1교시 08:40~09:30	배드민턴 교실	한국문화의 이해	치료 스포츠마사지	태권도교실
2교시 09:40~10:30	한국문화의 이해	치료 스포츠마사지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문화의 이해
3교시 10:40~11:50	치료스포츠마사지	태권교실	배드민턴 교실	치료 스포츠마사지
종 결 12:00~12:30	오전 프로그램 종결			
오후 지역사회봉사 16:00~18:00	6월 19일 (화)		6월 21일 (목)	
	지적장애인시설방문 및 봉사		고아원시설방문 및 봉사	

Friendly





사회복지학과 | 정중화

지도교수
소감문

“베트남을 다녀와서”

베트남 봉사대는 2011년 처음 하노이에 닿은 올린 이후 올해 2년째 같은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전공연계 3개학과(사복, 물치, 생체)의 연합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봉사대 팀의 구성은 학생 28명과 지도교수 3인이 함께한 그야말로 믿음과 사랑과 봉사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루어 내기 어려운 연합 봉사활동이었다. 저마다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이 타국에서 매일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10일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교수를 포함한 31명이 10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10일 간의 봉사기간 동안 우리대원 누구도 다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이 늘 함께 협심하여 봉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감사의 기도만이 은혜로 흘러 넘쳤다. 우리의 협력기관인 IOGT의 HAO사무총장님의 배려로 숙식이 제공되었고 차량이 제공되어 입국에서부터 프로그램 진행, 고아원과 장애인재활시설방문 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민프고등

학교의 협력으로 80여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알찬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졌다. 우리 봉사대는 치료마사지, 운동재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유익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근처의 장애인시설과 고아원시설 방문봉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 공연을 진행할 때는 이웃 주민들도 함께 동참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고아원 방문 봉사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무더운 날씨에 6명이 한방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과 부족한 의약품으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간 장난감과 공연 프로그램이 작은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대원들과 함께 놀아주고 앉아주면서 지내던 시간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제 2년간의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아직도 사회주의국가인 이곳에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아직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이곳의 장애인시설과 고아원 시설의 아이들을 위하여 의류와 의약품, 재활도구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특수교육과 재활,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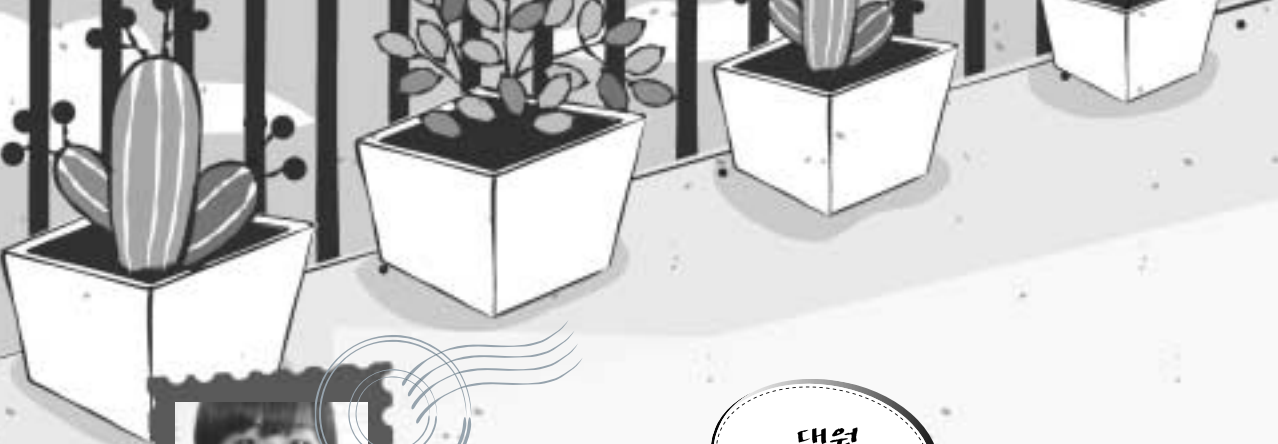
둘째, 삼육대학교 차원에서 IOGT의 캠프 안에 봉사센터를 구축하고 이곳을 통하여 하노인 지역에 의료, 교육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2,000만원의 모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모금 후원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하노인 지역에는 베트남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다. 우리 삼육

대학에서 미래를 위하여 이들을 선발하여 대학에서 교육시켜 베트남으로 돌려보낸다면
미래 삼육인의 꿈으로 글로벌 교육의 지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봉사에서는 하노인 지역에 삼육대학교 봉사센터를 건축하고
문화와 의료, 교육봉사의 핵심센터를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본다.





대원
소감문



박민정 | 사회복지학과 2학년
한글팀

“처음 와본 해외봉사활동...”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걱정이 앞섰다. 공항으로 나오자마자 습기 차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인상이 계속 찌푸려지곤 했기 때문이다. 내가 자원봉사자로 온 것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하는데 말과 행동에는 표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민푸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아침 7시에 우리가 이들을 맞이할 때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안녕’이라는 뜻의 ‘신 짜오’ 이 한마디의 말과 웃음뿐이었다.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민푸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똑같이 ‘신 짜오’ 라고 인사를 건네주었다. 학생들의 환한 웃음과 인사가 내 긴장을 덜어주는데 큰 힘이 되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첫째 날에 ‘이름표 만들기’ 를 했다. 민푸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발음이나는 데로 한국어로 적어준 뒤 그것을 꾸미는 프로그램이었다. 6성조로 이루어진 베트남어를 제대로 알아듣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그럴 때 마다 학생들이 몇 번이고 다시 말해주었다. 덕분에 프로그램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좋았다.

둘째 날에는 내가 기획한 페이스페인팅을 했다. 기획 상으로는 각 테이블에 도안을 주고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그것을 그려주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서 붓으로 직접 본인 몸에 그리기도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그려주곤 했다. 우리들의 그림실력이 향상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베트남어로 통역해주는 선생님들도 얼굴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셔서 다들 얼굴에 그림이 하나씩 있었다. 또 도안에 있지 않은 'I ♥ Korea', 'I ♥ Vietnam' 을 많이 그렸다.

셋째 날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물풍선 받기, 그림 뒤집기, 콩 옮기기 등 여러 게임들을 통해 학생들과 더욱 더 깊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게임이 끝나고 몇 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 여학생이 k-pop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하였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우리가 준비한 부채와 옷을 직접 꾸미는 시간을 가졌었다. 학생들이 부채와 티셔츠에 'I love Korea' 라고 많이 적었는데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한국을 알리는 것 같아서 내심 뿌듯했다.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꾸민 티셔츠는 마지막 날에 직접 자기가 꾸민 옷을 입고 패션쇼를 했는데 잠깐의 패션쇼를 위해 집에서 구두를 가지고 온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이 쓸쓸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해외봉사대원들이 각 과마다 장기자랑도 하고 장난감도 기부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패션쇼, 장기자랑 등을 한 뒤 우리 자원봉사대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라면 파티도 했다. 라면이 매워서 땀을 흘리고 부채질을 하면서도 남기

지 않고 다 먹는 모습들이 너무나 고마웠다. 이렇게 타면파티를 마지막으로 베트남 해외봉사 일정이 끝났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정이 깊어져 헤어지는데 많이 아쉬웠다. 몇몇 학생들은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 조그마한 선물도 주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한명하명 다 악수와 포옹을 하면서 '좀 더 잘 해줄걸'이라는 후회가 들었다. 후회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말이다.

봉사일정을 마치고 베트남 문화체험활동을 했는데 문화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와의 공통점, 차이점 등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열악한 환경 탓에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곳 학생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이 내 이름을 외워 말해주고, 한국에 대한 궁금증의 답을 듣

고 이해할 때 마다 보람됨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몸이 지쳐있어도 힘이 났다. 또 내 이름을 외워 불러주는 학생들 수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늘어날 때 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만 여겨졌다.



내가 베트남에 도움이 되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서 예전 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10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혜송 | 물리치료학과 3학년
집볼팀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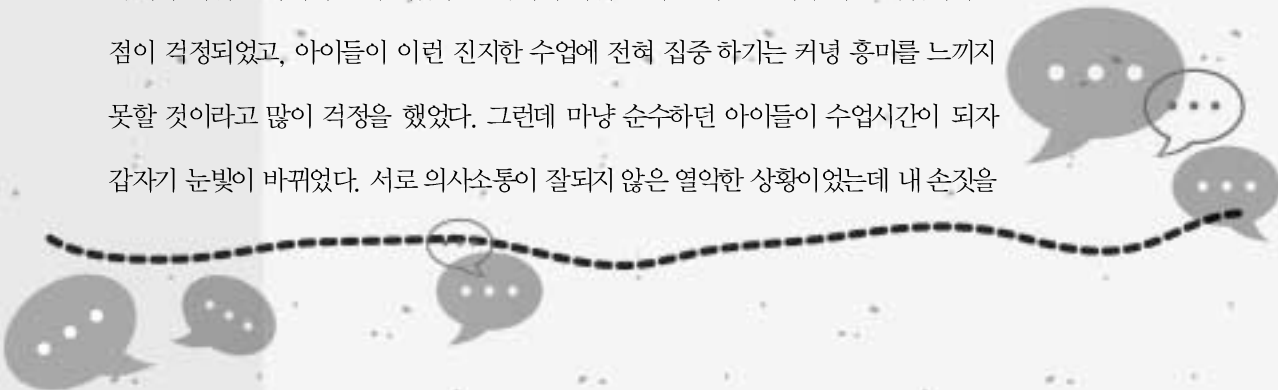
“베트남 봉사대”

베트남, 익숙하면서도 먼 나라.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고, 청결하지 못한 나라. 적어도 내가 해외봉사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나에게 이런 이미지였다. 베트남 해외 봉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베트남이란 나라에 대해 많이 검색을 해보았다.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어서 기분이 더 들떴었는지 봉사라는 생각 보다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다. 봉사가기 3주 전부터 가서 해야 할 마사지와 타이핑을 배우고 집볼 프로그램을 짜면서 과연 이런 것이 베트남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다. 출국 전날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최종점검을 하니 점점 실감이 나는 듯 했다.

일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낮 1시쯤 돼서 베트남에 도착하게 되었다. 기대를 많이 한 탓인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청결하지 못한 공항화장실과 어두컴컴한 조명 그리고 습하고 더운 날씨. 벌써부터 한국이 그리워졌었다. 지체할 겨를 없이 버스로 30여분을 달려서 우리가 봉사할 곳인 IOGT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우리가 묵을 숙소로 향했는데 처음에 알고 있었던 숙소랑 많이 달랐다. 좁고, 덥고, 습하고, 불결하기 까지 했고 난생 처음 보는 도마뱀까지 있었다. 물론 봉사를

하리 온 입장에서 불평을 하는 것이 염치없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첫 날 잘 때만 해도 괜히 온 것 같다는 생각과 과연 이런 곳에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 7시에 민푸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아이들은 마르고, 키가 작고,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 과가 처음 맡은 수업은 짐볼 운동이었는데, 단순한 공놀이에도 크게 웃어주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국 고등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수함을 베트남 아이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 한국에서 배워온 마사지를 가르쳤다. 한국에서 배워갈 때만 해도 놀이가 아닌 학습이라는 점이 걱정되었고, 아이들이 이런 진지한 수업에 전혀 집중 하지는 커녕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많이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마냥 순수하던 아이들이 수업시간이 되자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내 손짓을



보며 따라하고, 자기들의 핸드폰으로 마사지 수업 동영상을 찍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직접 연습하며 다음날 수업시간에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많이 가르치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뿌듯함이 느껴졌다. 준비했던 모든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날 아이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첫 수업 때는 버벅 대던 아이들이 능숙하게 마사지와 테이핑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마지막 날 교수님께서 '봉사는 주는 것 보다 얻어가는 것이 더 크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22년 동안 시간 채우기 식의 봉사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가슴 벅찬 마음을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느낀 것 같다. 부족한 사람에겐 내 것을 주는 적선식의 봉사가 아닌,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의 교환이 진정한 봉사라는 생각을 하게 해 준 베트남 해외봉사, 민푸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



이소라 |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한글팀

대원
소감문

“해외봉사대”

이번 베트남 봉사대는 여러모로 나에게 많은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그런 봉사대였다. 해외봉사를 몇 차례 다녀오긴 했지만 이번엔 학과의 대표로써 참여하여 아이들을 이끌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무척이나 많았고 책임감도 많은 봉사대였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다. 처음 봉사대를 준비할 때에 방학을 하고 바로 가는 봉사대여서 준비기간이 짧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느낄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베트남에 내렸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말로만 듣던 그 습도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차로 몇시간 이동 끝에 우리가 활동할 숙소와 IOGT에 도착하였다. 첫 날은 그렇게 베트남의 기후를 느끼는 일로 마쳤던 것 같다. 잠을 뒤척이고 드디어 첫날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베트남 아이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캠프장으로 왔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사실 매년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생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서 봉사활동을 해서 이번 아이들은 고등학교 학생이라 좀 더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고등학교생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들 우리를 반겨주며 환하게 웃고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 주는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첫 날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생각 보다 우리가 준비한 한국어 교실 그리고 베트남 이름을 한국어로 써주기 프로그램이 정말 반응이 좋았다. 여기서도 한국의 인기를 실감 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도 배우고 한국의 아이돌 가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 하여 첫날에 가장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였다.

페이스페인팅, 옷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부채 만들기 등 하나하나의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협동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마지막에 부채 만들기를 하였는데 한 남자아이가 하트를 정성스럽게 만들기에 여성스러운 아이구나 하며 함께 도와주었는데 다 완성된 부채를 나에게 건네면서 선물이라고 주었다. 쑥스러워 하면서 나에게 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처음엔 일주일

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날씨와 더위 음식 등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아쉬움이 더 커졌다.

목요일쯤 고아원을 방문하였는데 너무나 눈이 맑고 예쁜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 길러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많은 대원들이 갔다가 한 번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이들을 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웠다.

이번 봉사대 활동이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준 봉사활동인건 사

실이다. 대장이라는 직분의 책임감과 리더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대원들 간의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심들이 베트남아이들의 눈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 나의 지치고 어두운 마음을 맑고 밝게 정화 시켜주었던 것 같다. 그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매일 비 오듯이 쏟아 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

베트남 시내를 다니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오토바이와 차들이 신호도 없이 다니지만 그냥 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곳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만의 규칙이 질서가 있는 곳이었다. 한국인들이면 화를 내고 싸울 일들이 그들 속에서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들 어찌면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따뜻하고 관대한 것 같았다.

이번봉사대 10일이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한 중요한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경영정보학과(MISO)

팀 명	경영정보학과 MISO	주최학과/부서	경영정보학과
지도교수	이상훈, 신종성	학생대표	이윤호, 박민주
봉사국가 (지역, 기관)	필리핀(Tarlac City)	활동기간	2012.6.15 ~ 6.26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4명		
협력및 후원기관	1000MM Center Neustart Center	주소/연락처	
봉사영역	교육, 의료, IT교육	봉사대상자	어린이, 지역주민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상훈	경영정보			지도교수	신종성	경영정보		
학생대표	이윤호	경영정보	2	교육봉사	대원9	배민수	경영정보	1	사진
대원2	강도연	경영정보	2	총무	대원10	변다혜	경영정보	1	교육봉사
대원3	강동현	경영정보	1	교육봉사	대원11	심진희	경영정보	1	문화교류
대원4	김태완	경영정보	1	총무	대원12	이기원	경영정보	1	문화교류
대원5	류혜린	경영정보	1	체육봉사	대원13	이형철	경영정보	2	문화교류
대원6	문승환	신학	2	노력봉사	대원14	장영진	경영정보	1	문화교류
대원7	박민주	경영정보	2	체육봉사	대원15	홍미란	경영정보	1	
대원8	박현경	경영정보	1	체육봉사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 (참여인원)
1	교육봉사	6/18 월	뉴스타트센터	장소 준비 및 첫날	선물 충분히 준비	100
2	IT교육		뉴스타트센터	장소 준비	책상 및 전원 필요	
3	의료봉사		집집방문	약품 및 구역 확인	약품 정리	
4	문화교류		뉴스타트센터	장소 준비 및 첫날	앰프시설 미약	120
5	교육봉사	6/19 화	뉴스타트센터	어린이학교	이야기 원고 준비	130
6	IT교육		뉴스타트센터	컴퓨터의 이해	워드프로그램 재설치	20
7	의료봉사		집집방문	집집방문	혈압측정 정확히	66
8	문화교류		뉴스타트센터	Happy Family	시간 철저히	150
9	교육봉사	6/20 수	뉴스타트센터	어린이학교	분위기 집중시킬 것	150
10	IT교육		뉴스타트센터	문서 작성	컴퓨터 모니터 점검	20
11	의료봉사		집집방문	집집방문 치료	상처드레싱 재교육	80
12	문화교류		뉴스타트센터	Happy Family		170
13	건축봉사	6/21 목	뉴스타트센터	건축자재 준비 회의	필요성요청	2
14	교육봉사		뉴스타트센터	어린이학교		200
15	IT교육		뉴스타트센터	문서작성		20
16	의료봉사		집집방문	집집방문 치료	의약품보급 할 것	51
17	문화교류	6/22 금	뉴스타트센터	Happy Family	의자부족	230
18	건축봉사		뉴스타트센터	마을 기반 시설	자재준비	6
19	교육봉사		뉴스타트센터	어린이학교	선물 충분히 준비	200
20	IT교육		뉴스타트센터	정리	컴퓨터가증	0
21	의료봉사	6/23 토	집집방문	집집방문 치료	의약품보급 할 것	22
22	문화교류		뉴스타트센터	Happy Family	침례식 준비	230
23	건축봉사		뉴스타트센터	건축	급하게 준비됨	9
24	교육봉사		뉴스타트센터	안식일학교		250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1	2	3	4	5
1	2	3	4	5	짐없이준비됐는가?					
계획된 활동은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1	2	3	4	5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마무리했는가?				
활동 목표는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1	2	3	4	5
달성했는가?		1	2	3	4	생활했는가?				

▶ **총평가**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11명의 학과 지도교수와 11명의 학과 목사의 역할 분담으로 학생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활동지도와인 성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었음	학생대표 역할	탁월한 학생대표의 활동으로 지도교수의 지도에 어려움이 없었고, 삼육교육의 이념에 맞는 역할을 훌륭히 잘 해주었다.
학생대원 소양	적극적인 학생들의 활동으로 무더운 날씨지만 휴식시간에도 마을 주민과 학생들을 만나서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고 교육하기 위한 학생들의 수고가 남달랐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팀의 단합을 보여준 환상의 팀이었다.	현지반응	농번기를 맞은 주민들의 바쁜 생활로 외상에 대비할 의약품 보급및치료활동으로 큰 관심을 끌었고, IT교육과 교육봉사 활동으로 현지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의자가 부족했다.
숙식 및 생활여건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을 지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환경과 우물에서 물을 펌프질해야 씻을 수 있는 환경, 각종 벌레와 모기. 특히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환경에서의 일 주일은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불평 한 마디 없었던 대원들에게 감사한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파출소도 없는 마을에서 지역주민들과 아무 사고 없는 봉사활동 시간을 보냈다
개선(보완) 사항	지역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의약품준비, 아이들 교육을 위한 넉넉한 선물, 현지마을을 위한 IT교육과 컴퓨터 준비는 철저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헌신된 마음과 열성은 최상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정말 좋았습니다. 봉사단에서 수고가 많지만 봉사단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프로그램외에 현실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점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총평	학생들의 헌신과 팀워크, 특별히 학생대표의 활동은 탁월했습니다. 학생대표에게 상을 주세요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15	오전	출국	6/21	오전	의료봉사, IT 교육
	오후	문화체험 및 휴식		오후	의료봉사, IT 교육, 성경학교, 전도회
6/16	오전	안식일 예배(AUP대학교교회)	6/22	오전	의료봉사, IT 교육
	오후	산책, 휴식		오후	의료봉사, IT 교육, 성경학교, 전도회
6/17	오전	문화체험	6/23	오전	안식일
	오후	봉사활동 준비		오후	
6/18	오전	봉사지 이동	6/24	오전	휴식
	오후	집집방문 교육봉사, 전도회		오후	문화체험
6/19	오전	의료봉사 IT 교육	6/25	오전	휴식
	오후	의료봉사, IT 교육, 성경학교, 전도회		오후	문화탐방 및 귀국
6/20	오전	의료봉사 IT 교육	6/26	오전	귀국
	오후	의료봉사, IT 교육, 성경학교, 전도회		오후	

경영정보학과



▶ 교육봉사액연송



▶ 교육봉사액연송



▶ 의료봉사-상처소독중



▶ 의료봉사-처리를 위한 생분 중



▶ 어린이 봉사



▶ 스토리텔링



▶ 봉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모습



▶ 현지아이들과의 교제



▶ 현지 학생들 IT 교육 중



▶ 문화교류



▶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야외활동



▶ 플로리다봉사준비대사지 교육 후 교수님들



▶ 의료봉사 중



▶ 아이들에게 향송이식받은 꽃다발



▶ 교수님과 다함께 단체사진



▶ 의료방문 치료



▶ 경문기토 이동 중



▶ IT교육



▶ 아름다운 마을



▶ 식사준비

경영정보학과



▶ 의료방문 치료



▶ 의료방문 치료



▶ 의료방문 치료



▶ 의료방문 치료



▶ 교직원사



▶ 사무회의결상



이윤호 | 경영정보학과 2학년
학생대표

학생대표
소감문

“필리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해외봉사대, 삼육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보고 나도 한 번 해볼까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것이다. 분명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지만 그것보다 얻어서 오는 것이 더 많은 해외봉사... 2012년의 어느 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는 학과 해외봉사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맡은 역할은 봉사대팀의 대장. 너무나 큰 자리이고 부담스러워 아무도 맡지 못했던 그 자리를 나는 선택 받아 들었다.

대장이라는 직책은 지도교수님과 대원들 사이의 원활한 커넥션을 돕는 역할이며, 또한 대원들을 대표하며 봉사지에서의 모든 활동과 계획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역할이었다. 누구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 받아들이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무거운 직책을 맡았고 2012년 6월 18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필리핀 탈락시 바랑가이 불로라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탈락시 바랑가이 불로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차로 대략 3시간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탈락시에서 30분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처음 우리가 1주일동안 머물 숙소에 도착하였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봉사대가 출발하기 전 알고

있었던 숙소의 모습은 3층 건물에 와이파이와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있어 봉사대가 머무는데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바퀴벌레와 개미, 그리고 거미가 눈에 보일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단 하나, 게다가 17명의 인원이 방 3개를 써야 한다는 상황에 놓여졌다. 열악한 현실에 투덜거리고 있을 때 일 순간 봉사대에 오면서 좋은 환경을 바라고 있는 나의 한심한 모습이 보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남을 살리는 봉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봉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빨리 마음가짐을 다시 하였다.

1일차에는 봉사대가 오후에 도착하여 대민 지원봉사는 나갈수 없었기 때문에 집집방문을 하며 봉사대가 왔음을 알리고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육활동이 있음을 알리고 다녔다. 부랴부랴 저녁을 먹고 처음 필리핀 현지 아이들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

겼다. 작은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말디말은 큰 눈, 재잘대며 봉사대를 보며 짓던 미소, 처음 만난 현지 아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를 연상케 하였다.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1일차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저녁 활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평가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별 탈 없이 첫 날이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조금씩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2일차, 의료봉사팀을 세 개조로 편성, 오전 2팀과 오후 1팀으로 나누어 대민지원봉사를 하였다. 대민지원을 통해 처음 만난 현지 어른들의 모습은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던 것들과는 많이 달랐다. 이방인을 꺼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이지만 봉사대를 환한 웃음으로 맞이주었다. 더욱 기뻐했던 것은 만났던 분들이 큰 탈 없이

건강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민지원 봉사와 교육봉사활동을 마쳤다.

3일차,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원들 중에 한 여학생이 의료봉사 과정에서 피부 병 바이러스로 추정 되는 것이 옮겨 목 뒤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다. 더욱이 내가 속해있던 의료봉사 조에서 환자가 발생해 나의 불찰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그 인원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

다. 바로 그 대원

을 당분간 숙소에서 머

무르게 하고 경과를 지켜보기

로 하였다. 그리고 의료팀에

서 가져온 솜가루를 이용해 솜팩을 만들어 목뒤에 붙이고 있도록 하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그 친구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셋째 날을 마쳤다.

4일차, 아픈 인원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3일차 때보다 염증이 커져 있었다. 병원에 보낼까 했지만 아직까지 선부른 판단인 것 같아 염증부분을 깨끗이 하도록 하였고 숙소에서 쉬도록 권고하였다. 이 날은 굉장히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서 짜증이 나기만 했다. 하지만 대장으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참고 또 참았다. 계획된 봉사활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아픈 대원의 상태를 보았다. 다행히도 염증이 있는 부위가 작아지고 있었다.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주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모든 대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모쪼록 다치지 않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5일차, 다행히도 아픈 대원의 상태가 훨씬 많이 나아졌다. 많이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었다.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봉사활동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였다. 이제는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 익숙해져 몸과 마음이 힘든 것들도 다 잊게 되었다. 그렇게 마지막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봉사활동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대원들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 모든 대원들이 기특해보였고 나 역시도 그들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여 기뻐고 뿌듯하였다.

6일차, 드디어 봉사지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봉사지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며 모썽가 들떠있었다. 바쁘게 준비하다 밖을 보았는데 현지 아이들이 우리가 묵고 있던 숙소로 몰려들어 있었다. 그들도 우리가 가는 것을 알고 있었나보다. 침울해져있는 분위기. 다들 정이 많아들은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1주일간의 봉사활동을 모

뻗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며 그곳을 떠났다.

여담이지만, 마을을 나가기 전 인원 파악을 하려고 대원들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 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선교사님도 울고 있었고, 현지 아이들도 울고 있었다. 사실 나는 대원들을 통제하느라 현지 아이들과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통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현지 아이들도 나에게서 벽을 느껴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언가 나 혼자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봉사대가 떠난다고 하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내년에 또 와서 내가 이들을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모든 대원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모쪼록 지금보다 한층 성장된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에서는 좋은 환경이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고, 불만이 가득했던 친구들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쪼록 따뜻한 마음을 배웠고, 그 마음을 전달해주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봉사대 모든 대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강도연

경영정보학과 2학년
교육지원봉사팀원

대원 소감문

10박 11일의 필리핀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는 6월 15일 필리핀으로 떠났다. 사실 가기 전 짐을 꾸리고 필요한 물품을 사면서 봉사에 초점을 켜기 보다는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게 더 맞았다. 마닐라에서 있었던 이를 역시 해외여행 온 기분이 들어 한껏 들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봉사지에 들어가기 하루 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려는 말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탈락시티”라는 마닐라에서 차로 4~5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들어갔다. 가까워질수록 정말 눈밖에 없었고 집도 누추했다.

그렇게 4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우리가 일주일 6일을 지내야하는 숙소인데 처음에 들어선 순간 정말 깜짝 놀랐다. 마당이라고 해야 하는 곳엔 장작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있었고 개, 닭, 고양이 온갖 가축들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숙소였는데 집만 지어놓고 도배도 아무것도 안한 시멘트집이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도착한 날 우린 교육봉사를 하기위해 6시에 모였다. 거기서 준비해간 율동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 동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면서 도 나중에는 율동을 잘 따라하고 예쁘게 웃어주었다.

둘째 날, 아침밥을 먹고 대민봉사를 나가기위한 준비를 했다. 알레르기피부약, 마데카솔, 식염수, 타이레놀, 설사약, 혈압계 등 가방에 한가득 담아 대민지원봉사를 나갔다. 9시부터 진행된 봉사는 11시30분까지 이어지는데 정말 필리핀의 살인적인 더위에 우리 모썽 탈진 일보직전이었다.

대민지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피부병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식염수를 뿌리고 연고를 발라주고 기도를 해주는 일 밖에 없음에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우는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엄마 마음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다. 또 혈압재주는 거에도 크게 좋아하고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을 보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거기서 만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다섯 살짜리 트레날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다. 하지만 그 아

이의 다리엔 피부병이 있다. 약을 발라줄때도 날 보고 환하게 웃는 트레날린의 얼굴을 생각하니 지금도 찡하다.

대민봉사를 마치고 우린 교육봉사를 나간다. 근데 이상하게 뒷목이 따갑고 아팠다. 그래서 현지 선생님에게 보여주니 목뒤에 바이러스가 퍼진 것 같다고 했다. 당황스러웠다. 일단 교육봉사는 포기하고 숙소에서 쉬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숙소에서 동료 미란이에게 약을 발라달라고 해서 약을 바르고 있었다.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보시고는 솜으로 치치해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셨다. 정말 거기서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감동이다. 맘을 흘리지 말라는 언니의 말에 그 후 이틀을 집만 지키는 집순이로 살았다. 집에서 밥을 만드는 걸 돕거나 솜팩을 만들고 솜가루를 포장했다. 도움이 되고 싶었다.

첫날 벌레와 더위로 잠 못 이루던 때, 언제 다섯 밤이 지나갈까 생각했다. 너무 한숨 나오고 바뀐 환경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쳤었다.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새에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헤어질 날을 남겨뒀고 있었다.

모쪼록 다 잘 자고 잘 먹고 그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이별이었다. 그 지역 아이들과도 이제 친해지고 정들었는데 이별이었다.

토요일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데 현지 선생님과의 마지막 포옹에서 눈물이 터졌다. 나랑 고작 한 살 차이밖에 나지않는 선생님은 언니지만 정말 대단하고 강한 언니다. 그런 언니가 눈물을 보이자 나도 눈물이 났다. 언니와 아떼들이랑 그 동네 아이들을 남겨뒀고 우린 떠났다. 돌아가는 차안도 눈물 바다였다. 그 정도로 정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 봉사지 들어갔을 땐 정말 이런 곳 돈 주고 썼 번 다시 오면 미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첫날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이틀, 삼일. 지나면 지날 수록 그 환경에 적응하고 받아들이자 거짓말처럼 한결 편안해졌다. 필리핀에서 밥도 잘못 먹고 목뒤에 피부병도 얻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난 얻은 게 많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 우리엄마아빠 딸로 태어난 것이다. 아프면 병원가고 더우면 에어컨을 트는 것이 당연했던 나는 봉사를 한 후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 나보다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내 포레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여태 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10박 11일의 봉사활동 동안 정말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몸과 마음이 아팠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 돌아와 생각하니 내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과 경험을 얻고 돌아와 너무 보람차고 기쁘다.

또 한 번 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

대학교 졸업 전에 또 한 번 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또 해보고 싶다. 정말 보람된 봉사활동이었다.

Thank you



류혜린 | 경영정보학과 1학년
기획팀장 / 1교육팀

대원
소감문

“ LOVE BEGETS LOVE ”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해외봉사를, 그것도 나에게 조금은 특별한 국가인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 참 기분이 좋았다. 원하던 일이라서 준비과정도 정말 즐거웠다. 시험 기간과 겹쳐 부담이 되긴 했지만 운동연습, 노래연습, 마사지교육 등 모쪼록 얼굴 찌푸리지 않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다. 준비 과정은 나름 괜찮았지만 처음이라서 그런지 나 자신은 봉사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서 봉사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급한 마음을 가졌었다. 준비가 덜 됐다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봉사할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봉사할 지역은 생각했던 것 보다 좋은 환경이었지만 우리 봉사 팀이 머물 숙소의 환경이 내 눈에는 매우 열악해 보였기 때문이다. 벌레를 정말 병적으로 싫어하는 나는 온갖 벌레들이 들끓는 그곳이 엄청난 충격이었다. 아름다운 봉사지 속 지옥 같은 우리의 숙소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은 한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자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지옥 같은 숙소가 이젠 너무나무 그럽다.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다. 팀원들과 구역을 나눠 집집마다 의료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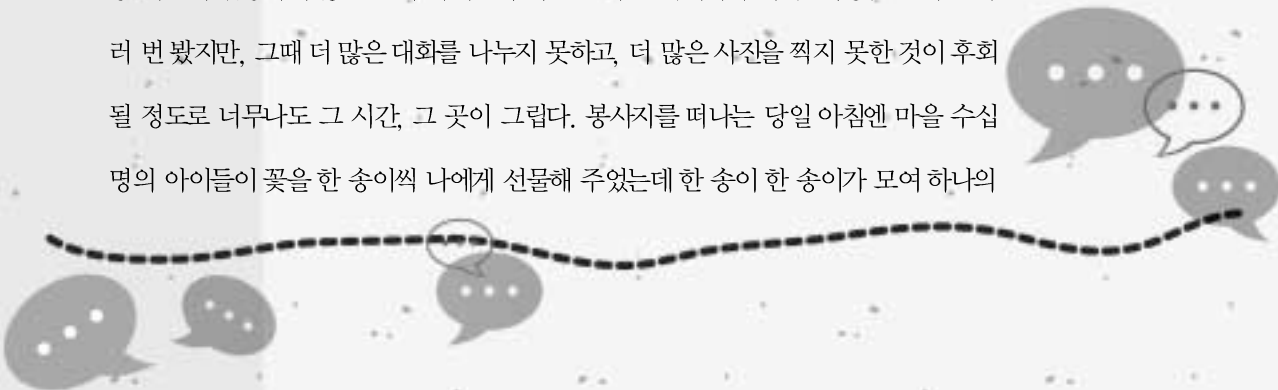
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치료받는 사람들이 ‘환자’가 아닌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을 다했다. 집집 방문을 하는 까닭에 현지인들의 가정환경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나무로 대충 틀만 지어놓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맑은 눈을 가지고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참 커보였다. 봉사하는 내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내가 무의식중에 느끼고 있던 우월감이 많이 부끄러웠고,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의료 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한 어머니였다. 양쪽 다리가 심각하게 굵고 썩어들어가는 병을 앓고 계셔서 일도 잘 못하고,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셨다.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못해 아이들도, 어머니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 우리가 아픈 곳을 소독해주고 연고를 발라줄 때 어머니께서는 감사함에 눈물을 보이셨다. 치료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고, 치료가 끝난 후 다 같이 기도를 드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느껴졌었다. 의사소통이 서로 잘 되지 않고, 나이대도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모쪼록 한 마음으로 서로의 진심이 통했던 순간이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었는데, 건강하게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항상 현지 시각 6시부터 7시까지는 마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노래와 율동을 했는데, 어린이들의 맑은 눈동자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최대한 많은 아이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치며 '나는 너희들을 사랑 한다' 라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와 율동을 했다. 나를 바라보며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열심히 율동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 때 묻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연과 어우러져 환경 탓 하지 않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열악하고 가난한 것은 내 생각과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 날 저녁,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던 마을 아이들, 어른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저녁 야외 활동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꼬마 아이들과 떠들고 사진 찍어서 우리 팀 대장님 눈치를 여러 번 봤지만, 그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더 많은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후회될 정도로 너무나도 그 시간, 그 곳이 그립다. 봉사지를 떠나는 당일 아침엔 마을 수십 명의 아이들이 꽃을 한 송이씩 나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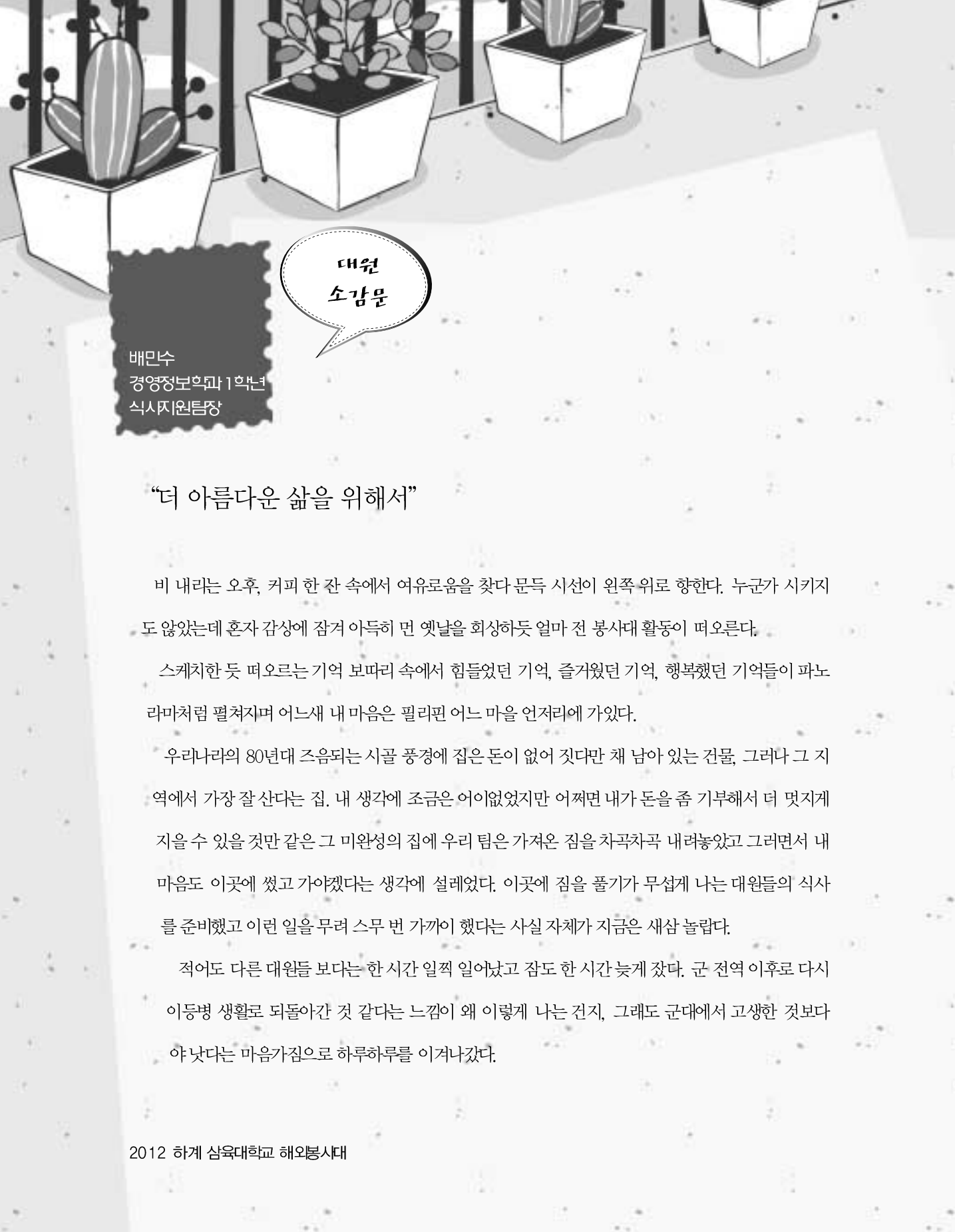


꽃다발을 이루었다. 벌레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내가 그 꽃들에 붙어있던 수십 마리의 벌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필리핀 아이들에게 편지, 책,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등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인화된 내 사진 뒤에 짧은 편지글을 써서 주는 것 뿐이라서 참 안타까웠다. 단체사진을 찍고 마을을 떠나는 차에 올라타기 전 IT교육팀 학생들과 동현이과 그룹 허그를 했는데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응원한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코끝이 찡했다. 출발 직전에는 봉사 활동 중 곳곳게 장난쳐 날 약 오르게 했던 현지 남자아이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좀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지 못하고 온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다. ‘아떼 앤’ 이라고 부르며 날 쫓아오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맴 돌고, 그곳의 습한 공기와 푸른 자연이 너무 그립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부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마을 사람들, 아름다운 그 마을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대원 소감문

배민수
경영정보학과 1학년
식사지원팀장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비 내리는 오후, 커피 한 잔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다 문득 시선이 왼쪽 위로 향한다.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감상에 잠겨 아득히 먼 옛날을 회상하듯 얼마 전 봉사대 활동이 떠오른다.

스케치한 듯 떠오르는 기억 보따리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어느새 내 마음은 필리핀 어느 마을 언저리에 가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즈음되는 시골 풍경에 집은 돈이 없어 짓다만 채 남아 있는 건물, 그러나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집. 내 생각에 조금은 어이없었지만 어쩌면 내가 돈을 좀 기부해서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미완성의 집에 우리 팀은 가져온 짐을 차곡차곡 내려놓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도 이곳에 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이곳에 짐을 풀기가 무섭게 나는 대원들의 식사를 준비했고 이런 일을 무려 스무 번 가까이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은 새삼 놀랍다.

적어도 다른 대원들 보다는 한 시간 일찍 일어났고 잠도 한 시간 늦게 잤다. 군 전역 이후로 다시 이등병 생활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나는 건지, 그래도 군대에서 고생한 것보다 야 낮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갔다.

식사 준비란 게, 그것도 한 켜 사람도 아니고 스무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다보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던지 아마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가스레인지도 없어 더운 여름에 아궁이에 불을 떼고 행여 불이 꺼지지않을까 매콤한 연기를 마셔가며 부채질을 했었고 반찬거리를 만든다고 채소를 손질하고 식사당번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분주하게 준비했다.

마침내 밥이 만들어지고 요리가 만들어져서 내놓았다. 다만 이 켜이 어디 어머니의 손켜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정성만은 듬뿍 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더운 날씨에 지친 대원들은 갈수록 밥을 적게 먹고, 누군가는 한 술도 뜨지 않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누구는 한 여름에 남들보다 일찍 준비하고 땀 뻘뻘 흘려가며 만든 음식인데 예의도 없나?' 라고 말하고 싶었고 나 역시 조금씩은 힘에 겨웠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다짐한 내 한 몸 바쳐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삶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새로이 잡고 진정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환기했다. 그러다보니 놀랍게도 나는 갈수록 새 힘을 얻었고 밥도 준비하고 대민지원 봉사도 나가고 율동활동까지 참석하면서도 늘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 같았다. 주님께서 축복 주셨으리라!

나의 아름다운 기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민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했고, 특히 병들고 아픈 이웃들에게 혈압을 측정해주고 상비약을 처방해줄 그 때에 영어도 잘 못하는 내 입에서 그들을 위한 처방전들이 나왔고 그들을 위해 위로해줄 수 있는 말들이 나왔다.

그 뿐이라, 이번 봉사를 통해 많은 필리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지금도 소셜 네트

워크를 통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또 이들이 내게 준 사랑들이 차갑던 내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었다.

그렇다. 인생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주린 배를 채우고, 나 혼자 잘난 체 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게 조금 있더라도 남과 나눌 수 있고, 내가 좀 모자란 점이 있으면 그들에게 배울 수 있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그리고 내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버릴 줄이야!

또한 나는 그 동안 대중을 이끄는 것을 좋아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기를 좋아했으며 많은 이들의 서포터라이트를 받기 좋아했다. 그러나 이번 식사지원팀장을 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각광받는 이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법을 배웠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완수하는 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우리 봉사대원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 특히, 목사님과 교수님 그리고 대장이운호 선배의 리더십에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봉사대 나에게 정말 소중한 날이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봉사함의 소중함을 더없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대원
소감문

심진희
경영정보학과 1학년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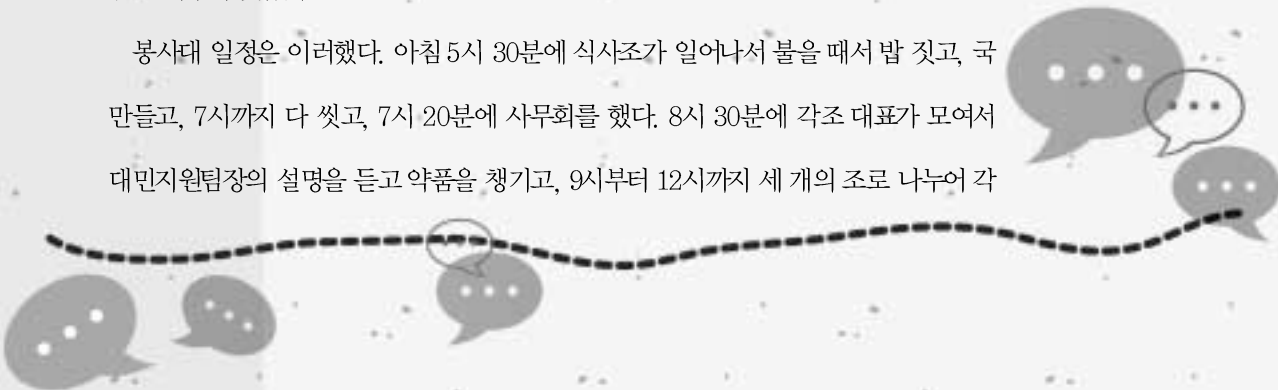
“삶의 여유와 비전을 찾아서”

고등학교 때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대를 갔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함’을 배웠다. 대학교에 가서도 해외 봉사대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저축을 했다. 여름방학에 학과에서 필리핀 봉사대를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원했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대를 지원하는 바람에 면접을 봐서 봉사대원을 선발했다. 내게 봉사대를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봉사대에 뽑히고 첫날 대장, 부대장, 총무, 기획팀, 식사팀, 교육봉사팀, IT팀, 건강 세미나팀, 대민지원팀을 나누었다. 여러 가지 직분 중에 나는 총무를 맡게 되었다. 교수님께서는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주시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기획하고, 각 부서 별로 필요한 예산이며 프로그램 구성 모든 걸 맡기셨다. 일주일동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각 팀별로 발표를 하고, 서로 필요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율동, 마사지, 응급 처치 법도 매주 모여서 배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태웠리가 잡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목사님의 도움과 각 팀의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짰다. 필리핀 현지와 연락을 해서 봉사할 때 우리가 머물 곳, 필요한 약품, 교육 봉사할 장소부터 의자, 테이블, 마이크 시설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점점 힘들어졌다. 힘들어 하는 게 눈에 보였는지 봉사대원들은 총무가 가장 힘들다며 응

원해주어서 그 힘으로 열심히 했다.

시험 본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갔다. 난 계속 돈을 쓸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고, 목록을 썼다. 2일 동안 뉴 스타트 리조트에 머물면서 필리핀을 구경하고 월요일 아침에 4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봉사해야 할 tarlacity(탈락시티)에 도착했다. 난 어딜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감사했다. 숙소에 도착한 첫날 귀뚜라미, 바퀴벌레,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몇몇의 대원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사대 일정은 이러했다. 아침 5시 30분에 식사조가 일어나서 불을 때서 밥 짓고, 국 만들고, 7시까지 다 씻고, 7시 20분에 사무회를 했다. 8시 30분에 각조 대표가 모여서 대민지원팀장의 설명을 듣고 약품을 챙기고, 9시부터 12시까지 세 개의 조로 나누어 각



팀마다 필리핀 통역사가 붙어서 의료봉사를 나가고, 10시30분에 IT팀은 애들에게 컴퓨터 가르쳐주고, 점심 식사팀은 11시에 숙소로 돌아가 밥을 지었다. 점심을 먹고 1시에 한팀은 의료봉사를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린이 교육봉사, 저녁준비를 했다. 저녁을 먹고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율동, 선물을 나눠주었고, 끝나고 9시까지 건강세미나를 했다. 마치고 정리하고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면 9시 4,50분 그때부터 다 같이 모여서 피드백을 하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그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씻고 11시에 잠이 들었다.

한 가지 봉사를 한사람이 계속하지 않고, 각 봉사팀장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랜덤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했다. 뻘뻘한 일정 속에서 누구하나 불평하고, 짜증났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모든 봉사대원들이 자기가 맡은 것들을 미루지 않고 잘 해주었기

에 모셨을 즐겁게 잘 봉사했다. 필리핀에서 하루 이틀 계속 있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난 첨단기술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확실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질적인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라는 것!

행복이라는 건 명확하게 이게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 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다. 봉사대를 통해서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끌어내기 시작한 거 같다. 1학기 동안에 정신없이 학교 다니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 봉사를 무엇을 했는지, 그곳에

서 뭘 느꼈는지 보다 봉사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크고, 넓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봉사대는 갈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돌아오는 것 같다. 매 학기 봉사대가 있을 때마다 가야되겠다.

경영학과

팀 명	몽골 해외봉사대	주최학과/부서	경영학과
지도교수	강정수, 조광현	학생대표	박기람
봉사국가 (지역, 기관)	몽골 울란바타르 아일막 지역	활동기간	2012.7.3 ~ 7.12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25명, 몽골대원 : 10명 전체 : 38명		
협력및 후원기관	몽골미션 청소년부, 1000MM	주소/연락처	Ulaanbaatar 13, Mongolia 976-11-330-859, 070-8692-5878
봉사영역	한글학교, 문화교실, 태권도교실	봉사대상자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청년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강정수	경영		인솔목사	지도교수	조광현	경영		지도교수
학생대표	박기람	경영	2	대장	대원4	손형석	경영	1	부총무
대원2	박상현	경영	3	총무	대원5	한효주	경영	1	부서기
대원3	정유진	경영	2	서기	대원6	류은혜	경영	4	한글학교
대원4	서 더	경영	2	몽골팀장	대원7	최유림	경영	4	한글학교
대원5	염경훈	간호	2		대원8	서정현	생활체육	3	태권도
대원6	권수연	경영	3	한글학교 팀장	대원9	송성연	생활체육	3	태권도
대원7	김준엽	경영	3	문화교실 팀장	대원20	유재욱	경영	1	
대원8	조재현	생활체육	3	태권도교실 팀장	대원21	권기욱	경영	2	
대원9	송광호	경영	2	한국문화 팀장	대원22	최자연	경영	2	
대원10	안홍산	경영	1		대원23	김남주	식영	4	생활팀
대원11	백지현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미디어 홍보팀장	대원24	김창성	경영	2	
대원12	조보라	식영	4	생활팀장	대원25	조여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미디어
대원13	김민서	경영	1		대원26	최지현	경영	1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성경학교	7/7-9	학교교실	울동, 국가그리기, 색칠공부, 한글공부, 부채그리기, 야외활동	성공적이었음	대원6명 어린이:35명
2	한글학교	7/7-9	학교교실	울동, 페이스페인팅, 한글공부, 풍선아트, 한복입기, 게임, 운동	성공적이었음	대원6명 어린이:40명
3	문화교실A	7/7-9	학교교실	울동, 윗놀이, 투호, 한글공부, 연날리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성공적이었음	대원6명 어린이:40명
4	문화교실B	7/7-9	학교교실	음악교실, 한글교실, 댄스교실	성공적이었음	대원3명 학생:15명
5	태권도교실	7/7-9	체육관	레크리에이션, 기본동작, 발차기, 품새, 정권, 게임, 송판격파, 수료	성공적이었음	대원5명 전체:50명
6	미니운동회	7/7-9	체육관	전체 운동회	성공적이었음	대원38명 전체:120명
7	달란트시장	7/9(월)	체육관	의류, 잡화, 가방, 신발, 장난감,	성공적이었음	대원38명 전체:12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중음	매우중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활동 중에 임원을 교체함	학생대표 역할	잘하지 못하므로 교체함 교체한 후 잘 진행됨
학생대원 소양	개인 소양이 부족함 발견	현지반응	대단한 호응을 얻음
숙식 및 생활여건	불편한 상황에서 생활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생활과 치안이 불안한 지역
잘못점	-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지금 부족이 큰 애로사항
개선(보완) 사항	지금 확보 문제	총평	몽골 울린바타르 아일막 지역에 우리 문화교류에 삼육대학교 봉사대가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므로 진정한 봉사대의 모습을 보였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03 (화)	오전	출발 준비	7/09 (월)	오전	봉사 활동, 한글학교 문화교실, 태권도 교실 미니 운동회
	오후	2시 30분 대학에서 출발		오후	달린트 시장 및 친교의 시간
	저녁	7시 50분 대한항공 출국	7/10 (화)	1일	이스타사르 사막 체험 답사
	밤	11시 50분 도착			
7/04 (수)	새벽	공항에서 화물 압수당함			
	새벽	새벽에 숙소에 도착함			
	오전	취침 및 휴식			
	오후	시내 유적 답사	7/11 (수)	1일	울린바타르 시내로 돌아옴
7/05 (목)	오전	테를지 국립 공원 답사			
	오후		7/12 (목)	오전	나담 축제
7/06 (금)	오전	봉사활동 준비		오후	나담 축제
	오후	지역 답사 및 학교 방문		저녁	11시 50분 대한항공 출국
	저녁	음악회 (디션던트), 봉사시작	7/13 (금)	새벽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7/07 (토)	오전	봉사 활동, 한글학교 문화교실 태권도 교실 미니 운동회			
	오후	지역 주민 가정 방문	7/08 (일)		
7/08 (일)	오전	봉사 활동, 한글학교 문화교실 태권도 교실 미니 운동회			
	오후	지역 주민 가정 방문			

경영학과



▶ 다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 현지 아이들 집방문



▶ '썬트네' 노래와 율동 학습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 '동대문 너대문' 놀이



▶ 부처에 태극기와 칠국 영글 그리기 수업



▶ 달라트시감상품디스플레이중



▶ 한글수업중



▶ 종이접기수업



▶ 음악회



▶ 태자회



▶ 태권도경기



▶ 담배밭



▶ 태권도경기



경영학과 강정수

지도 교수
소감문

“몽골을 다녀와서”

2012년 여름 몽골 해외봉사대가 조직되었다.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간호, 생체, 커디 등 연합으로 조직된 몽골 해외봉사대는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교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글교실, 대학생 청년을 위한 문화교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교실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일찍부터 준비하였다. 물론 현지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눌 수는 없었지만 현지 상황에 맞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과 중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지 몽골에서는 학교를 모임장소로 임대하고 몽골에서 1년 동안 음악 봉사하는 디센던트 음악단과 합세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

몽골 현지 상황은 모든 일이 어렵고 불편함의 연속이었다. 밤11시 몽골 징기스칸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찾는 과정에 준비해간 자료와 물건들을 압수당하고 여권을 압수당하는 상황으로 도착부터 어렵게 하였다. 새벽이 되어가는 무렵에야 여권을 찾고 몇 가지의 짐은 찾았으나 중고의류 10상자는 세금 70만원이라는 말과 함께 세관에 압수당한 채 숙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떠나는 날

까지 찾지는 못하였으나 몽골미션에서 후에라도 찾아서 구제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에서 오래된 축제 가운데 하나인 몽골 나담 축제의 시작이 가까운 때라 울란바타라 시내의 트래픽과 시내의 교통이 최악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봉사대의 어려움과 2중 계약된 학교 장소의 어려움이 우리리를 막는 장애물들이었지만 매우 성공적인 봉사대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11년 삼육보건대학에 재직 중에 몽골 해외봉사대를 이끌고 가서 몽골 날라이흐 지역에 봉사대 활동을 하므로 문화교류가 시작되었다.

2012년 삼육대학교가 몽골 울란바타르 아알막 지역에 몽골 해외봉사대가 활동하여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지속적인 두드림은 한국과 몽골문화 교류에 큰 이바지를 할 것

이다.

매우 부족한 봉사대 자금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지만 개인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갈 때 길은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한 경영몽골 우리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3년 여름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130Km 떨어진 인구 3만이 사는 바가노루 지역을 답사하면서 다음봉사를 기약하고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박기람 | 경영학과2학년
봉사총괄학생대표

학생대표
소감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몽골 해외 봉사”

봉사.. 국내봉사도 한번 가보지 않았던 내가 봉사의 시작을 해외봉사로 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되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지 첫 학기 첫 방학에 몽골로 해외봉사를 떠나게 되다니.. 일단 가서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2012년 7월 3일 화요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타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도착 첫날부터 우리의 봉사물품을 공항에서 모두 압류 당했다. 문제는 캐리어가 아닌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왔다는 것과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중고의류에는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목사님의 여권마저 압류를 당했다. 곧 이어 몽골의 경찰이 와서는 자신에게 벌금을 내면 여권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가서 돈을 달라는 것이다. 결국 벌금을 내고 목사님의 여권은 찾아왔지만 결국 짐은 다음날까지 찾지 못하게 되었다.

짐이 총 40박스 정도 되었는데 그중 의류박스 10박스정도를 제외한 30박스 정도는 이틀 뒤 모두 숙소로 찾아올 수 있었다.

도착 다음 날인 4일부터 봉사일정의 시작이었는데 우리 측과 계약을 했던 야르막 지역의 초등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우리가 봉사를 하러가니 이미 다른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진행중이었다. 교수님과 목사님이 같이 회의를 하신 끝에 후의 일정인 문화탐방을 앞으로 당기고 봉사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자이승 승전 기념탑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승전 기념탑은 일본이 러시아를 침략하러 가는 길에 위치해있는 몽골을 지나가다 몽골에 의해 패배하게 된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 자이승 승전기념탑에 올라가니 울린바르 시내가 한 눈에 다 들어왔다. 정말 멋진 풍경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소나기를 한바탕 맞는 바람에 모두다 비에 젖고 말았는데 몽골에서는 원래 비가 잘 내리지 않아 비 내리는 것을 축복이라 부른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 봉사대의 앞

날에 축복을 주는 비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외에도 징키스칸 동상과 테를지, 사막 등 몽골의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봉사가 시작되는 날 나는 학생 대장으로서 각 봉사 팀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과 동시에 그날의 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체 봉사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한글교실 문화교실 태권도 팀을 돌아다니며 인원이 부족한 곳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인원들의 음료수와 간식을 공수해오기도 했다. 학생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일이든 게으르지 않고 솔선수범하게 되었다. 형과 누나들도 많았지만 마치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대원들이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디센턴트 3기 인원들과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고 가이드도 해주시고 통역도 해주시던 박일규 선생님이다. 특히 박일규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워가게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급하지 않게, 성질내지 않고 침착하게 웃으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에 옆에 있던 내가 죄송스러워져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개구쟁이들부터 정말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의 봉사대 버스가 학교에 도착하면 버스로 막 달려오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감동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던 마지막 날 디센턴트 3기 단원들과 그리고 박일규 선생님과 포옹을 하며 울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 몽골이라는 나라에 관심조차 없던 내가, 몽골의 수도도 모르던 내가 다음 몽골 봉사대를 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몽골어 공부를 하며 다음 몽골봉사대엔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몽골 봉사대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김준업 | 경영학과 3학년
문화예술 팀

대원 소감문

“나에게 가르침을 준 아이들”

설레는 마음으로 몽골봉사대를 신청했지만 곧 불안해졌다. 우선 처음으로 하는 봉사인데다가 첫 봉사지역이 국내도 아닌 해외였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나 필리핀과는 다르게 몽골이란 나라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문화가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다. 인터넷 검색과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인 학생에게 수시로 물어보면서 약간의 정보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몽골봉사대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몽골인 청년, 성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역으로 우리가 몽골의 문화도 배우는, 말하자면 상호문화교류를 하는 것이었다. 출국 전 문화예술 팀원들과 함께 현지에 도착해서 수행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쉽게 알릴 수 있는 기념품들을 구입하였다. 사전 계획을 하면서도 끝없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몽골 현지인들의 반응이 어떨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몽골 울란바타르의 칭기즈칸 공항에 발을 디뎠다. 공항 밖은 굉장히 캄캄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한 탓도 있었지만 환하게 빛을 발하는 번듯한 건물하나 없었다. 그런 울란바타르를 보면서 하루 살기도 바쁠 텐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길 수 있을지 더욱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정식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몽골 사람들은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실제로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해맑고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기놀이와 같은 전통놀이를 함께하고 연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에 나도 두달여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못한 것과 좀 더 세밀하지 못했던 것에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생겼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우리 봉사대가 버스를 타고 울란바타르 근처에 있는 야르막이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몽골의 아이들은 우리가 탄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고 같이 교실로 들어갔다.

비록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 온 한국인 봉사대와 도움을 받는 몽골사람이 아닌 그저 하나의 똑같은 인간, 친구가 되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선부른 판단했던 나의 우매함을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일깨워준 것이다. 내가 알려준 한국의 문화를 아이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에게 알려준 가르침을 나는 절대 잊지 않고 평생을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갈 것이다. баярлалаа Монгол~*



송광호 | 경영학과2학년
태권도교실 한·몽 체육대회

대원
소감문

“꿈과 희망을 싹틔우기 위한 작은 사랑의 실천”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기 직전의 몽골리아라는 나라는 광활한 푸른 초원과 대지를 품은 유목민족의 기상과 자유로운 풍광들을 상상하고 있었다. 이런 상상 때문일까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며 무척 설레는 벅찬 마음을 품고 몽골 사람들에게 나눠줄 300kg 달하는 짐과 더불어 몽골 울란바트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천을 떠났다.

몽골 울란바트라 징키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12시쯤, 공항에 내린 느낌은 푸른 초원의 풀냄새가 솔솔 나는 느낌이 몽골의 첫 느낌이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공항의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왜소한 모습을 보고 의아한 느낌이 들었지만 공항은 사람들을 오고가며 잠시 동안만 머물다 가는 곳이라 생각하여 크게 생각지 않았다. 이런 첫 느낌을 가지고 평소와 같이 몽골 징키즈칸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고 출입국 심사를 거쳐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지만 기분 좋게 숙소로 향해 내일부터 봉사를 시작하며 현지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난관에 봉착을 하였는데 우리가 가져왔던 짐들이 현지 세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공항에서 약 4시간가량 체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현지법을 알지 못해 잘못을 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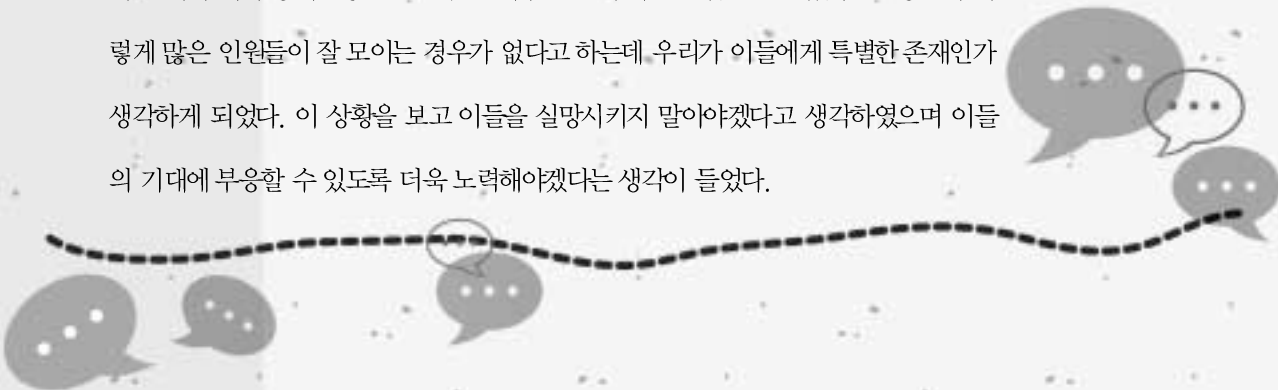
것도 있지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 아쉬웠다. 결국 몇 시간가량의 실랑이 끝에 타협안으로 몇 가지 짐들을 공항에 버려두고 공항을 빠져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몸을 실어 몽골에서의 첫날밤을 숙소에서 보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쁜 일들을 겪으니 우리가 걱정한 사실은 이런 좋지 않은 첫인상으로 내일 있을 몽골 현지 아이들에게 봉사를 할 때 이런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어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 짓고 내일을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숙소에서의 첫날밤을 지새웠다.

피로했던 어제의 일을 마치고 울란바트라 시내에서 차로 20여 분간 떨어진 야르막 지역에서 봉사대의 시작을 하였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어떤 아이들과 만나게 될까? 이곳의 아이들은 어떨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가운데 이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봉사를 하게 된 학교에 도착하여 버스에 내린 순간 이러한 걱정들을 하기 전에 마침 우리 봉사대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초등학교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우리의 버스를 보는 순간 먼저 다기와 손을 흔들어주는 광경을 보며 이 아이들을 걱정하고 경계할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았는데 먼저 고사리만한 손바닥을 가지고 나의 손을 잡아 주는데 그 느낌은 너무나 고마웠고 보드라운 작은 손이 내 손을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한국에서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민 적이 얼마만이었던가, 돌이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첫 만남을 뒤로하며 우리 봉사대원들은 문화교실, 태권도교실, 한글학교, 한·몽 체육대회 등 미리 준비하였던 프로그램을 준비과정을 다시 돌이켜보며 아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도착하였을 때 현지 학교는 아이들이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지방으로 흩어져 방학을 보내고 있어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지만 일단 사람들을 우리가 봉사를 시작하는 학교로 소집하기 위하여 마을 일대를 봉사대원들과 더불어 홍보 활동을 하러 마을을 돌리보고 홍보를 하였다. 첫 날의 홍보활동이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는지, 참여했던 아이들의 열기가 대단했는지 약 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우리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잘 모이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특별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보고 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맡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태권도교실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참여 인원 또한 30여명 정도로 다른 교실에 비해 많이 와줘서 많이 참석해준 아이들에게 오히려 고마웠다 그렇지만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역시나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였다. 옆에서 몽골 현지의 디센트트라는 몽골 현지 대학생 대원들이 도움을 주긴 하였으나 한국이나 몽골이나 역시 어린이답게 떠들고 장난치고 통솔이 안 되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꼈지만 막상 태권도 교육을 정식으로 시작하니 아이들의 모습은 장난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태권도 동작을 앞에서 일러주면 진지하게 따라하며 배우는 모습들을 보며 이 아이들이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정말 진심과 열의를 다하고 있구나 생각하였다. 짧은 준비기간 동안 한국에서 태권도 교실을 준비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태권도 교실을 접하는 아이들을 보니 한국에

서 좀 더 체계적이고 열심히 준비 했어야 하는 후회도 들었다.

태권도 교실을 비롯한 우리 봉사대원들이 준비한 교육과정은 총 3일 과정으로 이뤄졌는데 내가 담당한 태권도 팀은 그 동안 자신이 열심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자세와 발차기를 심사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송판 격파를 진행하였다. 송판 격파를 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은 내가 이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하고 자신감을 함양하게 된 계기를 부여한 듯하였다. 물론 중간에 송판 격파를 실패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응원을 하며 송판을 격파할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과 한마음 함께 응원도 하였다.

봉사활동을 돌아쳐보며 우리 태권도 교실을 비롯한 우리 봉사대원들이 준비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비록 짧은 3일동안 봉사를 하였지만 이곳에 와서 느낀 점은 이곳 몽골

현지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는 달리 무척 순수하고 밝고 항상 웃는 모습들을 간직한 아이들이며 힘들지만 몽골의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한편으론 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점은 유복한 환경 하에 부모님들의 사랑 안에 자란 우리 한국 아이들이 배워우리 아이들도 강한모습을 지녔으면 한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몽골의 광활한 자연환경과 풍경들만 이 눈에 아름답게 보였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얹히고설키며 목사

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환경도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사람 그 자체' 라는 말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내 마음속에서 느낀 감정의 뭉치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봉사는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호의와 더불어 이곳 아이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린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나중에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영글게 하는 날은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백지현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3학년
한국문화에 대해 알리기, 체육대회 인솔책임자맡기,
사진찍기 영상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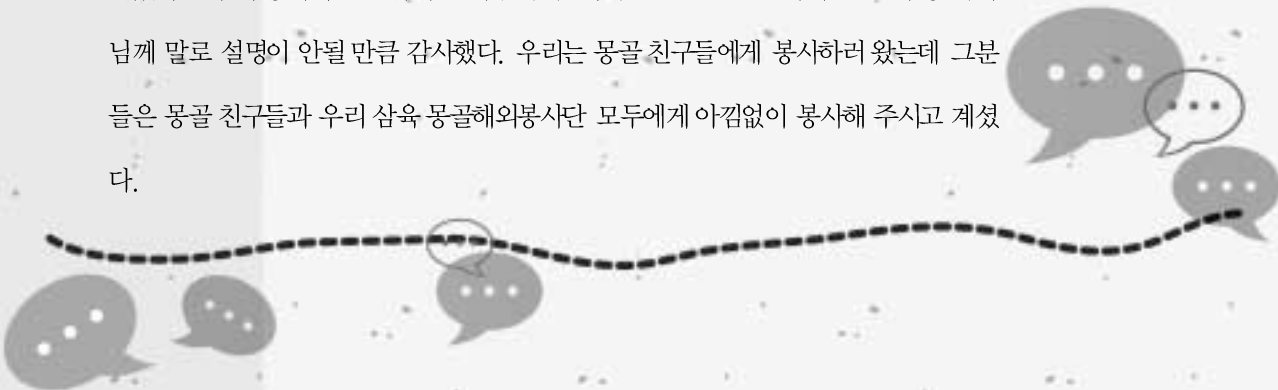
대원
소감문

“하늘이 도운 봉사”

3학년 여름방학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몽골 해외 봉사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설렘을 안고 도착한 몽골.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세관에 봉사 물품을 압수당하고 만 것이다. 바로 다음날부터 봉사활동이 시작되는데 몽골 친구들에게 준비해 온 것들을 전달해 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아졌다. 물품을 반 정도 되찾은 후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출발했다. 다행히도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의 수고로 물품을 많이 되찾을 수 있었다. 봉사를 떠나는 첫날, 모두 피곤한 상태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버스가 숙소로 되돌아왔다. 문제는 우리 학교와 계약을 맺은 몽골 야르막 학교가 다른 봉사 팀과 이중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설렘을 가지고 시작한 봉사 일정이 무산되자 많이 허탈했지만 여행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고 봉사를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태를진 국립공원과 기념탑을 관광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다.

여행 일정이 끝난 후 7월 6일 오후에 야르막 지역의 초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봉사대원들이 모습을 비추자 아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달려 나와 우리를 반겨주었다. 처음 보는데도 어색

함 없이 반겨주는 모습에 봉사자의 불끈 솟아났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라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았다. 봉사 활동 시간은 며칠 안 되지만 그 시간동안 점점 아이들과 정이 들고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문화교실과 미니운동회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따라주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어서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많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또한 점심을 간단하게 먹어야 해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우리 봉사대원을 위해 늘 아침 점심 저녁 40인분을 만들어 주신 현지 강 목사님께 말로 설명이 안될 만큼 감사했다. 우리는 몽골 친구들에게 봉사하러 왔는데 그분들은 몽골 친구들과 우리 삼육 몽골해외봉사단 모두에게 아낌없이 봉사해 주시고 계셨다.



봉사를 마치고 나면 늘 드는 생각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봉사를 한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에게 받는 무언가가 매우 크다. 봉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은 나지만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릴 안아주고 받아준 몽골 어린이들에게 더 큰 봉사를 받았다. 헤어질 때 모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고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 흘리는 모습에 내가 참 잘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인생에 이런 좋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최유림 | 경영학과4학년
한글팀

대원
소감문

“20대 나를 일깨워준 몽골 봉사활동”

우연히 친하게 지내던 은혜 언니를 통해서 몽골로 가는 해외 봉사활동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시큰둥하게 넘어갔고, 무관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게 해준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으면서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아 스스로 너무 도전 없이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여 그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연히 찾아온 이 소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몽골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적었다시피 저는 몽골에 대한 환상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아는 것은 몽골의 전통 주인 ‘마유주’와 유목민족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찾았고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가며 조금씩 관심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차츰 재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전통축제, 그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뜻까지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되었고, 다가가보지 못한 다른 나라보다 더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할까하면서 혼자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한창 이렇게 몽골에 빠지면서,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공부하지 못했던 주의사항을 읽으면서 고대하던 몽골로의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해외를 나간다는 긴장감과 몽골로 봉사활동을 떠난다는 뿌듯함 그리고 기쁨이 겹치면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돌리며 '아~내가 드디어 해외로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몽골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가져간 물품들은 공항에 뺏기고 숙소에서도 몽골인들이 우리 팀원 돈을 훔쳐가고 그렇게 난 몽골인들 인식이 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봉사 갈려 했던 초등학교는 이중계약을 하여서 우리는 봉사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역곡절 끝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은 정말 너무 밝게 우리를 맞이해 주

었습니다.

우리는 총 4일 동안 봉사를 진행 하였는데 첫날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야르막이라는 작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설렁거스? 한국에서 왔냐면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몽골인들은 정말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에 디센터트 팀원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였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한국 전통 게임 동대문 게임, 밀가루 사탕 먹기, 꼬리잡기 등 같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싹트네 같은 율동과 춤도 가르쳐 주었

고 페이스페인팅, 롤링페이퍼 같은 여러 활동을 3일 동안 하였습니다. 한글학교, 문화교실, 태권도 교실, 모든 아이들과 함께 미니운동회, 바자회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딸처럼 생각하던 모락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해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 전까지는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에야 봉사활동의 참된 뜻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0대를 바쁘게 앞으로만 달려오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던 도중에 그동안 놓치고 온 것 중에 하나를 되찾은 느낌이 들어 너무나도 뿌듯 하였습니다.

몽골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제 조금은 천천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놓치고 온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보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

한 길이고 나를 발전시키는 길이란 걸 새롭게 느끼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지금 깨달은 모든 것을 되새기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가 얻어 온 것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학교에서는 외로운 일도 많았고, 친구도 많지 않고 적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잘 다녀왔다는 이유가 정말 마음 착하고 좋은 새로운 친구들을 무려 30여명을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남도 자주하며 친하게 지낼 겁니다.

저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깨닫게 해준 몽골 봉사활동.. 챙겨주신 교수님들과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몽골의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일본, 원예, 신학봉사대

팀 명	일본, 원예, 신학 봉사대	주최학과/부서	일본어과, 원예학과
지도교수	김원곤, 이상복, 이창섭, 윤주연	학생대표	권혁진
봉사국가 (지역, 기관)	일본, 홋카이도	활동기간	2012.6.18 ~ 6.27
파견인원	지도교수 : 4명, 대장 : 1명, 대원 : 31명		
협력및 후원기관	코마자와 대학교	주소/연락처	홋카이도 토마코마이시 쇼지상 67-2583
봉사영역	교육봉사, 문화공연, 원예봉사	봉사대상자	노인, 어린이, 학생, 일반인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창섭			총괄재정	지도교수	이상복			연락, 섭외
지도교수	김원곤			고문, 지도	지도교수	윤주연			문화공연행사
학생대표	권혁진	일본어	4	대장	대원16	박천웅	신학	2	문화공연
대원1	박아름	일본어	1	식사	대원17	이준영	신학	2	문화공연
대원2	이지민	일본어	3	재무, 문화공연, 한글교실	대원18	고은별	원예	2	원예, 문화공연
대원3	심예진	일본어	2	어린이프로그램	대원19	심지영	원예	2	원예, 문화공연
대원4	오재혁	일본어	1	문화공연, 한글교실	대원20	조정훈	신학	2	문화공연
대원5	한재열	일본어	1	문화공연	대원21	강선우	원예	1	원예, 문화공연
대원6	구혜연	일본어	3	문화공연, 통역	대원22	박상혁	원예	1	원예, 문화공연
대원7	백의영	일본어	3	문화공연	대원23	김수완	원예	1	원예, 식사, 문화공연
대원8	박슬기	미술컨텐츠	3	문화공연, 한글교실	대원24	장한솔	신학	2	문화공연
대원9	김홍현	일본어	4	총무, 식사, 문화공연	대원25	이희태	신학	4	총무, 통역, 한글교육
대원10	이은철	일본어	4	문화공연	대원26	한동규	신학	2	문화공연
대원11	윤세빈	일본어	2	어린이프로그램	대원27	정진희	일본어	3	문화공연
대원12	양희윤	일본어	2	어린이프로그램	대원28	김병조	일본어	4	문화공연
대원13	이선주	일본어	2	어린이프로그램	대원29	김지은	일본어	2	문화공연
대원14	강서윤	일본어	2	어린이프로그램	대원30	윤보라	원예	2	문화공연, 한글교실
대원15	강재욱	보건복지	2	문화공연, 식사	대원31	박현주	일본	4	문화공연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결과 (참여인원)
1	문화교류	6/19	코마자와대학	일본학생들과 문화교류	32
2	문화공연	6/19	양로원	양로원에서 문화공연	32
3	교회봉사	6/19	미츠보시회관	음악회, 문화공연	32
4	문화교류	6/20	코마자와대학	일본학생들과 문화교류	32
5	문화공연	6/20	마을회관	문화공연, 음악회	32
6	문화공연	6/25	아오조라유치원	문화공연, 음악회	32
7	문화공연 교육봉사	6/25	메이도쿠초등학교	문화공연, 교육봉사	32
8	원예봉사	6/25	숙소	제초작업, 꽃밭 가꾸기	32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 총평가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교수님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	학생대표 역할	리더로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모든 대원들이 하나 아도록 잘 이끌어줌
학생대원 소양	모든 대원들이 협력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완수함	현자반응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문화공연을 하고 봉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좋아함
숙식 및 생활여건	많은 수가 자기에 좁은 감은 있었지만 모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좋았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일본은 치안과 안전이 매우 잘 돼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음
잘된점	준비된 순서들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었음, 모두가 맡은 역할을 잘 완수해 줌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음
개선(보완) 사항	숙소가 좀 더 넓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일본이라서 특별히 문화공연이 많았고 봉사활동이 적었던 점	총평	방학을 막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헌신적으로 해줘서 잘 준비해 마치고 돌아옴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18	오전	출국	6/23	오전	교회봉사 (토마코마이, 삿포르, 하코다테)
	오후	입국		오후	홈스테이
6/19	오전	코마자와 대학 문화교류	6/24	홈스테이(3인 1조 일본인 각 가정에서)	
	오후	양로원 봉사			
6/20	오전	코마자와 대학 문화교류	6/25	오전	아오조라 유치원 문화공연
	오후	오지제지 공장 방문		오후	메이도쿠 초등학교 문화공연 원예봉사
6/21	문화탐방 (지옥의 계곡, 토야코, 온천, 오테루)		6/26		문화탐방(삿포르 시내)
6/22			6/27		귀국

일본 봉사대



▶ 양로원 문화공연 - 태권도



▶ 원예봉사



▶ 아오조라 유치원 문화공연 - 각춤



▶ 메이도쿠 초등학교 교직원봉사



▶ 유치원 문화공연



▶ 도마코마이 코마카와 대학교 문화교류 중



▶ 문화공연- 부채춤



▶ 양로원 공연 끝나고 단체사진



▶ 문화공연을 관람하시는 어르신들



▶ 메이도쿠 초등학교 봉사-K-POP 가르치기



▶ 유치원 봉사-단체사진



▶ 유치원아이들



▶ 부채춤 공연



▶ 양로원공연에서



일본어과이상복

지도 교수
소감문

“훗카이도 봉사대를 다녀와서”

처음 봉사대 결성을 할 때 20명 정도 예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32명(보건관리학과, 미술컨텐츠학과, 신학과, 일본어과)의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프로그램 조율에서부터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 꼼꼼하게 시간 배분에서 앉을 자리까지 미리 배정해 놓기를 바라는 국민성 때문에 조금은 귀찮았다. 특히, 32명의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가정 섭외는 무척 힘들었다.

고마자와 대학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 교류의 장을 가졌다.

한국거류민단에서는 단체 식사 대접을 두 번이나 해 주셔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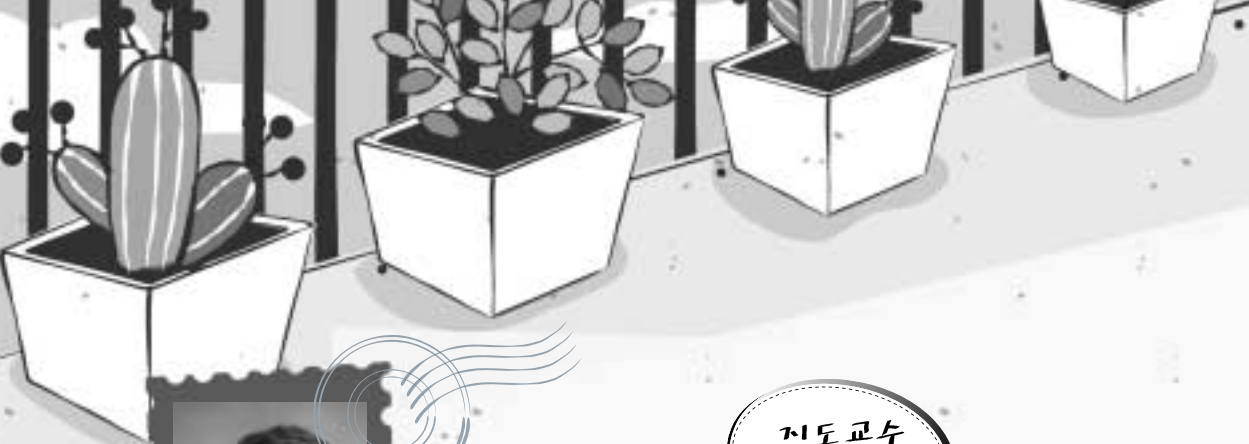
특히, 홈스테이 경험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아주 큰 추억이 될 것이다. 각 가정에서의 분에 넘치는 환대에 모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삼육대학을 방문해 주시면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어떤 학생은 공항까지 나오셔서 선물까지 챙겨 주심에 할 말을 잊었다며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도 눈물을 글썽였다는 뒷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봉사활동으로, 양로원(노인 80명)과 구민회관(도키와초나이 90명), 아오조라 유치원

(원생 306명)과 메이도쿠 초등학교(3,4,5,6학년170명) 학생들에게 한국을, 특히 삼육대학을 알리는 큰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미쓰보시 문화교류 (60명)에서도 삼육대학 봉사대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도마코마이 신문사에서는 두 번에 걸쳐 기사화했다. 갑자기 도마코마 이시 전체에 삼육대학의 열풍으로 대단했다. 문화 공연은 태권도, 부채춤, 탈춤, 연극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부채춤과 피아노, 바이올린, 하프 등의 공연을 통해서도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봉사대 학생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잘 정리된 팀워크로 모든 학생이 봉사하는 기쁨을 두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했으며, 일본인들의 친절함에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교목처 | 윤주연

지도 교수
소감문

“일본을 다녀와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컫는다. 나에게 있어서도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정말 가까운 나라이지만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던 마음으로는 아주 먼 나라였다. 지금 와서 생각되기는 처음 방문하는 일본을 봉사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번 일본 홋카이도 봉사대는 일본어학과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지만 총 5개 학과의 학생들이 교류 참여 아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특색 있는 봉사대였다.

우리는 일본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이라는 지역에서 다채로운 봉사 9박 10일이라는 기간을 보냈다.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코마자와 대학생들과의 공개수업을 통한 문화교류,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삼육대학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였으며 도마코마이, 삿포로, 하코다테 이 세 지역의 협력기관에서 우리의 문화를 전하였다.

한국에서 처음 일본으로 봉사대를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봉사를 다녀온 지금 그런 생각들

이 봉사의 영역을 너무 좁게 생각한데서 비롯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봉사를 간 우리 대원들이나 일본 현지에서 만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일본봉사를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말 값지고 귀한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봉사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일본이 마음 한편에 문득 문득 생각날 즈음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다. 편지는 다름 아닌 내가 일본에서 말씀을 전했던 도마코마이에서 만난 한 인연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과연 무슨 편지일까 급하게 편지를 뜯어본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히 일본에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시던 분이셨는데 편지를 한국어로 써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편지를 두는지 정말 그림과 같은 그 편지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여 한국어로 편지를 써주신 그분의 마음에 정말 감동했다.

이번 일본 봉사대를 통해서 우리 봉사대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SGS500의 비전에 따라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의 봉사와 공연을 통하여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전하게 된 것 같아 정말 기쁘고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우리 봉사대원 전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냄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데 첫 발걸음을 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도교수로 참석한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번 일본 봉사대를 통하여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기에 너무나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앞으로 또 일본에 방문하게 될 일이 언제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꼭 일본어로 삼육대학

과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가 되고 싶다.

다 같이
브이~



An illustration at the top of the page shows several potted plants in white square pots. A speech bubble with a dashed border contains the text '학생대표 소감문'. To the left of the speech bubble, there is a dark, irregular shape with a scalloped edge, containing the text '권혁진 일본어과 4학년 학생대표, 문화공연'.

권혁진

일본어과 4학년

학생대표, 문화공연

학생대표
소감문

“일본을 다녀와서”

여느 팀들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유롭게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바로 출발이었다. 그러하기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시험기간에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봉사대를 준비하였기에, 팀원들의 불만은 넘치는 상황이었다. 아무래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순탄치만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역사적 문제가 많은 나라, 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봉사를 반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 하였기에 준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옳았다. 이들에게도 봉사할 것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머무를 집은 작은 집이었다. 30명이 넘는 인원이 머무르기엔 작았기에 두 곳에 나눠 생활을 하였다. 아무래도 문제가 여자들이 많았기에 여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최대 문제로 삼았다. 많은 남학생들은 그것에 동의하였고 멀지만 10분씩을 오가며 화장실을 다녔고 그 덕분에 여학생들이 조금은 편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일본에서 한 주된 봉사는 문화교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두 곳에서

한 문화공연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우선 지역대표들의 회의장에서 한 문화공연이다. 문화공연 준비는 정말 열심히 준비 하였기에 그 무엇보다도 자신 있었다. 먼저 탈춤 부채춤으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동시에 젊음을 강조 하였다. 우리가 준비한 탈춤 부채춤은 정통적이지만 젊음을 강조하기 위해 음악의 선택이나 복장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의 음악공연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그 다음은 태권도, 태권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가라데라는 자신들 만의 무술이 있기에 어찌 볼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었지만 품새 격파시범을 보여줌으로 일본사람들의 눈과 입에는 환성과 환희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원래는 태권도를 맡았지만 첫날에 급작스럽게 레크리에이션을 맡아서 계속 진행 하게 되었다. 일본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반응이 없지만 이날만은 정말 크게 웃어주고 박수도 많이 받았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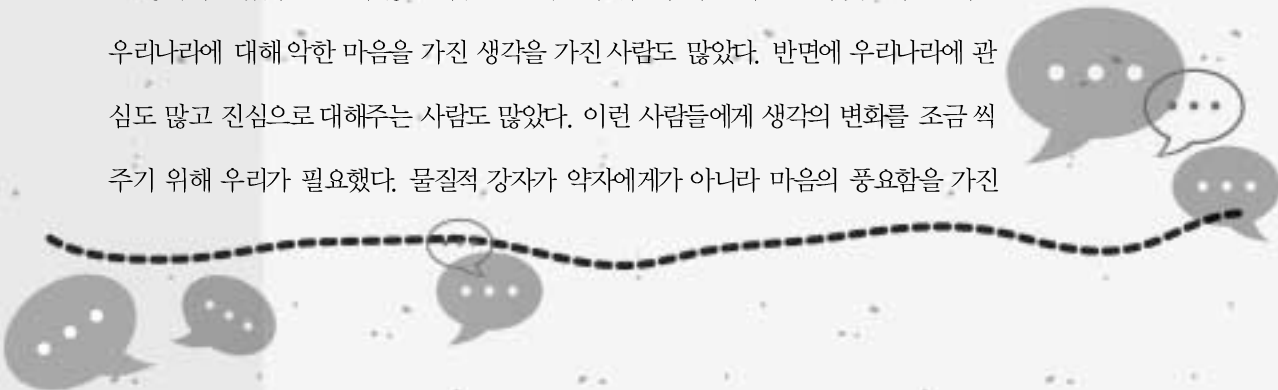
리고 성황리에 끝을 내고 일본 지역 분들에게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다. 정말 최고였다고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등등,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양로원에서의 공연이다. 나이 연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준비를 해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생각보다 연세가 지긋하시고 혹은 거동조차 불편하셨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새롭게 짜내 공연을 보여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에 방문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마음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였다.

너무나 우리를 손자 손녀처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 할머니가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몇 명의 노인 분들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우리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두 공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리랑이었다. 공연의 끝을 무대에 오른 우리가 손을 맞잡고 부르는 아리랑을 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일본인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본의 봉사는 다양한 차이를 느끼게 해줬다. 정말로 가깝고 먼 나라구나 느끼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교감이 가능하다 이것이 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독도와 위안부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관심도 많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많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각의 변화를 조금씩 주기 위해 우리가 필요했다. 물질적 강자가 약자에게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함을 가진



사람이 풍요함을 같이 느끼기 위해 손을 내밀기 위한 것이 봉사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인 문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로 융합시켜가는 매개체를 한 봉사였다. 아직 일본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살지 몰라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러한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일회성의 봉사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봉사가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 됨을 보여주고 싶다.



구혜연 | 일본어학과3학년
한글교육, 문화공연, 통역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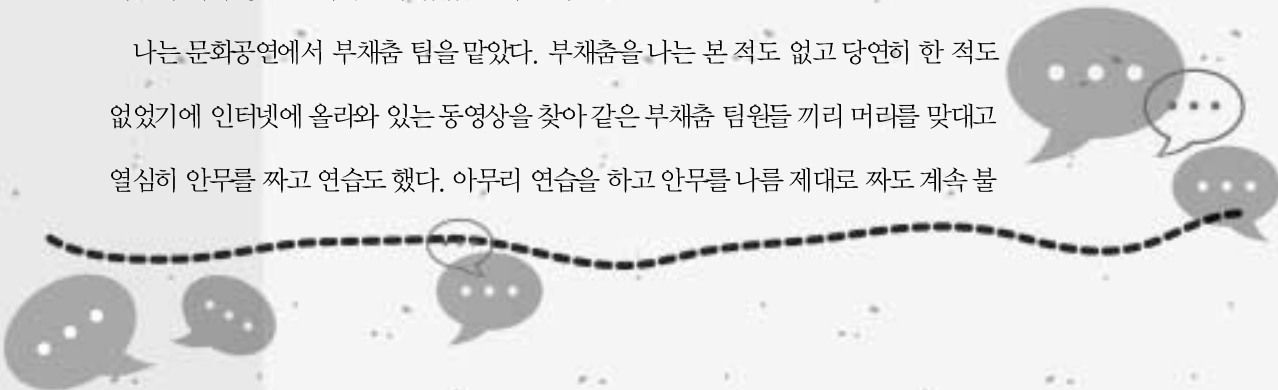
“もう一回(다시 한 번)”

봉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물질적인 봉사, 물질과 정신이 같이 있는 봉사, 오로지 정신적인 봉사도 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미 선진국의 하나인 일본에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였을 때의 주위의 반응은 “누가 일본에 봉사활동을 가니?”, “그거는 갔다 와도 어디 스펙이라고 내 놓지도 못하겠다.”였다. 일본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의 나의 생각도 이들의 생각과 별 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본어과의 일원으로서 그저 일본이 가고 싶어 처음엔 이 봉사대를 신청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해외 봉사단들이 물질적인 봉사와 정신적인 봉사는 같이 했다면 우리 일본 봉사대 팀은 철저히 정신적인 봉사를 하고 왔다.

일본팀은 관광만 하고 왔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어느 한류스타도 우리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 정신적인 봉사라는 것은 교감이었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부해보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지라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채워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는 정신적인 봉사로 방향을 정해 문화공연을 준비했다. 6월 18일에 출국이라 이 기간 땀 기말 고사 바로 끝났던 주였고 시험기간 전부터 태권도 팀, 탈춤 팀,

부채 팀, 연극 팀, 음악 팀 이렇게 크게 나뉘어 각자 맡은 일에 성심껏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해 다들 불안해 있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만들었지만 과연 이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불안감이 점점 불만으로 표출이 되 봉사대가 떠나기 전까지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에 가서가 아닌 떠나기 전에 터진 불만들이라 서로서로 얘기도 하며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다들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놓기 시작해 일본 가서는 무사히 공연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 같다.

나는 문화공연에서 부채춤 팀을 맡았다. 부채춤을 나는 본 적도 없고 당연히 한 적도 없었기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찾아 같은 부채춤 팀원들 끼리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안무를 짜고 연습도 했다.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안무를 나름 제대로 짜도 계속 불



안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의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줄까 하는 점이였다. 처음 무대를 서면 반응이 어떨지도 알기에 일본에서의 처음 부채춤 무대는 너무나 큰 긴장감에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었다.

첫 무대는 양로원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갑자기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피로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뜬금 없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긴장하고 실수 하고 있는 우리들을 귀여운 손자들 보듯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다. 첫 번째 공연이 무사히 끝나고부터 문화공연을 하는 팀들은 점점 무대 위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실수를 하여도 그 자체가 즐거워 어쩔 줄 모르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양로원, 토마코마이 회관, 유치원, 초등학교 많은 곳에서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고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교류하기 위해 갔던 일본 봉

사가 점점 그들만 정신적으로 따뜻해지게 하는 것이 아닌 나까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봉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항상 문화공연 봉사활동 뒤에는 모두들 숙소의 마루에 옹기종기 앉아 자신들이 느낀 감정들을 터놓는 평가회가 있었는데 나뿐만이 아닌 모든 봉사대원들이 같은 경험을 하였고 다들 좀 더 유순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들 정신없이 문화공연을 하고 반복되는 경험을 했기에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고 홈스테이를 하는 기간이 다가왔다. 토, 일요일만 일본의 가정으로 가서 진짜 그들과 교류를 하고 오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다들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본어과 한명과 다른 과 한명이 총 2명이 한 팀이 되어 각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여자아이 한 명만 원하는 집에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일본어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 혼자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 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해서 문화공연을 하면서 차리리 혼자 홈스테이를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안심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왕 혼자 가게 된 김에 노부부가 계신 곳에 가게 되기를 하고 빌었다. 홈스테이 당일 다른 친구들 하나 둘씩 홈스테이를 하게 된 곳의 분들이 데리러 와주시고 점점 이러다 내가 마지막 까지 남는 것은 아닌지 하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일박 이일 동안 신세를 지게 될 가정의 분들이 나를 데리러 와주셨다. 노부부를 바랐던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2살 남자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다. 내가 노부부를 바랐던 큰 이유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신이 없어서였는데, 2살 남자아이를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날 듯한 당황함을 느꼈다. 하지만 다행이도 아기가 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닌 계속 꼭 내 옆에 붙어있어 주

있고 아기의 그런 친근함에 나도 더욱 긴장감을 풀게 되었고 젊은 부부도 나의 그런 모습에 안도하시며 정말로 친딸처럼 이것저것 일본의 문화를 겪게 해주고 싶어 하셨다. 곧 한국으로 여행을 오신다는 말씀에 나는 한국어행에 유용한 팁을 알려주고 먹을거리나 기념품으로 무엇이 좋은지 등을 자세히 적어드렸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교류일 수 있겠지만 왠지 나에겐 그런 어려운 말보단 그저 오랫동안 연락을 끊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다. 이 기분을 잊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해 갈 생각이다. 홈스테이도 갔다 와서 모두들 숙소 마루에 모여 평가회를 가졌는데 다들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 갔다 기 보단 너무나 대접을 받고 와서 큰 감사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왔다고들 말했다. 말 그대로 일본의 모든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모든 다 사주고 싶어 하셨기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공존해

더욱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마음 한 켠에 잡혔다.

계속 되는 힘든 문화공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은 느낌이었다.

이것을 쓰고 있는 오늘도 나는 아르바이트에서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무슨 봉사를 했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게 말이예요. 라고 일본으로 봉사활동을 가기 전의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사히 갔다온 지금 나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봉사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닌 정신적인 봉사도 있어요. 우리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따뜻함을 주고자 하였고 주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주어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보낸 미소들이 반대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힘들긴 했는데 잘 갔다 온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강재욱 | 보건관리학과 2학년
식사 문화공연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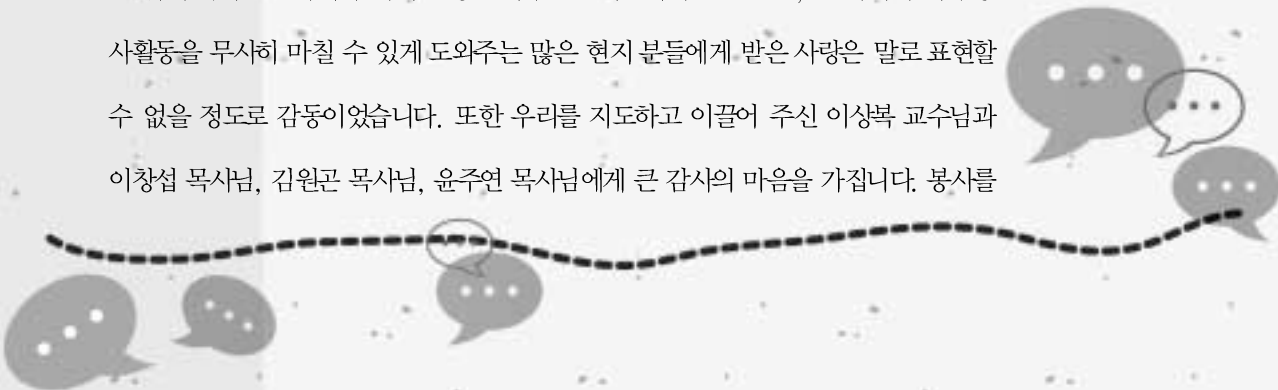
“봉사대를 다녀와서”

처음 일본으로 봉사대를 가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봉사할 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금방 변하였습니다. 저는 봉사란 것이 단순히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로 가서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호키이도 봉사를 통해 봉사란 것은 단순히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교류 또한 봉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한 봉사 활동은 문화공연이었습니다. 문화공연은 탈춤, 부채춤, 태권도, 우리말 퀴즈, 연극, 4중창, 플룻과 바이올린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들은 도마코마이 시의 민단, 양로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문화공연은 양로원에서 문화공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양로원에서 문화공연을 하면서 왜 일본에 와서 봉사를 하는지, 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양로원에서의 공연이 끝나고 인사를 하고 어르신과 인사하는 시간에 할머니 한 분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봉사대원들에게 큰 감화가 되었습니다. 단지 잘사는 나라라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

니다. 단순히 물질 봉사만이 봉사가 아니라 정서적, 마음으로 다가가는 봉사가 말로 진정
한 봉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10일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길은 봉사기간 동안, 봉사를 통해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전해준 것 보다 내가 받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선뜻 받아주시고, 두 집 사이를 수도 없이 자동차로 다니면서 우
리를 데리러 다니시고, 다양한 사건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쳤을 나카무라상, 또 우리
를 위해 식사뿐만 아니라 여러 일정을 짜주신 도마코마이 민단 분들, 그 외에 우리가 봉
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현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이상복 교수님과
이창섭 목사님, 김원곤 목사님, 윤주연 목사님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봉사를



하면서 신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보다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홈스테이에서 처음 경험한 정, 그
동안 내가 정말 많은 여행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
다. 말로, 유희적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마음까지 주고받고 말은 안통해도 마음
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사기간동안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보답
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위해 노
력하고 꿈을 꾸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희윤 | 일본어과2학년
어린이 교육 레크리에이션, 사진담당

대원
소감문

“9박 10일간 받은 것들”

2012년 여름방학. 나는 이 여름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일본 해외봉사를 신청했고 가게 되었다. 봉사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모이고 회의를 하며 나는 이번 봉사를 무사히 끝마쳤으면 좋겠다, 우리 과 외의 타과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이번 해외봉사는 그런 내 생각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봉사가 몇 몇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저녁, 어느 마을회관에서 한 봉사였다. 우리는 문화공연과 문화공연 틈새의 레크리에이션 등을 선보였다. 우리는 봉사와 더불어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문화 공연을 특창, 부채춤, 탈춤, 태권도 등의 한국적인 공연들로 프로그램을 짰다. 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연 당시에는 사진 촬영을 맡았는데 일본에 온지 3일째 되니 봉사를 하는데 렌즈 너머로 비추어지는 친구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 모습이 너무 예쁘고 흐뭇해서 절로 미소가 다 지어졌다. 특히 첫 날 양로원 봉사에 비해 조금 익숙해진 것인지 실수도 줄고 웃으면서 공연하는 모습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였다. 아쉬움도 살짝 있었다. 나도 내가 구성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싶고 나도 사진에 찍히고 싶었는데 나는 사진 담

당을 맡아서 내가 봉사대원들의 모습을 담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봉사대원들을 담는 뿌듯함도 있었다. 이 회관에서 봉사를 할 때 울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단체로 아리랑을 부르는 순서였다. 나는 무대 밑에서 촬영을 하고 모두 올라가서 아리랑을 부르고 손을 흔드는데 내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올려다보니 눈가가 축축하신 채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시는데 웬지 모르게 가슴이 찡해서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공연이 끝나고 인사할 때도 어르신 한분이 너무 감사했다고 연이어 말하는데 진짜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꼭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봉사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마지막 날 봉사인 아오조라 유치원 봉사였다. 아오조



라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귀엽고 착했다. 하지만 그 천사 같은 얼굴에 반전적인 체력을 숨기고 있었다. 공연 시간 전에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데 이렇게 놀다가 탈진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의 체력은 무한이었다. 이곳에서 놀다가도 어느새 저곳으로 가지하고 또 다른 거하자하면서 유치원 앞을 그렇게 살살이 돌아다녔다. 그 와중에도 손을 꼭 붙잡고 안 놓는 것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내가 외국인이라고 말도 천천히 해주고 아이가 뭐하고 싶냐고 묻는데 얼마나 착한지 감동 그 자체였다. 아이들과 놀이 시간이 끝나고 공연을 할 때 아이들의 질서정연함에 또 놀랐다. 한창 말 안들을 나이인데도 흐트러짐 하나 없는 모습이 일본의 질서 정연함을 또 한 번 느끼게 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멀리서 온 우리에게 감사하다며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날 정

도로 감동적이었다. 아이들의 노래는 음도 일정하지 않고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는데 큰 소리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보니 웬지 모르게 그 순간에 봉사라는 것이 정말로 주는 것뿐이 아니라 받는 것이 정말 많구나,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아직도 정확히 설명이 못하겠지만 이번 봉사대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고 가는구나, 받은 게 이만큼이나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도 가득 찬 기분이었다.

이렇게 봉사 외에도 친절한 일본인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마음을 나누려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고 간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 힘든 것은 잠깐이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오래 남았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언어의 장벽 또한 아무런 문

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대화를 했었다. 일본에서 한 봉사, 만난 인연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이 모두가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고 기쁨이 되었다. 이 너무나 많이 받은 기쁨을 또 어딘가에 나누고 싶다.

인도통합A팀(GATE)

팀 명	인도통합A팀(GATE)	주최학과/부서	물리치료학과/건축학과
지도교수	이병희, 이태은, 김은배, 양종호	학생대표	한국화
봉사국가 (지역, 기관)	인도 벵갈로르(BENGALURU)	활동기간	2012.7.15 ~ 7.26
파견인원	지도교수 : 4명, 대장 : 1명, 대원 : 23명, 기타 : 1명		
협력및 후원기관	Southern Asia Division, 1000MM center	주소/연락처	Southern Asia Division: Hosur 635110, Tamil Nadu, India. 배진성 070-7752-0063
봉사영역	교육봉사, 의료봉사, 망고나무 심기 등	봉사대상자	타밀 나두(Tamil Nadu)시의 호슬 (Hosur)지역 주민, 초·중·고 학생들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병희	물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이태은	건축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양종호	교양병경		지도교수	지도교수	김은배	신학과		지도교수
교직원	유다혜	홍보팀		사진촬영	대원3	김진아	건축학과	1	대원
학생대표	한국화	물리치료학과	3	학생대표	대원4	이민철	물리치료학과	3	의료팀장
대원2	이덕현	생활체육학과	3	교육팀장	대원5	남대현	물리치료학과	3	의료봉사
대원3	김진철	건축학과	4	건축팀장	대원16	변성미	물리치료학과	3	의료봉사
대원4	이명훈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7	김지선들	간호학과	3	의료봉사
대원5	양은영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18	하승환	물리치료학과	3	의료봉사
대원6	이웅열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19	백승윤	물리치료학과	1	의료봉사
대원7	최영수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20	이지영	물리치료학과	1	의료봉사
대원8	채춘성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21	육성희	물리치료학과	1	의료봉사
대원9	이중원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22	조재인	물리치료학과	1	의료봉사
대원10	유상현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23	윤성민	동물생명학과	4	의료봉사
대원11	최준혁	건축학과	1	교육봉사	대원24	한규성	신학과	4	의료봉사
대원12	이수범	건축학과	1	대원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교육봉사	7/16~7/21	초, 중, 고등학교, 켈라만갈람 첸나티 마을	어린이 교육봉사 프로그램 (체력측정, 팝콘만들기, 풍선만들기, 제기차기, 페이스페인팅, 공놀이 등)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손이나 얼굴이 그림도 그려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체력측정을 통해 그동안 아이들이 해보지 못한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원 24명 어린이: 3000명
2	무료진료	7/16~7/20	켈리만 갈람 첸나티 마을	인도 위생병원과 협력하여 무료진료 실시 - 현지 의료진 참여하여 진료 - 물리치료는 본 대원이 실시 - 마을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무료진료 실시(약처방, 마사지, Dressing, 상처관리, 보건교육 등)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을 처방해 드리고 물리치료를 해 드렸는데 환경 때문에 한 분 한 분 오랜 시간 치료해 드리는 못했지만 치료가 끝날 때 마다 고맙다고 인사해주셔서 보람되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원 24명 마을주민: 300명
3	현지 문화체험 및 가정방문	7/16~7/20	켈리만 갈람 첸나티 마을	무료진료 및 교육봉사 시 인근에 있는 현지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현지 음식 나눠먹기, 현지인들의 생활방식 체험하기 등을 통한 현지 문화체험 실시 예정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나눠먹는 시간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원24명 어린이: 250명
4	보건교육 및 건강세미나	7/16~7/20	켈리만 갈람 첸나티 마을	건강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및 건강세미나 실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녁 때 강의를 해 드렸는데 매일 꾸준히 참석 해주시고 현지 분들이 특창도 해주셔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순조롭게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원24명 마을주민: 12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1	인종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봉사기간동안 학생들이 힘들지 않도록 매일 응원 해 주시고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 주셔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대표 역할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도교수님들의 조언과 팀장들의 도움으로 봉사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대원들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어 어려움 없이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대원 소양	봉사기간동안 대원들 간에 잘 협력하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생활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열심을 다 하였고 투정부리는 인원 없이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현지반응	삼육학교에서 체력측정을 통해 아이들이 그들의 키, 몸무게, 유연성, 근력 등을 측정할 수 있었고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는 어린이프로그램과 집집방문을 통해 아이들과 친숙해 질 수 있었고, 마을 계몽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숙식 및 생활여건	Southern Asia Division, 1000MM center 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안전하게 숙식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봉사 장소는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는 동안 center에 계시는 목사님의 도움과 현지인의 도움으로 안전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잘된점	우리 대원들의 수에 비해 많은 학생들과 마을 주민 분들께 봉사를 했지만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무 어려움 없이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마을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개선(보완) 사항	무료진료를 해 드리는 곳이 인원수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여 진행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평	봉사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 해주었고 지도교수님들과 현지에 계신 분들께서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15 일	오전	8:30 인천공항 집합 11:00 비행기탑승 KUALA LUMPUR 로 출발	7/21 토	오전	7:30 기상 및 아침식사 9:30~11:00 Southern Asia Division, 1000MM center 내에 영어 학원교회 방문 11:00~12:00 영어학원교회와 병원교회로 나누어져 예배참석
	오후	5:35 KUALA LUMPUR 도착 10:10 BENGALURU 로 출발 11:40 BENGALURU 도착		오후	12:00~1:00 점심식사 1:00~4:30 어린이프로그램 준비 및 소 감문작성 4:30~6:00 어린이프로그램 6:00~7:30 아이들과 7:30~9:00 저녁식사 9:00~10:30 총평 10:30 취침
7/16 월	오전	3:00 Southern Asia Division, 1000MM center 도착 7:00 기상 및 아침식사 8:00 삼육 초중고학교로 출발 9:30~10:30 중고등학생 기도주일 10:30~12:30 체력측정 및 어린이 프로 그램	7/22 일	오전	4:00 델리로 출발 11:30 델리 도착
	오후	12:30~1:30 점심식사 1:30~2:30 초등학생 기도주일 2:30~3:30 어린이프로그램 3:30~4:30 켈라만갈람 첸나티마일로 이동 4:30~6:00 집집방문 및 어린이프로그램 6:00~7:30 마을 계몽 프로그램 및 가정방문 8:30~10:00 귀가 및 저녁식사, 총평 10:00 취침		오후	12:30~1:30 점심식사 2:00~3:00 국립박물관 견학 3:30~4:00 연꽃사원 구경 4:00~9:00 아그라로 이동 9:00~10:00 저녁식사 10:00 취침
7/17 화	오전	7:00 기상 및 아침식사 8:00 삼육 초중고학교로 출발 9:30~10:30 중고등학생 기도주일 10:30~12:30 체력측정 및 어린이 프로그램	7/23 월	오전	7:00 기상 및 아침식사 8:30~11:30 타지마할 구경 11:30~12:00 붉은성 구경
	오후	12:30~1:30 점심식사 1:30~2:30 초등학생 기도주일 2:30~3:30 어린이프로그램 3:30~4:30 켈라만갈람 첸나티마일로 이동 4:30~6:00 집집방문 및 어린이프로그램 6:00~7:30 마을 계몽 프로그램 및 가정 방문 8:30~10:00 귀가 및 저녁식사, 총평 10:00 취침		오후	12:00~1:00 점심식사 1:30~7:00 자오프로로 이동 7:00~8:00 저녁식사 8:00~10:00 시장구경 10:00 취침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18 수	오전	7:00 기상 및 아침식사 8:00 삼육 초중고학교로 출발 9:30~10:30 중고등학생 기도주일 10:30~12:30 체력측정 및 어린이 프로그램	7/24 화	오전	7:00 아침식사 8:00~10:00 이슬람교왕이 세운 왕궁 구경 10:30~11:30 천문대 구경 11:30~1:00 시장구경
	오후	12:30~1:30 점심식사 1:30~2:30 초등학생 기도주일 2:30~3:30 어린이프로그램 3:30~4:30 켈라만갈람 첸나티 마을로 이동 4:30~6:00 집집방문 및 어린이프로그램 6:00~7:30 마을 계몽 프로그램 및 가정방문 8:30~10:00 귀가 및 저녁식사, 총평 10:00 취침		오후	1:30~2:30 점심식사 2:30~3:30 현대 미술관 구경 3:30~9:00 델리로 이동 9:00~10:00 저녁식사 10:00 취침
7/19 목	오전	7:00 기상 및 아침식사 8:00 삼육 초중고학교로 출발 9:30~10:30 중고등학생 기도주일 10:30~12:30 체력측정 및 어린이 프로그램	7/25 수	오전	7:00 아침식사 8:30 공항으로 출발
	오후	12:30~1:30 점심식사 1:30~2:30 초등학생 기도주일 2:30~3:30 어린이프로그램 3:30~4:30 켈라만갈람 첸나티 마을로 이동 4:30~6:00 집집방문 및 어린이프로그램 6:00~7:30 마을 계몽 프로그램 및 가정방문 8:30~10:00 귀가 및 저녁식사, 총평 10:00 취침		오후	12:45 KJALA LUMPUR 로 출발 8:45 KJALA LUMPUR 도착 11:30 한국으로 출발
7/20 금	오전	7:00 기상 및 아침식사 8:00 삼육 초중고학교로 출발 9:30~10:30 중고등학생 기도주일 10:30~12:30 체력측정 및 어린이 프로그램	7/26 목	오전	7:30 한국도착 9:00 해산
	오후	12:30~1:30 점심식사 1:30~2:30 초등학생 기도주일 2:30~3:30 어린이프로그램 3:30~4:30 켈라만갈람 첸나티 마을로 이동 4:30~6:00 집집방문 및 어린이프로그램 6:00~7:30 마을 계몽 프로그램 및 가정방문 8:30~10:00 귀가 및 저녁식사, 총평 10:00 취침			



▶기도 주일을 전행하는 모습



▶문화활동



▶편곤맛들기를 하는 모습



▶기도주일 때 노래를 리드하는 대위들



▶레이스패튼임을 배우는 대위들



▶아이들과 타일도 수업을 전행



▶ 유연성 검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



▶ 100m 달리기를 하는 학생들



▶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



▶ 윗몸일으키기 시범을 보여주는 선생님들



▶ 100m 달리기를 하는 학생들



▶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는 선생님들



▶ 마를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하는 중



▶ 물리치료 해드리신 이병철 교수님



▶ 아이들과 태권도 수업을 진행



▶ 팔콘 만들기 하는 모습



▶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하는 중



▶ 아이들과 함께 집집방문 하는 교수님과 대학생들



▶ 집집방문 가기전 모여있는 대학생들과 아이들



▶ 집집방문을 가는 대학생들



▶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학생들



▶ 마을 주말과 함께~



▶ 마을 어린이들 집을 방문



▶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은배 목사님



▶ 특창을 하고 있는 마을 아이들



▶ 세미나를 들기 위해 모여있는 아이들과 주막들



▶ 김은배 교수님과 통역봉사해주시는 현지분



▶ 아이들과 풍선 만들기





▶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대원들



▶ 풍선 나누어주기



▶ 마을 학생들과 대원들



▶ 마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원



▶ 풍선 만들어주는 대원들



▶ 망고나무를 심고 있는 대원들



▶ 그들과 열매를 주기 위해 심은 망고나무



▶ 아이들을 위해 배드민턴 라켓을 선물



물리치료학과 | 이병희

지도교수
소감문

“가면 갈수록 그리움이 깊은 나라... 인도”

지난해 12월 인도 벵갈로르 지역으로 봉사대를 다녀온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때만 해도 이번 봉사대가 마지막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인도가 그리워지고... 인도 봉사대를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이번이 벌써 4번째이다. 늘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뿐이다. 몇 차례의 인도 봉사대 경험을 바탕으로 3월부터 에어인디아 50좌석을 확보해 놓고 인도 남부의 벵갈로르 지역으로 봉사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5월초 에어인디아가 파업을 하더니 5월말이 되니 급기야 항공권을 취소하라는 통보가 왔다. 급하게 말레이시아 항공으로 예약을 하고... 다시 봉사대를 추진하였다. 6월 중순... 기말고사를 마치고 바로 인도비자 신청에 들어갔다. 2팀으로 나누어 도서관 정보검색실에 모여 인도비자 신청을 하였다. 속으로 궁시령 궁시령 거리며... 어렵게 인도 비자신청을 하며... 하는 말... 인도대사관은 배짱이구나...

7월초... 인도 대사관은 특별한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한국내 인도대사관은 하루에 비자를 250개만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배낭여행 성수기에 비자 250개라... 우리 팀만도

29명인데...

우리가 6월 중순에 어렵게 비자신청을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젠 문제는 국내선 항공권이었다. 에어인디아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왕복 국내선이 15만원 이내로 저렴하게 구입가능하지만.... 국제선은 말레이시아 항공을 이용하고 국내선을 에어인디아를 이용하여 방갈로르에서 델리로 이동할 경우 편도 250,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 학생들의 부담이 20만원 정도 증가될 상황이다. 결국 우리는 저가 항공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인도는 저가 항공사가 10여개가 있어 구입할 수 있었다.

인도 봉사대를 다녀온 지금... 난 다시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필요를 준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다. 인도는 생각보다 버스 대여료가 비쌌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편도 요금이 300달러이었다. 매일 29명의 대원들이 숙소에서 봉사 장소까지 이동할 경우 버스가 필요했으며, 버스를 대여할 경우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만... Southern Asia Division의 R. John 지회장과 인근 학교버스를 이용하여 봉사할 수 있었다.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은 2곳의 학교와 학교 주변 마을 사람을 위한 봉사였는데... 오 전에는 호실에 있는 higher secondary school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 학생들을 위하여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와,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페이스페인팅, 전통놀이, 태권도 교실, 팝콘 등을 만들어 학생들과 즐거운 활동을

통해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chinatti school 과 주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도 위생병원 의료진과 함께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는데, 진료는 현지인 의사 2명과 간호사 등 의료진이 도와주었고, 물리치료는 우리 대원들이 담당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교육과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유실수 30여 그루를 심어주어 나무가 자라면서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기를 기도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문화체험을 하는 대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였다. Southern Asia Division과 1000MM India, 그리고 삼육대학교 GATE 통합팀 29명이 함께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및 과일나무 심어주기, 무료진료 및 물리치료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



함께 해 주신 이태은, 양종호, 김은배교수님,... 홍보팀의 유다혜선생님, 한국화 팀장, 이민철 의료팀장, 이덕현 교육팀장, 김진철 건축팀장, 윤성민 보건교육 코디네이터, 한규성 보건교육 코디네이터,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남대현, 변성미, 이명훈, 김지선플, 양은영, 하승환, 이웅열, 백승윤, 최영수, 이지영, 채춘성, 육성희, 이중원, 조재인, 유상현, 최준혁, 이수범, 김진아 대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너희들이 보여준 신체검사와 체력측정, 그리고 다양한 부스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무엇보다도 따뜻한 미소와 사랑... 이들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으며, 너희들은 이들의 희망이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훗날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는지 우리 지켜보자꾸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도를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 삼육대학교

GATE 통합팀 봉사대원 29명, 모두 있어야 할 곳... 인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난 이들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고, 지금도 이들을 생각하면 행복하다. 이게 바로 봉사 후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과 모든 대원에게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An illustration at the top left shows several potted plants, including a cactus and some leafy plants, in white square pots. Below them is a dark, irregularly shaped stamp with the text '양중호 교양성경과' in white. To the right of the stamp is a speech bubble containing the text '지도교수 소감문'.

양중호
교양성경과

지도교수
소감문

“삼육대학교 해외 봉사를 다녀와서”

우리 팀은 2012년 7월 15일-26일 인도의 타밀나두(Tamil Nadu) 주 호술(Hosul)에서 29명이 봉사 활동을 했다. 학생 24명, 교직원 1명, 지도교수 4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집을 떠난 지 25시간 만에 호술의 숙소로 도착하여 2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월요일 아침 하루의 일과를 수행해야 했지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첫 날 일과를 잘 수행했다.

사실 모기 때문에 나는 이틀이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대원들도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냈지만, 한 사람도 아프거나 사고 당하지 않고, 모두 힘차고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나는 호술의 SDA Higher Secondary School에서 120명의 교사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 40분부터 Moral Science 철학을 강의했고, 한 주간 동안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6-12학년의 1200명의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임시 대강당을 만들어 놓고, Moral Science를 강의했다.

또한 저녁에는 공립학교를 빌려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김은배 교수가 도덕 강연을 했고, 그 전에 나와 김은배 교수가 집집을 방문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우리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노래와 태권도와 태극기 등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주었고, 오후에는 물리치료 등의 지역 사회 의료 봉사를 수행했다. 금요일 저녁에는 지회 영어 교회에서, 토요일 오전에는 지회 영어 교회와 병원 교회에서 도덕 강연을 했고, 우리 학생들이 특창을 했다. 토요일 오후에는 개척대 활동을 지도했으며, 삼육대학교 동영상을 보여주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짧은 문화 탐방을 통해서 인도의 역사와 문화의 일부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로 준비되도록 지원해준 교회와 대학교에 감사한다.





한국화
물리치료학과 3학년
학생대표

대원
소감문

“꿈같은 인도봉사대를 다녀와서”

여행자들이 마지막으로 온다는 여행의 끝 인도! 그 명성만큼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할 것도 많았고 봉사하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여행하러 간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출발하는 날부터 비가 와서 짐을 실을 때부터 버라이어티하게 봉사대를 시작했다. 새벽에 인도에 도착해서 조금 눈을 붙였다가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기도주일, 어린이프로그램을 하였다. 소그룹에 끼어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체력측정도 진행하여 아이들 키와 몸무게, 유연성, 50m달리기 측정을 해 주었다.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키와 몸무게도 모르며 자랐다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다. 우리 대원들은 24명인데 아이들은 체력 측정하는 학생들만 몇 백 명 되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지만 대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너무 잘해주어서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었다.

체력측정과 함께 페이스페인팅도 해주고 팝콘도 팔아서 번 돈으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도 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꼭 필요한 학생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제기차기, 공놀이도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오후에는 다른 마을로 이동하여 어르신들께 무료진료도 해드리고 아이들과 풍선도 만들고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즐겁게 놀며 마을에서 봉사를

했다. 아이들 손을 붙잡고 집집방문도 하며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느껴보고 음식도 얻어 먹으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다니는 학교도, 그들의 집도 정말 열악했지만 한 없이 밝은 웃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떠날 때 눈물로 다시 한 번 감동을 준 아이들.. 정말 평생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중에 그 마을에 봉사자들이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반기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잘 해줄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마을에 망고나무도 심어주고 우리가 하고 오지는 못했지만 배드민턴 코트도 만들어주고 홀라후프도 주고 그 마을에 조금이나마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왔다. 망고나무는 다 자라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내가 10년 뒤 다시 그 곳에 가서 그 망고나무를 볼 수 있을까?! 정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봉사하느라 힘들 텐데도 투정하나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5일의 봉사를 잘 마쳐준 우리 자랑스러운 대원들! 앞으로 이 인도 봉사대의 추억으로 남은 학교생활도 더 힘차게 마무리하고 모든 일에도 이 5일의 경험이 큰 힘이 되길 바라요!

봉사대 동안 우리를 너무나 잘 서포터해주신 양종호 목사님, 김은배 목사님, 이태은 교수님.. 누구보다 대원들을 사랑해주시고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에 힘쓰신 이병희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다니시면 한 장이라도 저희 대원들 예쁜 사진 남겨주시느라 힘쓰신 유다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봉사대의 기억으로 남은 3학기도 힘내서 대학생활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 24명의 대원들 4분의 교수님 1분의 교직원선생님 너무 감사하구 앞으로도 만남 지속해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봉사대원들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귀국하도록 해 주시고 봉사하는 기간 동안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최영수
건축학과 1학년
교육봉사

대원
소감문

“봉사대를 다녀와서”

처음 해외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디서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으로만 무작정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런 계기가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봉사활동을 출발하면서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첫날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어서 피곤하고 짜증도 나서 속으로 투덜대기도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컨디션도 조금씩 찾아가고 아이들과 정이 쌓이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한 제가 굳이 해외봉사만 생각했던 것이 조금 한심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아프리카나 다른 오지의 나라 아이들의 모습만 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까 하면서 도와주고 싶다는 연민의 정이 느껴질 때 정작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남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내가 찾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곳

인도에서도 저는 새로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남녀 간에 그런 사랑이 아닌 마을아이들과 사랑을 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놀고 웃고 지내면서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확실히 저보다 가진 것은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해맑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생기면서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 인간다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아이들에게 행동하니 그 아이들도 그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한 인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식적인 미소와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행동을 하니깐 그 아이가 변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에 했던 태도와 행동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날에는 주먹질을 하며 장난으로 툭툭 치면서 관심을 보이려고 했던 아이가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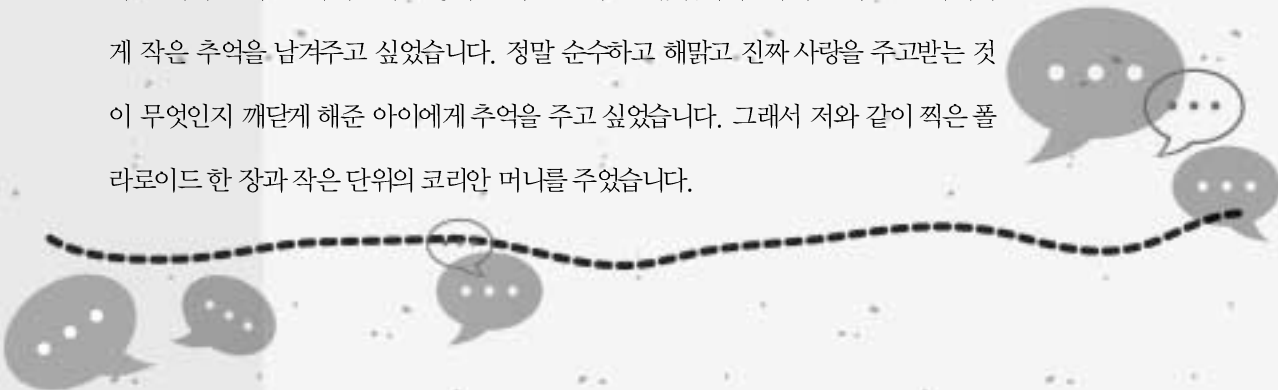
주니 그 아이 또한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 아이는 방 한 칸 에서 여러 친구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앉으라고 웃으면서 해맑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그곳

에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인도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얘기하고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땅콩 한줌을 지어주면서 먹으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해 보이는데 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 후로 남은 2일 동안 매일 저를 주려고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신문지 종이에 꼬깃꼬깃 싸온 스낵 또 하루는 자기가 쓴 공책에 꼬깃꼬깃 싸온 처음 보는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먹을 것조차 없어 보이는 아이가 저에게 매일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먹으라고 아무도 주지 말고 나 혼자 먹으라고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많지만 크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봉사대에 같이 온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그 아이들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작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해맑고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아이에게 추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찍은 폴라로이드 한 장과 작은 단위의 코리안 머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이번에 봉사를 하러왔지만 봉사를 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오고 싶고 돌아가서도 그 아이가 정말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이번 봉사활동을 생각하면서 많이 참여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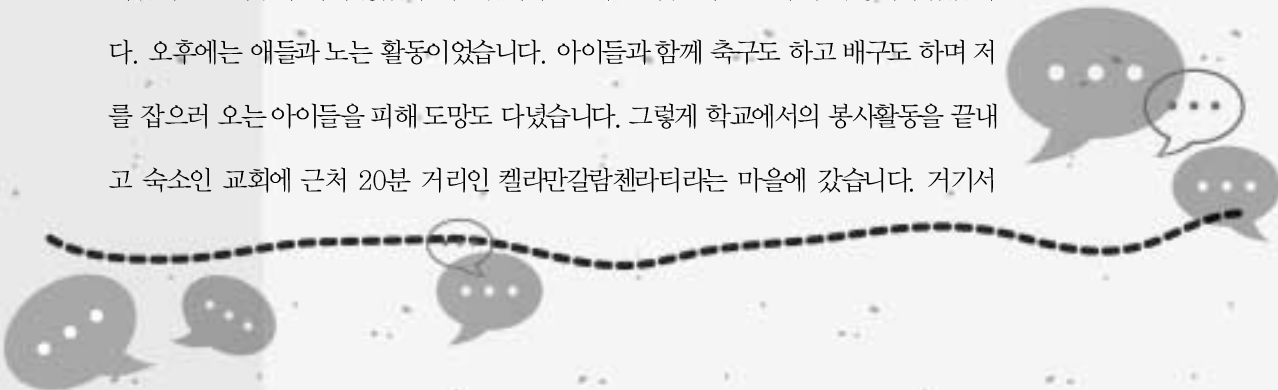
이수범
건축학과 1학년
대원

대원
소감문

“봉사대를 다녀와서”

TV에서만 보던 해외봉사. 기회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생기며 신창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봉사라 함은 마냥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구호물자나 교육 쪽으로만 하다 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더구나 인도! 인도는 거의 사막일 것만 같았고 엄청난 폭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잠은 어떻게 자야할지 배탈 안 나는 먹을거리는 있을지 납치나 절도 등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만 하다가 인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오는 아침 걱정근심 가득안고 탄 비행기... 하늘 위는 널따란 구름과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하늘은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렇게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도착한 인도, 방갈로르는 다시 비오고 짹짹 습한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생애 첫 봉사부품 가슴을 다독이며 다음날 한국에 삼육 초, 중, 고 와 같은 학교에 갔습니다. 인도 학생들은 우리들을 잘 반기지 않고 도리어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일이란 짧은 시간동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점 오만가지의 걱정이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마라나타콜로니 학생들과 대면하고 나니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걱정을 참아내고 스스로없이 한 발짝 다가가면 이 친구들은 두 발짝, 세 발짝 더 앞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참 잘 웃고 사진 찍는 것도 참 좋아하

며 참 불임성도 좋았습니다. 점심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주며 자기 반에도 끌고 가기도 하고 너무나도 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할 봉사는 아이들의 체력측정! 듣기로는 마라나타콜로니 학생들은 체력측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정확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저의 파트인 50m 달리기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운동화를 벗고 뛰기에 의문은 들었지만 영어구사를 마음같이 되지 않는 저였기에 물어볼 수도 없고 아이들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달리기 할 때 많이 질문들을 하였지만 제대로 대답해준 건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측정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애들과 노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며 저를 잡으러 오는 아이들을 피해 도망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을 끝내고 숙소인 교회에 근처 20분 거리인 켈리만갈람첸라티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물리치료를 해주고 건축학과는 그 마을 어린아이들을 놀아주었습니다. 건축학과인 저는 애들과 놀아줬다는 게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리치료학과보다 더 많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홍보하는 임무가 있었기에 마을에 건물생김새며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마을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아이들은 배우는 마을 아이들보다 더 순수하며 아무 품에나 안기길 원하는 참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만 어린 탓인지 덜 배운 탓인지 좀 거칠기도 하고 버릇도 약간 없었고 말도 참 안 들었습니다. 팝콘기계로 우리는 팝콘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직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몰려들며 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팝콘뿐만 아니라 사탕이며 풍선 때문에 그러기도 하였습니다. 안 주면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습니

다. 그래도 그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1분 1초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저 그 아이들은 맨발로 다니며 상처도 많이 나고 옷도 며칠씩 입을 듯하였고 잘 씻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몸에 상처가 많이 난 가슴한쪽 아려오는 아이들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공부며 우리나라처럼 지쳐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우며 한편으론 이 곳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루 안 한일을 5일 동안 마쳤습니다. 정말 5일이 하루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5일 동안 든 생각들은 저는 이 아이들이 좀 짓궂게 굴었다고 참지 못하고 왜 한 번 더 안아주지 못했나, 한 번 더 웃어주지 못했나, 신발을 두 켤레나 신고 갔으면서 왜 한 짝도 주지 못했나 싶은 후회가 밀려오며 한심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가슴 찡그릴

때마저 한 번 더 안겨주고 웃어준 아이들이 더 어른스러웠지 않나 싶어 너무나도 고맙고 이렇게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어 오히려 봉사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가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다음 방학 때도 여건이 된다면 안 되면 되게 노력하여 이런 봉사활동에 한 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주위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봉사해야겠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해 준 인도 봉사였습니다.



김지선텔
간호학과3학년
의료봉사

대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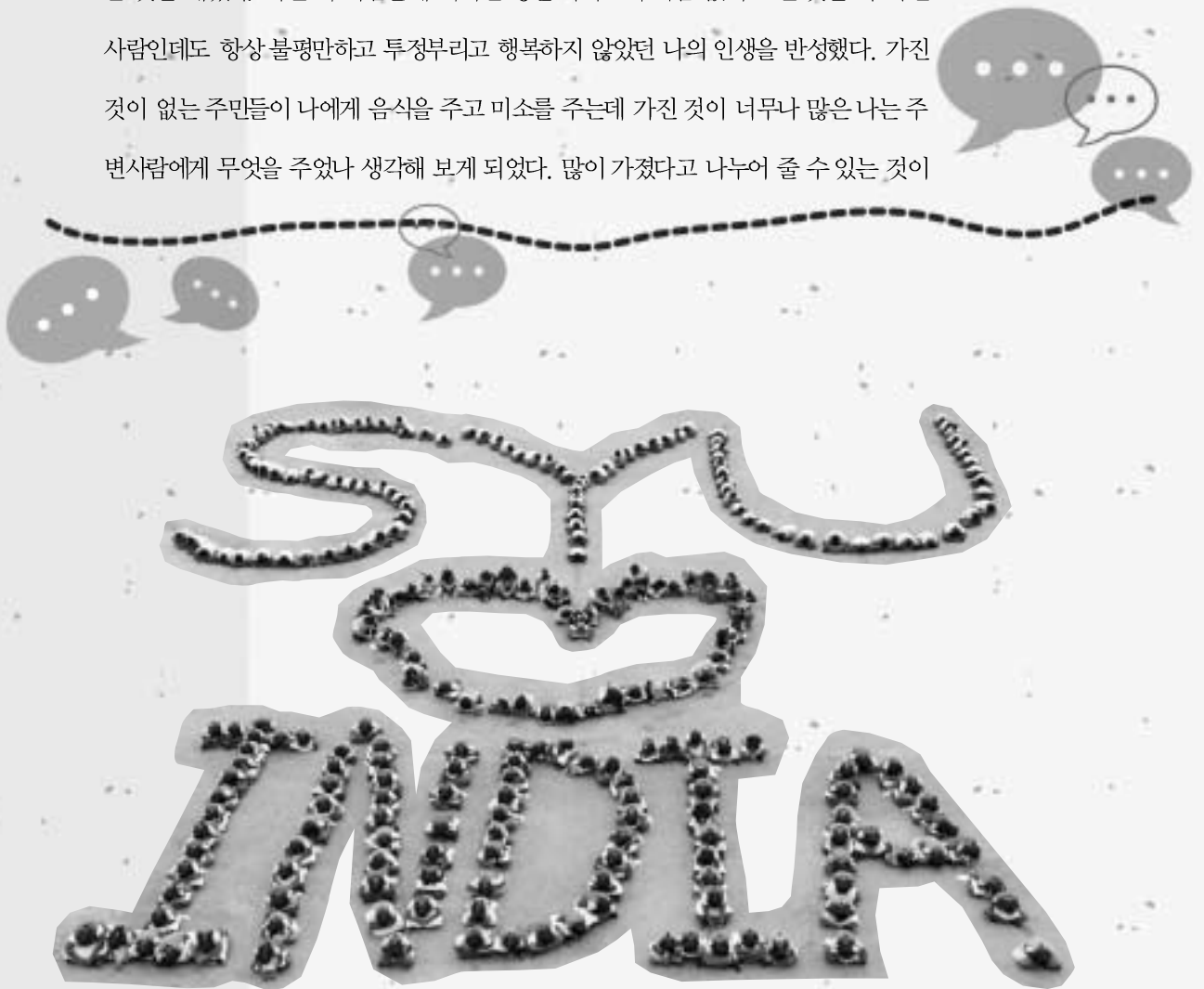
“봉사대를 다녀와서”

이번 겨울에 필리핀 해외봉사를 다녀오고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이번에 인도 봉사대에 오게 되었다. 주변사람들이 모두 사서 고생한다며 말렸지만 부모님과 봉사대 친구들의 지지로 봉사대에 지원하였다. 인도에 오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인도에 대해 공부도 하고 봉사대 사전모임에 나가 준비도 했다. 드디어 긴 비행을 마치고 인도에 도착했는데 밖은 캄캄하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숙소로 도착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 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바로 아침에 밥을 먹고 봉사 할 장소인 학교로 갔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기도주일 행사가 마치면 부스 별로 아이들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내가 맡은 부스는 페이스페인팅이었다. 준비를 마치고 학교 운동장 한 쪽에 자리를 잡고 페이스페인팅을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페이스페인팅이라 꽃, 하트 등 간단한 그림과 아이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고 좋았다.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었지만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기에는 봉사대원들의 수가 많이 부족했다.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에는 부스 활동을 하고 세시즘 마을로 이동했다. 마을에 오니 정말로 인도에 온 것이 실감이 났다. 학교에

스는 교복 입은 학생들만 보다가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입은 마을 주민들과 길을 지나다니는 큰 소들을 보니까 정말 인도에 온 것만 같았다. 마을 홍보를 하려고 한 바퀴 돌며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친절하게 모두 인사를 했다. 친절하게 모두 인사를 답해주었다. 첫날이라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인도사람들의 순수함과 친절함에 인도에 정이 가기 시작했다. 마을을 돌고 나서 의료봉사를 했다. 나는 간호학과라서 물리치료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서툴렀지만 물어보고 배우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못했고 타밀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답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짓을 통해 대화하고 눈빛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의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계속 미소를 띠도록 노력했다. 비록 전문적인 물리치료는 아니었지만 나의 서투른 손길에서 마을주민들이 사랑과 관심을 느끼기 바랐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봉사 둘째 날이 되었다. 어제의 통제 가 안 되던 수많은 아이들이 대조적으로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 학교에서 통제를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상황에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날은 아이들이 더 많이 모길 바라며 마을로 갔다.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않았지만 다음날은 아이들이 더 많이 오길 바라며 마을로 갔다.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맨발인 아이들이 많은 것이 마음이 아팠다. 손을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마을에서는 환자가 많이 와서 정신없이 의료봉사를 했고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여했다. 야외에서 하다가 갑자기 큰 비가 갑자기 쏟아져 급하게 정리를 했다. 셋째 날에는 쌓인 피로와 바쁜 일정에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 느껴졌다. 자꾸 약해질 때 마다 마음을 다시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다. 이 날은 아이들에게도 마

을 주민들에게도 많이 웃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봉사 넷째 날이 되었다. 이제는 프로그램들도 자리를 잘 잡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봉사를 했다. 학교 아이들 앞에서 수화 노래도 하고 기도도 했다. 인도의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을에서는 가정방문을 가서 현지음식인 본다를 체험하고 집안 구경도 했다. 집과 환경이 모두 열악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마을 주민들 보면서 오히려 저런 환경의 주민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비하면 정말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도 항상 불평만하고 투정부리고 행복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을 반성했다. 가진 것이 없는 주민들이 나에게 음식을 주고 미소를 주는데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나는 주변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누어 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느꼈다. 봉사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피부렸던 마음이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마지막 날은 정말 후회 없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지친 내 몸은 그런 마음가짐을 잘 따라주지 않았다. 후회가 남을 것을 알면서도 잘 따라주지 않는 내 몸이 미웠다. 학교아이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 손에 2~3주 정도 지속되는 펜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행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왔다. 내년에 또 올 거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우는 아이도 있었다. 마음이 정말 아팠다. 아이들이 너무 보

고 싶을 것 같았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했다. 5일 동안 정든 아이들을 내일은 볼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머리에 꽃 장식도 해주고 이마에 점도 찍어주던 순수하고 친절 한 주민들과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잘 따르던 아이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봉사를 하러 온 것이지만 정말 내가 한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얻어가고 배웠다. 내년에도 또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도통합 B팀

팀 명	인도통합 B팀	주최학과/부서	재림청년성회
지도교수	김원곤 교수님	학생대표	심재화
봉사국가 (지역, 기관)	인도, 첸나이 James memorial school	활동기간	2012.7.17 ~ 8.2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7명, 총 10명		
협력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교육, 의료봉사	봉사대상자	초중고 학생, 지역주민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김원곤	교양		지도교수	지도교수	JOAN			선생님
학생대표	심재화	영문	4	대장	대원5	최수인	영문	4	손놀이
대원2	조은이	영문	4	부대장	대원6	한지혜	생명과학	4	활동
대원3	이현주	간호	3	약품	대원7	정민주	화학	2	건강세미나
대원4	전마혜	영문	4	손 놀이	대원8	황고은	중국	3	건강세미나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교육 봉사	7.22~28 (10:00-11:00)	1.프라가스 프람 2.스리바이쿰담 3. 무들루 4.플라니아파푸람 5. 나자렛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유용한 인재로 자랄 수 있는지 가르침	어린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음	각 지역별로 대원들 4명씩 학생들 100명씩
2	문화 교류	7.22~28 (9:30-10:00)	1.프라가스 프람 2.스리바이쿰담 3. 무들루 4.플라니아파푸람 5. 나자렛	인도 학생들에게 영어노래와 한국노래를 가르쳐줌	활동적으로 학생들이 따라배운 즐거운 시간	각 지역별로 대원들 4명씩 학생들 100명씩
3	의료 봉사	7.26	플라니아파 푸람	BP체크, 외상치료, 건강상담, 약품배분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아였던 시간	대원 10명 환자: 46명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4	건강 봉사	7.22~28 (19:00~19:30)	1. 프라가스프라 2. 스리바이쿤담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침에 대하여 건강세미나 주최	유아한 시간	각 지역별로 대원들 4명씩 학생들 100명 씩
	교육 봉사	(19:30~20:30)	3. 무들루 4. 플라나파푸람 5. 나자렛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인종음	보통	종음	매우종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④	5			
1	2	3	4	⑤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④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④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④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⑤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 가						
지도교수 역할	객관적이고 이상적으로 나아갈 방향제시					학생대표 역할	리더로서 일 진행을 일사천리수행. 대원들을 사랑으로 격려						
학생대원 소양	모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마지막 날 소감 발표 때 알 수 있었음					현지반응	너무 고마워하시고 반겨주심						
숙식 및 생활여건	학교에서 숙식제공, 더운 날씨 속에 도 가장 좋은 여건 속에도 봉사할 수 있었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5개의 조로 나누어 5지역의 학교로 조별활동 하였음 차로 이동하여 안전 상 문제는 없었음						
잘못점	조별 목표대로, 조 대원들끼리 협력 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연락, 소통 인터넷 사용에 힘든 점이 있었음						
개선보완) 사항	현지와 팀 간의 정확한 소통으로 철저한 준비					총평	사람을 교육시키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로 보람이고 만족스러운 경험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17	오전	말레이시아행 비행기 출발	7/28	오전	Sabbath school/5개 지역에서
	오후	인도, 첸나이 행 비행기 출발		오후	송별회, 첸나리로 이동
7/18	오전	휴식	7/29	오전	기차로 16시간 이동
	오후	hope channel 방문		오후	첸나이 도착 및 휴식
7/19	오전	숙소에서 봉사활동 연습	7/30	오전	숙소로 이동
	오후	봉사활동 준비, 나사렛 도착		오후	종합평가회
7/20	오전	기숙사/숙소에서 짐정리	7/31	오전	고대건축물 탐방 Hope channel 방송국 인터뷰
	오후	교장선생님 미팅		오후	남아시아지회장 주치 송별회 말레이시아 이동
7/21	오전	Sabbath School	8/1	오전	말레이시아 도착
	오후	5개 학교답사		오후	쿠알라룸푸르, 요양원 방문
7/22 ~27	오전	조별 준비	8/2	오전	공항 이동
	오후	조별 봉사활동 개시		오후	인천공항 도착

인도통합 B팀



▶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 인도 캠프에 있는 Hope channel 방송국 방문



▶ 캠프에서 기차를 타고 나서 첫 도착



▶ 처음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인사



▶ 5개 학교 순회 장면



▶ 5개 학교 순회 장면



▶ 오전시간 학생들에게 교육



▶ 의료봉사



▶ 학생들 교육하는 장면



▶ 학생들 교육하는 장면



▶ 학생들 교육하는 장면



▶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



▶ 학교에서 아이들이 활동했는지



▶ 인도에서의 파트라



▶ 모든 봉사대마치고 해마다 휴식



▶ 역사관 건축물로 관광



▶ 인천공항 도착



▶ 교사들에게 감사 못가지 수여



▶ 고학년 학생들 가르침



▶ 자립 이도 봉사대 환영식



▶ 무탈로 학교 학생들의 한국 노래 배우기 시간



▶ 손으로 인도하며 먹는 모습



▶ 한국 동요 알려주기



▶ 제국 프리웨이엔 현장



▶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



▶ 제국강령의 시인 모습



▶ 초등학생 한국 노래 및 율동 가르치는 모습



▶ 한국 동요 알려주기



▶ 교회에서 강령터미널 발표



교양영경제 김원문

지도 교수
소감문

“손가락으로 먹는 카레밥”

이번 인도봉사대의 성공요인은 봉사대활동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있다. 현지답사를 미리 다녀온 것은 물론이고 현지정보를 공유하며 현지의 필요에 맞는 봉사가 되도록 떠나기 4개월 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에 모여 회의와 연습 등 필요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학생들은 좋은 경험과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주된 활동은 매일 오전에는 5개의 초·중고(작은 학교는 150명 큰 학교는 1000명)에서 교육·문화 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4개의 학교 강당에서 건강강의 및 교육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생각해보면 5개 봉사팀이 감당해야 할 정도의 일을 우리 봉사팀은 잘 소화해 낸 것이다.

봉사대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봉사대원들의 마음이다. 16박 17일 동안의 공동체생활, 19명의 팀원들은 뜨겁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매일 24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뒹구는 생활은 처음 경험해보는 이들에게 매우 짜증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원들은 매우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어린이처럼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대원들이 현지생활 적응력이다. 우리 대원들은 인도 전통의상으로 옷을 바꿔 입기, 현지 언어 배우기, 현지음식 먹기 등 현지적응에 빠른 반응을 보였다. 대원들은 기특하게도 하나같이 인도음식(카레)을 잘 먹고, 그것도 현지 방식으로 수저 없이 손가락을 사용해 밥과 반찬을 잘도 먹었다. 우리는 현지 학생들처럼 손을 사용해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하게 느껴졌다. 나도 3번째 인도 방문이지만 손을 도구로 밥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가 활동한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는 처음 만나본 한국 사람이었다. 이번 첫 만남을 통해 그들의 눈에 비쳐진 한국 사람은 얼굴은 희고 옷 잘 입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함께 웃고 먹고 놀고 장난치는 인간적인 사람들이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진실한 사람들로 그들의 기억 속에 고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우리 팀원들이 자랑스럽다. 봉사대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지에서의 활동이 모두 마쳐지기까지 우리 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종합평가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원들이 느끼고 경험한 마음속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감동을 받았다.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봉사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 두에 중독이 된 봉사지도교수는 방학에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것이다.



심재휘 영문학과4학년
대장

학생대표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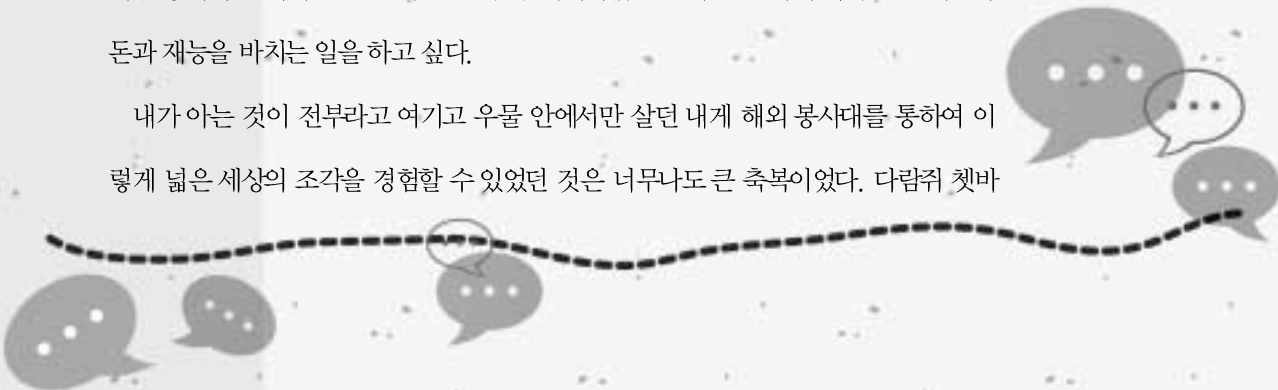
“인도에 다녀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서양 문화에 익숙해져 살아왔는가를 느끼게 했던 2주였다.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인도를 보고 나서 얼마나 매 순간 놀랐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다른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겨질 따름이었다. 그러나 점점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웃고 발생한 문제를 함께 풀고자 머리를 마대며 또 다시 발견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며 ‘친구’라는 것이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이 보이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 동료의식과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다. 나이가 세 살이든 열네 살이든 서른셋이든 쉰셋이든 여든넷이든…….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유용한 인재로 자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면서 나는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방어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신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데서 오는 보람은 내 마음을 만족시켰다. 동료 봉사대원들과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 욕심을 포기하면서까지 협력하면서 느낀 즐거움은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려고 했던 수많은 세월동안 느끼지 못했던 차원 높은 기쁨을 느끼고 나니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활동이 얼마나 종교적인 탈을 쓰고 이기적이기만 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도 했다.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의미 없는 찬양과 마음을 담아하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할 시간을 때마다 그 10분의 일이라도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시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종교가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봉사대를 계기로 일 년에 한 번씩 꼭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내가 받은 시간과 돈과 재능을 바치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우물 안에서만 살던 내게 해외 봉사대를 통하여 이렇게 넓은 세상의 조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 다람쥐 쳇바



퀴 돌듯이 살던 내게 이번 여행과 봉사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적어도 왜 내가 왜 그 쳇바퀴를 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얼마나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좁고 편협하게 살아왔는가..... 세상이 이렇게 넓고 이타적으로 협력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살아왔는가? 내 눈을 뜨게 해준 이 번 봉사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더욱 더 깊은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줄 기폭제로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현주 | RN-BSN 4학년
봉사대원

대원
소감문

“인도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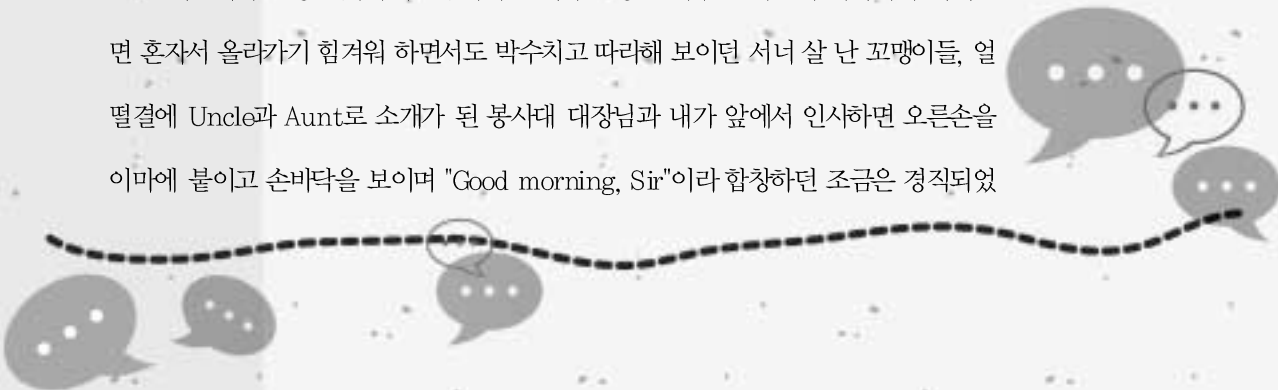
인도는 나의 인생 노트에 정말 특별한 곳으로 남겨졌다. RN-BSN (간호학사특별과정)을 하면서 봉사대를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더욱이 살아생전에 정말 인도를 가게 될 줄이야!

우리 대원들은 봉사대 준비를 위해 매주 일요일 마다 모여서 활동 준비를 했다. 인도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구호물품-옷가지, 학용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연습에 매진하곤 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인도에서 만날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근거림으로 지냈다.

드디어 출국 당일, 설렘으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뒤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인도 첸나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인도에 관한 첫 인상은 ‘덥다, 덥다, 덥다!’였다.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도착 순간부터 땀이 스미기 시작한 티라 더위 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오는 날까지 무탈하여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은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았다. 나의 기억 저편에 자리 잡고는 틈틈이 튀어나와 인사하는 친구가 되어버린 수많은 인도 사람들..

첸나이에서 최종 목적지였던 나사렛을 향해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내가 갖고

있던 건강 정보 종이를 건네자 "이거 정말 내가 가져가도 되나요?" 되묻고는 유심히 그것을 살펴보던 인도 청년, 그리고 내가 속했던 무달루팀이 묵었던 침대칸 맞은편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던 친절한 만삭 아주머니와 남편, 나사렛의 제임스 메모리얼 스쿨 앞 큰길가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속도를 늦추고 '나, 당신과 인사하고 싶어요.'라는 레이저 빔을 보내와서 '바나캄'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한 마디에 수줍게 웃으며 답하던 초록색 교복의 학생들, 아침시간에 두라니아빠쁘람이라는 프레젠테이션 장소(이하 두.쁘)에서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시간에 의자에서 내려오면 혼자서 올라가기 힘들워 하면서도 박수치고 따라해 보이던 서너 살 난 꼬맹이들, 열떨결에 Uncle과 Aunt로 소개가 된 봉사대 대장님과 내가 앞에서 인사하면 오른손을 이마에 붙이고 손바닥을 보이며 "Good morning, Sir"이라 합창하던 조금은 경직되었



던 귀여운 꼬맹이들, 이 꼬맹이들 뒤에 큰소리와 엄청난 호응으로 앞에 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던 좀 더 큰 고학년 학생들, 두.쁘에 매일 오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발등이 꺾이되던 터라 걷기조차 힘들어하심에도 불구하고 발 치료를 받으려고 그 더위에 찾아오셨던 간절함, 그리고 두.쁘에서 열렸던 일일 의료봉사에 오셨던 마을 주민들, 무달루에서의 저녁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어른과 아이들과 인사하느라 가장 많이 외쳐 익숙해진 인도말 "나알리키 썬디뽀(내일 또 만나요)".

같은 팀이었던 수인리와 나의 머리에 진향 향기를 뿜어내는 자스민 꽃 머리 장식을 정성스레 달아 주었던고마운 아주머니와 그 아주머니에 대한 애정을 담아 고심 하며 고른 선물을 드리던 수인리의 마음, 프레젠테이션 시작 전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를 때 잘

알지는 못해도 같이 흥얼거리며 함께 불러준 마을 사람들, 매일 저녁 엄마를 따라 오던 목에 트라케오스톰이를 한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이 찼했는데 사실 사랑과 관심을 무척 받고 싶어 했던 모양이었던 장난꾸러기 녀석, 나에게 자신의 팔에나 맞을 것 같은 유리 팔찌를 선물해준 여자아이. 내 손의 골격이 무한 발달한 탓에 자신이 준 팔찌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다음날 더 큰 사이즈의 유리 팔찌를 선물해준 아이, 우리봉사대를 초대한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인도 고유의 환영인사 방식으로 대원마다 색색가지 술을 어깨에 둘러주었던 환대,

나사렛에서 첸나이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만난 힌두교 할머니와 할머니의 남편. 이분들께도 갖고 있던 건강 정보가 담긴 소식지를 전해드렸더니 좋아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에 나의 마음에도 웃음이 번졌던 잊지 못할 순간, 봉사활동이 끝난 후 인도

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가졌던 봉사대원들의 소망이 담긴 홈 채널과의 마지막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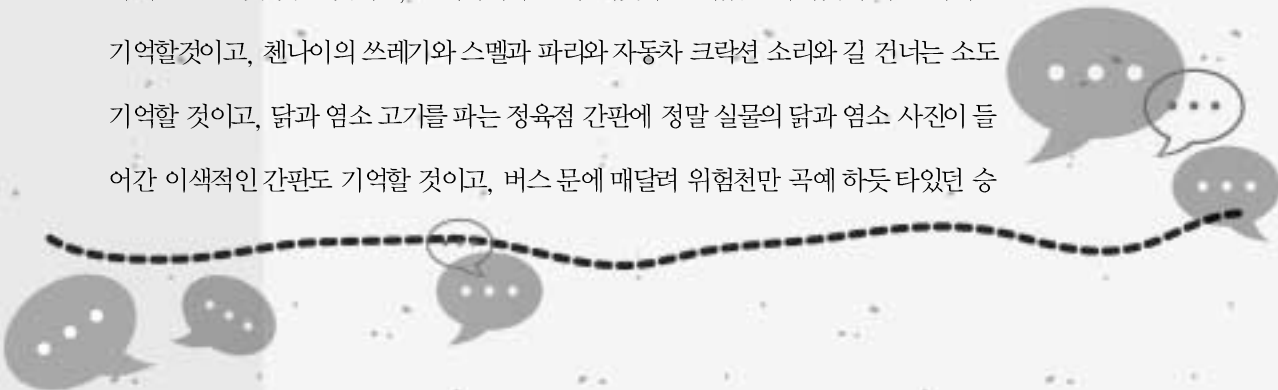
그리고 정전과 단수와 더위를 함께 이겨낸 자랑스럽고 사랑스런 대원들. 47도까지 육박했던 더위를 났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숙소의 물이 끊겨 큰길가 수돗가에서 인도 아

낙네들과 염소 떼의 눈길 어택을 받으며 폭풍 빨래질하던 추억도 잊지 못할 것이고, 다 같이 두있게 망고를 석연하듯 먹었던 것과 뜨든 미지근한 생명수를 나눠 마신 것도 못 잊을 것이고, 마지막 날 피로풀어



준다며 발마사지 해준 막내의 정성도 잊지 못할 것이고, 시험 공부하듯 프레젠테이션 연습하던 것과 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각 팀의 리더들도 못 잊겠고, 이번 봉사대 같은 정말 빡빡한 스케줄을 총괄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대장님도 잊지 못할 것이고, 봉사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시며 뜻이 되어주셨던 지도교수님도 잊지 못할 것이다.

저녁 프레젠테이션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전이 되어 암흑 속에서 긴장감 돌던 찰나의 순간도 못 잊을 것이고, 말레이시아 보다 깨끗하고 예뻐던 나사렛의 어느 비치도 기억할 것이고, 쉐나이의 쓰레기와 스멜과 파리와 자동차 크랙션 소리와 길 건너는 소도 기억할 것이고, 닭과 염소 고기를 파는 정육점 간판에 정말 실물의 닭과 염소 사진이 들어간 이색적인 간판도 기억할 것이고, 버스 문에 매달려 위험천만 곡예 하듯 타있던 승



객들도 기억할 것이고, 아직 질리지 않은 인도 카레의 "날락 샤바레(정말 두있어요)" 두도 기억할 것이다.

가보지 않았으면 버릴 수 없었을 편견, 만나지 않았으면 꺾을 수 없었을 우월감, 해보지 않았으면 할 수 있음을 알 수 없었을 기회들, 주지 않았으면 느낄 수 없었을 사랑의 마음까지 나에게 잊지 못할 2012년의 여름을 선사해준 인도와 모든 분들과 모든 상황에 무한한 감사를 돌린다



전미혜 | 영문학과 4학년
구호, 건강강의 음악및 손놀이

대원
소감문

“청년의 때 가봐야 할 그곳 인도”

인도에 가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바로 그곳으로 이번 여름 청년의 시기에 꼭 가봐야 할 그곳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처음 인도에 발걸음을 옮기기 전, 이미 인도를 방문한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 위생적이지 못하고 덥고 매연이 심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기대 없이 봉사를 떠나서 인지 나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져만 갔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우리 봉사대는 인도 Parakaspuram에 위치한 James Memorial School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모두 19명의 대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운 좋게도 너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 봉사하는 동안 서로에게 큰 등반이가 되어 주었다.

봉사 전부터 우리 팀이 가장 큰 초점을 맞춘 것은 건강 강의였다. 간단한 음식에 대한 강의부터 열사병, 당뇨병 예방 수칙까지 다양한 주제로 건강 강의를 직접 모든 대원들이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영어번역까지 해서 충분한 준비로 떠난 보람이 있게 건강강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부분 영어를 알아듣는 인도였기에 건강강의를 모두 영어로 외워서 준비하였고 그 지역 언어인 타밀어로 통역자분이 통역을 해주셨다. 간호학과, 영문학과, 생명과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에 더욱 성공적으로 건강강의를 할 수 있었고, 5개 지역의 학교에 3-4명씩 파견되어서 몇 백 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에 많이 떨리고 힘들었지만 모든 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아침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는 등의 문화 활동도 하고 왔다.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물과 전기가 귀한 나라인지라 제대로 씻고 생활하기 좀 불편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이다. 그 날 저녁 모두 지친 상태에서 물이 한참 나오고 있어 들쭉 찌지어 재빨리 샤워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과 동생과 같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머리에는 샴푸를 하고 몸에는 거품이 풍성한 채로 물이 멈춰버린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다른 대원들에게 SOS를 청했고, 여대원들은 큰 물통을 들고 길가에

물이 나오는 수돗가에 가서 정수기통 물병크기의 양의 물을 3통이나 담아서 욕실에 넣어주었다. 땀을 흘리면서 헹헹되고 물을 넣어주던 언니 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새 봉사활동에 피로는 그들의 사랑으로 씻을 수 있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되어 늦게는 10시 반까지 이어지는 타이트한 스케



줄, 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게 하는 48도라는 숨 막히는 온도, 그리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와 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의 봉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도아이들의 환한 웃음일 것이다. 인도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 더욱 그들의 아름다움을 더해가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조금 더 하얗다는 이유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보지 못한 동양인이라서인지,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뜨거운 시선과 관심을 받았고 연예인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다. 봉사를 하러 간 것인데 그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기회와 정보와 사랑을 주려고 갔던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 마지막 날 버스에 오르기 전, 우리와 악수한번이라도 더 해보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을 버스안쪽으로 내밀던 아이

들의 손과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누구를 위한 봉사가 아닌 나를 살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봉사를 하고 온 것 같아 아쉬우면서도 행복하다. 인도인들은 똑똑하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이다. 인구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초등학교 9시까지 자습하는 한국보다 더 강한 교육열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들이 아직까지 카스트제도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잘살지 못하는 국가이지만, 젊은이들의 관심과 열정이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어느 나라 보다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국가이다. 이 청년의 시기에, 타인에게 하는 봉사로 자신이 다시 살아 돌아옴을 느끼는 인도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모든 젊은이에게 추천한다.



정민주 | 화학과 3학년
보건교육 및 건강세미나

대원
소감문

“생각도 안 해본 나라, 인도”

이제 3학년이 된 지금 제 생활을 돌아켜 보니, 국내 봉사는 오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노숙자, 노인, 신생아, 재해복구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또 어떤 봉사를 할까? 생각하던 중에 인도 봉사대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봉사대에 참가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9시간, 인도에서도 기차를 타고 15시간에 걸쳐서 도착한 곳은 나자렛이었습니다. 나자렛은 한국보다도 조금 덥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과 오염된 물을 마시는 등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건교육과 건강세미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요, 일반 서민들이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알기 쉽게 전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운동과 휴식이었습니다. 육체노동으로 몸이 많이 지쳐있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운동법과 휴식 법을 보여주고 같이 해봄으로써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고, 어색해 하던 사람들이 계속 따라 함으로써 몸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 뿐만 아니라, 인도인들까지도 나중에는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인사도 먼저 반갑게 할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몇 백 명이나 되는 군중들 앞에서 선다는 것이 내성적인 제 성격에는 조금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많이 찾아보고 알게 쉽게 정리한 다음, 큰소리로 세미나 강연 준비 연습을 했습니다. 평상시 성격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바른 건강법을 제대로 전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연습했더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세미나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인도사람들에게 바른 건강법을 전해줘야겠다는 진심이 통해서 그런지, 사람들도 제 말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었어요. 작지만 사소한 건강 상식들을 알려줌으로써 인도사람들이 정말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 면역력이 낮아서 쉽게 병에 걸리는 데, 이런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났

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이번 인도봉사대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라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나오는 맑은 물 한잔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요. 한국에서는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인도 봉사대에 다녀온 다음에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제안의 마음이 소중한 경험이 느낌이 보람이 제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로 변화되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담심리학과 B

팀 명	상담심리학과B	주최학과/부서	상담심리학과
지도교수	김신섭, 정성진	학생대표	강훈희
봉사국가 (지역, 기관)	홍콩 삼육대학교	활동기간	2012.7.22 ~ 7.30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22명		
협력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문화교류	봉사대상자	홍콩삼육 대학생 및 인근 청년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 교수	김신섭	상담심리		강사	대원12	김상희	상담심리	1	Mini Olympic
지도 교수	정성진	상담심리		지도	대원13	민수경	상담심리	1	Night Activity
학생 대표	강훈희	상담심리	4	대장	대원14	장세영	상담심리	1	아침체조 담당
대원2	천세라	상담심리	3	총무	대원15	진길	건축	3	중국어 교육
대원3	유현이	상담심리	3	서기	대원16	유영석	GLC	팀장	기자재 담당
대원4	김영아	상담심리	3	Beach Game	대원17	조재림	GLC	팀장	찬양인도
대원5	이소영	상담심리	3	Indoor Activity	대원18	박성현	GLC	조교	부대장
대원6	이은정	상담심리	3	Ice-Break	대원19	고민수	GLC	조교	태권도
대원7	김승환	상담심리	2	사진촬영 Night Activity	대원20	박수용	GLC	조교	수화
대원8	김희주	상담심리	2	Beach Game	대원21	황수민	GLC	조교	미디어
대원9	성기림	상담심리	2	Ice-Break	대원22	최정임	GLC	조교	반주
대원10	신미소	상담심리	2	Beach Game	대원23	심재일	GLC	조교	캠코더 촬영
대원11	신지영	상담심리	2	Indoor Activity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문화교류 캠프 진행	7.23~7.26	홍콩 삼육대	특강, 조별토의,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다양한 실 내·실외 활동 진행	훌륭했음	대원 23명 홍콩청년: 45명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자인원)
2	문화공연	7.25	홍콩 삼육대	수화공연, 태권도 시범, 안무 공연	매우 훌륭했음	대원 20명 어린이: 5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 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④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④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④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④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⑤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 가						
지도교수 역할	강의 및 총괄지도를 성실히 수행했음.					학생대표 역할	순서와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협력을 잘 이끌어냈음.						
학생대원 소양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일들을 수행했음.					현지반응	잘 준비된 순서에 뜨거운 호응을 보였고 홍콩 학생들이 캠프 이후에도 동행함						
숙식 및 생활여건	대학 교정에서 지냈기 때문에 숙식과 여건이 양호했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위험요소가 적었기 때문에 안전했음.						
잘된점	문화공연이 가장 성공적이었고 특강도 호응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양국 학생의 관계형성이 잘 됨.					운영평가 및 에로사항	캠프 기간 내내 태풍과 폭우로 야외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개선(보완) 사항	현지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해서 순서를 준비하는 점이 필요함.					총평	목표한 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둔 봉사활동이었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3	오전	점검회의 순서준비, 등록	7/24	오전	체조, 아침식사, 강의2, 소그룹3, 점심식사
	오후	개회식, Ice-Break Activity, 소그룹1, 조별 요리대회, 강의1, 소그룹2, Night Time Activity		오후	조별 홍콩 시내 탐험 미션, 보고회
7/25	오전	체조, 강의3, 소그룹4	7/26	오전	체조, 강의5, 소그룹6, Mini Olympic
	오후	레크리에이션(Beach Games), 강의4, 소그룹5, 문화공연		오후	폐회식

상담심리학과B



▶ Ice-break Activity : 짝짓기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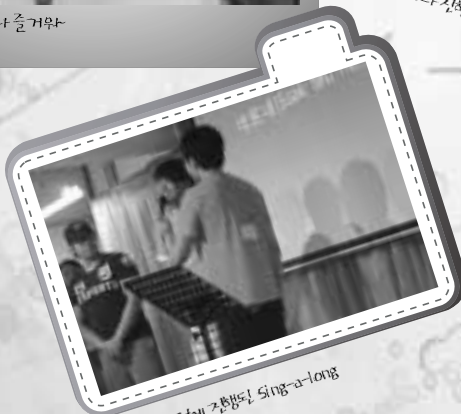
▶ Ice-break Activity : 어느새 침해질 앵과 학생들



▶ 식사하는 앵과 즐거워



▶ 이집마다 진행되고자했던(?) 체조시간



▶ 특강 앞에 강행된 외출-이영



▶ 문화공연 태권도 시범 연습 중



▶ 조별 홍콩 시내 탐험을 즐기며!



▶ 해변에서 우정을 나누며



▶ 문화공연: 수화작품



▶ 문화공연: 홍콩 대학생들의 안무



▶ 문화공연: 태권도 시범 중 인터뷰



▶ 문화공연 마치고 단체사진!



▶ La Break 활동 참여 모습



▶ 봉사활동 마무리!

상담심리학과B



▶ 프로그램 상황 준비모습



▶ 홍콩 어드벤처 프로그램 참여모습



▶ 홍콩 어드벤처 프로그램 참여모습2



▶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 기숙사에서 보는 백망봉경



▶ 캠퍼스내에서 활동 모습



▶ 프로그램 script를 핸드폰에 옮겨읽는 모습



▶ 팔리핀 학생들의 모습



▶ 자유여행



▶ 팔리핀 춤을 배우는 모습과댄스타임



▶ Play time



▶ 홍콩 친구들과 단체사진



▶ 해변활동



▶ Cultural Festival 진행모습



상담심리학과 | 정성진

지도교수
소감문

“럭셔리 봉사대군!”

홍콩으로 해외봉사를 간다고 하니 누군가 부러움 섞인 지적을 하였다. 1인당 GNP 2만 달러가 넘는 경제수준이 높은 곳, 유명 브랜드가 총집결되어 있는 쇼핑의 메카, 대학생 문화교류캠프 차원으로 봉사를 간다고 하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대원들이 봉사대를 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준비했는지를 지켜봤다면 결코 ‘럭셔리’라는 말로 우리 봉사대를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절감했을 것이다.

자매대학인 홍콩삼육대학(香港三育大學, Hong Kong Adventist College)에서 상담심리학과로 해외봉사대를 요청하면서 가칭 ‘홍콩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우선 수많은 재학생 신청자들 가운데 소양면접과 영어면접을 통해 1차로 대원들을 선발하였고,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센터 직원과 조교들도 봉사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대원들이 영어로 문화교류캠프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국 두 달 전부터 준비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1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홍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순서들을 기획하였고, 기말고사 이후에는 팀별로 순서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문화공연을 기획했다. 출발 두 주 전부터는 매일 모여서 영

어회화 및 간단한 중국어회화를 공부하고, 영어로 조별 토의진행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순서진행 연습과 문화공연 연습을 하였다. 출발 하루 전에는 전 대원이 합숙하며 총연습 및 헌신회를 가졌다. 아마도 출발 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봉사대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대원들의 모습은 문화교류캠프에서 빛을 발했다. 비록 영어로 순서를 진행할 때 가끔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대원들의 열의와 정성에 현지 관계자들과 홍콩 대학생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신섭 교수님의 특강을 중심으로 조별 토의를 하고 매 순서와 휴식시간에 대화할 때도 언어를 넘어서는 우정과 친화력을 보여준 대원들에게 홍콩 대학생들이 매료되어 캠프 이후 현지 관광을 하고 홍콩을 떠나는 날까지도 우리와 계속 동행하였다. 특히 봉사대원들의 역량은 마지막 날 밤

문화공연에서 정점을 찍었다. 침묵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한 수화찬양, 한국인의 강인함을 보여주면서도 약간의 쇼맨십을 통해 웃음을 선사한 태권도 품세 시범 및 격파 시범, 현란한 카메라 액션과 뛰어난 편집으로 호평을 받은 뮤직 비디오 상영, 우아하면서도 통일된 동작으로 한류의 진가를 보여준 여대원들의 K-POP 안무 공연까지. 정말로 우리 대원들이 멋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자칫 안이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대학생 대원들의 열정과 글로벌리더십센터 직원과 조교들의 노련미가 어우러져 성공적인 해외 봉사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다. 벌써부터 내년 해외 봉사대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자랑스러운 대원들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강훈희 | 상담심리학과, 4학년
문화교류/프로그램 진행

대원 소감문

“나의 첫 해외봉사”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몇 번 나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가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봉사대를 준비하면서부터 학생대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되어 사실 부담도 되고 과연 해외에 나가서 별 탈 없이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정해진 날씨는 빠르게 다가왔고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과 설레는 감정을 가진 채로 홍콩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짧은 영어실력과 홍콩의 날씨 등의 여러 변수들이 있었지만 젊음이라는 무기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밤늦게 홍콩에 도착한 첫 날 한국에서 많이 들었던 습한 홍콩의 더위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무더운 나라인 만큼 다니는 곳곳마다 에어컨 시설이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홍콩의 에어컨 시설들이 그리 올 때가 있다. 첫날은 들뜬 기분으로 잠을 청하고 둘째 날부터 우리가 준비해간 본격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 학생들끼리의 만남이다보니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특별히 어색함을 없애는 프로그램들을 신경 써서 준비하였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포래인 만큼 친해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듣고 소그룹 활동을 나누며 더듬더듬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며 준비한 만큼 매우 창의적이기도 하고 혹여나 시간이 남을까봐 많은 준비를 해간 터라 밤늦게까지 서로 즐거워하며 자칫 어색할 수도 있었던 만남을 화합으로 이끌며 보낼 수 있었다. 우리가 홍콩삼육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안 홍콩에는 태풍이 상륙하여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날씨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이 실내 활동 위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야외활동을 위하여 준비해간 프로그램들과 소품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매우 아쉬웠다.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자 거짓말처럼 해가 짙짙 내리쬘었고 홍콩의 맑은 날과 흐린 날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이 준비해간 프로

그램들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어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나누고 서로의 페이스북주소를 나누며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달래고 있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던 정이탄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단 우리 봉사대원들끼리의 단합은 물론이고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무더운 날씨에 서로 앞 다투어 나와 우리를 도와주었던 홍콩학생들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느끼지 못했을 값진 것들을 짧다면 짧고 기다면 길 수 있는 시간동안 듬뿍 얻고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과 무더운 날씨에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하느라 고생한 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상희
상담심리학과 1학년
문화교류 및
프로그램 진행

대원 소감문

“홍콩을 다녀와서”

대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방학 중 가장 큰 일정이 모두 끝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립고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일정이었다. 준비과정도, 현지에서의 과정도 사실 그때 당시엔 힘든 점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마무리한 지금은 그 힘들고 인상 찌푸렸던 모든 게 추억이고 그리운 순간이다. 또 힘든 점을 다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얻은 것도 많고 그곳의 문화를 접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느낀 것이 많다.

우리의 프로그램 일정은 김신섭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시간과 그 사이사이 우리가 준비한 일정이 주를 이뤘다. 나는 특별 강의를 세 번째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그룹 시간에 홍콩 친구들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비록 영어로 진행되어서 서로의 말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어떻게 해서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대 이상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봉사대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사실 준비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방학중에 10시까지 학교에 모여야 했었

다. 특히나 출국2주 전부터는 매일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culture night때 선보일 퍼포먼스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빠듯했다. 덕분에 대부분의 대원들은 아르바이트도 포기하고 많은 시간을 홍콩봉사대 일정을 위해 투자해야했다. 사실 중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준비과정에서 대원들끼리 약간의 의견차나 불만이 생길 때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였다. 아마 다른 대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의 입장을 한걸음 물러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힘든 준비를 마친 후 도착한 홍콩의 첫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습기 이다.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불쾌했다. 저위도이고 해안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 이상으로 습하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머문 날 중 대부분은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많이 뜨겁지 않았다. 그래도 습기 때문에 야외활동이 쾌적하지는 않았다. 이러

한 불쾌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줬던 홍콩 대학생들에게 아직까지도 정말 고맙다. 게다가 더욱 고마운 것은 5일 동안의 홍콩대학생들과의 캠프가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나머지 시간도 함께 보내준 것이다. 덕분에 5일 이라는 짧은 시간에 맺은 인연을 좀 더 촘촘하게 채울 수 있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봉사대원들은 홍콩학생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고 있다. 매일매일 그때의 사진을 보는 것은 물론이다. 덥고 습하고 조금은 팍팍한 일정 때문에 그 당시에는 힘들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그때의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고 있다.

내가 홍콩 대학생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얻어간 가장 큰 것은 에너지이다. 문화적 차이인지 그 학생들이 특별히 그런 것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활기차고 적극적이었다. 뭘 하든 잘 해보려는 의욕이 느껴졌다. 그래서 덥고 축축 처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힘내서 프로그램은 모두 즐겁고 의미 있게 보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캠프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이 문화교류 시간인데, 나는 그 시간을 통해 한류의 위력을 느꼈다. 홍콩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나 연예인과 K-POP은 나보다도 잘 알 정도로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문화교류시간에 패러디 MV와 태권도 시범, k-pop 공연을 선보였는데 인기가 대단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다. 또, 그들은 어느 정도 한국말도 이해하고 일부 학생들은 말도 조금 할 줄 알았다. 한국 버라이어티 쇼나 드라마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홍콩의 연예인도 잘 모르고 음악도 잘 몰랐다. 그 부분에서 조금 미안했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지금과 반대 상황 이었던 것을 생각하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멋진 야경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상대적인 문화 이전에 보편

적 교감과 우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속에서도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했고 감동적이었다.

이번 홍콩해외 봉사 는 나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로 타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배경 속에서도 교감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배움이 의미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단체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합의 중요성을 배운 것이다. 비록 10일은 길고 긴 방학 중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밀도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특히나 10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시간까지 더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덕분에 학과 선배님들과 친해지는 계기도 되었고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생기고 시야가 넓어졌다. 앞으로 나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 이번 홍콩 봉사대 경험은 앞으로 나의 견문을 넓혀나가는데 있어 나의 첫걸음이 된 것 같다.

성기림
상담심리학과, 2학년
스텝, 문화교류
(태권도, K-pop)

대원
소감문

“작은 톱니바퀴라도 소중한 ; 홍콩 봉사대를 다녀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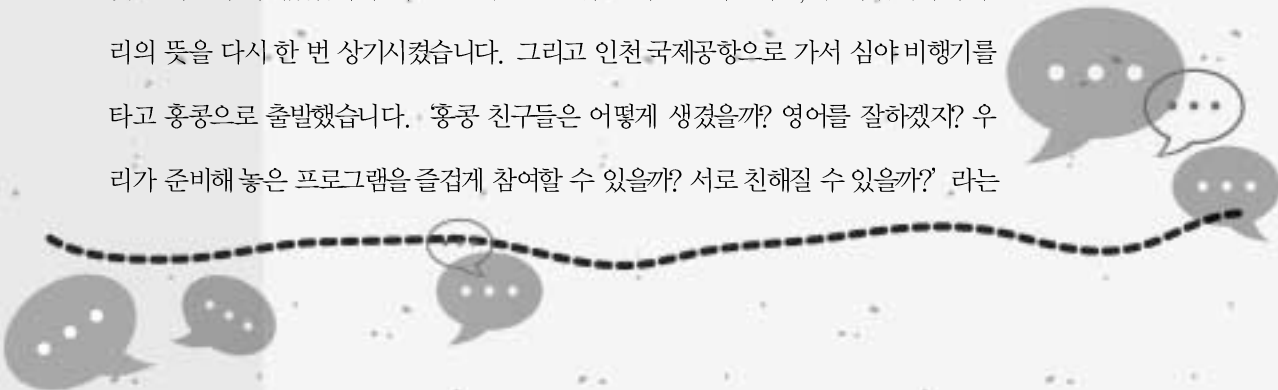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시한부 아닌 시한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덩고 습하고 불안하게 떨리는 여름, 어쩌면 입대 전 마지막 여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홍콩’ 봉사대 의 여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2012년 어느 수요일의 봄날의 채플시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과의 요모조모 일들을 공지하는 시간에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던 것은 바로 ‘홍콩 봉사대’ 였습니다. 밤거리를 수놓는 떨어진 야경 이라는 화려한 별들, 출렁이는 바다 빛 스카프.....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을 아름다움의 거리..... 글썄요..... ‘휴양지’ 로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먼저 사로잡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두어야 할 점이 있지요. 홍콩 ‘관광’ 이 아닌 ‘봉사대’ 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운 거리를 눈에 담는 것도 좋지만, 봉사대로서 그만큼의 책임이 부여 받아져야 합니다. 열흘간의 봉사를 위해 그 전까지 있었던 방학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봉사대 몸과 마음의 짐을 꾸리기 위해 그만큼 땀 흘리며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에 저를 비롯한 주위 학우들과 선, 후배님들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언제 벌써 중간고사였냐는 듯 후다닥 달려버린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찾아왔고 우리 대원들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봉사대의 주된 목적은 ‘홍콩 삼육대학교 학생 친구들과의 문화교류’ 인데요, 홍콩 삼육대학교 - 줄여서 HKAC (Hong Kong Adventist College) 와 연락을 지속하며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태풍을 뚫고 준비해온 시간들이 날씨가 개고 햇빛이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함께 합숙하며 우리의 뜻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서 심야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홍콩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영어를 잘하겠지? 우리가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도 제 머리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싸여 강강수월래를 펼치고 있었지만, 그 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홍콩 친구들은 조심해서 잘 올까?’ 였답니다. 그리고 어색함의 장벽을 깨부수는 Ice Break 시간의 MC를 담당한 저로선 떨림과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하게 들어온 홍콩친구들의 순수한 모습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 떨림 보다 ‘이 기회에 홍콩 친구들과 친해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생각 이상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믿음직스러운 참한 누나 덕분에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고, 그 열기로 인해 얼음장벽은 시원한 물로 녹아 내렸습니다. 참 다행이고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폭풍전야의 날씨 때문에 계획을 수정, 보완했지만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홍콩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

었습니다. 역시 제가 전공하는 ‘상담심리’에서 주요 토포로 지정된 ‘경청’과 ‘공감’, 그리고 ‘수용’ 등이 큰 몫을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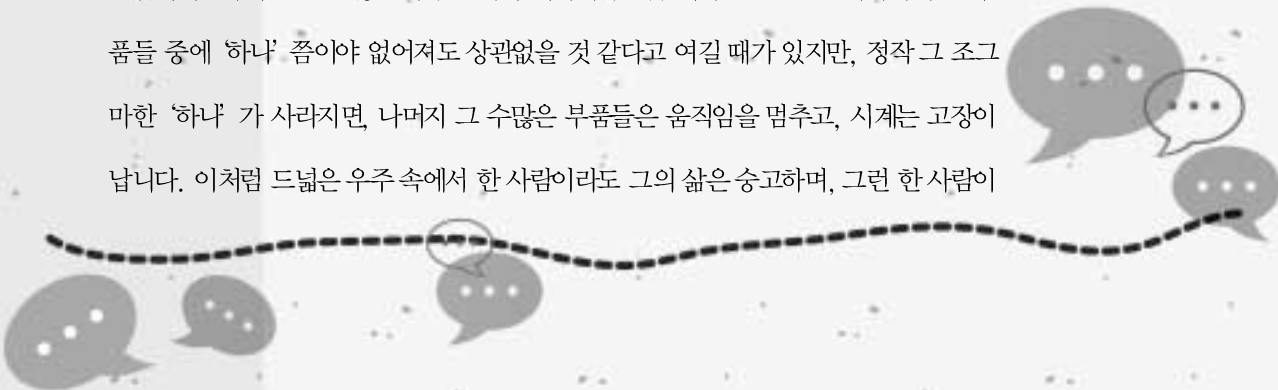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우리 봉사대원 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문화교류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권도를 처음 배운 사람도, 배워도 꽤 오랜 시간 잊어버린 사람들도 서로서로 영상을 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를 한 끝에, 결국엔 멋지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격파, 이벤트 등등 꽤 호응이 좋았고, 도복을 가 능한 열심히 빌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격파하는 중에 조금 다치게 된 분들도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전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최 선의,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K-pop의 강세를 이어받아 우리는 뮤직비디오를 찍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곧이어 홍콩 학생들의

무대, 아름다운 워십 댄스와 간식 이벤트, 옛날 놀이 이벤트 등 많은 것을 공유하였고, 특히 옛날 홍콩 대학생들의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먹던 불량식품, 놀이 등이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았던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서로가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올 때가 되자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남 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만남이 부담스러웠고, ‘공용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대원들만 숙소 두으면’ 하는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을씨년스럽고, 벌써부터 그리워지고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되 뇌이며 다시 한번 더 함 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직 많이 아쉽고 더 재미 있게 보내고파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자주 찾아오고, 다른 곳에 떠나는 것도 도 와주고, 마지막까지 공항에서 우리를 바라다 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

습니다. 공항 게이트로 들어갈 때엔 발이 채 떼기가 너무 힘들었을 만큼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 홍콩 삼육대학교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지구는 넓고 지구 이상으로 더 넓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속에서 사람은 한없이 작고, 불품없어 보입니다. 먼지, 먼지에 붙은 미생물이 지닌 때만도 못할 정도로 정말 사람은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한 사람의 생애, 혹시나 겪을 어려움 등을 우리는 외면해야 할까요? 저는 '시계'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계를 열면 많은 부품들이 부대껴서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수한 부품들 중에 '하나' 쯤이야 없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여길 때가 있지만, 정작 그 조그마한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그 수많은 부품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시계는 고장이 납니다. 이처럼 드넓은 우주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의 삶은 숭고하며, 그런 한 사람이



어려움에 지쳐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 봉사자의 노력 또한 소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양을 두시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뜨거운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 상담심리학과 3학년
집단상담지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대원 소감문

“내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을 가지게 해 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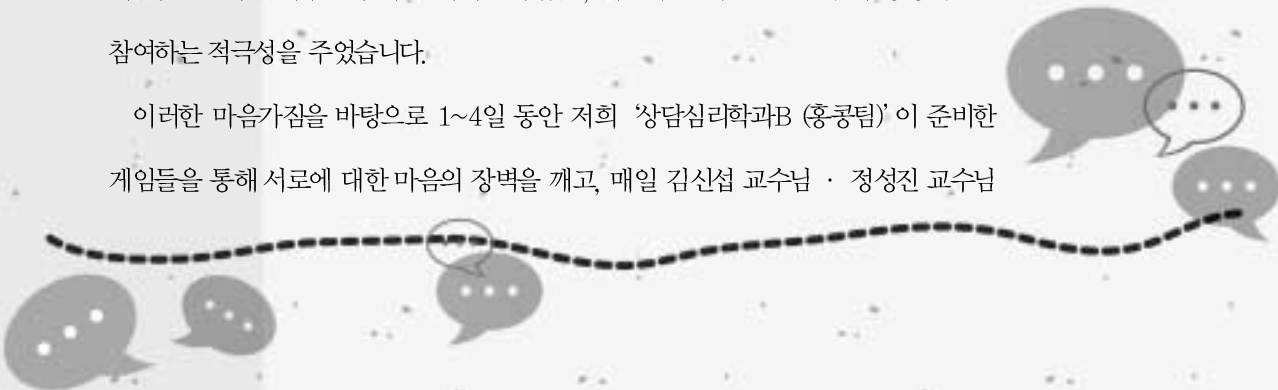
저희는 홍콩이라는 국가, 문화 교류 외에 ‘집단 상담’이라는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담심리학과B (홍콩팀)’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도전, 쇼핑의 도시인 ‘홍콩’으로 해외 봉사는 제게 있어서는, 단순히 처음에는, 뜻 깊은 사회적·개인적인 경험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겼기에 도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인 만큼 모든 것을 처음으로 부딪치고, ‘무’에서 시작하는 도전이었기에 어느 봉사대 보다 준비 기간도 길고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저희 봉사 팀은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봉사 팀원 중 한 명인 중국인 교환 학생 ‘첸지’에게 간단한 중국어 인사를 배우고, 공동 구매한 영어 회화 책을 통한 영어 공부, 홍콩 대학교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위한 k-pop춤·태권도 공연 연습, 김신섭 교수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정성진 교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두 강의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토의 준비, 꾸준한 예매를 통한 심신 단련을 위해 약 1달간 만나질 모임·합숙 등 스파르타 식 사전봉사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기에, 단순히 사회적·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그동안 제 자신에게 가졌던

시각을 새로이 바라보게 해 주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끔 해 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홍콩의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는, 국가·언어·생김새 등 어느 것도 같은 것이 없는 Hong Kong adventist college · 삼육대학교 학생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Hong Kong - Korea youth cultural communicational Gospel Camp에 자발적으로 참여 했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해 주었고, 서로의 다른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주었고, 서로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1~4일 동안 저희 '상담심리학과B (홍콩팀)'이 준비한 게임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깨고, 매일 김신섭 교수님 · 정성진 교수님



의 강의를 듣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상담·토의를 함으로써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다른 국가·문화라고 여겼던 서로가 같은 문제·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급속하게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사전 회의에서 처음에 금방 못 친해질 거라 예상하여 조를 바꾸는 횟수를 극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짰던 계획들이 오히려 너무 친해져서 조를 바꾸어 새로운 친구들과 조를 해 보는 방향으로 바뀌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은 홍콩 대학교 학생들이 공지를 통해 미리 준비 해 온 재료들로 그들과 조를 이루어 홍콩의 음식들을 함께 요리하여 대결 해 보는 '요리 경연 대회', 두 대학교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진 조로 명소 방문·미션 수행·사진 촬영·식사·주어진 장소 내에서의 자유 여행 등의 활동들을 통해 그동안 경험 해 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체험·여행보다 그 나라의 진면목을 알게 해 줄 거리는 확신, 함께 이끌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주면서 많은 추억을 느끼게 해 주는 타지에서의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Hong Kong adventist college 학생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하였기에, Hong Kong - Korea youth cultural communicational Gospel Camp에 자발적으로 참여 했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준 'open mind', '의지',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우리·그들에게 있었기에 11일간의 짧으면서도 길었던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서로에게 정을 느끼고, 내년의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질 때는 눈물이 흐르고, 한국에 귀국 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케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심리학과B (홍콩팀) · Hong Kong adventist college 학생들,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11일간의 시간이 단순히 사회적·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그동안 제 자신에게 가졌던 시각을 새로이 바라보게 해 주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해 주는 경험 이 되었습니다.

학생자치기구연합팀

팀 명	학생자치기구연합팀	주최학과/부서	학생지원팀
지도교수	이석민	학생대표	전훈
봉사국가 (지역, 기관)	캄보디아(푸삿지역, ADRA)	활동기간	2012.7.15 ~ 7.25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4명, 기타 : 2명(학생처직원)		
협력및 후원기관	ADRA 캄보디아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노력봉사, 교육봉사	봉사대상자	농촌지역 주민, 어린이교육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석민	물리치료		지도교수	대원6	한은구	영어영문	2	노력봉사
지도교수	김현호	학생처		학생관리	대원7	이승재	화학	3	노력봉사
지도교수	류재권	학생처		학생관리	대원8	김주일	기초의학	2	노력봉사
학생대표	전훈	생체	4	대장	대원9	이태구	동물자원	3	노력봉사
대원1	김병근	컴퓨터	4	부대장	대원0	윤정원	보건관리	4	활동기록
대원2	강호균	사회복지	4	총무	대원1	장현숙	영어영문	4	노력봉사
대원3	윤호성	컴퓨터	4	노력봉사	대원2	이승현	원예	3	노력봉사
대원4	류다은	유아교육	2	활동기록	대원3	김성주	생활체육	3	노력봉사
대원5	임수현	영미어문	1	노력봉사	대원4	김민준	생활체육	1	노력봉사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사전교육	7/16	프놈펜	- ADRA Cambodia 사무실에서 봉사지역 및 봉사내용 등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교단의 캄보디아 봉사 역사 및 현황과 봉사지역의 상황에 대한 사전인지로 마음을 준비함	대원: 18명 관계자 : 6명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2	노력봉사	7/17 ~ 7/20	푸샷	- 화장실정화조매립 : 농촌지역 가정 뒤뜰에 구덩이(지름1m, 깊이2m)를 파고 시멘트 정화조 4개를 매설하는 작업 : 2개조로 나누어 1일 2가정 매립작업 실시	지역의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굴삭장비가 불가하여 대원들이 모두 삽으로 작업했으므로 힘든 작업이 었음	대원: 18명 지역주민: 10명
3	노력봉사	7/19	푸샷	- 농가주택 건축지원 : 집의 기초 및 외골격을 세우는 작업으로 목조주택을 건축함 : 목조주택은 기초는 시멘트, 골격을 나무로 바닥에 목조골격을 다 맞추고 이를 기초 위에 세워 었는 구조임.	집 한 채를 완전 건축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지만 새로운 건축방식에 흥미로웠으며, 여러명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점이 의미있음	대원 18명 지역주민 20명
4	문화봉사	7/19	푸샷	- 한국음식 소개 : 한국의 '닭볶음탕' 과 '라면'을 대원들이 직접 조리하여 지역주민과 음식문화를 나눔	서로 다른 음식문화에 대해 경험하고 서로의 음식을 먹으므로 교감이 가능한 기회였음.	대원 18명 지역주민: 20명
5	교육봉사	7/21	푸샷	- 리코더 연주 : 안식일 오후 교회어린이들에게 리코더 연주와 노래를 가르침	음악수업이 없거나 악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연주법을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대원 18명 어린이: 30명
6	문화봉사	7/22	푸샷	- 체육대회 및 전통놀이 : '김준수 후원학교'에서 학교아이들과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닭싸움, 풍선릴레이 등의 한국놀이문화 등을 함께함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밝은 모습에 상호교감이 컸던 순서였음	대원 18명 어린이: 10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종음 1	인종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대원들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 총평가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원활한 봉사대 진행과 학생생활의 안정적 인솔	학생대표 역할	학생의견 조율과 생활면에서의 사전교육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임
학생대원 소양	적극적인 봉사 참여와 긍정적인 생활로 친밀도가 높음	현지반응	ADRA 캄보디아 측과 현지주민들의 관심과 봉사대원들에 대한 배려심이 높음
숙식 및 생활여건	숙박시설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곳이었으며 학생들에게 불편한점은 없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봉사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안전사고의 염려가 적어 봉사에 전념할 수 있었음
잘된점	땀의 결실로 계획된 시설들을 대부분 이룰 수 있었음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의사 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개선(보완) 사항	노력봉사를 주로 하였으나 교육 및 문화봉사의 보람이 더 크게 느껴졌으며 이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총평	전반적으로 노력의 땀과 긍정적 관계형성이 잘 어우러진 봉사대였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15	오전		7/20	오전	농촌가정 정화조 매설
	오후	6시 인천공항 출발		오후	지역학교 운동장 평탄작업
7/16	오전	ADRA 캄보디아 교육	7/21	오전	푸삿지역 교회 예배참석
	오후	캄보디아 역사 교육		오후	어린이 리코더 연주 교육
7/17	오전	농촌가정 정화조 매설	7/22	오전	한국전통놀이 체험 및 체육대회
	오후	농촌가정 정화조 매설		오후	(지역학교 어린이 대상)
7/18	오전	농촌가정 정화조 매설	7/23	오전	캄보디아 역사현장 탐방
	오후	농촌가정 정화조 매설		오후	캄보디아 문화 탐방
7/19	오전	주택건축 기초공사 지원	7/24	오전	봉사대 평가회 및 마무리
	오후	지역주민 한국음식 체험		오후	씨안립 공항 출발

학생자치기구 연합팀



▶ 평화조미션을 위한 글작



▶ 농촌거평어린이친교



▶ 농가목조주택기초및골격건축



▶ '김준수' 후원학교 재북향+



▶ 평화조 배설



▶ '김준수' 후원학교 문동강평탄작업



▶ '이현광'출발



▶ 폭삭



▶ 리코더연주 교육



▶ '김준수' 후원학교 체육행사



▶ '김준수' 후원학교 체육행사



▶ '김준수' 후원학교 체육행사



학생지원처 류재번

지도 교수
소감문

올해 7월은 뜨겁고 힘든...그러나 보람이 있는 7월이었다. 삼육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 임원 15명과 캄보디아 푸삿 지역에서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때문이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큰 기대감은 갖지 못했다. 단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도움을 주러 간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우리의 봉사 프로그램은 아드라 캄보디아와 함께 크게 노력봉사(화장실 정화조 매설, 농촌 목조주택 기초 및 골격 건축)와 교육봉사(리코더 연주교육, 고무동력기 제작), 문화봉사(한국전통놀이 체험, 체육행사, 한국음식 체험), 레크레이션으로 구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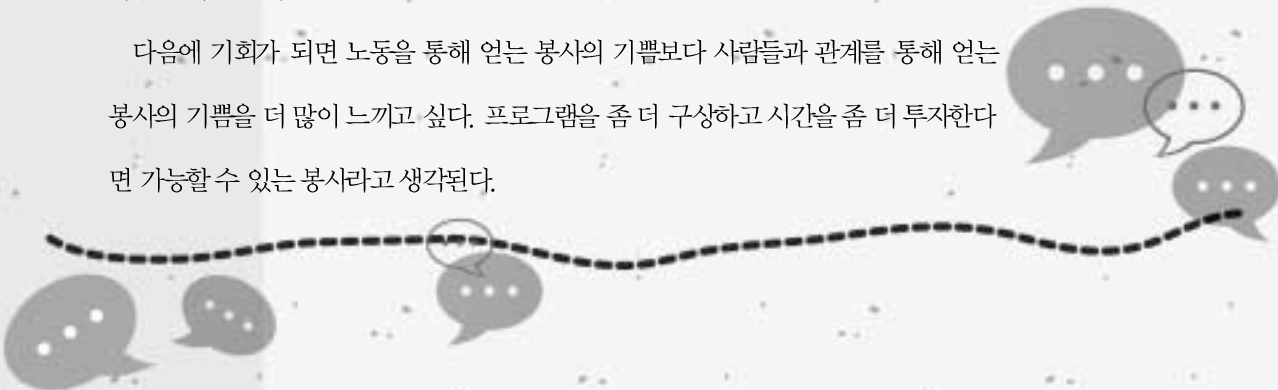
현지에 도착해서 봉사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에 임하였고 여러 가지 염려했던 것을 깨고 기대 이상으로 잘 해 주었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씻지 못한 현지인들을 웃음과 친절로 대하는 봉사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번의 감동과 배움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어른스럽게 스스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봉사가 끝나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또 한번 놀랐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번 봉사대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갖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 것,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한국에 돌아가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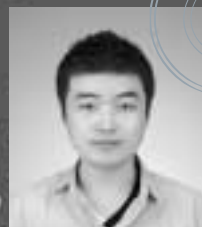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내가 뭔가 도움을 주러 간다는 생각을 한 봉사대는 모든 봉사 일정이 마친 뒤 그것이 잘못될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나보다 더 풍요를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순수함과 진실한 모습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봉사를 마치고 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나 또한 이번 봉사대를 배우고 얻으려고 간 봉사대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노동을 통해 얻는 봉사의 기쁨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얻는 봉사의 기쁨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 프로그램을 좀 더 구상하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된다.



삼육대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더욱 많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므로 사랑에 대해 더 알아가고 인생의 행복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강호균 | 사회복지학과 4학년
노력봉사, 교육봉사

대원
소감문

“마지막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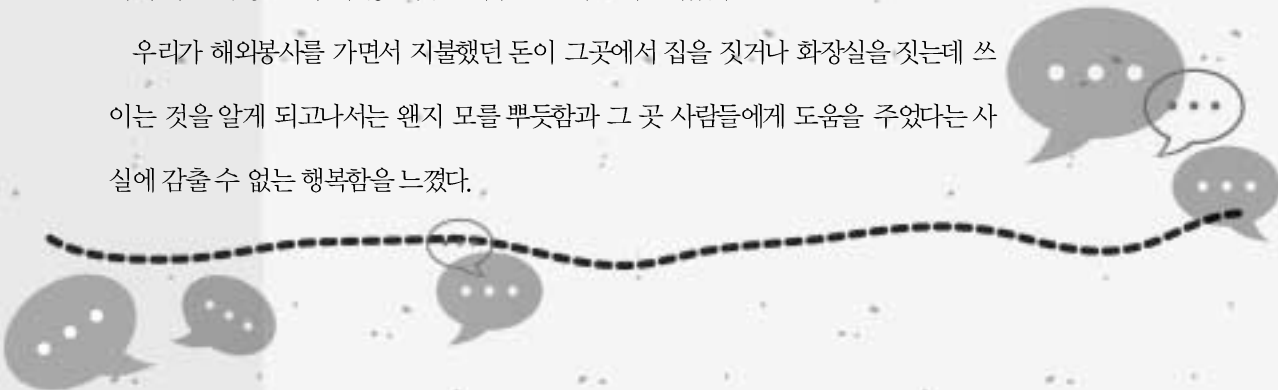
어느덧 대학생활을 마무리해가는 4학년이 되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세운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였던 해외봉사활동을 대학생활에서의 마지막 기회인 이번 여름방학에 자치기구연합팀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 학교 측의 지원으로 인해 캄보디아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총학생회, 학회연합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 이번 자치기구연합팀은 학생들의 대표인만큼 “의지”가 넘쳐났다.

7월15일 어느덧 출발당일이 되었다. 설렘과 걱정만큼이나 우리의 짐은 무겁기만 하였고, 마침내 캄보디아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해외를 다녀온 적은 있지만 봉사활동을 위해 가는 것은 처음이기에 새로운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의 봉사는 노력봉사와 교육봉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노력봉사는 화장실 정화조를 지어주는 것과 집을 짓는 것이었고, 교육봉사는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알려주고, 글라이더를 만들어주고,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남자대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노력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큰 오산이었다. 찌는 듯한 더위와 구름한 점 없는 하늘이 봉사를 하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다. 아침에 준비해간 그 많던 물은 점심쯤이면 동나

기 일쑤였고, 땅마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대원들의 손에는 동전크기만한 물집이 생겨 있었다. 하지만 대원들은 누구하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아파도 내색을 하지 않으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곡괭이와 삽을 집어 들고는 다시 구두이로 들어갔다. 교육봉사를 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항상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보이는 대원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고 참으로 고마웠다. 비록 내가 봉사대장은 아니었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해외봉사를 가면서 지불했던 돈이 그곳에서 집을 짓거나 화장실을 짓는데 쓰이는 것을 알게 되고나서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그 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출 수 없는 행복함을 느꼈다.



기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캄보디아에서의 11일, 이 종이 한 장에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들의 눈 속에서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찾으려 했던 내가 부끄럽다. ‘행복함’은 순간 지나가는 감정이라 불안하지만, ‘편안함’은 알맞은 온도의 목욕물에 들어앉아있는 것처럼 느긋하고 기분 좋은 거라는 말이 생각난다. 내가 캄보디아에서 느낀 감정은 아마도 ‘편안함’이었던 것 같다.



이승현 | 원예학과3학년
노력·교육봉사충무

대원
소감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IN 푸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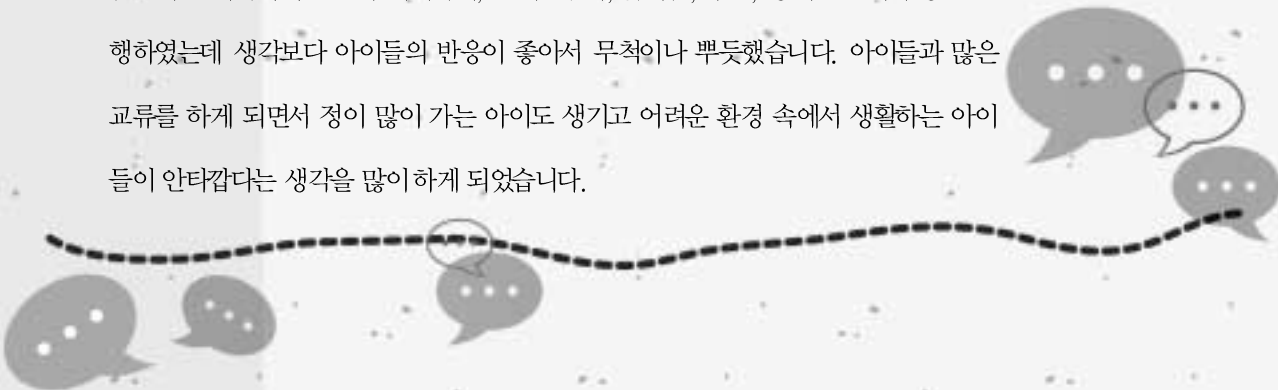
국내에서조차 봉사활동을 자주하지 않았던 저에게 학회장 친구들의 권유로 해외봉사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봉사를 하리간다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좀 더 넓은 곳을 경험해보자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먼저 캄보디아라는 한 국가의 아픈 역사 킬링필드를 방문하고 아드라 캄보디아 단체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 알게 되니 왜 캄보디아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아준수 후원 학교가 있는 ‘푸샷’이라는 마을로 들어가 노력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자치기구연합팀이 하게 된 봉사는 집을 방문하여 그 집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화장실 정화조가 들어갈 수 있는 2m 정도 깊이 여유의 땅을 파는 작업이었습니다. 정화조 작업을 위해 우리 봉사대원들은 삼일동안 설 새 없이 삽질을 하였습니다. 삽질을 하면서 여자 대원들은 각 집의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려주고 장난도 쳐주며 봉사를 해나갔습니다. 사일이 되는 날에는 오전에 집짓기 작업에 참여하여 목조 건물을 세우고 오후에는 시아준수

후원 학교에 방문하여 운동장 평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대원들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 다리에는 모기에 물린 자국과 상처들이 생겼지만 아픈 티도 내지 않고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며 봉사대원들 간의 우정도 더욱 짙어진 것 같습니다.

노력봉사가 끝나고 이틀 동안은 교육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력봉사 때는 현지인들과 많이 만날 시간이 없었지만 교육봉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주고, 함께 글라이더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체육대회를 열어 제기차기, 단체줄넘기, 닭싸움, 투호, 장애물 달리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정이 많이 가는 아이도 생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력봉사로 아무생각 없이 정화조를 만들 때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땀으로 이루어낸 비록 작은 변화로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노력봉사 또한 더욱 보람찬 봉사활동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작은 일들을 함께 즐기고 도와주는 것 뿐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은 현지인들 또한 웃으며 우리 대원들을 반겨주고 여러 가지 과일도 손수 권해주는 모습과 노력봉사 기간 동안 함께 일을 해주던 모습들이 저희 모든 봉사대원 가슴에 남아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꼭 봉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함께 봉사를 왔던 친구들과 우리의 봉사대 추억이 담긴 '푸삿'이라는 마을

에 들려 저희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짧으면 짧다 생각할 수 있고 길다하면 길다 생각할 수 있는 열흘 동안의 기억들이 아직도 아련히 제 마음 속에 간직되어 이번 방학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들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자'가 아닌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나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많은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를 함께 가자고 추천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캄보디아의 현지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저희 자치기구연합 봉사대팀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영+기초+음악

팀 명	경영+기초+음악	주최학과/부서	경영학과
지도교수	이상업, 임봉순, 조광현	학생대표	류주이, 명석한
봉사국가 (지역, 기관)	캄보디아	활동기간	2012.6.17 ~ 6.26
파견인원	지도교수 : 3명, 대장 : 2명, 대원 : 36명, 기타 : 1명 총 42명		
협력및 후원기관	캄보디아 씨엠립 Kteing Primary School	주소/연락처	N0.58, smeak Village, semay Commune, Siem Reap city, SemReap province Cambodia
봉사영역	교육봉사, 의료봉사	봉사대상자	초등학생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상업	식영		대원지도	대원9	신호용	음악	1	음악교실
지도교수	임봉순	음악		대원지도	대원20	심 지	음악	4	음악교실
지도교수	조광현	경영		대원지도	대원21	심은영	건축	4	미술교실
학생대표	류주이	경영	4	대장	대원22	안수정	일어	3	총무서기
학생대표	명석한	음악	4	대장	대원23	안유진	건축	4	미술교실
대원3	강나경	간호	3	무료진료	대원24	양다혜	화학	3	종이접기
대원4	강현주	기초	1	위생교육	대원25	윤종은	음악	2	음악교실
대원5	고다연	화학	3	한글교실	대원26	이경희	건축	4	총무서기
대원6	김 선	화학	3	종교	대원27	이승주	식영	1	건강교실
대원7	김겨레	간호	3	무료진료	대원8	이주현	건축	4	미술교실
대원8	김경하	간호	3	무료진료	대원29	이한솔	음악	4	음악교실
대원9	김다희	간호	3	무료진료	대원30	정겨운	음악	2	종교
대원10	김중혁	건축	3	미술교실	대원31	정주은	식영	1	건강교실
대원11	김호선	화학	3	촬영	대원32	조명주	식영	1	건강교실
대원12	박성호	음악	4	촬영	대원33	조한나	기초	1	위생교육
대원13	박한솔	음악	1	음악교실	대원34	채영지	건축	4	미술교실
대원14	박혜인	일어	3	한글교실	대원35	홍승기	경영	2	태권도교실
대원15	박홍열	화학	4	한글교실	대원36	홍희진	화학	3	종이접기
대원16	서무성	경영	2	태권도교실	대원37	황은하	경영	4	태권도교실
대원17	송현규	기초	1	위생교육	대원38	황혜민	음악	1	음악교실
대원18	신민철	음악	4	음악교실	대원39	전제식	일반	의사	무료진료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①한글교실 ②미술교실 ③종이접기 ④음악교실 ⑤태권도 ⑥위생교육 ⑦무료진료	6/18 ~ 6/22	초등 학교	①노트를 나누어 주고 학습실시 ②도구를 나누고 주고 그림제작 ③색종이를 배분하고 일인지도 ④악기를 배분하고 개별지도 ⑤전원 참여 기본자세 습득 ⑥그룹별 치아 및 위생교육 실시 ⑦일반 및 학생 다양한 진료실시	참여한 초등학생 에게 준비한 각종 물건들을 배분하 한 후 개별지도하 였는데 무료진료 와 더불어 좋은 반응이 좋았다.	대원 38명 어린이 100명
2	문화행사	6/23	호텔	음악과 교수 및 학생들이 준 비한 다양한 곡을 캄보디아 교민들 및 유지들과 봉사대원 들이 함께하여 유익한 교류와 저녁만찬을 했다.	캄보디아 유지들, 교민들, 봉사대원 들 모두 어울려 좋은 분위기였다.	유지 20명 교민 30명 대원 42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통음	인통음	보통	중음	매우중음	활동에 필요한준비물은 빠 짐없이준비됐는가?	1	2	3	4	⑤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⑤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⑤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⑤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⑤
활동영역	평 가					활동영역	평 가						
지도교수 역할	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함					학생대표 역할	역할분담을 일사분란하게 수행함						
학생대원 소양	조식예배를 통하여 철저하게 계몽함					현자반응	국민성 자체가 수동적이라 별 반응이 없음						
숙식 및 생활여건	생활환경이 매우 양호하고 편리함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외국인 왕래가 많아서 치안은 대체로 양호함						
잘된점	대원들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됨					운영평가 및 에로사항	지도교수가 역할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지도함						
개선보완) 사항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총평	봉사활동은 전반적으로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됨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18 (월)	오전	• 봉사지역 현지탐사	6/21 (목)	오전	• 한글교실 • 미술교실 • 종이접기 • 음악교실
	오후	• 한글교실 • 미술교실 • 종이접기 • 음악교실		오후	• 한글교실 • 미술교실 • 종이접기 • 음악교실
6/19 (화)	오전	• 한글교실 • 미술교실 • 종이접기 • 음악교실	6/22 (금)	오전	• 한글교실 • 미술교실 • 종이접기 • 음악교실
	오후	• 태권도 • 위생교육 • 무료진료		오후	마무리
6/20 (수)	오전	• 한글교실 • 미술교실 • 종이접기 • 음악교실			
	오후	• 태권도 • 위생교육 • 무료진료			



경영+기초+음악



▶ 출국수속



▶ 봉사자로 하물량리



▶ 숙소도차및 봉사활동교육



▶ 봉사지역현만남



▶ 종이해피 교실



▶ 참가어린이심상패악



▶ 음악교실



▶ 한글교실



▶ 월동맞 노래지도



▶ 점화게임



▶ 태권도교실대열



▶ 태권도 품새 연습 중



▶ 태권도 품새 게임지도



▶ 음악교실 악기지도



▶ 레코더 연습 중



▶ 봉사지역 환자 문집



▶ 환자 증상 호소



▶ 환자 악취 방



▶ 미술 교실 작품 제작 중



▶ 지아코니 무생교육



▶ 개만 작품 전시



▶ 방과 후 유 배급 중



경영학과 조광현

지도교수
소감문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지인 씨엠립을 지척 간에 두고 있는 낙후된 지역을 정하고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 모집하였다. 참여한 봉사대원들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시기로 결심하신 그분이 화려한 궁전을 뒤로 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외출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헌신적인 봉사의 발자취를 인류에게 남기고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바쁜 학교생활을 하느라 심신이 피곤하여 쉬고 싶어 할 즈음에 이웃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여름에도 변함없이 봉사지역을 찾아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헌신적으로 캄보디아 씨엠립 해외봉사대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겨울방학에 이어서 이번에 여름방학에도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한글교실, 태권도교실, 예술교실, 건강교육, 무료진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문화교류는 학생 스스로가 국제화의 한 일원으로 성숙해 가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젊음의 진정한 가치는 미지의 세계에서 접하는 다양한 경험과 보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역의 역할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상정합니다.

대학들의 해외봉사는 대학생들의 전공 연계 봉사활동을 살려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며,

해외 대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봉사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글교실, 태권도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건강교실, 위생교육 등의 9개 학과 전공의 특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교육 중심의 봉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무료봉사 등을 실시하여 봉사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봉사가 지속적으로 발전 및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의 향후 과제이다. 앞으로 봉사활동은 단편적인 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면서 계승 및 발전시켜 봉사지역의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형봉사, 무료진료 등은 봉사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립에 필요한 부문을 개발하여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기 봉사프로젝트를 설정한 지역은 모범 봉사활동 사례지역으로 구축하여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봉사이며, 또한 체계화된 봉사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서형식으로 규범화하고 전수하는 운동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류주이 | 경영학과 4학년
태권도 팀

학생대표 소감문

“캄보디아의 햇살보다 더 따뜻했던 아이들의 미소”

1학기 중에 학교다니면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돌봐주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마침 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번 캄보디아 봉사라니 가기 전부터 설렘을 갖고 있었다.

처음 학교를 도착했을 때 학교의 규모와 인원들을 보고 너무 규모가 작아 조금 낯설었다. 더군다나 위치도 마치 숲 속 깊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다.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짧은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우리학과 교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준비해 놓으신 게임을 하면서 대원들과 카팅 학교 학생들과 잠시나마 살로 스쳐가며 교류를 했다. 우리는 태권도 팀이었는데 점심시간 전까지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과목이라 다른 수업에 투입되어 대원들 수업진행을 도왔다. 한글 수업에 있었는데 학생 친구들이 쑥스러움이 많은지라 한 번에 따라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세 책상씩 애들이 따라하게끔 앞에서 한글 팀 대원과 울동을 하고, 일부러 웃기게끔 동작과 표정을 오버스럽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조금 웃다가 슬슬 따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학생들이 쑥스러움이 많다는 걸 느꼈다. 무엇보다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캄보디아어를 구사할 줄 몰라 한국말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매끄럽지 못

한 진행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만약 학생 입장에서 낯선 외국인이 우리 학급에 들어와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면 나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최대한 씨엔립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보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다.

점심시간 전 드디어 태권도 시간이다. 우리 몇 번 모여 연습한 결과 애들에게 태극 1장과 2장을 가르쳐주려 했으나 태권도 팀 대원들도 이미 다른 수업을 도와주고 난 후 첫 수업이라, 대충 친구들의 숙스러움을 보자니 못 따라올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태권도는 진지하고 절제 있는, 약간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많은데, 태권도 팀 승기의 구호에 따라 아이들은 울동한 동작 배운 듯이 신나게 찌르고 신나게 발차기를 한 것이었다. 진지함은 가르쳐 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신나게 우릴 따

라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았다. 그리고 우리 4일간 각각 다른 느낌의 찌르기, 발차기를 알려주고 잘한 학생들 몇 명 뽑아 앞에서 시켰다.

씨엔립 친구들은 웃음이 따뜻하다. 그리고 정도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봉사대 대원으로서가 아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싶었다. 열심히 아이들과 눈빛 웃음을 나누며 수업하는 중에 한 여학생이 앞에 있었는데 슬리퍼 사이로 보였던 상처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제일 좋아했던 물하는 그날따라 나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 계속 쳐다보기만 하더니 내가 버스에서 창문으로 계속 인사할 때까지 머뭇머뭇 얼굴은 나를 쳐다보고 뒤로 돌아가고 있었다. 끝내 물하는 나의 100번 손짓에 인사를 해줬는데 그때 서야 물하가 내 마지막 날인걸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4일의 봉사시간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짧아 아쉽고 몰하에게도 무언가 남겨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맘이 아팠었다.

한국 온 지금 핸드폰엔

아집도 몰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 4일 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4일이 지난 후의 아이들의 애매모한 기분을 생각하자니 너무 미안하
다. 앞으로 또 해외봉사기회가 생긴다면 위생교육에 비중을 두고 학교시설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경연 | 건축학과4학년
미술교실지도

대원
소감문

“한 여름 밤의 꿈”

현재 나는 건축을 전공하고 있다. 우리과는 5년제라 타과 학생들보다는 학생으로서의 시간도 길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도, 누리고 싶은 생각도 없이 학과 공부에만 쫓겨 여유 없이 종종걸음으로 대학생활을 보내왔다. 그래서 작년 1년! 지난 3년 동안 너무 지친 나는 갑작스럽게 학교를 1년 휴학하고, 외국에서 어학연수와 여행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하였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다시 복학한 학교는 나를 다시 바쁘게만 만들고,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것이 해외봉사활동이었다. 예전부터 막연히 해외봉사활동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방학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신청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활에 해외봉사도 하고,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보자!’ 하며 마음을 맞춰 6명에서 신청하게 되었다. 해외봉사활동은 내게 단비 같은 의미였다. 매일 밤을 새며, 우리는 출국하는 날을 디데이로 하루하루 지우며 버텨나갔고, 결국 과제는 출국하는 날 오전까지 우리를 잡아두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교수님께 결과물을 이메일로 보내고 부랴부랴 짐을 싸고, 공항버스에 몸을 실었다. 38명

의 봉사대원들과 교수님들, 의사선생님. 결코 적지 않은 인원하였고, 대원들은 같은 과 친구들끼리 많이 왔기 때문에 공항에서도 서로 무리지어 비행시간을 기다렸다.

어색한 첫 비행을 끝내고 비행기에서 내리자 습한 기운이 몰려오는 캄보디아 씨엔립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정말 좋으셨던 목사님을 만났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원래의 예정으로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캄보디아 국경일과 겹쳐서 우리는 앙코르와트로 향했다.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 앙코르와트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역시나 앙코르와트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멋졌고, 우리는 다음날 봉사준비를 하며 두 번째 날 저녁을 맞이했다.

우리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가면 만들기를 계획했다. 그래서 밤늦도록 가면 베이스를 만드느라, 잠은 오고 힘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크테잉 초등학교로 향했

다. 학교를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정말 우리나라가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2시간 가까이 가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잠이 와서 나도 모르게 잠은 쏟아지고, 머리는 쿵쿵 창문에 박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은 여기 뺨 저기 뺨!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정말 작은 학교였다. 교실 두 개에 정말 작은 운동장. 처음 그 광경을 보고 흠칫 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아장아장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60-70명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를 말뚱말뚱 쳐다보았다. 우리도, 아이들도 낯선 시간이었다.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차렷! 열중 쉬어! 느낌의 단어를 소리치니 아이들이 단체로 움직이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그리고는 4줄로 서서 각각의 교실로 움직였다. 미술교실, 음악교실, 한글교실, 종이접기 교실! 대체로 우

리가 맡은 미술교실은 5-8살의 어린 아이들이었다. 우리가 미리 그려간 가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그려보자 하며 크레파스를 열어주었는데, 크레파스를 처음 보는지 어색한 손짓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하다 손에 크레파스를 쥐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색을 칠하니 곧 잘 따라하였다.

캠보디아어로 [츠 무어 어워이]가 이름을 묻는 표현인데, 그렇게 이름을 물어보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한글로 써서 이름표를 목에 걸어주었다. 우리는 야외교실이라 모래 바닥에서 그리고, 햇빛에 쭈그러 그리는데, 캄스레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1시간 정도가 흐르니 가면들이 대충 완성이 되어서 씌어주고 사진도 찍어주었다. 가면 만들기를 하며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이란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아이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보다는 따라 그리기만을 반복하는 모습이 슬펐다. 우리

나라의 포레 아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다들 그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자라나는데, 이 학교의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참 맘이 애잔했다. 순서를 마치고 함께 태권도를 하고준비했던 빵을 선물하고는 우리는 첫날 봉사일정을 마쳤다.

오랜 시간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모두들 녹초가

되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다함께 반성의 시간과 내일 일정에 대한 회의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둘째 날이 밝았다. 역시 두 번째라 그런지 초등학교를 향하는 길은 첫날보다는 수월했다. 전날 미술교실을 맡은 우리는 책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실내 교실로 들어갔다. 첫날 가면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



해서 둘째 날의 프로그램은 좀 더 단순한 데칼코마나를 하기로 하였다. 물감이라는 새로운 재료도 접하게 해주고 싶었다. 과정이 단순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훨씬 잘 따라와 주었다. 자기들끼리 여러 모양을 만들어 해보고 비교해보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전날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정말 뿌듯하였다. 아이들이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할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와 닿았다.

그렇게 둘째 날을 마치고 우리는 숙소에 돌아와서 큰 과제를 맞이했다. 세 번째 날의 프로그램은 단체그림그리기이다. 전체의 큰 그림을 아이들 각각이 나눠 색을 칠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을 하는 계획이었는데,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우리는 한참을 고민하였다. 산? 학교?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는 아이들 눈에서 보기로 하였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

속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큰 고래, 불가사리 등을 밑그림으로 그려서 다음날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색으로 예쁘게 색을 칠해 주었다. 아이들의 그림을 다 겹쳐서 전체의 조각을 맞추니 정말 우와 할 정도로 예쁜 바다 속 풍경이 완성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 부분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며 알려주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맘이 기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마지막 날은 페이스페인팅! 교수님이 준비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 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 축제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이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었다. 마치 축제처럼!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아이들도 얼굴에도 그려 달라고 손에도 그려 달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



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 더 친해져 준비한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 너무너무 뿌듯했다. 그렇게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봉사를 마무리했다.

중간 중간 기부해주신 옷들을 아이들에게 갈아입히며 깔끔해진 아이들을 보며 행복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다. 몸 이곳저곳 상처도 많았고, 신발을 신지 않아 발에 상처도 많았고, 안쓰러운 것 투성이었다. 솔직히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편이다. 길에 있는데 아이들이 다가와 말이라도 걸거나 잡기라도 하면 몸이 긴장되고, 어색한 웃음만 짓게 되는 편인데,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걸까? 아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예뻐다. 물론 냄새도 나고 썩은 이도 보고! 처음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봉사를 마치고 오면 어쨌든 내 옷에도

아이들의 냄새가 베어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봉사를 했던 기간이 정말 짧았다. 길었다면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귀찮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았던 기간만큼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내방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내가 정말 캄보디아를 갔다 온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든다.

10일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임은 알지만 그래도 평생 내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다. 함께 봉사한 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도 아쉽고,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을 못 준 것도 아쉽고...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처음 참여해보았던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마친다. 함께 봉사했던 대원들, 교수님들, 목사님가족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



정주은 | 식품영양학과 1학년
종이접기교실/가르치기

대원
소감문

“캄보디아 해외봉사 보고서”

처음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대학생이 되면 해외봉사를 꼭 한 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다.

첫째 날, 학교까지 조그만 한 버스로 갔는데, 길이 너무 험했고, 거의 두 시간 정도가 걸렸다. 또, 산골 같이 보이는 길을 따라 가면서, 캄보디아는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을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에 너무 놀라웠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일 년도 더 입어온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고, 심지어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다수였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같이 생활을 할지 막막했다. 이 학교는 총 2개의 반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교실에서 100m도 채 안 되는 운동장으로 불러 줄을 새웠다.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의 말을 잘 따랐고, 처음에는 우리들을 낯설어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이내 내손을 잡고는 해맑게 웃어보였다. 그렇게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며 놀고, 종이 접기 교실 담당인 나는 종이접기를 할 아이들을 데려가 앉혔다. 이 날 알려줄 종이접기는 바람개비였다. 수수깡을 이용하여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보여줬

더니 아이들 모두가 호기심가득한 눈으로 잘 따라 주었다. 아이들이 바람개비를 갖고 노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각각의 교실이 끝나고 단체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고, 매우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아이들에게 빵 안에 야채샐러드를 넣은 것을 나눠주었는데, 아이들이 처음 먹는 음식임에도 너무나 두있게 먹는 모습에 잘 준비한 것 같아 뿌듯했다.

둘째 날에는 아이와 한쪽 발을 묶고 손을 잡고 발맞춰 걸어서 아이를 안아서 풍선을 터뜨린 뒤 다시 돌아오는 놀이를 하였다. 이 놀이는 아이들과 우리의 거리감을 더욱 좁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날의 종이접기는 팔찌 만들기를 하였다. 색종이를 길게 잘라서 끝부분을 풀에 문혀서 동그랗게 연결을 한 뒤 하나하나 엮어서 팔찌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과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내가 만드는 것을 보고 잘 따라해 줘서 너무나

무 고마웠고, 팔찌를 보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했다. 종이접기를 다 마치고 우리들은 학교에서 준비한 옷들을 하나하나 갈아입혀 주었다. 옷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못 갈아입힌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교실을 하고 빵을 나눠주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위생교실을 했는데, 칫솔과 치약을 한 개씩 나눠주고 이 닦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 아이들은 이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는 거의 새까맣거나 지저분했다. 아이들은 칫솔을 보고도 어떤 용도인지 모르는 듯했다. 위생교실 선생님들이 칫솔에 치약을 짜주고, 앞에서 양치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더니 곧바로 따라했다. 이렇게 위생교실이 끝나고, 종이접기 시간에는 톨립 꽃 만들기를 하였다. 색종이로 톨립과 잎 2개를 접고, 수수깡에 칼집을 내서 꽃과 잎을

꽃는 것이다. 칼을 이용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칼집은 선생님들이 내주기로 했다. 튕립 꽃을 접는 법을 알려주었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바로바로 따라해 줘서 너무 뿌듯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교실을 하고 빵을 나눠주었다.

마지막 날에는 곧바로 종이접기교실을 했다. 마지막 날에는 딱지를 접어서 아이들 모두와 선생님 모두와 다 같이 딱지치기를 했다. 아이들이 총 네 번 중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같아보였다.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마지막까지 내가 맡은 종이접기 교실을 잘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았다. 이렇게 각각의 교실이 모두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다. 각 교실마다 함께 한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각 교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생교실, 음악교실, 종이접기교실, 그리기교실, 한글교실 총 다섯 가지 교실의 발표회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빵을 나눠준 뒤 무사히 봉사를 끝마쳤

다.

이 봉사를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웠는데, 막상 아이들을 보니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서 쉽게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40도인 나라에서 봉사를 하게 돼서 너무 막막했는데, 더위를 잊을 만큼 아이들이 너무 순수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몸을 써가며 의사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니 아이들도 몸으로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해서 의사소통에 문제는 크게 없었고, 다른 나라에 살지만 결국 모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학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



황은아 | 경영학과 4학년
태권도교실

대원
소감문

“맑은 아이들과 함께한 맑았던 4일”

첫 날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학교로 가면서, 버스 밖의 주변 환경을 보고 정말 낙후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학교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게임을 하려고 했지만, 낯설기 만한 우리들이 무서웠던 것인지 여겨져서 우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솔직히 말하자면 씻지 않은 아이들의 냄새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울기까지 해버리자 정말 당황스럽고 어찌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을 마치고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는 태권도 교실을 맡았지만 태권도 교실이 맨 마지막에 전원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다른 교실에 들어가 돕는 작업을 했다. 첫 날에는 한글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듣고 명찰을 달아주는 작업을 한 후, '썩트네' 노래를 가르치고 울동과 함께하는 것을 도왔다.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듯이 우리들의 울동과 노래를 지켜만 보던 아이들이 점점 조금씩 어설픈게나마 따라 해주면 칭찬이 절로 나올 만큼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한글 교실 뒤에 운동장에 모여 태권도 교실을 진행하였는데 첫날은 기본적인 준비자

세와, 찌르기 동작, 발차기 동작들을 가르쳐주었다. 따라 하기 쉽고 단체로 함께해서 그런지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고, 아이들 스스로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 태권도 교실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권도 교실 후에 준비해 온 빵을 나눠주고 함께 먹으며 가장 힘들었던 첫째 날이 끝났다.

둘째 날부터는 갑자기 많이 수월해진 기분이었다. 하루 봤던 얼굴이라고 아이들이 활짝 웃어주기도 했고 먼저 아는 척도 해주었다. 나 또한 익숙한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봉사단원 한명과 아이 한명이 발을 묶고 함께 달려가서 풍선을 터뜨리고 오는 게임이었다. 아이들이 풍선을 좋아하여 반응이 더더욱 좋았고, 한 명, 한 명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어 친밀감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함께 게임을 마치고 종이접기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이 종이 목걸이를 만드는 활동을 도와주었다. 아이들이 풀이나 색종이를 처음 보는 것인지 옆에서 직접 시범보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잘 따라오지 못해서, 한 명, 한 명 옆에 붙어서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어진 태권도 교실에서는 태극장을 가르쳐보았는데, 첫 날만큼 잘 따라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일부터는 다시 쉽게 교육내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셋째 날에는 게임 대신에 치약과 칫솔을 나눠주고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는 종이접기교실에 들어가서 툴립을 만드는 활동을 도와주었고 태권도 교실에서는 찌르



기와 발차기를 반복하여 학습했다. 목사님의 아이디어와 통역사 분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빼두(2번) 찌르기’, ‘바이두 (3번) 찌르기’를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하며 함께 해주어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수업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함께 공 넘기기 게임을 하고, 태권도 교실을 먼저 진행한 후 미술교실에 가서 페이스페인팅 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봉사일정이 끝났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위생교육이 되어있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수업재료나 나눠주는 물건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던 아이들이지만 욕심이 없었다. 나눠주는 물건 외에는 욕심내서 더 갖고려고 하지 않았고, 공도 참 좋아해서 가지고 놀다가도 우리가 다가가면 선뜻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고는 하였다. 또 자주 먹지 못하는 빵도 우리에게 한입씩 권하고는 하였다. 물론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눈빛이 참 예뻐지만, 그보다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마음씨가 더욱 예뻐다.

봉사활동 후에 배울 점이 더 많았다는 말들이 봉사활동 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런 아이들의 욕심 없는 마음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밝게 웃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았다.

봉사활동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길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일과 중 가장 즐거웠고 짧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덥고 지치는 환경 속에서도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통해 오히려 내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번 봉사를 하면서, 꼭 해외봉사가 아니라도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2012 하계 해외봉사대 보고서

2012년 9월 10일 인쇄

2012년 9월 20일 발행

발 행 삼육대학교

발행인 김상래

편 집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인 쇄 한맥출판사

주 소 139-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전 화 02)3399-3261~5 FAX 02)3399-3266

이메일 service@syu.ac.kr

홈페이지 www.syu.ac.kr/web/service